

2020 청소년상담연구 • 221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책임 연구자 : 손 재 환

공동 연구자 : 김 범 구

한 유 화

김 세 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21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15 / F. (051)662-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833-4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청소년의 가출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각종 비행 및 일탈, 성범죄 등 범죄와 연결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밖 청소년은 대략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등으로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적극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도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나 유관기관, 개인 등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조사되어 종합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 밖 청소년의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쉼터 내 종사자와 입소청소년, 기관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입소 청소년 및 이용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전국 청소년 쉼터 유형별 실태를 통한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및 기관 현황조사를 통한 전문성, 종사자 업무 특성, 시설현황, 청소년관리, 서비스 내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청소년쉼터의 발전 방안과 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국의 청소년쉼터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손재환교수님, 김범구소장님, 그리고 본원의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정책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초 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된 청소년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쉼터 내 종사자와 입소청소년 혹은 이용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청소년쉼터의 발전 방안과 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언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종사자, 입소청소년 혹은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가출 경험 및 쉼터에 대한 욕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 FGI는 10명을 전화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가출 전 상황과 가출 후 상황, 쉼터에서 지내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사자 대상 FGI는 청소년쉼터 소장급 20명을 선정하여 서면 질의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였다. 조사 내용은 사례 발굴의 개선사항, 사례관리에서의 어려운 점과 개선사항, 지역사회 연계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 전체 517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현재 상황 및 가출 경험, 가정 및 사회적 지지 체계, 현재의 경제활동과 향후 진로·취업, 가출 후 신체 및 정신건강, 쉼터 이용 현황이었다. 쉼터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총 646명의 종사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은 종사자 구성 및 전문성, 종사자 업무 특성, 쉼터 업무 만족도 등이었다. 쉼터 기관에 대한 조사는 총 129개 쉼터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시설현황, 청소년관리,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목차

I.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주요 연구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5

- 1. 가출청소년 현황 5
- 2.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6
- 3.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과 서비스 9
- 4. 가출청소년관련 국내 실태조사 연구 16

III. 연구방법 23

- 1. 쉼터 입소 및 이용 청소년 심층면접 23
- 2. 쉼터 종사자 의견 수렴 25
- 3. 설문조사 27

IV. 연구의 결과 29

- 1.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29
- 2. 쉼터 종사자 의견 수렴 결과 42
- 3.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쉼터 기관 현황, 쉼터 종사자 설문 결과 50

V. 결론 및 제언 196

-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96
- 2. 제언 209

참고문헌 | 213

부록 | 214

- 1. 설문지 215
- 2. 청소년쉼터 기관 현황 252

Abstract | 281

표 목차 |

표 1. 지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7
표 2. 지역별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현황	8
표 3. 청소년쉼터의 유형	9
표 4.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유형	11
표 5. 일시 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12
표 6. 단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13
표 7. 중장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14
표 8.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23
표 9. 쉼터 이용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24
표 10. 쉼터 종사자 인구학적 배경	25
표 11. 쉼터 이용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26
표 12. 가출 전 상황(가출 이유) 범주 및 개념	29
표 13. 가출 후 지낸 곳 범주와 개념	31
표 14. 가출 후 비행 및 범죄 가·피해 경험 범주 및 개념	34
표 15. 쉼터를 찾아온 경위 범주 및 개념	35
표 16. 쉼터에서 도움받은 점 범주 및 개념	37
표 17. 쉼터 개선 점 범주 및 개념	40
표 18. 쉼터 이용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및 개선 방안	43
표 19.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및 개선방안 범주 및 개념	44
표 20. 쉼터 이용 청소년들을 위해 강화해야할 서비스 및 개선해야할 서비스 범주 및 개념	45
표 21. 사례관리의 어려움과 개선점 범주 및 개념	46
표 22.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점과 개선점 범주 및 개념	47
표 23.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47
표 24. 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범주 및 개념	48
표 25. 청소년안전망 등 지역 내 서비스 연계의 애로점과 개선사항 범주 및 개념	49
표 26.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의견 범주 및 개념	49
표 2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빈도(%)와 평균 연령	50
표 2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학업상황	51
표 2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재학중인 학교	52
표 3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비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상태	53
표 3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준비중인 검정고시 유형	54

표 3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종 학업상태	55
표 3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연령과 최장 가출기간	56
표 3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이유	57
표 3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	59
표 3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후에 처음 생긴 경험	61
표 3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중 보호처분 판결 경험	63
표 3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기간 중 가장 도움 되었던 사람	64
표 3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후 하룻밤 이상 생활한 곳	66
표 4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 경험	68
표 4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 이유	69
표 4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장 노숙기간	70
표 4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중에 경험한 위험 상황	71
표 4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중에 끼니를 해결한 방법	73
표 4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생활을 그만 둔 방법	74
표 4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경험	75
표 4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합류 경로	76
표 48. 가출팸 생활 기간	77
표 4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구성원	78
표 5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내 성인 유무	79
표 5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내 성인의 연령대	80
표 5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생활 중 경험한 피해	81
표 5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을 나온 이유	82
표 5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전 가족형태	84
표 5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전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	86
표 5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고민이나 어려움 상담 대상	88
표 5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생활비 해결 방법	90
표 5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92
표 5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일 수, 시간 및 시급	94
표 6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할 때 힘들었던 점	95
표 6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중 고용관계에서 당한 부당한 경험	97
표 6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저축 여부	99
표 6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빚 유무	100
표 6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신용불량 상태	101
표 6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과거 신용불량 상태	102
표 6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	103
표 6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도움 된 정도	104
표 6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안(못)한 이유	105
표 6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내용	107
표 7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퇴소 후 가정 복귀 계획	108
표 7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정 미복귀 이유	109
표 7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정 미복귀시 돌아갈 곳	111
표 7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미래 준비	113
표 7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이후 건강검진 경험	114
표 7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질병	115
표 7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	117
표 7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	118
표 7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성범죄 피해 경험	120
표 7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성범죄 피해 내용	121
표 8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	122
표 8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123
표 8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빈도	124
표 8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로 인한 전문기관 치료 경험	125
표 8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 경험	126
표 8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로 인한 전문기관의 치료 경험	127
표 8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자살 또는 자해 시도 이유	128
표 8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청소년 쉼터 이용 현황	129
표 8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후 쉼터 이용까지 소요된 기간	130
표 8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청소년 쉼터 이용 계기	131
표 90. 성별, 지역에 따른 이전 쉼터 퇴소이유	133
표 91. 성별, 지역에 따른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던 이유	134
표 92. 성별, 지역에 따른 현재 생활하는 쉼터 생활기간	135
표 93. 성별, 지역에 따른 쉼터 이용의 가장 큰 이유	136
표 9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족과의 연락 빈도	137
표 9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일시쉼터 서비스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139

표 96. 성별, 지역에 따른 쉼터 프로그램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140
표 97. 성별, 지역에 따른 쉼터 이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점	141
표 9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일시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142
표 99. 성별, 지역에 따른 현재 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	143
표 100. 성별, 지역에 따른 추후 청소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	145
표 101. 설문 참여 쉼터 현황	147
표 102. 쉼터 정규직 직원의 임금 급여 체계	151
표 103. 정규직 퇴사율	151
표 104. 청소년 1인 1식 평균 급량비	152
표 105. 청소년 1인 간식비	153
표 106.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입소자 현황표	154
표 107. 초중고 연령 입소자 중 재학생 수 현황 표	154
표 108. 입소거부 비율	155
표 109. 보호기간 연장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156
표 110. 중점 프로그램 순위 결과	156
표 111. 유관기관 간 협조 필요성과 협조 정도	157
표 112. 쉼터 홍보 수단	158
표 113. 필수연계 기관 협력 시 장애요인	159
표 11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조사 대상자 수(%)와 평균 연령	160
표 11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종학력	161
표 11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직위	162
표 11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근로형태	163
표 11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근로계약서상 직종	164
표 11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실제 수행업무	166
표 12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근무 경력	167
표 12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자격증	168
표 12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연봉 평균	169
표 12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실제 평균 근로시간	170
표 12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종사자 평가 및 인사제도, 복지에 대한 만족도	171
표 12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 종사하면서 힘든 점	172
표 12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소속 쉼터의 지역사회 인지도	174
표 12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업무만족도 평균	175
표 12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청소년들의 입소전 생활지	176
표 12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	179
표 13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원가족 형태	181

표 13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원가족 어려움	183
표 13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185
표 13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질환	187
표 13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	189
표 13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 ..	191
표 13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193
표 13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이용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	194

그림 목차 |

그림 1.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내용	15
-----------------------------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가출은 비행의 주요 문제 영역으로 청소년통계(여성가족부, 2019)에 의하면 연간 청소년가출 경험률이 2.5%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가출 인원 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가출은 부모 등의 보호자 허락 없이 하루 이상 가정 밖으로 나가 연락을 끊는 행동으로 그 자체로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 가출로 나 타나는 어려움은 배회, 노숙, 가출패밀리 등 위험한 생활환경, 여러 폭력 환경에 노출, 성매매 혹은 성 착취, 학업중단 및 취업 문제 등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즉 청소년 가출 은 심각한 비행과 일탈, 범죄로 연결되는 통로(gate-way)가 된다(김지연, 정소연, 2014).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 반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가정 밖의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적극 보 호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역자치 단체에서는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 거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먹을거리와 쉴 곳 등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심리상담 및 학업·자립지원 등 다양한 공적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1992년 최초 개소된 이후 일시쉼터, 중장기쉼터, 이동식 쉼터 등 청소년 들의 이용 여건과 요구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2020년 현재 전 국 134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3만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 으며 이들 청소년이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검정고시 등으로 학업 지속하며, 취업 과 자립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인식의 확대에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청소년쉼터를 기

반으로 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 정책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다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하여 기존의 정책 시스템과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소년쉼터에 대한 현황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가출청소년 또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청소년쉼터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에 의해 사회적 이슈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가출청소년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지만 연구 목적과 조사 내용, 대상, 방법 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가져 장기적 관점의 누적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쉼터 기관 실태 초점을 맞춘 연구(윤형영, 강진구, 2004; 홍봉선, 남미애, 2008), 둘째, 가출청소년의 특정 경험과 정책 초점을 맞춘 연구(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유서구, 김웅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김지연, 정소연, 2014; 김희진, 백혜정, 2018), 셋째, 청소년쉼터, 종사자, 청소년이용자 모두의 실태현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남미애, 홍봉선, 2007; 남미애, 육혜련, 오현자, 서보람, 2010)로 나눌 수 있다. 가출청소년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기관현황 및 종사자에 대한 정보와 근로여건, 이용청소년들의 인구학적 정보 및 가출경험, 이용자 서비스 욕구 등 대상과 조사 내용을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동시에 조사하여 각각의 조사 결과들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종사자-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2007년과 2010년에 실시한 청소년쉼터, 종사자, 입소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구(남미애, 홍봉선, 2007, 남미애 외, 2010)는 가출청소년 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있어 가치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청소년쉼터, 종사자, 입소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실태조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청소년쉼터는 약 80개소에서 134개소로 확대 설치·운영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이동쉼터, 일시고정쉼터, 자립지원관 등 운영형태도 다변화되어 왔다.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 전반이 변화하듯이 가출청소년들의 경험과 욕구 또한 변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종합적인 가출청소년 실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2019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청소년쉼터 현황에 관해 조사하였지만 청소년쉼터와 종사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종합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된 청소년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쉼터 내 종사자와 입소청소년 혹은 이용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청소년쉼터의 발전 방안과 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언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가정 밖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종사자, 입소청소년 혹은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가출 경험 및 쉼터에 대한 욕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쉼터 입소 및 이용 청소년 FGI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 청소년들의 쉼터 이용 경로, 쉼터에 대한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조기발견 및 이용자 중심의 쉼터 운영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쉼터 종사자 FGI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례 발굴 및 관리, 쉼터 운영이 개선 점 등을 도출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쉼터 사례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 실태 조사

청소년쉼터 유형별 이용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일시이동쉼터, 일시고정쉼터, 단중기쉼터로 구분하고 이용 청소년 특성 및 가출 경험 등에 대한 실태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정보, 가출경험(거주 환경, 가출패, 위험노출 등),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 아르바이트 등 경제경험, 신체 및 정신건강, 쉼터 이용 현황 및 욕구 등이다.

4)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조사

전국 청소년쉼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확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하고자 하는 주요 영역은 위탁 형태, 인력, 예산 등의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입소 유형 및 퇴소 유형 등 입소청소년 현황, 시설 현황 및 청소년관리 현황,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등이다.

5) 청소년쉼터 종사자 실태 조사

전국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쉼터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 근로기간, 직급 등의 근로 현황, 자격정보, 근무환경, 업무만족 등이다. 또한 종사자들이 경험한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보고한 결과와의 일치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 현황

청소년가출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정이라는 물리적·심리적 공간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가출 이후 나타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지속적 학업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처우, 폭력, 범죄에의 노출 등 2차적 위험에 놓여있다(조아미 외, 2018).¹⁾ 이러한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은 부모님과의 문제(61.7%), 학업 문제(15.9%),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9.6%) 순으로(여성가족부, 2020²⁾) 가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높아 가정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의식주 및 의료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단폭행, 성매매, 성폭행, 사기 등의 범죄와 어울리게 된다(최순중, 박은경, 2016³⁾).

이러한 고위기에 노출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하나 청소년가출의 특성 상, 가출청소년 통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많이 인용되고 있는 가출청소년 통계는 경찰청의 신고된 실종아동 현황으로 2019년 21,551명이다(경찰청, 2020)⁴⁾. 이는 신고된 실종아동수를 기반으로 도출되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아 문제아로 인식되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실제 가출청소년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조아미 외, 2018).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 수의 통계는 추정치로 제시되고 있는데 대략 적게는 20만명에서 많게는 40만명까지 추정하고 있다(세계일보, 2018. 11. 17; MBN, 2020. 05. 06)).

국내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876만명으로(통계청, 2019) 청소년의 최근 1년간

1) 강릉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지원방안 연구(2018). 강원: 강릉시청.

2) 2020 청소년통계(2020). 서울: 여성가족부.

3) 최순중, 박은경(2016). 가출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정담론, 9(1). 33-68.

4)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2020). 서울: 경찰청.

가출경험률은 2014년에 4.8%였고, 2016년에 3.4%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⁵⁾). 2019년 청소년수 대비 가출경험율을 적용했을 때, 30만명 이상이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인원은 2013년 15,242명, 2016년 30,329명, 2017년 31,197명, 2018년 32,109명, 2019년 32,3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⁶⁾).

2.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현황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기관의 특성과 기능이 상이해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⁷⁾).

여기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 입소 대상 선정 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에 정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보호하되 그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안전망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 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기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20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2019 청소년백서(2019). 서울: 여성가족부.

7)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는 1992년 서울YMCA청소년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134개의 청소년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표 1>과 같다(여성가족부, 2020).

일시쉼터는 31개소, 단기는 63개소, 중장기는 40개소로 단기쉼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2개소, 서울에 17개소, 충남에 9개소, 인천 8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단기, 중장기 쉼터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

표 1. 지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2019.12.31. 현재

구분	계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일시(31)		단기(63)								중장기(40)	
		고정형	이동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34	18	13	2	2	12	18	14	10	2	3	19	21
서울	17	4	4	1				1		1	2	1	3
부산	6	1	1					1	1			1	1
대구	6	1	1					1	1			1	1
인천	8	2						1	2	1		1	1
광주	5		1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1				1	1					1	1
경기	32	4	2		1	2	7	6	2		1	3	4
강원	7	1	1					1	2			1	1
충북	7		1		1	1		1	1			1	1
충남	9					2	3	1				2	1
전북	5	1				1	1					1	1
전남	5					2	2					1	
경북	5					1	1					1	2
경남	5	1				1	1					1	1
제주	6	1	1	1			1					1	1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청소년복지시설로,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여성가족부, 2020).

자립지원관의 이용대상은 두가지 대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19-24세인 후기청소년이다. 둘째,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서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청소년들의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필요시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이미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설치현황은 <표 2>와 같다.

경기 지역에 주거지원형 3개소, 인천에 혼합형 2개소, 서울에 혼합형 1개소가 운영 중이다.

표 2. 지역별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현황

2019.12.31. 현재

구분	계	숙박형	주거지원형	혼합형
계	6	-	3	3
서울	1			1
인천	2			2
경기	3		3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3.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과 서비스

가. 유형

1)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보호기간, 이용대상, 기능 등 특성에 따라 일시쉼터(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유형화 되어 있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쉼터는 24시간에서 7일 이내, 단기쉼터는 최장 9개월, 중장기쉼터는 최대 4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과 거리배회, 노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거리상담과 일시보호, 심리·정서 상담, 사례관리,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표 3. 청소년쉼터의 유형

구분	일시쉼터 (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먹거리,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구분	일시쉼터 (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위치	일시이동형(차량), 고정형 =(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 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이와 같이, 보호기간, 이용대상, 핵심기능 등 유형에 따라 쉼터운영이 특성화 되어 있으나,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그간의 입소기간에 따른 체계의 구분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여성가족부, 2019⁸⁾), 청소년쉼터의 유형이 변화될 예정이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생활관의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표 4>와 같다.

이는 생활관 운영을 위주로 하는 숙박형, 생활관 없이 외부의 공간에서 독립하여 주거하는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는 비숙박형 이용시설, 생활관과 독립생활지원을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생활관은 시설 내 숙식공간으로 청소년이 종사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주거는 시설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원룸,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표 4.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유형

구분	숙박형 생활시설 (생활권형)	비숙박형 이용시설 (주거연계형)	혼합형 (생활관+주거연계)
지원내용	생활관 입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	독립주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 (생활관미운영) * 자립준비청소년은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서비스를 이용	(생활관 운영+독립생활 지원)+자립지원서비스 *자립준비청소년은 일정기간 생활관을 이용하거나 독립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서비스를 이용
생활관 입소 기간	생활관 입소기간은 최소화하고, 독립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관 입소기간은 사례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최초 3개월 이내, 추가 3개월 연장 가능(1회)]] * 경계선 지능 청소년, 미성년자 등으로서 독립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생활관 이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기본 1년 이내(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지원종료 후 6개월 사후관리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나. 서비스 내용

1)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상이하어,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시 청소년쉼터

일시쉼터는 노숙 청소년과 거리배회 및 가출반복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며, 사회체계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의식주, 위생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함께 조기개입을 통한 가출예방 및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일시 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목적	서비스요소	서비스항목	서비스 세부활동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현장지원 및 보호	의식주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24시간 이내 일시보호(일시이동형), 7일 이내 보호(고정형)-야간보호자 배치
		위생서비스	샤워, 세탁, 이·미용 제공
		피복제공	속옷, 겹옷, 신발 등 제공
		의료서비스	임신반응테스트 시약제공, 구충제 복용, 콘돔 제공, 심터연계 병원검사(가출청소년의료지원 예산), 응급약품, 구급약품
		휴식제공	포켓볼(당구), 보드게임, TV, DVD, 인터넷, 약간의 간식, 서적(만화, 잡지), 낙서장, 날적이(공동일기), 간단한 운동(베드민턴, 줄넘기 등), 주간취침(긴급잠, 쪽잠)
거리위험 대처교육	성, 약물, 노동, 범죄, 흡연, 음주, 인권유린 관련 교육		
청소년의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	조기개입	사회성 향상지원	대인관계, 예절, 사회적응 기술 등
		정서지원	개인, 부모, 가족의 정서지원, 거리생활 변화 동기 부여
		거리아웃리치(상담)	가출청소년 발견활동, 가출예방교육, 캠페인 등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한다	연계활동	서비스 정보제공	각종정보: 취업, 진로, 지역사회 시설과 서비스, 생활정보, 문화행사 및 청소년증 발급 등
		지역사회 서비스연계	상담소, 단기쉼터, 법률, 문화의집, 대안학교, 학교, 성폭력 및 미혼모 시설, 직업훈련원, 의료기관 등 연계
		귀가지원	차비지원, 가정·학교와의 중재역할
		지역사회교육	지역업소 방문 및 캠페인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2) 단기 청소년쉼터

단기쉼터는 가출한 상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형태의 안정된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심신의 회복과 변화를 위한 동기화, 전문적 사정과 서비스 판별,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가정 및 사회복귀에 대한 목적으로 인해 보호, 생활지도, 일상생활훈련 등 보호서비스 외에 원가족과의 회복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 교육, 직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표 6. 단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서비스요소	서비스내용	서비스 세부사항
보호	의식주	숙식, 의복 제공, 샤워, 이·미용, 휴식 등
	의료지원	건강검진(발달상태, 성병 등),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 테스트 등
	법적지원	법적 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 등
	문화여가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캠프 등
	생활지도	초기적응 프로그램, 자치회의, 일상생활훈련, 갈등조정 등
	정서지원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가정복귀 지원	가족상담	가정방문,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과의 전화연결 등
	가족지원	가족서비스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 등
	귀가지원	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 상담 등
사회복귀 지원	진로상담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 상담 등
	사회적응지원	약물, 성교육, 분노 조절, 사회성 훈련, 직장동료관계 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 훈련, 인권교육 등
	교육지원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 등
	직업지원	직업탐색, 직업학교 연결, 취업연결 등
	대안생활지원	중장기쉼터 연계, 독립생활 지원 등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필요서비스 및 수요에 대한 정보제공, 입소부터 퇴소까지 개별계획 실행, 평가 및 심층상담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3) 중장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 학업 및 자립의지가 있거나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업유지 및 자립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표 7>과 같다.

이를 위해, 의식주 생활관리, 경제 생활관리, 건강관리 등 기초생활관리, 취업훈련, 취업지원 등 직업지원 서비스, 학력취득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업지원과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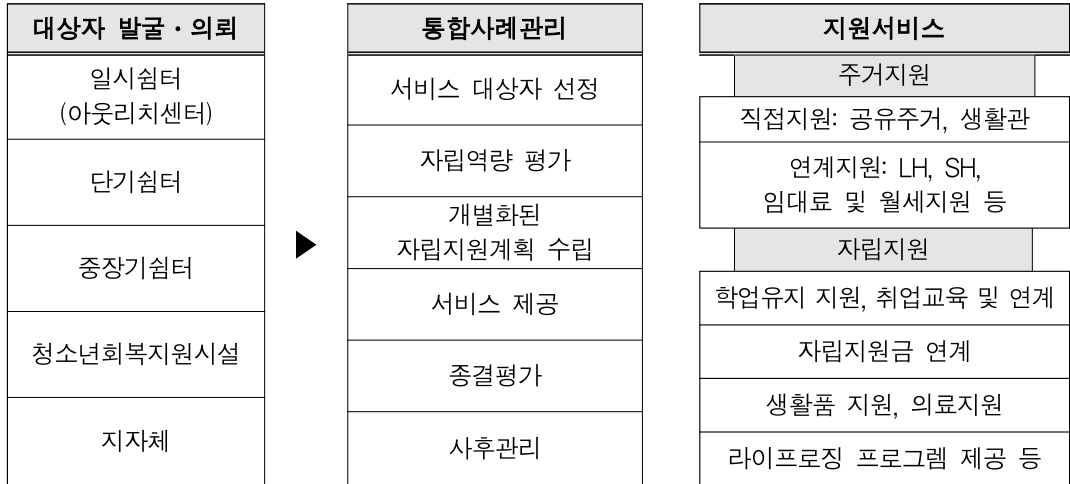
표 7. 중장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서비스요소	서비스 세부사항
기초생활관리 서비스	의식주 생활관리: 취침 및 기상, 공동생활규칙 준수, 공동생활적응 갈등관리
	경제 생활관리: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 등
	건강 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응급치료, 질병치료 등
	문화체험 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직업지원 서비스	직업능력평가: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직업정보 탐색, 구직전략세우기 등
	취업훈련: 인턴십 체험, 직업전문학교, 자격증 취득교육 등
	취업지도: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 지원 등
학업지원 서비스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개인학습지도: 학습방법 교육 등
	학비지원
정서적지지 및 상담서비스	개별사례관리
	개인상담
	사례회의
	집단상담: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 훈련, 자존감 향상 훈련, 진로탐색,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교육훈련: 성교육, 금연교육, 경제교육, 식습관,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사업안내

그림 1.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내용

첫째, 대상자 발굴·의뢰로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퇴소를 앞두고 있고 자립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그 밖에 본인 신청 또는 유관기관 연계로 입소가 가능하다.

둘째, 통합사례관리로 자립지원관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역량(수준)의 평가, 개별화된 자립계획 수립, 주거지원 및 자립지원 서비스, 종결(퇴소) 후 독립생활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자립지원관의 지원서비스로 주거지원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있다. 주거지원으로는 입소 기간 중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주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계 지원한다. 자립지원으로는 경제 및 생활의 자립여건 조성 및 역량 교육을 통해 퇴소 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은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 대상, 보호기간, 주요 기능 및 서비스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출청소년관련 국내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 컴퓨터에 대한 국내의 연구 중 한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것으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컴퓨터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컴퓨터 기관, 청소년컴퓨터 직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청소년컴퓨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에 청소년 인권, 청소년 안전, 청소년들의 내담자폭력 노출경험, 내담자폭력 후 시설의 대응 및 대응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 내담자폭력에 대한 시설 차원의 예방책 및 만족도, 소진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에 사용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2014년에 진행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로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가정밖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2차 자료분석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1) 청소년컴퓨터 이용 청소년의 특성, 2) 청소년컴퓨터의 운영 실태, 3) 청소년컴퓨터 직원의 특성, 4) 정책제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컴퓨터이용 청소년의 특성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남자가 52.1%, 여자가 47.9%로 남자가 더 많았고, 14-16세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해체 가족 출신이었고, 직업이 없는 부모와 사는 경우도 14.6%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6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49.5%는 가출 충동을 대체로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45.2%의 청소년들은 불가피하게 가출을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이용자의 대부분(약 90%)은 가출경험이 있었지만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청소년컴퓨터가 가출경험이 없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13세 이하에 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출 이유는 부모간의 불화와 부모의 폭행이 각각 21.3%와 13.0%로 나타나 가정적 요인이 가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컴퓨터에 입소하기 전에는 주로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잤으며, 가출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매매나 훔치거나 빼앗기로 용돈을 마련한다는 응답도 다소 높아 가출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범죄나 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출 기간 중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 중 63.5%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랐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서비스 기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출 전·후 청소년들이 경험한 문제 행동을 조사한 결과 가출 전보다 가출 후에 여러 가지 비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성과 관련된 내용은 가출 전보다 가출 후에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대부분이 가정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이어서 가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1년간 자살 생각을 가끔 또는 자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0.3%나 되었고, 19.3%는 자주 자살 생각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살 생각 이유는 가정불화와 외로움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으로 가출하였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가정문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청소년에게 컴퓨터 생활중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1/7 이상이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자주 폭력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즉, 일부 컴퓨터에서 청소년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성적 피해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8.3%가 3회 이상 성적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중 부모가 그 사실을 아는 경우는 37.6%에 불과하였다.

컴퓨터를 이용·입소하게 된 계기는 친구 소개가 21.9%로 가장 많았고, 다른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거의 또는 전혀 귀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기 및 중장기 컴퓨터 청소년의 약 80%는 취업, 학업지속, 자립생활, 직업훈련 등 자립 생활을 위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 청소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취업 대비 기술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4.16점)가 심리적 안정과 미래 생활 준비에 대한 욕구(3.83점)보다 높았다. 사회적으로는 생활비와 병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고(5점 만점에 3.5점 이상), 구체적으로는 의식주, 개별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이상으로 높았다. 청소년 컴퓨터 서비스를 받은 뒤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은 컴퓨터가 컴퓨터이용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 이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유무, 성별, 가출 후 이용 중인 쉼터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가정생활만족도 불만족 집단은 여자청소년, 양친 부재, 저소득 가정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경우 가정환경, 정신건강, 비행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가출이 1회 이하인 경우와 서로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가출 이후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 가정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은 반면 상담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더 높다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별로 가출청소년의 특성에 차이를 보인 것은 부모요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일시쉼터는 양친가정, 단기쉼터는 한 부모가정, 중장기쉼터는 양친 부재 가정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숙청소년들을 심층면접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 2차 자료 가출청소년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오히려 가출청소년의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쉼터의 운영 실태

2009년 청소년쉼터의 운영 실태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79개소로 일시쉼터 10개소(12.7%), 단기쉼터 44개소(55.7%), 중장기쉼터 25개소(31.6%)였다. 쉼터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일시쉼터에서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중장기 쉼터의 경우 56.0%가 여자만 보호하고 있었다.

청소년쉼터의 건물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기 건물인 경우가 과반수 정도에 불과하고 48.1%가 전세, 월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의 주요 시설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갖추고 있는 쉼터는 전체의 9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영상 교육을 위한 프로젝터와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각각 56.4%, 61.5%의 기관만이 갖추고 있었다.

쉼터의 평균 직원 수는 일시쉼터는 4.5명, 단기쉼터는 6.4명, 중장기쉼터는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비상근과 상근이 모두 48.1%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쉼터에 입소할 때, 반드시 보건소 등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 쉼터는 쉼터의 유형에 따라 단기쉼터 55.8%, 중장기쉼터 66.7%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체크리스

트만 사용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모든 형태의 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항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이상). 입소한 청소년들에게서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쉼터는 58.4%로 문제행동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쉼터에서는 평균 6개의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기 쉼터는 9.5%였고, 단기쉼터와 장기쉼터의 20% 정도는 퇴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의 대부분은 매년 1회의 종사자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의 안전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었고, 기관장인 직원들은 자신들이 시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주요 유관 기관 연계 협력의 만족도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가 43.6%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38.5%), 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9.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6.9%)의 순이었다. 또한 불만족도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연계, 협력에 대한 불만족이 49.4%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협력에 대한 불만족도도 26.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장애요인은 상대 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22.8%),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21.5%), 서비스 내용과 지원 미비(12.7%), 기관별 업무 일정의 차이(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에 대해 지역사회 기관은 업무내용을 아는 정도(55.8%)가 대부분이었으며, 기관명만 아는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27.3%, 거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2%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들의 쉼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67% 이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014년 연구에서도 청소년쉼터들을 전수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결과로부터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등 전달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쉼터에서 보호하는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지원이 요구되며, 쉼터는 ‘가정밖청소년’을 대안양육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유사 시설에 비해 지자체 지원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다. 청소년쉼터 직원의 특성

청소년쉼터 직원들은 여자가 72.4%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력은 대학 졸업이 전체의 63.8%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은 사회복지학이 6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심리학(8.6%), 청소년학(6.7%), 신학(3.7%), 교육학(2.2%) 순이었다. 청소년쉼터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에 하루에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 행정 업무에는 50.2%, 홍보 및 후원 업무에는 63.7%, 시설관리 업무에는 69.7%로, 생활지도 업무에는 51.6%, 상담 업무에는 80.6%가 하루에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응답하였다.

청소년쉼터 직원들은 1년 간 가장 많은 시간 교육을 받은 내용으로 상담서비스와 수퍼비전을 꼽았다. 쉼터직원들의 직무만족은 평균 3.5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청소년쉼터 직원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데 대한 만족감이 75.7%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자신의 성장(8.6%), 동료직원(6.0%), 전문가로서의 인정(5.2%) 순이었다.

청소년쉼터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41-50시간이 42.0%로 가장 높았고,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36.7%로 나타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청소년쉼터 직원의 평균 숙직일은 4.7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일시쉼터 0.9일, 단기쉼터 4.1일, 중장기쉼터 8.1일로 나타났다. 쉼터 직원들의 29.5%는 내담자의 잠재적 공격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쉼터에서 내담자 폭력 이후 해당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약 25% 이상은 직원에게 심리, 정서적 상담을 제공하거나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직원들의 60.8%는 도청·시청·구청의 행정적 지원을 약간 또는 매우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8% 이상이 보건소, 경찰서, 다른 쉼터의 협조를 약간 또는 매우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쉼터 직원들은 유관기관 연계 장애요인으로 상대 연계기관 측에서 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연계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이 쉼터에서 원하는 것과의 격차가 큰 것, 기관간 업무일정 차이 등을 꼽았다. 청소년쉼터 직원들은 쉼터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를 다소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쉼터 직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쉼터의 직원들은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기초생활수급자 지

정이라고 보았고, 쉼터 소장의 권한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도움에 대해서는 병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평균 4.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취업관련 기술훈련(평균 4.63점), 학교 대안학교 지원(평균 4.57점), 일자리소개(평균 4.37점), 퇴소후 자립지원금(평균 4.18점), 생활비 지원(평균 3.86점), 살 수 있는 방 제공(평균 3.66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라. 선행 연구에서의 정책 제안

기존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이다. 둘째는 가출청소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소년쉼터의 확충과 운영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다. 셋째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제도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1)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

선행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 및 지정하여 보호 청소년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유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쉼터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 공조하여 쉼터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청소년쉼터의 확충과 운영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가 수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요가 많은 아웃리치센터(일시쉼터)를 증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쉼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시간을 고려한다면, 자립지원요원을 각 쉼터에 추가로 배치하여 청소년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법정 배치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직

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쉽터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3)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제도 확대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생계 및 학업을 박탈감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양육비를 지원할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쉼터 입소 및 이용 청소년 심층면접

쉼터 이용 및 입소 청소년의 쉼터 이용 경로 및 쉼터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가. 참여자

일시이동쉼터 이용청소년 3명과 일시고정 3명, 단기·중장기 입소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청소년들을 쉼터 종사자에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에 가장 적합한 청소년들을 추천받았다. 각 추천 받은 청소년들에게 개별로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과 심층 면접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구분	대상자	이용쉼터유형	성별(나이)	가출기간
1	청소년1	일시이동쉼터	여(23)	4-5년
2	청소년2	일시이동쉼터	여(19)	3년
3	청소년3	일시이동쉼터	여(16)	4년
4	청소년4	일시고정쉼터	여(20)	1년
5	청소년5	일시고정쉼터	여(17)	1년
6	청소년6	일시고정쉼터	여(24)	10년
7	청소년7	단기·중장기쉼터	남(20)	3년
8	청소년8	단기·중장기쉼터	남(19)	2년
9	청소년9	단기·중장기쉼터	여(19)	2년
10	청소년10	단기·중장기쉼터	남(19)	2년

나. 면접 기간 및 방법

2020년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방법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심층인터뷰에 대한 안내와 질문지를 먼저 이메일로 발송하여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개인별 30분 ~ 40분 정도였다.

다. 조사도구 및 내용

심층면접 인터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과 현재 쉼터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아래 <표 9>와 같이 구성하였다. 질문 영역은 크게 인적사항, 가출 전 생활, 가출 후 생활, 쉼터 생활로 구성되었다.

표 9. 쉼터 이용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질문 영역	내용
인적사항	- 가출 기간 - 쉼터 거주(일시이동형, 일시고정형, 단기·중장기 쉼터) 사항
가출 전 생활	-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 후 생활	- 가출 후 어디서, 어떻게 지냈나요? - 가출 후 비행 및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나요? - 피해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얻으셨나요?
쉼터 생활	- 쉼터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나요? - 현재 이용 쉼터에서 도움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 현재 이용 쉼터가 개선 혹은 바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 분석 방법

인터뷰 종료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심층 면접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류하여 범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심층면접의 녹취 자료는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정독하여 읽은 후 의미 단위로 분석하고 주제별로 의미를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개별로 분석한 자료는 연구

진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합의를 거쳤다. 또한 범주로 구분한 자료는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심리학전공 교수 2인에게 검수를 거쳤다.

2. 쉽터 종사자 의견 수렴

쉽터 종사자 대상으로 쉽터 이용 청소년들의 입소경로, 사례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쉽터 운영 시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면 질의를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였다.

가. 참여자

일시일시이동형 5명, 일시고정형 5명, 단기형 5명, 중장기 5명으로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종사자 선정 방식은 쉽터협의회의 도움을 구하여 의견 수렴에 가장 대표성 있는 종사자를 추천 받아 섭외하였다.

각 쉽터 종사자에 연구의 목적과 서면 질의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연구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였다.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쉽터 종사자 인구학적 배경

구분	대상자	이용쉽터유형	직급	종사경력	지역
1	종자사1	일시이동	소장	5개	서울
2	종자사2	일시이동	소장	11년 2개월	경기
3	종자사3	일시이동	소장	6년 10개월	대전
4	종자사4	일시이동	소장	2년 2개월	강원
5	종자사5	일시이동	소장	5년 10개	제주
6	종자사6	일시고정	소장	4년 4개월	서울
7	종자사7	일시고정	센터장	6년 1개월	서울
8	종자사8	일시고정	소장	14년 10개월	경남
9	종자사9	일시고정	소장	7년 10개월	경기
10	종자사10	일시고정	소장	10년 1개월	대전
11	종자사11	단기	소장	5년 11개월	강원
12	종자사12	단기	소장	13년 11개월	부산

구분	대상자	이용형태유형	직급	종사경력	지역
13	종자사13	단기	소장	13년 5개	경기
14	종자사14	단기	소장	7년 11개	전북
15	종자사15	단기	소장	21년 4개월	제주
16	종자사16	중장기	소장	5년 3개월	서울
17	종자사17	중장기	소장	7년 4개월	인천
18	종자사18	중장기	소장	11년 8개월	울산
19	종자사19	중장기	소장	6년 1개월	광주
20	종자사20	중장기	소장	5년 6개월	충남

나. 자료취합 기간 및 방법

2020년 10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 서면으로 의견 자료를 취합하였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질의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에 대한 안내와 질문지를 먼저 각 개인 SNS와 이메일로 배포하고, 전화로 안내하였으며, 서면 질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서면 질의 작성 기간은 11월 10일 ~ 11월 16일까지였다. 질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이메일로 취합하였다.

다. 조사도구 및 내용

서면 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첫째 가정 밖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의견, 둘째 쉼터 운영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의견, 셋째, 쉼터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각 영역마다 세부 질문을 구성하고 이를 개방형 질문지 형태로 작성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표 11. 쉼터 이용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질문 영역	내용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사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쉼터 유입 경로의 개선점 -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 문제 및 개선 방안 - 쉼터 이용청소년들을 위해 강화해야할 서비스 혹은 개선해야할 서비스 - 쉼터 이용청소년들의 사례관리의 애로점 및 개선점

질문 영역	내용
쉘터 운영 및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쉘터 운영의 애로점 및 개선점 - 청소년쉘터 발전을 위한 지자체 혹은 정부의 지원 정책 - 쉘터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 청소년안전망 등 지역 내 서비스 연계의 애로점 및 개선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쉘터 발전을 위한 필요 의견

라. 분석 방법

서면 질의 자료 취합 후 의견 내용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심층면접 자료 분석 방법과 같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서면 자료는 연구진이 정독하여 읽은 후 의미 단위로 분석하고 주제별로 의미를 탐색하여 상위 및 하위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개별로 분석한 자료는 연구진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합의를 거쳤다. 또한 범주로 구분한 자료는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심리학전공 교수 2인에게 검수를 거쳤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입소 및 이용청소년, 청소년쉘터 기관, 청소년쉘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조사 대상 및 규모

청소년쉘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은 일시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중장기쉘터 입소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쉘터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조사는 전국 쉘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 기간 및 방법

2020년 10월 7일 ~ 11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 및 청소년쉘터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다. 설문도구

설문지는 청소년용(일시이동형, 일시고정형, 단기 및 증장기컴터), 청소년컴터 종사자용, 청소년컴터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설문문항은 기존 문헌에서 조사된 문항과 청소년컴터관련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또한 개발하여 예비 조사를 통해 (8월)하여 검토 수정하였다.

라. 자료분석

설문문항에 따른 단순 빈도분석과 특정 항목과의 수렴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빈도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성별, 17개 시도별, 컴터 유형에 따라 컴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 컴터 종사자 및 기관 현황을 분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 자료는 가출 전 상황(가출 이유), 가출 후 생활, 현재 쉼터 생활에 대한 영역 별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각 영역별 범주와 개념들을 표로 제시 하였다.

가. 가출 전 상황(가출 이유)

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3가지 범주는 ‘가족 과 갈등’, ‘가정의 불화’, ‘친구의 가출 권유’ 였다.

표 12. 가출 전 상황(가출 이유)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가족과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 없었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갈등이 커서 가출하고 집에 다시 들어갔으나 부모가 변하지 않아 다시 가출함• 부모의 학대 신고로 경찰이 쉼터로 연계해 줌• 새엄마와 성격,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 가출을 함
가정의 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집을 나가서 조부모에게 키워졌으나, 더 이상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아동보호센터에 보내졌고 이후 쉼터로 연계됨
친구의 가출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했던 친구가 같이 살자고 강요하여 집에서 나옴• 이성 친구가 같이 살자고 하여 집에서 나옴

‘가족과 갈등’ 범주는 주로 부모와 자주 다투거나, 부모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가출하는 개념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갈등에는 조부모, 새엄마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양상을 보였다.

“가족과 다투서 답답해서 나왔어요 가출 이유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집이 답답하다고 느껴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 청소년 3

“아빠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었어요” - 청소년 4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다 다시 집에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가출했어요 부모님께 많이 맞았고 여전히 부모님이 무서워요” - 청소년 5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빠가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 청소년 6

“새엄마와 성격,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싸웠죠. 아빠는 일하느라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 청소년 9

‘가정의 불화’ 범주는 부모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서, 조부모에게 맡겨지거나, 시설 등에 맡겨져서 쉼터 등으로 연계되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로 보인다.

“제가 네 살 때부터 아버지 학대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17살에 누가 저희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왔어요 저는 그때 쉼터로 보내졌어요” - 청소년 7

“엄마, 아빠는 따로 살고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내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엄마, 아빠 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빠가 저를 때려서 집을 나왔어요” - 청소년 6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고모와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가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 6학년 때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엄마에게 보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6개월 만에 같이 못 지내겠다고 하셔서 중학교 1학년 말에 아빠에게 보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심한 욕을 하고 때려서 함께 지낼 수 없었어요” - 청소년 4

“네 살 때부터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누가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쉼터로 보내졌어요” - 청소년 7

‘친구의 가출 권유’ 범주는 친한 친구가 같이 방을 얻어서 살자고 하는 개념과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함께 살고 싶은 욕구 개념을 보였다.

“중학교 때 친구가 같이 살자고 자꾸 이야기하고 강요해서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 한 3-4개월 정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나온 것은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집을 나왔어요” - 청소년 2

나. 가출 후 생활

가출 후 생활은 가출 후 지낸 곳과 가출을 하면서 경험했던 범죄 가·피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가출 후 지낸 곳

가출 후 지낸 곳의 범주는 7개 범주로 나타났다. 7개 범주는 ‘친구 집’, ‘아는 사람 집’, ‘자취’, ‘노숙’, ‘숙박시설’, ‘쉼터’, ‘종교시설’ 이다.

표 13. 가출 후 지낸 곳 범주와 개념

범주	개념
친구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 오고 가고 함 이성친구 집에서 지냄
아는 사람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는 동생 집에서 지냄 담임 선생님 집에서 지냄 타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지냄
자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엄마가 친구와 함께 살 방을 마련해 줘서 같이 자취를 함 혼자 자취를 함
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에서 지냈음 무인주차장이나 무인빨래방 같은 곳에서 지냄 낮에는 학교에 있다가 밤에는 놀이터 벤치, 동네 아파트 계단에서 밤을 셈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델에서 지냄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이동형 쉼터 버스에서 있기도 하고 그룹홈에서도 지냄 일시쉼터, 단기쉼터의 도움을 얻음 자립지원관의 도움을 얻음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에서 가출 사정을 알고 지내게 해 줌

‘친구집’ 은 가출 후 친구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집에 오고 가거나 이성 친구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로 나타났다.

“고 2때 친구네 집과 엄마 집을 왔다갔다하며 지내다가 고3 때 친구 엄마가 친구와 함께 살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 청소년 1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친구와 가치관이 맞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왔죠.” - 청소년 4

“중학교 때는 친구가 같이 살자고 해서 3~4개월 정도 살다가... 두 번째 집에서 나온 것은 남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같이 살고 싶어서 집을 나오고 남자 친구와 5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 청소년 2

‘아는 사람 집’ 은 아는 동생, 담임선생님, 타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 집 등으로 나타났다.

“친구 집이나 아는 동생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 청소년 3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 사정을 알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 보셨지만,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 청소년 5

“00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서 돈도 벌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지냈어요.”
- 청소년 4

‘노숙’ 의 경우 특별히 숙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길에서 방치되어 지낸 경우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 가출하면서 길에서 지냈는데, 그때 부모님께 잡혀서 집으로 오게 됐어요.” - 청소년 2

“친구 집에서 지내거나, 잘 곳이 마땅치 않으면, 무인주차장, 무인빨래방 같은 곳에서도 지낸 적이 있어요.” - 청소년3

“중2때 부터 고1까지 계속 집에서 나왔는데, 낮에는 학교에 있다가, 밤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나 벤치, 미끄럼틀, 동네 아파트 계단 같은 곳에서 밤을 섰다. 쪽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새엄마가 집에 없는 사이에 잠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다. 밥은 학교 급식을 먹거나 친구가 사준 음식으로 버텼어요.” - 청소년 9

‘자취’ 는 자취할 금액을 모은 아이들로 같이 살거나 혼자 자취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친구 네 집에서 살다가 친구 엄마가 자취할 방을 마련해 주셔서 엄마 집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어요.” - 청소년 1

“중3때는 친구와 같이 지내다가, 남자친구와 5개월을 같이 살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 청소년 2

‘숙박시설’은 모텔 등에서 지내는 경우로 숙박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출 후 모텔에서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져서.. 중고 사기를 쳤어요.” - 청소년 10

‘쉽터’는 일시 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중장기 쉽터, 자립지원관로 연계되거나 도움을 받은 경우이다.

“혼자 자취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시 쉽터를 많이 이용했어요. 일시 쉽터에서 자립지원관을 소개해줘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어요” - 청소년 2

“친구집, 아는 동생집, 노숙 등으로 지내다가 버스일시이동형쉽터, 그룹홈에서 지냈어요” - 청소년 3

“학교 상담 선생님이 저와 상담을 하다가 쉽터로 연계 해 줬어요” - 청소년 5

“아빠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저를 쉽터로 인계해 줬어요” - 청소년 7

“집에서 사소한 것으로 다툼을 많이 해서 집에서 생활하기 싫어서 쉽터를 찾아왔어요”
- 청소년 10

“서울, 인천, 대구, 김해, 평택 등 전국의 다양한 쉽터를 이용했어요. 단기 쉽터는 최장 6개월 정도 지낸 적도 있고, 쉽터 생활이 힘들거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쉽터 선생님들께 상담을 한 후 타 지역 쉽터로 가기도 했어요” - 청소년 6

‘종교시설’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가출 청소년의 딱한 사정을 알고 시설에서 지내게 해 준 경우이다.

“다니던 교회에서 가출 사정을 알고 일주일 정도 지내게 해 줬어요” - 청소년 6

2) 가출 후 비행 및 범죄 가·피해 경험

가출 후 비행 혹은 범죄에 노출된 경험은 없는지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였다. 대체 적으로 범죄 피해나 가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7명). 비행 및 범죄 가·피해를 경험한 3명의 청소년 중 1명은 쉼터 내에서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다른 한 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사기 거래를 해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성매매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범주를 ‘폭행’, ‘사기’, ‘성매매’로 정하였다.

표 14. 가출 후 비행 및 범죄 가·피해 경험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폭행	• 쉼터 내에서 동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음
사기	•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중고물품 사기를 했었음. 그 일로 형사 입건되어 소년원에 갔다가 옴
성매매	• 아는 지인이 가출 후 돈을 벌기 위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폭행’ 범주의 경우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개념이 포함되었다.

“내가 평소 불면증과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쉼터선생님께 병원 진료를 요구했는데, 동료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언니와 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얼굴이 붓고 입안이 터졌어요.. 여기 쉼터에서 계속 있다가는 폭력이 계속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다른 쉼터로 옮겨 갔어요.” - 청소년 6

“처음 가출 후 모텔에서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지 중고 사기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출하고 다시 중고 사기를 치다가 형사한테 걸려서 입건되고 소년원까지 갔죠.. 1호 시설에서 6호 시설로 갔어요..” - 청소년 10

“저는 비행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은 없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경우..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경찰서를 간다던가.. 부모님 동의를 없어 알바를 구하지 못하니까 성매매를 통해서 생활비를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 청소년 5

다. 쉼터 생활

쉼터 생활은 현재 쉼터를 찾아온 경위와 쉼터에서 도움받았던 경험, 쉼터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1) 쉼터를 찾아온 경위

쉼터를 찾아온 경위를 면접하고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일시 쉼터가 눈에 띄’, ‘청소년상담 기관의 소개’, ‘쉼터 간 연계’, ‘기타 연계’ 이다.

표 15. 쉼터를 찾아온 경위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일시쉼터가 눈에 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하여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일시 일시이동형 버스를 보게 되고 친구들과 따라서 같이 감 • 이동쉼터는 가출 전에도 자주 봐서 궁금해서 찾아 봄
청소년 상담 기관의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상담센터에서 쉼터를 소개해주고 연계해 줌 • 청소년전화 1388에서 쉼터를 소개시켜 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다가 쉼터로 연계해 줌
쉼터 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쉼터에서 단기 쉼터로 연계해 줌 • 일시 쉼터에서 자립지원관을 소개해 줘서 도움을 받음 • 전에 있던 쉼터에서 싸움 등 규칙을 위반해서 다른 쉼터로 연계해 줌
기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후 경찰이 발견하여 쉼터로 의뢰됨 • 부모가 경찰에 학대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나를 쉼터로 의뢰함 • 보호관찰선생님이 일시쉼터를 연계해 줌 • 학교 담임선생님과 스쿨 폴리스가 쉼터를 연계해 줌

‘일시 쉼터가 눈에 띄’ 범주에는 가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시 일시이동형 버스가 눈에 보여서 호기심에서 가봤다는 개념과 일시이동형 쉼터를 자주 봐서 가봤다는 개념이 포함되었다.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서 일시 일시이동형 버스만 이용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같이 일시 쉼터로 오게 된 거예요” - 청소년 2

“이동 컴퓨터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한 번씩 가 봤어요 그러다가 청소년컴퓨터로 가게 된 거예요” - 청소년 3

‘청소년상담 기관의 소개’ 범주에는 학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다가 가출 사실을 알게 되어 컴퓨터로 연계해 주거나, 청소년1388에 전화를 하여 컴퓨터를 소개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다가 컴퓨터로 연계해 준 개념이 포함된다.

“고2 때부터 상담 기관에서 알고 지내던 선생님께서 컴퓨터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시 컴퓨터에 있다가 자립지원관으로 간 다음 다시 현재의 컴퓨터로 오게 됐어요”
- 청소년 4

“1388에 전화해서 컴퓨터를 소개 받았어요” - 청소년 6

“고1 때 담임 선생님과 학교 상담선생님이 제가 가출 했다는 사정을 알고 스킴폴리스에서 컴퓨터를 알아봐서 지금 컴퓨터로 연결해 줬어요” - 청소년 9

“중 3때 친구집에서 한 달을 지내다가 학교에서 가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었어요. 그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이 내가 아빠와 싸웠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금 단기 시설로 오게 해 줬어요” - 청소년 8

‘컴퓨터 간 연계’ 범주에는 일시 컴퓨터로 청소년들이 찾아왔다가 다시 단기 컴퓨터로 연계되는 경우 혹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자립지원관을 연계해준 경우, 단기·중장기 컴퓨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다른 컴퓨터로 연계하는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일시 컴퓨터에서 있다가 그곳 선생님이 단기 컴퓨터를 알려 주어서 오게 되었어요”
- 청소년 5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월세가 한 달에 45만원 정도 돼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일시 컴퓨터에서 자립지원관을 소개시켜줘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어요” - 청소년 2

“이전 컴퓨터에서 지내다가 거기 친구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규칙 위반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를 알려 주고 이곳으로 왔어요” - 청소년 7

‘기타 연계’ 범주에는 경찰의 발견,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컴퓨터로 연계, 보호관찰소, 학교 담임 및 스킴폴리스가 가출 사정을 알고 컴퓨터로 연계해 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가출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아동복지센터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동 복지센터에서 청소년컴퓨터로 연결해 준 거예요.” - 청소년 3

“네 살 때부터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누가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 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보내졌어요.” - 청소년 7

“중학교 때 집에서 잘 못 버티고, 학교도 잘 안 나오니까 보호관찰선생님이 일시컴퓨터라 도 가서 지내라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 청소년 10

“고 때 담임 선생님이 가출 사정을 알게 되고 스쿨폴리스가 컴퓨터를 알아봐서 지금 컴 터로 연결되었어요.” - 청소년 9

2) 컴퓨터에서 도움 받은 점

컴퓨터에서 도움 받은 점에 대한 범주는 6개로 ‘의료지원’, ‘생활지원’, ‘숙식해 결’, ‘고민 등 상담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지원이다.

표 16. 컴퓨터에서 도움받은 점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플 때 의료 지원을 받음 •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도움이 됨 • 정신과 진료도 받을 수 있음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한 번씩 장보기를 지원 해 줌 • 자립지원관을 연계해 줘서 월세를 지원 받음 • 용돈과 교통비를 지원해 줌
숙식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자리와 식사 해결에 도움을 받음 •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고민 등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민을 잘 들어 줌 •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과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 목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움 •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프로그램 등이 좋았음 • 여행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음 • 흡연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음
진로·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이 바리스타인데 바리스타 학원을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줌 • 메이크업 학원을 보내주어서 큰 도움이 됨 • 꿈드림으로 연계해 줘서 검정고시 준비와 요리학원을 등록해 줌

‘의료지원’ 범주에는 아플 때 병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데려다 주며, 정신과 진료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쉼터에서 도움 받는 거는 아플 때 병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 청소년 1

“쉼터는 의료 서비스가 되고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하게 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 청소년 4

“쉼터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게 해 줘서 너무 좋아요” - 청소년 6

“일시 쉼터에서 아픈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 청소년 2

‘생활지원’ 범주에는 생활비 지원 관련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보기 지원, 월세 지원,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립지원관에 연계를 해 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5만원으로 장보기 해 주고, 월세도 지원해 줘요” - 청소년2

“부모님이 용돈을 잘 주지 않았는데, 쉼터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쉼터 생활을 잘 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잘 하면 용돈을 더 주기도 해요” - 청소년 5

‘숙식해결’ 범주는 잠자리와 식사, 안정된 생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지내고 있는 단기 쉼터는 잠자리와 식사 해결이 도움이 돼요” 청소년 3

“쉼터는 잠자리와 식사 해결이 큰 도움이 되죠” - 청소년 8

“쉼터에서는 생활이 안정되어서 좋아요” - 청소년 9

“생활이 안정되니까, 방황이니 비행을 안 하게 되었어요” - 청소년 10

‘고민 등 상담지원’ 범주에는 쉼터 종사자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동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고민을 잘 들어 주고 간식도 주고 재미있었어요”
- 청소년 3

“쉼터에서는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목공예 등의 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청소년 5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범주에는 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으로 영화 관람, 여행 등 문화 프로그램, 흡연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생활이 힘든데.. 쉼터에서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해 줘서 좋았어요” - 청소년 6

“쉼터에서 친한 친구들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여수에 다녀 온 게 너무 좋았어요” - 청소년 9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목공예 등의 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청소년 5

“외부 강사가 와서 흡연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 청소년 9

‘진로 교육지원’ 범주에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학원, 메이크업 학원, 요리학원, 검정고시가 포함되어 있다.

“OO 쉼터에서는 나한테 메이크업 학원을 보내주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좋았어요” - 청소년 6

“쉼터에서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도록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금 바리스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 청소년 5

“쉼터에서 연결해 준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주고 요리학원 등록도 지원해 줘서 도움이 되었어요” - 청소년 10

3) 쉼터의 개선 점

마지막으로 쉼터 이용 시 불편했던 점 혹은 개선 점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범주는 총 6개로 ‘생활규칙 개선’, ‘생활 공간 개선’, ‘종사자의 태도’, ‘쉼터 입소 기간’, ‘생활 및 진로지원 확대’, ‘아웃리치 확대’ 이다.

표 17. 쉼터 개선 점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생활 규칙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강제로 거두어 감 • 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무조건 참여 하도록 강요함 • 몸이 아플 때도 있는데 배려 없이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함 • 학교 다녀와서 쉬고 싶은데 청소시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귀찮음 • 통금 시간이 엄격함
생활 공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지내게 해서 문제가 생김, 이들 간의 공간은 분리해야 함 • 화장실 문이 잘 잠겨있지 않거나, 조명이 어둡거나 벌레가 많은 환경은 개선이 필요함 •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됨 • 개인공간, 개인 시간이 없음
종사자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이 입소생을 대하는 태도가 편차가 큼 • 선생님들이 차별적이고 편견의 태도 보다는 공감적 태도를 가졌으면 함 •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즉시적인 상담과 편안하게 반응해 줬으면 함
쉼터 입소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기간이 다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미리 옮겨갈 쉼터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좋겠음
생활 및 진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을 지원해 주면 좋을 듯 함 •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쉼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함
아웃리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웃리치를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했으면 함

우선 ‘생활규칙 개선’ 범주에는 쉼터에서 생활할 때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거두는 것, 프로그램 참여 강요, 엄격한 통금 시간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단기 쉼터에 있을 때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핸드폰을 압수해서 더 힘들었어요 그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 3

“목욕탕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선택권 없이 무조건 가라고 해요” - 청소년 4

“학교 온라인 수업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런 사정에 대한 배려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개선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 청소년5

“학교 끝나고 쉬고 싶은데 무슨. 원예, 미술,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시청에서 컴퓨터를 온다고 하면 청소를 시켜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은 적도 있어요.” - 청소년 8

“핸드폰 걷는 시간이나 통금 시간 등을 좀 더 늦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청소년 9

‘생활 공간 개선’ 범주에는 청소년들이 컴퓨터에서 생활하면서 공간의 특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실 이용,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방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 내에서 입소자들 간에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으로 분리해 주지 못해서 매우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 청소년 4

“화장실 문이 잘 안 잠겨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몇 번 말했는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또 주변에 풀들이 많아서 벌레가 너무 많아요.. 네 명이 같은 방을 쓰는데 사생활 보호가 안 되어서 불편하고 방음도 안 돼요.” - 청소년 5

“단체 생활이라서 개인 공간, 개인 시간이 없다는 게 불편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 청소년 9

‘종사자의 태도’ 범주는 입소생들을 대하는 종사자의 태도, 공감적인 태도의 필요에 대한 개념으로 종사자 마다 태도의 편차가 크고, 입소생에게 차별적이기 보다는 공감적 태도로 대해 줬으면 하고, 친절한 상담자의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에서 높은 직급이신 분들은 말을 해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입소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선생님이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소생들을 공감하려는 태도가 부족해 보여요.” - 청소년 4

“학생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로 상담을 해주거나 편안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 청소년 6

“선생님들이 바빠서 잘 신경을 안 써준다고 느꼈어요.” - 청소년 3

‘컴퓨터 입소 기간’에 대한 범주는 입소 기간 만료 시 불편함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컴터 입소 기간 만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기관을 옮기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미리 옮겨갈 컴터에 대한 특성, 분위기 정보를 준다던가 해서 불안을 좀 줄여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 6

‘생활 및 진로지원 확대’ 범주는 생활에 필요한 용돈이라던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 지원을 확대해 줄 것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친구들 만나거나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한 달에 5만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매달 컴터에서 2-3만원 정도 용돈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청소년 9

“저는 요리학원을 꿈드림에서 지원 받는데, 여러 관심 분야에 대해서 컴터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 청소년 10

‘아웃리치 확대’ 범주는 가출 청소년들이 쉽게 컴터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컴터에서 크게 개선한 점은 없지만...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아웃리치의 범위를 넓혀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장소에서 아이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 청소년 2

2. 컴터 종사자 의견 수렴 결과

서면질의 자료에 대한 의견수렴 영역은 가정 밖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영역, 컴터 운영 및 서비스 연계 영역, 기타 발전방안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범주화하였으며, 영역별 범주와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 밖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사례 관리

1)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컴터 유입 경로의 개선점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컴터 유입 경로의 개선점을 범주화하고 개념을 살펴보면 <표 18> 과 같다. 이를 범주화하면 ‘아웃리치 방식의 변화’, ‘발굴유도를 위한 정책 확대’ 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웃리치 방식의 변화’ 로는 기존의 양적 평가 방식에서 질적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에 대한 노력에 있어 질적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차량 중심의 이동쉼터는 보호공간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동쉼터에서 별도의 보호공간 확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늘리고, 아웃리치 대상을 ‘가정 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으로 확대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의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발굴유도를 위한 정책 확대’ 로는 기관에 따라 2명씩 배치되어 있는 아웃리치 전담 요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아웃리치를 확대·운영하고,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의 발굴역량 강화 및 질적 제고를 통한 보호체계 내 유입·연계 강화, 청소년안전망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연계의 필요성과 함께 청소년쉼터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발굴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18. 쉼터 이용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및 개선 방안

범주	개념
아웃리치 방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의 변화 • 이동쉼터에서의 보호공간 확보 • 아웃리치의 대상을 ‘가정 밖청소년’에서 ‘위기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발굴유도를 위한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아웃리치 전담인력 확대 •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발굴 강화 • 청소년쉼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강화

2)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및 개선 방안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및 개선방안을 범주화하고 개념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주요 호소문제를 범주화하면 ‘가족관계’, ‘경제적 어려움’, ‘규칙준수 어려움’ 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쉼터 이용시에 보호자 연락에 따른 청소년들의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밖 이전부터 발생한 부모·자녀 관계 약화에 대한 개선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쉼터 이용시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거공간 마련, 생활비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의 부족으로 인한 청소

년들이 원하는 학원, 학습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규칙준수의 어려움으로는 일상생활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쉼터의 특성 상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가족관계에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으로 가정복귀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자립방안과 함께 최소한의 개인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규칙준수와 관련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쉼터규칙의 유연화와 함께 현재 10인 이상의 시설들은 10인 미만으로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공동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19.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및 개선방안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주요 호소 문제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연락에 따른 청소년들의 부담감 발생 • 부모·자녀 관계 악화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에 소외되어 자립에 대한 어려움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개인생활 유지 미흡
	규칙 준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관리에 대한 어려움 •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규칙준수 어려움
개선 방안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이용 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성공적인 자립이행 강화 • 개인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규칙 준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규칙의 유연화 • 쉼터정원의 축소를 통한 공동생활 완화

3) 쉼터 이용청소년들을 위해 강화해야 할 서비스 또는 개선해야 할 서비스

쉼터 이용 청소년들을 위해 강화해야 할 서비스 또는 개선해야 할 서비스는 <표 20>과 같다. 주요 서비스별로 범주화하면 ‘경제’, ‘심리정서’, ‘쉼터 개선’, ‘종사자의 전문성’, ‘퇴소이후 지원’의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정기적 용돈 지원을 통해 입소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른 경제적 활동, 디딤씨앗통장처럼 퇴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이 도출되었다. 심리정서적 지원으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치료지원과 학대 등으

로 인한 우울불안 증세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컴퓨터개선으로는 생활공간을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전환하여 소규모의 안정된 생활공간 마련과 야간보호인력 증원을 통한 야간시간에 청소년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이용청소년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등의 사례발생으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퇴소 이후 지원강화에서는 퇴소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백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20. 컴퓨터 이용 청소년들을 위해 강화해야할 서비스 및 개선해야할 서비스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용돈 지원 • 아동복지법의 CDA처럼 자산형성 지원
심리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 지원 • 학대·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컴퓨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의 이용자 축소(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전환) • 야간보호 인력 증원
종사자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례발생으로 인한 전문적 개입 필요
퇴소이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이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4) 사례관리의 어려움 및 개선점

컴퓨터 이용 청소년들의 사례관리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범주화하면 ‘정신건강 문제’, ‘지속 사례관리’로 나눌 수 있다.

조규필 외(2019)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에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36.4%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례관리 측면에서 자해·정신건강 문제를 청소년이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종사자의 배치 미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사례관리의 어려움으로는 이동쉼터의 특성 상,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아닌 일시고정, 단기형 쉼터의 연계로 인한 사례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팜 청소년들의 사례관리에 대한 미비, 무단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야간 당직자들의 증원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의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사이버아웃리치 요원의 충원을 통한 온라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사례관리의 어려움과 개선점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사례관리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해·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의 급증 • 정신건강에 대처하기 위한 종사자 배치 미비
	지속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쉼터의 특성 상, 지속적 사례관리의 어려움 발생 • 가정 박람회 등 서비스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지원 미비 • 입소규칙 미준수, 거짓말 발생 등으로 인한 무단퇴소 시, 사례관리 중단 발생
사례관리 개선방안	정신건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야간당직자 증원 • 전담 임상심리사의 배치 필요
	지속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사이버아웃리치 요원 등) 총원

나. 쉼터 운영 및 서비스 연계

1)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점 및 개선점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이를 범주화하면 ‘인력’,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인력의 애로점으로는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에 따른 종사자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업무소진의 과다와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따른 종사자의 위험도 증가를 보고하였다. 예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급등하는 발달시기인 청소년기임에도 급량비가 천원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영양결핍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자체별로 예산매칭이 상이하야 예산상의 편차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점으로 인력에서는 인력증원과 함께 적절한 업무량으로 종사자들이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과 함께 고위기 청소년들의 지원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산에서는 예산증액을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점과 개선점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청소년쉼터 운영의 애로점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부족 • 종사자의 업무소진 과다 및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따른 위험 증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대상 사업비 부족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편차 발생 • 청소년들의 적절한 금량비 지원 미비
청소년쉼터 운영의 개선점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증원을 통한 종사자의 적절 업무량 필요 • 종사자 안전관리 대책 강구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증액을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원

2)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이를 범주화하면 ‘예산확보’, ‘지자체의 운영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예산확보로는 상시 운영을 고려하여 예산증액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을 통한 인건비 현실화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자체의 운영지원 강화에서는 청소년쉼터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응급시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자체별 의무 설치, 이동쉼터의 경우 주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자체의 지원 강화, 지자체 공무원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식제고와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3.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범주	개념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운영체계에 따라 현실성을 고려한 예산 지원 • 인건비 현실화
지자체의 운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의 지자체별 의무 설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지원 강화 • 퇴소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원

3)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관련 의견은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보다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표 24>와 같다. 이를 범주화하면 ‘예산증액’, ‘인력증원’, ‘정책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증액으로는 상시 운영으로 인한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또는 대체휴무 마련이 필요하지만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원할 예산도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력증원으로는 상시 근무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과 함께 전문인력의 증원을 통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정책개선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동일한 처우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표 24. 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예산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운영체계에 따라 현실성을 고려한 예산 지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지급 현실화
인력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무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이용청소년 대상 서비스 질 제고
정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처우 개선

4) 청소년안전망 등 지역 내 서비스 연계의 애로점 및 개선사항

청소년안전망 등 지역 내 서비스 연계의 애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표25>과 같다. 이를 범주화하면 ‘청소년쉼터의 참여기회 미비’, ‘적극적 협력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안전망에서 청소년쉼터가 필수연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쳐 실효성 낮은 정책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선사항으로는 필수연계기관 간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들의 적극 공유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함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청소년안전망에서의 사례정보의 적극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이 적극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25. 청소년안전망 등 지역 내 서비스 연계의 애로점과 개선사항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청소년쉼터 참여 기회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가 안전망의 형식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 • 실효성 있는 연계 협력 미흡
적극적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연계기관 간 대상 및 서비스내용의 이해를 통한 상호이해 강화 • 사례정보의 적극 공유를 통해 청소년대상 서비스의 질적 제고

다. 기타

1)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의견

청소년쉼터의 발전을 위한 의견은 <표 26>과 같다. 이를 범주화하면 ‘정책적 지원’, ‘업무처리방식 개선’, ‘평가방식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적 지원에서는 현재 입소기간중심의 청소년쉼터 유형을 기능중심의 체계로의 개편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발전방안 수립, 대국민 홍보를 통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와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쉼터 신설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평가방식 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몇 명을 지원했느냐의 양적 중심의 평가를 질적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표 26.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의견 범주 및 개념

범주	개념
정책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중심으로 청소년쉼터 개편 • 청소년쉼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발전방안 수립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청소년쉼터의 이미지 개선 및 이용률 제고 • 거점쉼터 신설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 지원 강화
평가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의 개선

3.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쉼터 기관 현황, 쉼터 종사자 설문 결과

가.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쉼터에 입소 하거나 청소년쉼터를 이용중인 청소년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남자는 265명(51.3%), 여자는 252명(48.7%)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7.59세(표준편차 2.75)였다.

표 2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빈도(%)와 평균 연령(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빈도(%)	평균 연령(표준편차)
전체		517(100.0%)	17.59(2.75)
성별	남자	265(51.3%)	18.04(2.76)
	여자	252(48.7%)	17.11(2.66)
쉼터유형	일시이동형	81(15.7%)	17.60(2.74)
	고정형	25(4.8%)	18.80(3.20)
	단기·중장기	411(79.5%)	17.51(2.71)
지역	강원	18(3.5%)	17.22(2.80)
	경기	100(19.3%)	17.22(2.50)
	경남	10(1.9%)	16.00(4.85)
	경북	6(1.2%)	18.50(3.27)
	광주	18(3.5%)	18.89(2.83)
	대구	13(2.5%)	18.00(2.27)
	대전	19(3.7%)	19.42(2.52)
	부산	25(4.8%)	19.20(2.71)
	서울	102(19.7%)	17.83(2.63)
	울산	26(5.0%)	15.73(2.11)
	인천	59(11.4%)	16.69(2.89)
	전남	15(2.9%)	17.87(1.30)
	전북	8(1.5%)	19.75(4.23)
	제주	59(11.4%)	17.51(2.04)
	충남	22(4.3%)	17.86(2.70)
	충북	17(3.3%)	17.71(3.18)

1) 현재 상황 및 가출경험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현재 학업상황은 재학중이 348명(67.3%), 비재학중이 169명(32.7%) 현재 학업을 진행중인 청소년이 더 많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재학중의 비율이 73.4%로 남자의 61.5%보다 다소 높았고, 쉼터유형이 고정형인 경우에는 비재학중이 68.0%로 재학중인 32.0% 보다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북 지역의 비재학중인 청소년이 75.0%, 재학중인 청소년이 25.0%보다 많았다.

표 2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학업상황(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재학중	비재학중	전체	χ^2
전체		348(67.3%)	169(32.7%)	517(100.0%)	
성별	남자	163(61.5%)	102(38.5%)	265(100.0%)	8.318**
	여자	185(73.4%)	67(26.6%)	252(100.0%)	
쉼터유형	일시이동형	69(85.2%)	12(14.8%)	81(100.0%)	26.281***
	고정형	8(32.0%)	17(68.0%)	25(100.0%)	
	단기·중장기	271(65.9%)	140(34.1%)	411(100.0%)	
지역	강원	12(66.7%)	6(33.3%)	18(100.0%)	-
	경기	60(60.0%)	40(40.0%)	100(100.0%)	
	경남	7(70.0%)	3(30.0%)	10(100.0%)	
	경북	4(66.7%)	2(33.3%)	6(100.0%)	
	광주	12(66.7%)	6(33.3%)	18(100.0%)	
	대구	10(76.9%)	3(23.1%)	13(100.0%)	
	대전	8(42.1%)	11(57.9%)	19(100.0%)	
	부산	14(56.0%)	11(44.0%)	25(100.0%)	
	서울	58(56.9%)	44(43.1%)	102(100.0%)	
	울산	24(92.3%)	2(7.7%)	26(100.0%)	
	인천	48(81.4%)	11(18.6%)	59(100.0%)	
	전남	14(93.3%)	1(6.7%)	15(100.0%)	
	전북	2(25.0%)	6(75.0%)	8(100.0%)	
	제주	52(88.1%)	7(11.9%)	59(100.0%)	
	충남	13(59.1%)	9(40.9%)	22(100.0%)	
충북	10(58.8%)	7(41.2%)	17(100.0%)		

** $p < .01$, *** $p < .001$

재학중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189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112명(32.2%),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41명(11.8%),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 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다.

표 29.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재학중인 학교(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전체		6(1.7%)	112(32.2%)	189(54.3%)	41(11.8%)	348(100.0%)
성별	남자	3(1.8%)	48(29.4%)	92(56.4%)	20(12.3%)	163(100.0%)
	여자	3(1.6%)	64(34.6%)	97(52.4%)	21(11.4%)	185(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2(2.9%)	14(20.3%)	46(66.7%)	7(10.1%)	69(100.0%)
	고정형	1(12.5%)	2(25.0%)	5(62.5%)	0(0.0%)	8(100.0%)
	단기·중장기	3(1.1%)	96(35.4%)	138(50.9%)	34(12.5%)	271(100.0%)
지역	강원	0(0.0%)	5(41.7%)	7(58.3%)	0(0.0%)	12(100.0%)
	경기	1(1.7%)	22(36.7%)	33(55.0%)	4(6.7%)	60(100.0%)
	경남	0(0.0%)	1(14.3%)	6(85.7%)	0(0.0%)	7(100.0%)
	경북	0(0.0%)	2(50.0%)	1(25.0%)	1(25.0%)	4(100.0%)
	광주	0(0.0%)	3(25.0%)	5(41.7%)	4(33.3%)	12(100.0%)
	대구	0(0.0%)	3(30.0%)	7(70.0%)	0(0.0%)	10(100.0%)
	대전	0(0.0%)	1(12.5%)	5(62.5%)	2(25.0%)	8(100.0%)
	부산	1(7.1%)	1(7.1%)	7(50.0%)	5(35.7%)	14(100.0%)
	서울	0(0.0%)	21(36.2%)	134(58.6%)	3(5.2%)	58(100.0%)
	울산	1(4.2%)	11(45.8%)	10(41.7%)	2(8.3%)	24(100.0%)
	인천	2(4.2%)	22(45.8%)	18(37.5%)	6(12.5%)	48(100.0%)
	전남	0(0.0%)	0(0.0%)	9(64.3%)	5(35.7%)	14(100.0%)
	전북	0(0.0%)	1(50.0%)	1(50.0%)	0(0.0%)	2(100.0%)
	제주	1(1.9%)	8(15.4%)	38(73.1%)	5(9.6%)	52(100.0%)
	충남	0(0.0%)	6(46.2%)	5(38.5%)	2(15.4%)	13(100.0%)
	충북	0(0.0%)	5(50.0%)	3(30.0%)	2(20.0%)	10(100.0%)

비재학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131명(77.5%)으로 검정고시 준비중인 청소년 38명(22.5%) 보다 많았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비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84.3%로 여자 청소년의 67.2%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30.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비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상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학업 비유지	검정고시 준비	전체	χ^2
전체		131(77.5%)	38(22.5%)	169(100.0%)	
성별	남자	86(84.3%)	16(15.7%)	102(100.0%)	6.824**
	여자	45(67.2%)	22(32.8%)	67(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9(75.0%)	3(25.0%)	12(100.0%)	-
	고정형	14(82.4%)	3(17.6%)	17(100.0%)	
	단기·중장기	108(77.1%)	32(22.9%)	140(100.0%)	
지역	강원	4(66.7%)	2(33.3%)	6(100.0%)	-
	경기	27(67.5%)	13(32.5%)	40(100.0%)	
	경남	3(100.0%)	0(0.0%)	3(100.0%)	
	경북	2(100.0%)	0(0.0%)	2(100.0%)	
	광주	6(100.0%)	0(0.0%)	6(100.0%)	
	대구	2(66.7%)	1(33.3%)	3(100.0%)	
	대전	11(100.0%)	0(0.0%)	11(100.0%)	
	부산	9(81.8%)	2(18.2%)	11(100.0%)	
	서울	35(79.5%)	9(20.5%)	44(100.0%)	
	울산	2(100.0%)	0(0.0%)	2(100.0%)	
	인천	9(81.8%)	2(18.2%)	11(100.0%)	
	전남	0(0.0%)	1(100.0%)	1(100.0%)	
	전북	6(100.0%)	0(0.0%)	6(100.0%)	
	제주	4(57.1%)	3(42.9%)	7(100.0%)	
	충남	5(55.6%)	4(44.4%)	9(100.0%)	
	충북	6(85.7%)	1(14.3%)	7(100.0%)	

** p < .01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청소년이 33명(86.8%)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이 5명(13.2%) 보다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31.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준비중인 검정고시 유형(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체
전체		5(13.2%)	33(86.8%)	38(100.0%)
성별	남자	0(0.0%)	16(100.0%)	16(100.0%)
	여자	5(22.7%)	17(77.3%)	2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0(0.0%)	3(100.0%)	3(100.0%)
	고정형	0(0.0%)	3(100.0%)	3(100.0%)
	단기·중장기	5(15.6%)	27(84.4%)	32(100.0%)
지역	강원	0(0.0%)	2(100.0%)	2(100.0%)
	경기	4(30.8%)	9(69.2%)	13(100.0%)
	대구	0(0.0%)	1(100.0%)	1(100.0%)
	부산	0(0.0%)	2(100.0%)	2(100.0%)
	서울	1(11.1%)	8(88.9%)	9(100.0%)
	인천	0(0.0%)	2(100.0%)	2(100.0%)
	전남	0(0.0%)	1(100.0%)	1(100.0%)
	제주	0(0.0%)	3(100.0%)	3(100.0%)
	충남	0(0.0%)	4(100.0%)	4(100.0%)
	충북	0(0.0%)	1(100.0%)	1(100.0%)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최종학업 상태는 고등학교 졸업이 98명(74.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중퇴가 11명(8.4%), 고등학교 중퇴가 10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성별, 심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종 학업상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중퇴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	전체
전체		3(2.3%)	2(1.5%)	3(2.3%)	10(7.6%)	98(74.8%)	11(8.4%)	4(3.1%)	131(100.0%)
성별	남자	3(3.5%)	2(2.3%)	3(3.5%)	8(9.3%)	61(70.9%)	7(8.1%)	2(2.3%)	86(100.0%)
	여자	0(0.0%)	0(0.0%)	0(0.0%)	2(4.4%)	37(82.2%)	4(8.9%)	2(4.4%)	45(100.0%)
심터 유형	일시이동형	0(0.0%)	0(0.0%)	0(0.0%)	1(11.1%)	3(33.3%)	3(33.3%)	2(22.2%)	9(100.0%)
	고정형	0(0.0%)	0(0.0%)	1(7.1%)	4(28.6%)	9(64.3%)	0(0.0%)	0(0.0%)	14(100.0%)
	단기·중장기	3(2.8%)	2(1.9%)	2(1.9%)	5(4.6%)	86(79.6%)	8(7.4%)	2(1.9%)	108(100.0%)
지역	강원	0(0.0%)	0(0.0%)	0(0.0%)	1(25.0%)	3(75.0%)	0(0.0%)	0(0.0%)	4(100.0%)
	경기	1(3.7%)	1(3.7%)	1(3.7%)	0(0.0%)	24(88.9%)	0(0.0%)	0(0.0%)	27(100.0%)
	경남	0(0.0%)	0(0.0%)	0(0.0%)	1(33.3%)	2(66.7%)	0(0.0%)	0(0.0%)	3(100.0%)
	경북	0(0.0%)	0(0.0%)	0(0.0%)	0(0.0%)	1(50.0%)	0(0.0%)	1(50.0%)	2(100.0%)
	광주	0(0.0%)	0(0.0%)	0(0.0%)	0(0.0%)	5(83.3%)	1(16.7%)	0(0.0%)	6(100.0%)
	대구	0(0.0%)	0(0.0%)	0(0.0%)	0(0.0%)	2(100.0%)	0(0.0%)	0(0.0%)	2(100.0%)
	대전	1(9.1%)	0(0.0%)	0(0.0%)	1(9.1%)	8(72.7%)	1(9.1%)	0(0.0%)	11(100.0%)
	부산	0(0.0%)	0(0.0%)	0(0.0%)	0(0.0%)	6(66.7%)	1(11.1%)	2(22.2%)	9(100.0%)
	서울	1(2.9%)	0(0.0%)	2(5.7%)	4(11.4%)	25(71.4%)	3(8.6%)	0(0.0%)	35(100.0%)
	울산	0(0.0%)	0(0.0%)	0(0.0%)	0(0.0%)	2(100.0%)	0(0.0%)	0(0.0%)	2(100.0%)
	인천	0(0.0%)	0(0.0%)	0(0.0%)	0(0.0%)	8(88.9%)	1(11.1%)	0(0.0%)	9(100.0%)
	전북	0(0.0%)	0(0.0%)	0(0.0%)	1(16.7%)	2(33.3%)	2(33.3%)	1(16.7%)	6(100.0%)
	제주	0(0.0%)	0(0.0%)	0(0.0%)	1(25.0%)	1(25.0%)	2(50.0%)	0(0.0%)	4(100.0%)
	충남	0(0.0%)	0(0.0%)	0(0.0%)	0(0.0%)	5(100.0%)	0(0.0%)	0(0.0%)	5(100.0%)
	충북	0(0.0%)	1(16.7%)	0(0.0%)	1(16.7%)	4(66.7%)	0(0.0%)	0(0.0%)	6(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가출 연령은 평균 13.51세(표준편차 5.04)로 나타났으며,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은 15.96세(3.10)로 가출 연령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최장 가출기간은 평균 7.8개월(표준편차 12.53)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최장 가출기간은 9.19개월(13.84)로 여자의 6.48개월(10.81) 보다 길었고,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의 최장 가출기간은 3.31개월(18.71)로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컴퓨터의 최장 가출기간인 9.56개월(12.43)과 8.60개월(12.97)보다 짧았다.

표 33.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연령과 최장 가출기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가출 연령 평균(표준편차)	최장 가출기간
전체		13.51(5.04)	7.88(12.53)
성별	남자	13.43(5.20)	9.19(13.84)
	여자	13.60(4.86)	6.48(10.81)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13.12(5.87)	3.31(8.71)
	고정형	15.96(3.10)	9.56(12.43)
	단기·중장기	13.44(4.93)	8.60(12.97)
지역	강원	13.17(4.37)	5.47(7.50)
	경기	13.81(4.20)	7.09(7.88)
	경남	15.30(2.67)	8.91(9.67)
	경북	13.67(7.34)	26.25(37.47)
	광주	12.50(7.34)	10.26(18.39)
	대구	14.38(2.26)	9.85(17.71)
	대전	16.21(2.23)	12.59(16.37)
	부산	15.00(4.86)	8.90(10.18)
	서울	13.57(5.47)	8.47(12.09)
	울산	11.15(5.54)	3.88(9.37)
	인천	13.66(4.05)	12.40(17.22)
	전남	12.07(5.35)	6.24(11.81)
	전북	11.75(7.54)	3.91(4.60)
	제주	13.63(5.12)	4.04(10.90)
	충남	13.91(4.85)	5.08(9.17)
	충북	10.18(7.23)	3.97(4.73)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가출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이 28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간의 갈등이 74명(15.8%), 기타가 137명(7.9%), 우울, 불안, 스트레스 때문이 22명(4.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3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부모와의 갈등	부모 간의 갈등	형제, 자매 등 동기 간의 갈등	친척, 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학교 교우와의 갈등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기타	전체
전체		284 (60.7%)	74 (15.8%)	16 (3.4%)	1 3(2.8%)	7 (1.5%)	22 (4.7%)	3 (0.6%)	2 (0.4%)	10 (2.1%)	137 (7.9%)	468 (100.0%)
성별	남자	137 (58.8%)	34 (14.6%)	8 (3.4%)	9 (3.9%)	6 (2.6%)	13 (5.6%)	2 (0.9%)	1 (0.4%)	2 (0.9%)	21 (9.0%)	233 (100.0%)
	여자	147 (62.6%)	40 (17.0%)	8 (3.4%)	4 (1.7%)	1 (0.4%)	9 (3.8%)	1 (0.4%)	1 (0.4%)	8 (3.4%)	16 (6.8%)	235 (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35 (53.0%)	10 (15.2%)	3 (4.5%)	0 (0.0%)	0 (0.0%)	7 (10.6%)	0 (0.0%)	1 (1.5%)	5 (7.6%)	5 (7.6%)	66 (100.0%)
	고정형	18 (75.0%)	1 (4.2%)	1 (4.2%)	0 (0.0%)	1 (4.2%)	2 (8.3%)	0 (0.0%)	0 (0.0%)	0 (0.0%)	1 (4.2%)	24 (100.0%)
	단기·중장기	231 (61.1%)	63 (16.7%)	12 (3.2%)	13 (3.4%)	6 (1.6%)	13 (3.4%)	3 (0.8%)	1 (0.3%)	5 (1.3%)	3 1(8.2%)	378 (100.0%)
지역	강원	7 (50.0%)	4 (28.6%)	0 (0.0%)	0 (0.0%)	0 (0.0%)	1 (7.1%)	1 (7.1%)	0 (0.0%)	0 (0.0%)	1 (7.1%)	14 (100.0%)
	경기	59 (63.4%)	12 (12.9%)	4 (4.3%)	4 (4.3%)	0 (0.0%)	6 (6.5%)	0 (0.0%)	0 (0.0%)	1 (1.1%)	7 (7.5%)	93 (100.0%)
	경남	9 (9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구분	범주	부모와의 갈등	부모 간의 갈등	형제, 자매 등 동기 간의 갈등	친척, 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학교 교우와의 갈등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기타	전체
	경북	3 (50.0%)	0 (0.0%)	0 (0.0%)	1 (16.7%)	1 (16.7%)	0 (0.0%)	0 (0.0%)	0 (0.0%)	0 (0.0%)	1 (16.7%)	6 (100.0%)
	광주	8 (47.1%)	4 (23.5%)	1 (5.9%)	2 (11.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8%)	17 (100.0%)
	대구	8 (61.5%)	1 (7.7%)	0 (0.0%)	1 (7.7%)	1 (7.7%)	0 (0.0%)	0 (0.0%)	0 (0.0%)	0 (0.0%)	2 (15.4%)	13 (100.0%)
	대전	12 (66.7%)	2 (11.1%)	1 (5.6%)	0 (0.0%)	1 (5.6%)	0 (0.0%)	1 (5.6%)	0 (0.0%)	0 (0.0%)	1 (5.6%)	18 (100.0%)
	부산	12 (52.2%)	7 (30.4%)	0 (0.0%)	1 (4.3%)	0 (0.0%)	0 (0.0%)	0 (0.0%)	0 (0.0%)	3 (13.0%)	0 (0.0%)	23 (100.0%)
	서울	48 (51.1%)	20 (21.3%)	0 (0.0%)	3 (3.2%)	2 (2.1%)	9 (9.6%)	0 (0.0%)	0 (0.0%)	1 (1.1%)	11 (11.7%)	94 (100.0%)
	울산	12 (54.5%)	4 (18.2%)	1 (4.5%)	1 (4.5%)	1 (4.5%)	1 (4.5%)	0 (0.0%)	0 (0.0%)	1 (4.5%)	1 (4.5%)	22 (100.0%)
	인천	42 (72.4%)	6 (10.3%)	0 (0.0%)	0 (0.0%)	1 (1.7%)	0 (0.0%)	0 (0.0%)	1 (1.7%)	2 (3.4%)	6 (10.3%)	58 (100.0%)
	전남	6 (54.5%)	2 (18.2%)	2 (18.2%)	0 (0.0%)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11 (100.0%)
	전북	4 (66.7%)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7%)	6 (100.0%)
	제주	31 (63.3%)	6 (12.2%)	3 (6.1%)	0 (0.0%)	0 (0.0%)	4 (8.2%)	0 (0.0%)	1 (2.0%)	2 (4.1%)	2 (4.1%)	49 (100.0%)
	충남	14 (70.0%)	3 (15.0%)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	20 (100.0%)
	충북	9 (64.3%)	1 (7.1%)	2 (14.3%)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	1 (7.1%)	14 (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출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생활비가 없을 때가 132명(29.0%),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 104명(22.9%),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77명(16.9%),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39명(8.6%), 가족이 보고 싶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17명(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33.3%로 가장 많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생활비가 없을 때가 36.2%로 가장 많았다.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은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단기·중장기 컴퓨터와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은 생활비가 없을 때가 각각 28.6%와 32.8%로 가장 많았다.

표 35.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생활비가 없을 때	가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건강이 나빠질 때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가족이 보고 싶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때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부터 강요 받거나 협박 받을 때	기타	해당 없음	전체
전체		104(22.9%)	77(16.9%)	132(29.0%)	5(1.1%)	5(1.1%)	39(8.6%)	17(3.7%)	7(1.5%)	1(0.2%)	7(1.5%)	61(13.4%)	455(100.0%)
성별	남자	77(33.3%)	37(16.0%)	51(22.1%)	4(1.7%)	3(1.3%)	16(6.9%)	10(4.3%)	1(0.4%)	1(0.4%)	1(0.4%)	30(13.0%)	231(100.0%)
	여자	27(12.1%)	40(17.9%)	81(36.2%)	1(0.4%)	2(0.9%)	23(10.3%)	7(3.1%)	6(2.7%)	0(0.0%)	6(2.7%)	31(13.8%)	224(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14(21.9%)	10(15.6%)	21(32.8%)	1(1.6%)	0(0.0%)	6(9.4%)	3(4.7%)	0(0.0%)	0(0.0%)	1(1.6%)	8(12.5%)	64(100.0%)
	고정형	5(20.8%)	8(33.3%)	6(25.0%)	1(4.2%)	0(0.0%)	3(12.5%)	0(0.0%)	0(0.0%)	0(0.0%)	0(0.0%)	1(4.2%)	24(100.0%)
	단기·중장기	85(23.2%)	59(16.1%)	105(28.6%)	3(0.8%)	5(1.4%)	30(8.2%)	14(3.8%)	7(1.9%)	1(0.3%)	6(1.6%)	52(14.2%)	367(100.0%)
지역	강원	3(21.4%)	3(21.4%)	3(21.4%)	0(0.0%)	0(0.0%)	2(14.3%)	0(0.0%)	0(0.0%)	0(0.0%)	1(7.1%)	2(14.3%)	14(100.0%)
	경기	17(19.3%)	23(26.1%)	21(23.9%)	2(2.3%)	2(2.3%)	9(10.2%)	5(5.7%)	1(1.1%)	1(1.1%)	0(0.0%)	7(8.0%)	88(100.0%)

구분	범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생활비가 없을 때	가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건강이 나빠질 때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가족이 보고 싶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때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부터 강요 받거나 협박 받을 때	기타	해당 없음	전체
	경남	1(10.0%)	1(10.0%)	5(50.0%)	0(0.0%)	0(0.0%)	0(0.0%)	1(10.0%)	0(0.0%)	0(0.0%)	0(0.0%)	2(20.0%)	10(100.0%)
	경북	1(16.7%)	1(16.7%)	1(16.7%)	0(0.0%)	0(0.0%)	1(16.7%)	0(0.0%)	1(16.7%)	0(0.0%)	0(0.0%)	1(16.7%)	6(100.0%)
	광주	5(29.4%)	4(23.5%)	1(5.9%)	0(0.0%)	0(0.0%)	1(5.9%)	1(5.9%)	1(5.9%)	0(0.0%)	0(0.0%)	4(23.5%)	17(100.0%)
	대구	4(30.8%)	1(7.7%)	4(30.8%)	0(0.0%)	1(7.7%)	0(0.0%)	0(0.0%)	0(0.0%)	0(0.0%)	1(7.7%)	2(15.4%)	13(100.0%)
	대전	6(33.3%)	0(0.0%)	6(33.3%)	0(0.0%)	0(0.0%)	3(16.7%)	0(0.0%)	0(0.0%)	0(0.0%)	0(0.0%)	3(16.7%)	18(100.0%)
	부산	6(26.1%)	4(17.4%)	8(34.8%)	0(0.0%)	0(0.0%)	3(13.0%)	1(4.3%)	0(0.0%)	0(0.0%)	0(0.0%)	1(4.3%)	23(100.0%)
	서울	20(22.0%)	14(15.4%)	30(33.0%)	2(2.2%)	1(1.1%)	7(7.7%)	1(1.1%)	1(1.1%)	0(0.0%)	2(2.2%)	13(14.3%)	91(100.0%)
	울산	7(33.3%)	1(4.8%)	5(23.8%)	0(0.0%)	0(0.0%)	2(9.5%)	1(4.8%)	1(4.8%)	0(0.0%)	0(0.0%)	4(19.0%)	21(100.0%)
	인천	9(16.1%)	11(19.6%)	19(33.9%)	0(0.0%)	1(1.8%)	2(3.6%)	2(3.6%)	2(3.6%)	0(0.0%)	1(1.8%)	9(16.1%)	56(100.0%)
	전남	5(45.5%)	2(18.2%)	0(0.0%)	1(9.1%)	0(0.0%)	1(9.1%)	0(0.0%)	0(0.0%)	0(0.0%)	1(9.1%)	1(9.1%)	11(100.0%)
	전북	2(40.0%)	0(0.0%)	2(40.0%)	0(0.0%)	0(0.0%)	1(20.0%)	0(0.0%)	0(0.0%)	0(0.0%)	0(0.0%)	0(0.0%)	5(100.0%)
	제주	12(24.0%)	4(8.0%)	18(36.0%)	0(0.0%)	0(0.0%)	5(10.0%)	3(6.0%)	0(0.0%)	0(0.0%)	1(2.0%)	7(14.0%)	50(100.0%)
	충남	4(21.1%)	5(26.3%)	6(31.6%)	0(0.0%)	0(0.0%)	2(10.5%)	1(5.3%)	0(0.0%)	0(0.0%)	0(0.0%)	1(5.3%)	19(100.0%)
	충북	2(15.4%)	3(23.1%)	3(23.1%)	0(0.0%)	0(0.0%)	0(0.0%)	1(7.7%)	0(0.0%)	0(0.0%)	0(0.0%)	4(30.8%)	13(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 전에는 없었지만 가출 후에 생긴 경험에 대한 응답은 모두 해당 없음을 제외하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험이 40건(7.8%),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험이 39건(7.6%), 돈, 잡자리, 음식 등의 대가를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11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36.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후에 처음 생긴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누군가에게 폭행	SNS 사진 유포,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	약물복용	돈, 잡자리, 음식 등의 대가를 받고 이성과 성관계	성별	모두 해당 없음	전체
전체		40(7.8%)	6(1.2%)	39(7.6%)	4(0.8%)	11(2.1%)	7(1.4%)	409(79.3%)	516(100.0%)
성별	남자	25(9.3%)	4(1.5%)	23(8.6%)	2(0.7%)	2(0.7%)	4(1.5%)	208(77.6%)	268(100.0%)
	여자	15(6.0%)	2(0.8%)	16(6.5%)	2(0.8%)	9(3.6%)	3(1.2%)	201(81.0%)	248(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5(7.0%)	0(0.0%)	5(7.0%)	0(0.0%)	0(0.0%)	0(0.0%)	61(85.9%)	71(100.0%)
	고정형	2(6.7%)	3(10.0%)	4(13.3%)	0(0.0%)	1(3.3%)	1(3.3%)	19(63.3%)	30(100.0%)
	단기·중장기	33(8.0%)	3(0.7%)	30(7.2%)	4(1.0%)	10(2.4%)	6(1.4%)	329(79.3%)	415(100.0%)
지역	강원	3(16.7%)	0(0.0%)	1(5.6%)	0(0.0%)	1(5.6%)	0(0.0%)	13(72.2%)	18(100.0%)
	경기	10(9.3%)	2(1.9%)	8(7.4%)	2(1.9%)	5(4.6%)	4(3.7%)	77(71.3%)	108(100.0%)
	경남	0(0.0%)	0(0.0%)	0(0.0%)	0(0.0%)	0(0.0%)	0(0.0%)	9(100.0%)	9(100.0%)
	경북	0(0.0%)	0(0.0%)	0(0.0%)	0(0.0%)	0(0.0%)	0(0.0%)	5(100.0%)	5(100.0%)
	광주	2(13.3%)	0(0.0%)	0(0.0%)	0(0.0%)	0(0.0%)	0(0.0%)	13(86.7%)	15(100.0%)
	대구	0(0.0%)	0(0.0%)	0(0.0%)	0(0.0%)	0(0.0%)	0(0.0%)	13(100.0%)	13(100.0%)
	대전	4(18.2%)	2(9.1%)	3(13.6%)	0(0.0%)	0(0.0%)	0(0.0%)	13(59.1%)	22(100.0%)
	부산	0(0.0%)	0(0.0%)	3(13.0%)	1(4.3%)	0(0.0%)	0(0.0%)	19(82.6%)	23(100.0%)

구분	범주	누군가에게 폭행	SNS 사진 유포,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	약물복용	돈, 잠자리, 음식 등의 대가를 받고 이성과 성관계	성병	모두 해당 없음	전체
	서울	6(5.7%)	0(0.0%)	6(5.7%)	1(1.0%)	2(1.9%)	2(1.9%)	88(83.8%)	105(100.0%)
	울산	0(0.0%)	0(0.0%)	2(7.7%)	0(0.0%)	0(0.0%)	0(0.0%)	24(92.3%)	26(100.0%)
	인천	3(5.5%)	0(0.0%)	6(10.9%)	0(0.0%)	1(1.8%)	0(0.0%)	45(81.8%)	55(100.0%)
	전남	1(7.1%)	0(0.0%)	0(0.0%)	0(0.0%)	0(0.0%)	0(0.0%)	13(92.9%)	14(100.0%)
	전북	1(11.1%)	0(0.0%)	2(22.2%)	0(0.0%)	1(11.1%)	1(11.1%)	4(44.4%)	9(100.0%)
	제주	6(11.8%)	0(0.0%)	3(5.9%)	0(0.0%)	0(0.0%)	0(0.0%)	42(82.4%)	51(100.0%)
	충남	4(16.0%)	2(8.0%)	3(12.0%)	0(0.0%)	0(0.0%)	0(0.0%)	16(64.0%)	25(100.0%)
	충북	0(0.0%)	0(0.0%)	2(11.1%)	0(0.0%)	1(5.6%)	0(0.0%)	15(83.3%)	18(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중에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경험은 없는 경우가 452명(87.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6명(10.8%), 재판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9명(1.7%)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컴퓨터유형 및 지역에서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표 3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중 보호처분 판결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재판중	전체
전체		452(87.4%)	56(10.8%)	9(1.7%)	517(100.0%)
성별	남자	216(81.5%)	43(16.2%)	6(2.3%)	265(100.0%)
	여자	236(93.7%)	13(5.2%)	3(1.2%)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70(86.4%)	11(13.6%)	0(0.0%)	81(100.0%)
	고정형	20(80.0%)	5(20.0%)	0(0.0%)	25(100.0%)
	단기·중장기	362(88.1%)	40(9.7%)	9(2.2%)	411(100.0%)
지역	강원	16(88.9%)	2(11.1%)	0(0.0%)	18(100.0%)
	경기	89(89.0%)	9(9.0%)	2(2.0%)	100(100.0%)
	경남	8(80.0%)	2(20.0%)	0(0.0%)	10(100.0%)
	경북	5(83.3%)	1(16.7%)	0(0.0%)	6(100.0%)
	광주	17(94.4%)	1(5.6%)	0(0.0%)	18(100.0%)
	대구	11(84.6%)	2(15.4%)	0(0.0%)	13(100.0%)
	대전	14(73.7%)	4(21.1%)	1(5.3%)	19(100.0%)
	부산	21(84.0%)	3(12.0%)	1(4.0%)	25(100.0%)
	서울	89(87.3%)	11(10.8%)	2(2.0%)	102(100.0%)
	울산	23(88.5%)	1(3.8%)	2(7.7%)	26(100.0%)
	인천	55(93.2%)	4(6.8%)	0(0.0%)	59(100.0%)
	전남	14(93.3%)	1(6.7%)	0(0.0%)	15(100.0%)
	전북	7(87.5%)	1(12.5%)	0(0.0%)	8(100.0%)
	제주	50(84.7%)	9(15.3%)	0(0.0%)	59(100.0%)
	충남	20(90.9%)	1(4.5%)	1(4.5%)	22(100.0%)
	충북	13(76.5%)	4(23.5%)	0(0.0%)	17(100.0%)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기간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에 대한 응답은 청소년 쉼터 선생님 등 기관 선생님이 254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또는 선후배가 244건(29.4%), 없음이 93건(11.2%), 학교 선생님이 85건(10.3%), 경찰관이 54건(6.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각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성별과 지역에서 유사하였으나, 일시이동형 쉼터유형의 청소년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가 47.1%로 가장 많았다.

표 3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기간 중 가장 도움 되었던 사람(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	가족 및 친척	학교 선생님	청소년쉼터 선생님,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선생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경찰관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PC방, 찜질방, 약국, 택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	SNS 등 가출팸에서 만난 성인	없음	전체
전체		244(29.4%)	46(5.5%)	85(10.3%)	254(30.6%)	54(6.5%)	25(3.0%)	22(2.7%)	6(0.7%)	93(11.2%)	829 (100.0%)
성별	남자	125(31.2%)	23(5.7%)	32(8.0%)	115(28.7%)	17(4.2%)	18(4.5%)	16(4.0%)	1(0.2%)	54(13.5%)	401 (100.0%)
	여자	119(27.8%)	23(5.4%)	53(12.4%)	139(32.5%)	37(8.6%)	7(1.6%)	6(1.4%)	5(1.2%)	39(9.1%)	428 (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48(47.1%)	6(5.9%)	7(6.9%)	18(17.6%)	1(1.0%)	0(0.0%)	2(2.0%)	0(0.0%)	20(19.6%)	102 (100.0%)
	고정형	8(23.5%)	3(8.8%)	2(5.9%)	15(44.1%)	1(2.9%)	0(0.0%)	1(2.9%)	0(0.0%)	4(11.8%)	34 (100.0%)
	단기·중장기	188(27.1%)	37(5.3%)	76(11.0%)	221(31.9%)	52(7.5%)	25(3.6%)	19(2.7%)	6(0.9%)	69(10.0%)	693 (100.0%)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	가족 및 친척	학교 선생님	청소년쉼터 선생님,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선생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경찰관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PC방, 찜질방, 약국, 택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	SNS 등 가출팸에서 만난 성인	없음	전체
지역	강원	8(22.9%)	3(8.6%)	5(14.3%)	11(31.4%)	2(5.7%)	3(8.6%)	2(5.7%)	0(0.0%)	1(2.9%)	35 (100.0%)
	경기	52(29.7%)	10(5.7%)	13(7.4%)	59(33.7%)	15(8.6%)	7(4.0%)	3(1.7%)	0(0.0%)	16(9.1%)	175 (100.0%)
	경남	3(15.0%)	1(5.0%)	3(15.0%)	6(30.0%)	2(10.0%)	0(0.0%)	2(10.0%)	1(5.0%)	2(10.0%)	20 (100.0%)
	경북	1(20.0%)	0(0.0%)	0(0.0%)	3(60.0%)	0(0.0%)	0(0.0%)	0(0.0%)	0(0.0%)	1(20.0%)	5 (100.0%)
	광주	2(7.7%)	3(11.5%)	6(23.1%)	8(30.8%)	2(7.7%)	0(0.0%)	0(0.0%)	0(0.0%)	5(19.2%)	26 (100.0%)
	대구	9(34.6%)	0(0.0%)	6(23.1%)	7(26.9%)	1(3.8%)	0(0.0%)	2(7.7%)	0(0.0%)	1(3.8%)	26 (100.0%)
	대전	10(30.3%)	1(3.0%)	3(9.1%)	12(36.4%)	0(0.0%)	0(0.0%)	3(9.1%)	0(0.0%)	4(12.1%)	33 (100.0%)
	부산	16(36.4%)	3(6.8%)	4(9.1%)	13(29.5%)	3(6.8%)	1(2.3%)	1(2.3%)	0(0.0%)	3(6.8%)	44 (100.0%)
	서울	47(30.1%)	7(4.5%)	13(8.3%)	51(32.7%)	4(2.6%)	5(3.2%)	2(1.3%)	1(0.6%)	26(16.7%)	156 (100.0%)
	울산	11(27.5%)	1(2.5%)	6(15.0%)	10(25.0%)	3(7.5%)	1(2.5%)	2(5.0%)	0(0.0%)	6(15.0%)	40 (100.0%)
	인천	26(28.3%)	5(5.4%)	10(10.9%)	32(34.8%)	7(7.6%)	1(1.1%)	1(1.1%)	2(2.2%)	8(8.7%)	92 (100.0%)
	전남	7(28.0%)	1(4.0%)	4(16.0%)	5(20.0%)	2(8.0%)	3(12.0%)	1(4.0%)	0(0.0%)	2(8.0%)	25 (100.0%)
	전북	2(20.0%)	2(20.0%)	0(0.0%)	2(20.0%)	0(0.0%)	1(10.0%)	0(0.0%)	1(10.0%)	2(20.0%)	10 (100.0%)
	제주	33(41.8%)	6(7.6%)	8(10.1%)	14(17.7%)	5(6.3%)	0(0.0%)	1(1.3%)	1(1.3%)	11(13.9%)	79 (100.0%)
	충남	12(34.3%)	0(0.0%)	2(5.7%)	13(37.1%)	3(8.6%)	2(5.7%)	1(2.9%)	0(0.0%)	2(5.7%)	35 (100.0%)
충북	5(17.9%)	3(10.7%)	2(7.1%)	8(28.6%)	5(17.9%)	1(3.6%)	1(3.6%)	0(0.0%)	3(10.7%)	28 (100.0%)	

88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 후 하룻밤 이상 생활한 곳에 대한 응답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 280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PC방, 만화방, 무인빨래방, 인형뽑기방, 찜질방, 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97건(15.7%),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내, 놀이터·공원, 아파트 등 건물 내 계단, 쇼핑물 내, 옥상, 지하실 등이 94건(15.3%), 여관·모텔·여인숙 등이 90건(14.6%)으로 유사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3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후 하룻밤 이상 생활한 곳(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 집	SNS 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PC방, 만화방, 무인빨래방, 인형뽑기방, 찜질방, 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여관·모텔·여 인숙 등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내, 놀이터·공원, 아파트 등 건물 내 계단, 쇼핑물 내, 옥상, 지하실 등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시설	노숙인 시설	전체
전체		280(45.5%)	23(3.7%)	97(15.7%)	90(14.6%)	94(15.3%)	22(3.6%)	10(1.6%)	616(100.0%)
성별	남자	133(39.7%)	11(3.3%)	59(17.6%)	52(15.5%)	57(17.0%)	17(5.1%)	6(1.8%)	335(100.0%)
	여자	147(52.3%)	12(4.3%)	38(13.5%)	38(13.5%)	37(13.2%)	5(1.8%)	4(1.4%)	281(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57(70.4%)	0(0.0%)	8(9.9%)	10(12.3%)	5(6.2%)	0(0.0%)	1(1.2%)	81(100.0%)
	고정형	13(28.9%)	3(6.7%)	13(28.9%)	9(20.0%)	5(11.1%)	1(2.2%)	1(2.2%)	45(100.0%)
	단기·중장기	210(42.9%)	20(4.1%)	76(15.5%)	71(14.5%)	84(17.1%)	21(4.3%)	8(1.6%)	490(100.0%)
지역	강원	10(47.6%)	1(4.8%)	1(4.8%)	3(14.3%)	1(4.8%)	3(14.3%)	2(9.5%)	21(100.0%)
	경기	62(43.1%)	3(2.1%)	23(16.0%)	22(15.3%)	23(16.0%)	8(5.6%)	3(2.1%)	144(100.0%)
	경남	4(40.0%)	2(20.0%)	1(10.0%)	2(20.0%)	1(10.0%)	0(0.0%)	0(0.0%)	10(100.0%)
	경북	4(80.0%)	0(0.0%)	0(0.0%)	1(20.0%)	0(0.0%)	0(0.0%)	0(0.0%)	5(100.0%)
	광주	5(31.3%)	0(0.0%)	1(6.3%)	1(6.3%)	8(50.0%)	0(0.0%)	1(6.3%)	16(100.0%)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 집	SNS 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PC방, 만화방, 무인빨래방, 인형뽑기방, 찜질방, 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여관·모텔·여 인숙 등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내, 놀이터·공원, 아파트 등 건물 내 계단, 쇼핑몰 내, 옥상, 지하실 등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시설	노숙인 시설	전체
	대구	7(35.0%)	0(0.0%)	4(20.0%)	4(20.0%)	4(20.0%)	1(5.0%)	0(0.0%)	20(100.0%)
	대전	6(28.6%)	2(9.5%)	6(28.6%)	3(14.3%)	3(14.3%)	0(0.0%)	1(4.8%)	21(100.0%)
	부산	15(46.9%)	0(0.0%)	5(15.6%)	4(12.5%)	4(12.5%)	3(9.4%)	1(3.1%)	32(100.0%)
	서울	55(43.7%)	5(4.0%)	24(19.0%)	17(13.5%)	19(15.1%)	6(4.8%)	0(0.0%)	126(100.0%)
	울산	11(52.4%)	1(4.8%)	2(9.5%)	2(9.5%)	5(23.8%)	0(0.0%)	0(0.0%)	21(100.0%)
	인천	25(39.7%)	3(4.8%)	12(19.0%)	10(15.9%)	12(19.0%)	1(1.6%)	0(0.0%)	63(100.0%)
	전남	9(60.0%)	0(0.0%)	3(20.0%)	3(20.0%)	0(0.0%)	0(0.0%)	0(0.0%)	15(100.0%)
	전북	4(44.4%)	1(11.1%)	1(11.1%)	1(11.1%)	1(11.1%)	0(0.0%)	1(11.1%)	9(100.0%)
	제주	37(57.8%)	0(0.0%)	8(12.5%)	11(17.2%)	8(12.5%)	0(0.0%)	0(0.0%)	64(100.0%)
	충남	15(53.6%)	3(10.7%)	3(10.7%)	4(14.3%)	3(10.7%)	0(0.0%)	0(0.0%)	28(100.0%)
	충북	11(52.4%)	2(9.5%)	3(14.3%)	2(9.5%)	2(9.5%)	0(0.0%)	1(4.8%)	21(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노숙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42명(66.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3.8%로 여자 청소년의 23.4%보다 많았다.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은 60.0%가 노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중장기와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의 비율(각각 32.8%와 30.9%)보다 노숙경험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46.2%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충북 지역이 약 11%로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다.

표 40.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342(66.2%)	175(33.8%)	517(100.0%)	
성별	남자	149(56.2%)	116(43.8%)	265(100.0%)	23.915***
	여자	193(76.6%)	59(23.4%)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56(69.1%)	25(30.9%)	81(100.0%)	8.142*
	고정형	10(40.0%)	15(60.0%)	25(100.0%)	
	단기·중장기	276(67.2%)	135(32.8%)	411(100.0%)	
지역	강원	16(88.9%)	2(11.1%)	18(100.0%)	-
	경기	57(57.0%)	43(43.0%)	100(100.0%)	
	경남	6(60.0%)	4(40.0%)	10(100.0%)	
	경북	6(100.0%)	0(0.0%)	6(100.0%)	
	광주	10(55.6%)	8(44.4%)	18(100.0%)	
	대구	7(53.8%)	6(46.2%)	13(100.0%)	
	대전	14(73.7%)	5(26.3%)	19(100.0%)	
	부산	15(60.0%)	10(40.0%)	25(100.0%)	
	서울	65(63.7%)	37(36.3%)	102(100.0%)	
	울산	17(65.4%)	9(34.6%)	26(100.0%)	
	인천	46(78.0%)	13(22.0%)	59(100.0%)	
	전남	11(73.3%)	4(26.7%)	15(100.0%)	
	전북	5(62.5%)	3(37.5%)	8(100.0%)	
	제주	36(61.0%)	23(39.0%)	59(100.0%)	
	충남	16(72.7%)	6(27.3%)	22(100.0%)	
	충북	15(88.2%)	2(11.8%)	17(100.0%)	

* p < .05, *** p < .001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노숙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숙박료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가 128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가 85건(24.8%), 청소년 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가 73건(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4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숙박료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노숙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밤새 놀다가 나도 모르게 노숙하게 됨	청소년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전체
전체		128(37.3%)	85(24.8%)	10(2.9%)	47(13.7%)	73(21.3%)	343(100.0%)
성별	남자	88(38.1%)	53(22.9%)	10(4.3%)	29(12.6%)	51(22.1%)	231(100.0%)
	여자	40(35.7%)	32(28.6%)	0(0.0%)	18(16.1%)	22(19.6%)	112(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14(40.0%)	7(20.0%)	0(0.0%)	13(37.1%)	1(2.9%)	35(100.0%)
	고정형	13(44.8%)	8(27.6%)	0(0.0%)	5(17.2%)	3(10.3%)	29(100.0%)
	단기·중장기	101(36.2%)	70(25.1%)	10(3.6%)	29(10.4%)	69(24.7%)	279(100.0%)
지역	강원	1(33.3%)	2(66.7%)	0(0.0%)	0(0.0%)	0(0.0%)	3(100.0%)
	경기	33(39.3%)	22(26.2%)	2(2.4%)	5(6.0%)	22(26.2%)	84(100.0%)
	경남	3(37.5%)	1(12.5%)	0(0.0%)	2(25.0%)	2(25.0%)	8(100.0%)
	광주	5(35.7%)	4(28.6%)	0(0.0%)	1(7.1%)	4(28.6%)	14(100.0%)
	대구	6(40.0%)	3(20.0%)	1(6.7%)	3(20.0%)	2(13.3%)	15(100.0%)
	대전	5(41.7%)	2(16.7%)	1(8.3%)	1(8.3%)	3(25.0%)	12(100.0%)
	부산	9(45.0%)	3(15.0%)	1(5.0%)	3(15.0%)	4(20.0%)	20(100.0%)
	서울	25(32.9%)	21(27.6%)	1(1.3%)	13(17.1%)	16(21.1%)	76(100.0%)
	울산	8(47.1%)	5(29.4%)	0(0.0%)	0(0.0%)	4(23.5%)	17(100.0%)
	인천	11(37.9%)	8(27.6%)	0(0.0%)	4(13.8%)	6(20.7%)	29(100.0%)
	전남	1(14.3%)	1(14.3%)	2(28.6%)	1(14.3%)	2(28.6%)	7(100.0%)
	전북	3(100.0%)	0(0.0%)	0(0.0%)	0(0.0%)	0(0.0%)	3(100.0%)
	제주	13(33.3%)	9(23.1%)	2(5.1%)	12(30.8%)	3(7.7%)	39(100.0%)
	충남	4(33.3%)	3(25.0%)	0(0.0%)	2(16.7%)	3(25.0%)	12(100.0%)
	충북	1(25.0%)	1(25.0%)	0(0.0%)	0(0.0%)	2(50.0%)	4(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최장 노숙기간은 2~3일 정도가 63명(36.0%)로 가장 많았고, 1일이 43명(24.6%), 한 달 이상이 21명(12.0%), 4~6일이 20명(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고,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은 1일이 각각 40.0%와 44.0%로 가장 많았다.

표 42.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장 노숙기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1일	2-3일 정도	4-6일	7일-13일	14일-30일	한 달 이상	전체
전체		43 (24.6%)	63 (36.0%)	20 (11.4%)	17 (9.7%)	11 (6.3%)	21 (12.0%)	175 (100.0%)
성별	남자	25 (21.6%)	37 (31.9%)	14 (12.1%)	13 (11.2%)	10 (8.6%)	17 (14.7%)	116 (100.0%)
	여자	18 (30.5%)	26 (44.1%)	6 (10.2%)	4 (6.8%)	1 (1.7%)	4 (6.8%)	59 (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11 (44.0%)	4 (16.0%)	1 (4.0%)	3 (12.0%)	3 (12.0%)	3 (12.0%)	25 (100.0%)
	고정형	6 (40.0%)	2 (13.3%)	4 (26.7%)	3 (20.0%)	0 (0.0%)	0 (0.0%)	15 (100.0%)
	단기·중장기	26 (19.3%)	57 (42.2%)	15 (11.1%)	11 (8.1%)	8 (5.9%)	18 (13.3%)	135 (100.0%)
지역	강원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경기	7 (16.3%)	17 (39.5%)	6 (14.0%)	5 (11.6%)	2 (4.7%)	6 (14.0%)	43 (100.0%)
	경남	1 (25.0%)	2 (50.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광주	3 (37.5%)	2 (25.0%)	1 (12.5%)	1 (12.5%)	0 (0.0%)	1 (12.5%)	8 (100.0%)
	대구	3 (50.0%)	2 (33.3%)	0 (0.0%)	0 (0.0%)	0 (0.0%)	1 (16.7%)	6 (100.0%)
	대전	0 (0.0%)	3 (60.0%)	1 (20.0%)	0 (0.0%)	0 (0.0%)	1 (20.0%)	5 (100.0%)
	부산	5 (50.0%)	1 (10.0%)	0 (0.0%)	1 (10.0%)	1 (10.0%)	2 (20.0%)	10 (100.0%)
	서울	12 (32.4%)	9 (24.3%)	6 (16.2%)	5 (13.5%)	2 (5.4%)	3 (8.1%)	37 (100.0%)
	울산	0 (0.0%)	6 (66.7%)	1 (11.1%)	0 (0.0%)	1 (11.1%)	1 (11.1%)	9 (100.0%)
	인천	3 (23.1%)	7 (53.8%)	2 (15.4%)	1 (7.7%)	0 (0.0%)	0 (0.0%)	13 (100.0%)
	전남	0 (0.0%)	1 (25.0%)	0 (0.0%)	1 (25.0%)	1 (25.0%)	1 (25.0%)	4 (100.0%)

구분	범주	1일	2-3일 정도	4-6일	7일-13일	14일- 30일	한 달 이상	전체
	전북	1 (33.3%)	1 (33.3%)	0 (0.0%)	0 (0.0%)	1 (33.3%)	0 (0.0%)	3 (100.0%)
	제주	5 (21.7%)	8 (34.8%)	1 (4.3%)	2 (8.7%)	3 (13.0%)	4 (17.4%)	23 (100.0%)
	충남	2 (33.3%)	2 (33.3%)	1 (16.7%)	1 (16.7%)	0 (0.0%)	0 (0.0%)	6 (100.0%)
	충북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노숙중에 경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응답은 끼니, 목욕, 빨래 등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 141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슬픔, 좌절감이 38건(15.8%),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몸이 자주 아픔이 29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4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중에 경험한 위험 상황(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끼니, 목욕, 빨래 등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노숙자가 되었다는 슬픔, 좌절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몸이 자주 아픔	금전·물 품 등 갈취, 명의 도용(대포 폰) 피해 등	폭행, 성폭행, 성추행 등	모두 해당 없음	전체
전체		141 (58.5%)	38 (15.8%)	29 (12.0%)	5 (2.1%)	6 (2.5%)	22 (9.1%)	241 (100.0%)
성별	남자	93 (60.0%)	26 (16.8%)	14 (9.0%)	4 (2.6%)	2 (1.3%)	16 (10.3%)	155 (100.0%)
	여자	48 (55.8%)	12 (14.0%)	15 (17.4%)	1 (1.2%)	4 (4.7%)	6 (7.0%)	86 (100.0%)
쉼터 유형	일시 이동형	16 (61.5%)	3 (11.5%)	2 (7.7%)	0 (0.0%)	2 (7.7%)	3 (11.5%)	26 (100.0%)
	고정형	14 (58.3%)	4 (16.7%)	4 (16.7%)	0 (0.0%)	1 (4.2%)	1 (4.2%)	24 (100.0%)
	단기· 중장기	111 (58.1%)	31 (16.2%)	23 (12.0%)	5 (2.6%)	3 (1.6%)	18 (9.4%)	191 (100.0%)
지역	강원	1 (33.3%)	0 (0.0%)	1 (33.3%)	0 (0.0%)	0 (0.0%)	1 (33.3%)	3 (100.0%)
	경기	39 (57.4%)	10 (14.7%)	11 (16.2%)	3 (4.4%)	2 (2.9%)	3 (4.4%)	68 (100.0%)

구분	범주	끼니, 목욕, 빨래 등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노숙자가 되었다는 슬픔, 좌절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몸이 자주 아픔	금전·물품 등 갈취, 명의 도용(대포 폰) 피해 등	폭행, 성폭행, 성추행 등	모두 해당 없음	전체
	경남	2 (50.0%)	0 (0.0%)	0 (0.0%)	0 (0.0%)	0 (0.0%)	2 (50.0%)	4 (100.0%)
	광주	8 (80.0%)	2 (2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대구	2 (28.6%)	1 (14.3%)	1 (14.3%)	0 (0.0%)	0 (0.0%)	3 (42.9%)	7 (100.0%)
	대전	5 (50.0%)	3 (30.0%)	1 (10.0%)	1 (10.0%)	0 (0.0%)	0 (0.0%)	10 (100.0%)
	부산	7 (63.6%)	3 (27.3%)	0 (0.0%)	0 (0.0%)	0 (0.0%)	1 (9.1%)	11 (100.0%)
	서울	29 (55.8%)	9 (17.3%)	5 (9.6%)	1 (1.9%)	2 (3.8%)	6 (11.5%)	52 (100.0%)
	울산	9 (56.3%)	4 (25.0%)	3 (18.8%)	0 (0.0%)	0 (0.0%)	0 (0.0%)	16 (100.0%)
	인천	11 (78.6%)	1 (7.1%)	1 (7.1%)	0 (0.0%)	0 (0.0%)	1 (7.1%)	14 (100.0%)
	전남	3 (60.0%)	2 (4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전북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4 (100.0%)
	제주	16 (57.1%)	2 (7.1%)	5 (17.9%)	0 (0.0%)	2 (7.1%)	3 (10.7%)	28 (100.0%)
	충남	4 (57.1%)	1 (14.3%)	0 (0.0%)	0 (0.0%)	0 (0.0%)	2 (28.6%)	7 (100.0%)
	충북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노숙중에 끼니를 해결한 방법에 대한 응답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먹음이 112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그냥 굶음이 84건(32.7%), 가게 등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먹었음이 18건(7.0%), 노숙인 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등의 무료 급식을 이용함이 17건(6.6%), 주변 가게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 먹음이 15건(5.8%), 돈을 갈취해서 해결하였음이 11건(4.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쉼터유형, 지역의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먹거나 그냥 굶는 방식으로 노숙중에 끼니를 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중에 끼니를 해결한 방법(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먹음	노숙인 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의 무료 급식을 이용	주변 가게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 먹음	가게 등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먹었음	돈을 갈취해서 해결하였음 (도래, 취객 등)	그냥 굶음	전체
전체		112 (43.6%)	17 (6.6%)	15 (5.8%)	18 (7.0%)	11 (4.3%)	84 (32.7%)	257 (100.0%)
성별	남자	72 (42.1%)	10 (5.8%)	13 (7.6%)	13 (7.6%)	8 (4.7%)	55 (32.2%)	171 (100.0%)
	여자	40 (46.5%)	7 (8.1%)	2 (2.3%)	5 (5.8%)	3 (3.5%)	29 (33.7%)	86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17 (54.8%)	1 (3.2%)	0 (0.0%)	1 (3.2%)	0 (0.0%)	12 (38.7%)	31 (100.0%)
	고정형	9 (42.9%)	3 (14.3%)	1 (4.8%)	1 (4.8%)	1 (4.8%)	6 (28.6%)	21 (100.0%)
	단기·중장기	86 (42.0%)	13 (6.3%)	14 (6.8%)	16 (7.8%)	10 (4.9%)	66 (32.2%)	205 (100.0%)
지역	강원	2 (50.0%)	0 (0.0%)	0 (0.0%)	0 (0.0%)	1 (25.0%)	1 (25.0%)	4 (100.0%)
	경기	26 (37.1%)	7 (10.0%)	3 (4.3%)	6 (8.6%)	2 (2.9%)	26 (37.1%)	70 (100.0%)
	경남	4 (66.7%)	0 (0.0%)	0 (0.0%)	0 (0.0%)	0 (0.0%)	2 (33.3%)	6 (100.0%)
	광주	6 (66.7%)	0 (0.0%)	0 (0.0%)	0 (0.0%)	0 (0.0%)	3 (33.3%)	9 (100.0%)
	대구	4 (57.1%)	0 (0.0%)	0 (0.0%)	1 (14.3%)	0 (0.0%)	2 (28.6%)	7 (100.0%)
	대전	4 (33.3%)	1 (8.3%)	2 (16.7%)	1 (8.3%)	2 (16.7%)	2 (16.7%)	12 (100.0%)
	부산	7 (38.9%)	1 (5.6%)	2 (11.1%)	2 (11.1%)	0 (0.0%)	6 (33.3%)	18 (100.0%)
	서울	27 (46.6%)	5 (8.6%)	3 (5.2%)	6 (10.3%)	3 (5.2%)	14 (24.1%)	58 (100.0%)
	울산	7 (58.3%)	0 (0.0%)	0 (0.0%)	0 (0.0%)	0 (0.0%)	5 (41.7%)	12 (100.0%)
	인천	5 (33.3%)	0 (0.0%)	1 (6.7%)	0 (0.0%)	0 (0.0%)	9 (60.0%)	15 (100.0%)
	전남	1 (20.0%)	1 (20.0%)	1 (20.0%)	1 (20.0%)	0 (0.0%)	1 (20.0%)	5 (100.0%)
	전북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3 (100.0%)
	제주	15 (51.7%)	1 (3.4%)	1 (3.4%)	0 (0.0%)	2 (6.9%)	10 (34.5%)	29 (100.0%)
	충남	3 (37.5%)	0 (0.0%)	2 (25.0%)	1 (12.5%)	0 (0.0%)	2 (25.0%)	8 (100.0%)
	충북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노숙생활을 그만 둔 방법은 청소년쉼터,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종교인의 도움이 91명(52.0%)으로 가장 많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감이 46명(26.3%),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가 31명(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시이동형 쉼터의 청소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감이 11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표 4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노숙생활을 그만 둔 방법(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청소년쉼터,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종교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채팅 앱이나 SNS로 만난 모르는 사람(헬퍼)을 통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감	기타	전체
전체		91(52.0%)	31(17.7%)	1(.6%)	46(26.3%)	6(3.4%)	175(100.0%)
성별	남자	64(55.2%)	20(17.2%)	0(0.0%)	29(25.0%)	3(2.6%)	116(100.0%)
	여자	27(45.8%)	11(18.6%)	1(1.7%)	17(28.8%)	3(5.1%)	59(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4(16.0%)	8(32.0%)	0(0.0%)	11(44.0%)	2(8.0%)	25(100.0%)
	고정형	11(73.3%)	3(20.0%)	0(0.0%)	1(6.7%)	0(0.0%)	15(100.0%)
	단기·중장기	76(56.3%)	20(14.8%)	1(.7%)	34(25.2%)	4(3.0%)	135(100.0%)
지역	강원	0(0.0%)	2(100.0%)	0(0.0%)	0(0.0%)	0(0.0%)	2(100.0%)
	경기	30(69.8%)	6(14.0%)	0(0.0%)	6(14.0%)	1(2.3%)	43(100.0%)
	경남	2(50.0%)	1(25.0%)	0(0.0%)	1(25.0%)	0(0.0%)	4(100.0%)
	광주	2(25.0%)	4(50.0%)	0(0.0%)	2(25.0%)	0(0.0%)	8(100.0%)
	대구	1(16.7%)	1(16.7%)	0(0.0%)	4(66.7%)	0(0.0%)	6(100.0%)
	대전	3(60.0%)	0(0.0%)	0(0.0%)	2(40.0%)	0(0.0%)	5(100.0%)
	부산	6(60.0%)	2(20.0%)	0(0.0%)	2(20.0%)	0(0.0%)	10(100.0%)
	서울	22(59.5%)	5(13.5%)	0(0.0%)	8(21.6%)	2(5.4%)	37(100.0%)
	울산	7(77.8%)	0(0.0%)	0(0.0%)	2(22.2%)	0(0.0%)	9(100.0%)
	인천	8(61.5%)	3(23.1%)	0(0.0%)	2(15.4%)	0(0.0%)	13(100.0%)
	전남	1(25.0%)	1(25.0%)	0(0.0%)	2(50.0%)	0(0.0%)	4(100.0%)
	전북	0(0.0%)	0(0.0%)	1(33.3%)	2(66.7%)	0(0.0%)	3(100.0%)
	제주	5(21.7%)	6(26.1%)	0(0.0%)	10(43.5%)	2(8.7%)	23(100.0%)
	충남	3(50.0%)	0(0.0%)	0(0.0%)	2(33.3%)	1(16.7%)	6(100.0%)
	충북	1(50.0%)	0(0.0%)	0(0.0%)	1(50.0%)	0(0.0%)	2(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 중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50명(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12.8%로 여자 청소년의 6.3% 보다 많았다. 모든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보다 적었다.

표 46.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467(90.3%)	50(9.7%)	517(100.0%)	
성별	남자	231(87.2%)	34(12.8%)	265(100.0%)	6.211*
	여자	236(93.7%)	16(6.3%)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72(88.9%)	9(11.1%)	81(100.0%)	-
	고정형	22(88.0%)	3(12.0%)	25(100.0%)	
	단기·증장기	373(90.8%)	38(9.2%)	411(100.0%)	
지역	강원	17(94.4%)	1(5.6%)	18(100.0%)	-
	경기	90(90.0%)	10(10.0%)	100(100.0%)	
	경남	9(90.0%)	1(10.0%)	10(100.0%)	
	경북	4(66.7%)	2(33.3%)	6(100.0%)	
	광주	17(94.4%)	1(5.6%)	18(100.0%)	
	대구	12(92.3%)	1(7.7%)	13(100.0%)	
	대전	17(89.5%)	2(10.5%)	19(100.0%)	
	부산	20(80.0%)	5(20.0%)	25(100.0%)	
	서울	95(93.1%)	7(6.9%)	102(100.0%)	
	울산	24(92.3%)	2(7.7%)	26(100.0%)	
	인천	56(94.9%)	3(5.1%)	59(100.0%)	
	전남	14(93.3%)	1(6.7%)	15(100.0%)	
	전북	8(100.0%)	0(0.0%)	8(100.0%)	
	제주	52(88.1%)	7(11.9%)	59(100.0%)	
	충남	18(81.8%)	4(18.2%)	22(100.0%)	
	충북	14(82.4%)	3(17.6%)	17(100.0%)	

* $p < .05$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팸에 합류하게 된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서가 37명(74.0%)로 대부분이었고,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가 5명(10.0%), 기타 3명(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가출팸에 합류한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서가 대부분이었다.

표 4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합류 경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	가출 관련 카페에서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랜덤 채팅앱을 통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소개해 줘서	기타	전체
전체		37(74.0%)	2(4.0%)	5(10.0%)	2(4.0%)	1(2.0%)	3(6.0%)	50(100.0%)
성별	남자	28(82.4%)	2(5.9%)	1(2.9%)	0(0.0%)	0(0.0%)	3(8.8%)	34(100.0%)
	여자	9(56.3%)	0(0.0%)	4(25.0%)	2(12.5%)	1(6.3%)	0(0.0%)	16(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9(100.0%)	0(0.0%)	0(0.0%)	0(0.0%)	0(0.0%)	0(0.0%)	9(100.0%)
	고정형	2(66.7%)	0(0.0%)	0(0.0%)	0(0.0%)	0(0.0%)	1(33.3%)	3(100.0%)
	단기·중장기	26(68.4%)	2(5.3%)	5(13.2%)	2(5.3%)	1(2.6%)	2(5.3%)	38(100.0%)
지역	강원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경기	5(50.0%)	0(0.0%)	3(30.0%)	1(10.0%)	1(10.0%)	0(0.0%)	10(100.0%)
	경남	0(0.0%)	0(0.0%)	1(100.0%)	0(0.0%)	0(0.0%)	0(0.0%)	1(100.0%)
	경북	2(1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광주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대구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대전	1(50.0%)	1(50.0%)	0(0.0%)	0(0.0%)	0(0.0%)	0(0.0%)	2(100.0%)
	부산	5(100.0%)	0(0.0%)	0(0.0%)	0(0.0%)	0(0.0%)	0(0.0%)	5(100.0%)
	서울	4(57.1%)	0(0.0%)	0(0.0%)	1(14.3%)	0(0.0%)	2(28.6%)	7(100.0%)
	울산	2(1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인천	3(100.0%)	0(0.0%)	0(0.0%)	0(0.0%)	0(0.0%)	0(0.0%)	3(100.0%)
	전남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제주	7(100.0%)	0(0.0%)	0(0.0%)	0(0.0%)	0(0.0%)	0(0.0%)	7(100.0%)
	충남	4(100.0%)	0(0.0%)	0(0.0%)	0(0.0%)	0(0.0%)	0(0.0%)	4(100.0%)
	충북	1(33.3%)	1(33.3%)	1(33.3%)	0(0.0%)	0(0.0%)	0(0.0%)	3(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팸에서 생활한 기간은 평균 31.75일(표준편차 2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73.91일(102.83)로 여자 청소년들의 37.07일(34.57)보다 긴 가출팸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유형에 따라서는 단기·중장기 컴퓨터의 청소년들의 가출팸 생활기간이 78.50일(101.12)로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가출팸 생활기간 62.15일과 58.03일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가출팸 생활 기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가출팸 생활 기간
전체		31.75(21.73)
성별	남자	73.91(102.83)
	여자	37.07(34.57)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58.03(70.94)
	고정형	62.15(88.27)
	단기·중장기	78.50(101.12)
지역	강원	77.13(153.08)
	경기	62.15(88.27)
	경남	-
	경북	30.60(43.42)
	광주	1.00(.)
	대구	30.00(.)
	대전	30.00(.)
	부산	3.00(.)
	서울	135.00(63.64)
	울산	141.40(195.04)
	인천	63.14(47.90)
	전남	20.00(14.14)
	전북	161.67(178.63)
	제주	90.00(.)
	충남	-
	충북	30.0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활했던 가출팸의 구성원들에 대한 응답은 친구, 선배, 후배가 모두 약 3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49.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구성원(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구	선배	후배	전체
전체		32(37.6%)	32(37.6%)	21(24.7%)	85(100.0%)
성별	남자	21(35.6%)	22(37.3%)	16(27.1%)	59(100.0%)
	여자	11(42.3%)	10(38.5%)	5(19.2%)	26(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6(37.5%)	4(25.0%)	6(37.5%)	16(100.0%)
	고정형	2(40.0%)	2(40.0%)	1(20.0%)	5(100.0%)
	단기·중장기	24(37.5%)	26(40.6%)	14(21.9%)	64(100.0%)
지역	강원	0(0.0%)	1(100.0%)	0(0.0%)	1(100.0%)
	경기	8(42.1%)	7(36.8%)	4(21.1%)	19(100.0%)
	경남	0(0.0%)	1(100.0%)	0(0.0%)	1(100.0%)
	경북	2(66.7%)	1(33.3%)	0(0.0%)	3(100.0%)
	광주	1(50.0%)	0(0.0%)	1(50.0%)	2(100.0%)
	대구	1(33.3%)	1(33.3%)	1(33.3%)	3(100.0%)
	대전	2(66.7%)	1(33.3%)	0(0.0%)	3(100.0%)
	부산	4(44.4%)	3(33.3%)	2(22.2%)	9(100.0%)
	서울	4(40.0%)	5(50.0%)	1(10.0%)	10(100.0%)
	울산	1(50.0%)	1(50.0%)	0(0.0%)	2(100.0%)
	인천	0(0.0%)	3(50.0%)	3(50.0%)	6(100.0%)
	전남	0(0.0%)	1(100.0%)	0(0.0%)	1(100.0%)
	제주	4(33.3%)	3(25.0%)	5(41.7%)	12(100.0%)
	충남	3(42.9%)	2(28.6%)	2(28.6%)	7(100.0%)
	충북	2(33.3%)	2(33.3%)	2(33.3%)	6(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활했던 가출팸에 성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없었던 경우가 30명(60.0%), 있었던 경우가 20명(40.0%)으로 유사하였다.

표 50.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내 성인 유무(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었다	있었다	전체
전체		30(60.0%)	20(40.0%)	50(100.0%)
성별	남자	21(61.8%)	13(38.2%)	34(100.0%)
	여자	9(56.3%)	7(43.8%)	16(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7(77.8%)	2(22.2%)	9(100.0%)
	고정형	1(33.3%)	2(66.7%)	3(100.0%)
	단기·중장기	22(57.9%)	16(42.1%)	38(100.0%)
지역	강원	1(100.0%)	0(0.0%)	1(100.0%)
	경기	6(60.0%)	4(40.0%)	10(100.0%)
	경남	0(0.0%)	1(100.0%)	1(100.0%)
	경북	1(50.0%)	1(50.0%)	2(100.0%)
	광주	1(100.0%)	0(0.0%)	1(100.0%)
	대구	1(100.0%)	0(0.0%)	1(100.0%)
	대전	1(50.0%)	1(50.0%)	2(100.0%)
	부산	4(80.0%)	1(20.0%)	5(100.0%)
	서울	1(14.3%)	6(85.7%)	7(100.0%)
	울산	2(100.0%)	0(0.0%)	2(100.0%)
	인천	2(66.7%)	1(33.3%)	3(100.0%)
	전남	0(0.0%)	1(100.0%)	1(100.0%)
	제주	6(85.7%)	1(14.3%)	7(100.0%)
	충남	3(75.0%)	1(25.0%)	4(100.0%)
	충북	1(33.3%)	2(66.7%)	3(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0.137$, $df=1$, $p=.71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활했던 가출팸에 있었던 성인의 연령대에 대한 응답은 20대가 20건(76.9%)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51.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내 성인의 연령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20대	30대	40대 이상	전체
전체		20(76.9%)	4(15.4%)	2(7.7%)	26(100.0%)
성별	남자	13(72.2%)	3(16.7%)	2(11.1%)	18(100.0%)
	여자	7(87.5%)	1(12.5%)	0(0.0%)	8(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2(100.0%)	0(0.0%)	0(0.0%)	2(100.0%)
	고정형	2(100.0%)	0(0.0%)	0(0.0%)	2(100.0%)
	단기·중장기	16(72.7%)	4(18.2%)	2(9.1%)	22(100.0%)
지역	경기	4(80.0%)	1(20.0%)	0(0.0%)	5(100.0%)
	경남	1(50.0%)	1(50.0%)	0(0.0%)	2(100.0%)
	경북	1(100.0%)	0(0.0%)	0(0.0%)	1(100.0%)
	대전	1(100.0%)	0(0.0%)	0(0.0%)	1(100.0%)
	부산	1(100.0%)	0(0.0%)	0(0.0%)	1(100.0%)
	서울	6(60.0%)	2(20.0%)	2(20.0%)	10(100.0%)
	인천	1(100.0%)	0(0.0%)	0(0.0%)	1(100.0%)
	전남	1(100.0%)	0(0.0%)	0(0.0%)	1(100.0%)
	제주	1(100.0%)	0(0.0%)	0(0.0%)	1(100.0%)
	충남	1(100.0%)	0(0.0%)	0(0.0%)	1(100.0%)
	충북	2(100.0%)	0(0.0%)	0(0.0%)	2(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팸 생활 중에 경험한 피해에 대한 응답은 없음(60.0%)을 제외하면, 비행 혹은 범죄에 참여가 8건(13.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행이 6건(10.0%), 성적 피해와 금전 사기, 갈취 피해가 모두 4건(6.7%)로 나타났다. 성적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모두 여자 청소년이었다. 참여하게 한 비행 혹은 범죄에는 절도(열려있는 자동차에서 물건 훔치기, 담배 훔치기 등), 폭행, 성매매 알선 등의 피해가 포함되었다. <표 52>

표 52. 성별, 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 생활 중 경험한 피해(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행	감금	성적 피해	금전 사기, 갈취 피해	따돌림, 괴롭힘	비행 혹은 범죄에 참여	없음	전체
전체		6(10.0%)	1(1.7%)	4(6.7%)	4(6.7%)	1(1.7%)	8(13.3%)	36(60.0%)	60(100.0%)
성별	남자	3(75.0%)	0(0.0%)	0(0.0%)	3(75.0%)	0(0.0%)	4(100.0%)	27(73.0%)	37(100.0%)
	여자	3(13.0%)	1(4.3%)	4(17.4%)	1(4.3%)	1(4.3%)	4(17.4%)	9(39.1%)	23(100.0%)
침터유형	일시이동형	0(0.0%)	0(0.0%)	0(0.0%)	0(0.0%)	0(0.0%)	0(0.0%)	9(100.0%)	9(100.0%)
	고정형	0(0.0%)	0(0.0%)	0(0.0%)	0(0.0%)	0(0.0%)	0(0.0%)	3(100.0%)	3(100.0%)
	단기·중장기	6(12.5%)	1(2.1%)	4(8.3%)	4(8.3%)	1(2.1%)	8(16.7%)	24(50.0%)	48(100.0%)
지역	강원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경기	1(6.3%)	1(6.3%)	1(6.3%)	2(12.5%)	1(6.3%)	4(25.0%)	6(37.5%)	16(100.0%)
	경남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경북	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2(100.0%)
	광주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대구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1(100.0%)
	대전	2(66.7%)	0(0.0%)	0(0.0%)	1(33.3%)	0(0.0%)	0(0.0%)	0(0.0%)	3(100.0%)
	부산	0(0.0%)	0(0.0%)	0(0.0%)	0(0.0%)	0(0.0%)	0(0.0%)	5(100.0%)	5(100.0%)
	서울	2(22.2%)	0(0.0%)	1(11.1%)	1(11.1%)	0(0.0%)	1(11.1%)	4(44.4%)	9(100.0%)
	울산	1(33.3%)	0(0.0%)	1(33.3%)	0(0.0%)	0(0.0%)	0(0.0%)	1(33.3%)	3(100.0%)
	인천	0(0.0%)	0(0.0%)	0(0.0%)	0(0.0%)	0(0.0%)	0(0.0%)	3(100.0%)	3(100.0%)
	전남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제주	0(0.0%)	0(0.0%)	0(0.0%)	0(0.0%)	0(0.0%)	0(0.0%)	7(100.0%)	7(100.0%)
	충남	0(0.0%)	0(0.0%)	0(0.0%)	0(0.0%)	0(0.0%)	1(25.0%)	3(75.0%)	4(100.0%)
	충북	0(0.0%)	0(0.0%)	1(33.3%)	0(0.0%)	0(0.0%)	0(0.0%)	1(33.3%)	3(100.0%)

89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팸을 나온 이유는 경제적으로 같이 살기 힘들어서가 13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가 12명(24.0%), 기타 10명(20.0%),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5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가 26.5%로 가장 많았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같이 살기 힘들어서가 43.8%로 가장 많았다.

표 5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팸을 나온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폭력, 감금 등 위협을 당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같이 살기 힘들어서 (예: 생활비를 같이 내지 않음, 수입이 모두)	일자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기타	전체
전체		3(6.0%)	5(10.0%)	13(26.0%)	3(6.0%)	4(8.0%)	12(24.0%)	10(20.0%)	50(100.0%)
성별	남자	3(8.8%)	5(14.7%)	6(17.6%)	2(5.9%)	2(5.9%)	9(26.5%)	7(20.6%)	34(100.0%)
	여자	0(0.0%)	0(0.0%)	7(43.8%)	1(6.3%)	2(12.5%)	3(18.8%)	3(18.8%)	16(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0(0.0%)	1(11.1%)	1(11.1%)	1(11.1%)	3(33.3%)	0(0.0%)	3(33.3%)	9(100.0%)
	고정형	0(0.0%)	0(0.0%)	1(33.3%)	0(0.0%)	1(33.3%)	0(0.0%)	1(33.3%)	3(100.0%)
	단기·중장기	3(7.9%)	4(10.5%)	11(28.9%)	2(5.3%)	0(0.0%)	12(31.6%)	6(15.8%)	38(100.0%)
지역	강원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경기	0(0.0%)	0(0.0%)	5(50.0%)	0(0.0%)	1(10.0%)	3(30.0%)	1(10.0%)	10(100.0%)
	경남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경북	0(0.0%)	0(0.0%)	2(100.0%)	0(0.0%)	0(0.0%)	0(0.0%)	0(0.0%)	2(100.0%)
	광주	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1(100.0%)
	대구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구분	범주	폭력, 감금 등 위협을 당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같이 살기 힘들어서 (예: 생활비를 같이 내지 않음, 수입이 모두	일자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기타	전체
	대전	2(1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부산	0(0.0%)	1(20.0%)	1(20.0%)	1(20.0%)	0(0.0%)	2(40.0%)	0(0.0%)	5(100.0%)
	서울	0(0.0%)	3(42.9%)	1(14.3%)	0(0.0%)	0(0.0%)	3(42.9%)	0(0.0%)	7(100.0%)
	울산	0(0.0%)	0(0.0%)	0(0.0%)	0(0.0%)	0(0.0%)	1(50.0%)	1(50.0%)	2(100.0%)
	인천	0(0.0%)	0(0.0%)	1(33.3%)	0(0.0%)	0(0.0%)	1(33.3%)	1(33.3%)	3(100.0%)
	전남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1(100.0%)
	제주	0(0.0%)	0(0.0%)	1(14.3%)	0(0.0%)	3(42.9%)	0(0.0%)	3(42.9%)	7(100.0%)
	충남	1(25.0%)	0(0.0%)	2(50.0%)	0(0.0%)	0(0.0%)	0(0.0%)	1(25.0%)	4(100.0%)
	충북	0(0.0%)	1(33.3%)	0(0.0%)	0(0.0%)	0(0.0%)	1(33.3%)	1(33.3%)	3(100.0%)

2)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가출 전 가족형태는 친부모 가정이 171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 169명(32.7%), 재혼가정이 87명(16.8%), 조부모 25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5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전 가족형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부모	한부모 (아버지, 어머니 중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	재혼가정 (친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보호자와 다시 결혼하여 이룬 가정)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	친척(친척 집에서 살고 있음)	형제 또는 자매(부모님 이 모두 안 계신 경우)	기타	전체
전체		171(33.1%)	169(32.7%)	87(16.8%)	25(4.8%)	9(1.7%)	10(1.9%)	46(8.9%)	517(100.0%)
성별	남자	87(32.8%)	84(31.7%)	45(17.0%)	11(4.2%)	4(1.5%)	9(3.4%)	25(9.4%)	265(100.0%)
	여자	84(33.3%)	85(33.7%)	42(16.7%)	14(5.6%)	5(2.0%)	1(4%)	21(8.3%)	252(100.0%)
쉼터유형	일시이동형	52(64.2%)	15(18.5%)	5(6.2%)	5(6.2%)	1(1.2%)	1(1.2%)	2(2.5%)	81(100.0%)
	고정형	8(32.0%)	9(36.0%)	4(16.0%)	1(4.0%)	0(0.0%)	2(8.0%)	1(4.0%)	25(100.0%)
	단기·중장기	111(27.0%)	145(35.3%)	78(19.0%)	19(4.6%)	8(1.9%)	7(1.7%)	43(10.5%)	411(100.0%)
지역	강원	6(33.3%)	2(11.1%)	2(11.1%)	2(11.1%)	0(0.0%)	0(0.0%)	6(33.3%)	18(100.0%)
	경기	30(30.0%)	33(33.0%)	15(15.0%)	5(5.0%)	6(6.0%)	0(0.0%)	11(11.0%)	100(100.0%)
	경남	3(30.0%)	2(20.0%)	3(30.0%)	0(0.0%)	0(0.0%)	0(0.0%)	2(20.0%)	10(100.0%)
	경북	2(33.3%)	1(16.7%)	3(50.0%)	0(0.0%)	0(0.0%)	0(0.0%)	0(0.0%)	6(100.0%)

구분	범주	친부모	한부모 (아버지, 어머니 중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	재혼가정 (친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보호자와 다시 결혼하여 이룬 가정)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	친척(친척 집에서 살고 있음)	형제 또는 자매(부모님 이 모두 안 계신 경우)	기타	전체
	광주	4(22.2%)	5(27.8%)	3(16.7%)	2(11.1%)	2(11.1%)	0(0.0%)	2(11.1%)	18(100.0%)
	대구	2(15.4%)	7(53.8%)	1(7.7%)	1(7.7%)	0(0.0%)	1(7.7%)	1(7.7%)	13(100.0%)
	대전	4(21.1%)	6(31.6%)	7(36.8%)	0(0.0%)	0(0.0%)	0(0.0%)	2(10.5%)	19(100.0%)
	부산	10(40.0%)	7(28.0%)	5(20.0%)	2(8.0%)	0(0.0%)	1(4.0%)	0(0.0%)	25(100.0%)
	서울	36(35.3%)	37(36.3%)	12(11.8%)	7(6.9%)	0(0.0%)	4(3.9%)	6(5.9%)	102(100.0%)
	울산	7(26.9%)	11(42.3%)	5(19.2%)	0(0.0%)	0(0.0%)	0(0.0%)	3(11.5%)	26(100.0%)
	인천	14(23.7%)	27(45.8%)	13(22.0%)	1(1.7%)	0(0.0%)	1(1.7%)	3(5.1%)	59(100.0%)
	전남	4(26.7%)	4(26.7%)	2(13.3%)	1(6.7%)	0(0.0%)	2(13.3%)	2(13.3%)	15(100.0%)
	전북	3(37.5%)	3(37.5%)	1(12.5%)	0(0.0%)	0(0.0%)	0(0.0%)	1(12.5%)	8(100.0%)
	제주	35(59.3%)	13(22.0%)	7(11.9%)	3(5.1%)	0(0.0%)	0(0.0%)	1(1.7%)	59(100.0%)
	충남	7(31.8%)	8(36.4%)	3(13.6%)	1(4.5%)	0(0.0%)	1(4.5%)	2(9.1%)	22(100.0%)
	충북	4(23.5%)	3(17.6%)	5(29.4%)	0(0.0%)	1(5.9%)	0(0.0%)	4(23.5%)	17(100.0%)

88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 전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부모로부터의 심한 욕설 등 폭언이 273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보무님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가 238건(23.7%), 부모 간에 싸움이나 갈등이 208건(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5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전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부모(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	부모(보호자)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	부모(보호자) 간에 싸움 등 갈등이 큰 편	부모(보호자)는 나와 형제들을 잘 돌보지 않은 편	집안 어른들에 의한 성추행 혹은 성폭행	부모(보호자)가 경제적으로 무능	부모(보호자)가 학업이나 성적에 너무 큰 기대	전체
전체		238(23.7%)	273(27.2%)	208(20.7%)	59(5.9%)	28(2.8%)	101(10.1%)	97(9.7%)	1004(100.0%)
성별	남자	115(24.9%)	127(27.5%)	96(20.8%)	24(5.2%)	0(0.0%)	47(10.2%)	52(11.3%)	461(100.0%)
	여자	123(22.7%)	146(26.9%)	112(20.6%)	35(6.4%)	28(5.2%)	54(9.9%)	45(8.3%)	543(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10(12.5%)	19(23.8%)	29(36.3%)	1(1.3%)	0(0.0%)	6(7.5%)	15(18.8%)	80(100.0%)
	고정형	13(26.5%)	13(26.5%)	9(18.4%)	2(4.1%)	0(0.0%)	5(10.2%)	7(14.3%)	49(100.0%)
	단기·중장기	215(24.6%)	241(27.5%)	170(19.4%)	56(6.4%)	28(3.2%)	90(10.3%)	75(8.6%)	875(100.0%)
지역	강원	10(31.3%)	7(21.9%)	8(25.0%)	1(3.1%)	1(3.1%)	4(12.5%)	1(3.1%)	32(100.0%)
	경기	52(23.1%)	69(30.7%)	42(18.7%)	17(7.6%)	9(4.0%)	19(8.4%)	17(7.6%)	225(100.0%)
	경남	6(31.6%)	4(21.1%)	2(10.5%)	0(0.0%)	0(0.0%)	3(15.8%)	4(21.1%)	19(100.0%)
	경북	2(16.7%)	2(16.7%)	3(25.0%)	0(0.0%)	2(16.7%)	2(16.7%)	1(8.3%)	12(100.0%)
	광주	5(21.7%)	7(30.4%)	7(30.4%)	0(0.0%)	0(0.0%)	1(4.3%)	3(13.0%)	23(100.0%)
	대구	10(33.3%)	8(26.7%)	3(10.0%)	3(10.0%)	0(0.0%)	5(16.7%)	1(3.3%)	30(100.0%)

구분	범주	부모(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	부모(보호자)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	부모(보호자)간에 싸움 등 갈등이 큰 편	부모(보호자)는 나와 형제들을 잘 돌보지 않은 편	집안 어른들에 의한 성추행 혹은 성폭행	부모(보호자)가 경제적으로 무능	부모(보호자)가 학업이나 성적에 너무 큰 기대	전체
	대전	10(24.4%)	10(24.4%)	7(17.1%)	3(7.3%)	0(0.0%)	6(14.6%)	5(12.2%)	41(100.0%)
	부산	11(24.4%)	15(33.3%)	12(26.7%)	1(2.2%)	0(0.0%)	4(8.9%)	2(4.4%)	45(100.0%)
	서울	48(24.5%)	47(24.0%)	38(19.4%)	11(5.6%)	6(3.1%)	24(12.2%)	22(11.2%)	196(100.0%)
	울산	13(20.0%)	16(24.6%)	14(21.5%)	6(9.2%)	4(6.2%)	7(10.8%)	5(7.7%)	65(100.0%)
	인천	36(25.7%)	39(27.9%)	27(19.3%)	8(5.7%)	0(0.0%)	16(11.4%)	14(10.0%)	140(100.0%)
	전남	4(16.7%)	7(29.2%)	7(29.2%)	1(4.2%)	0(0.0%)	2(8.3%)	3(12.5%)	24(100.0%)
	전북	4(33.3%)	4(33.3%)	1(8.3%)	1(8.3%)	0(0.0%)	0(0.0%)	2(16.7%)	12(100.0%)
	제주	13(19.4%)	19(28.4%)	17(25.4%)	1(1.5%)	3(4.5%)	2(3.0%)	12(17.9%)	67(100.0%)
	충남	7(14.9%)	12(25.5%)	13(27.7%)	5(10.6%)	3(6.4%)	3(6.4%)	4(8.5%)	47(100.0%)
	충북	7(26.9%)	7(26.9%)	7(26.9%)	1(3.8%)	0(0.0%)	3(11.5%)	1(3.8%)	26(100.0%)

88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담하는 대상에 대한 응답은 친구/선후배가 249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쉼터 선생님이 174건(23.0%), 상의할 사람이 없다 98건(13.0%), 학교 선생님/Wee센터 상담사가 96건(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청소년 모두 친구/선후배와 청소년쉼터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시이동형 쉼터 청소년의 경우 친구/선후배와 고민을 상담한다는 응답이 62.5%로 절반 이상이었다.

표 5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고민이나 어려움 상담 대상(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상의할 사람이 없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선후배	학교선생님, Wee센터 상담사	청소년쉼터 선생님	청소년전화 1388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상담사, 지역아동센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체
전체		98(13.0%)	46(6.1%)	31(4.1%)	13(1.7%)	249(32.9%)	96(12.7%)	174(23.0%)	49(6.5%)	756(100.0%)
성별	남자	56(15.2%)	25(6.8%)	17(4.6%)	10(2.7%)	110(29.8%)	42(11.4%)	89(24.1%)	20(5.4%)	369(100.0%)
	여자	42(10.9%)	21(5.4%)	14(3.6%)	3(0.8%)	139(35.9%)	54(14.0%)	85(22.0%)	29(7.5%)	387(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7(8.0%)	15(17.0%)	3(3.4%)	1(1.1%)	55(62.5%)	5(5.7%)	2(2.3%)	0(0.0%)	88(100.0%)
	고정형	8(30.8%)	1(3.8%)	0(0.0%)	0(0.0%)	9(34.6%)	0(0.0%)	6(23.1%)	2(7.7%)	26(100.0%)
	단기·중장기	83(12.9%)	30(4.7%)	28(4.4%)	12(1.9%)	185(28.8%)	91(14.2%)	166(25.9%)	47(7.3%)	642(100.0%)
지역	강원	2(7.1%)	4(14.3%)	3(10.7%)	1(3.6%)	9(32.1%)	3(10.7%)	6(21.4%)	0(0.0%)	28(100.0%)
	경기	23(15.5%)	7(4.7%)	3(2.0%)	0(0.0%)	49(33.1%)	15(10.1%)	41(27.7%)	10(6.8%)	148(100.0%)
	경남	3(14.3%)	2(9.5%)	1(4.8%)	0(0.0%)	3(14.3%)	4(19.0%)	7(33.3%)	1(4.8%)	21(100.0%)
	경북	2(33.3%)	0(0.0%)	0(0.0%)	0(0.0%)	2(33.3%)	0(0.0%)	1(16.7%)	1(16.7%)	6(100.0%)

구분	범주	상의할 사람이 없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 선후배	학교선생님, Wee센터 상담사	청소년쉼터 선생님	청소년전화 1388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상담사, 지역아동센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체
	광주	1(3.6%)	2(7.1%)	1(3.6%)	0(0.0%)	6(21.4%)	5(17.9%)	11(39.3%)	2(7.1%)	28(100.0%)
	대구	3(14.3%)	0(0.0%)	1(4.8%)	0(0.0%)	6(28.6%)	4(19.0%)	5(23.8%)	2(9.5%)	21(100.0%)
	대전	7(20.0%)	1(2.9%)	1(2.9%)	2(5.7%)	7(20.0%)	3(8.6%)	9(25.7%)	5(14.3%)	35(100.0%)
	부산	5(16.1%)	2(6.5%)	2(6.5%)	3(9.7%)	14(45.2%)	1(3.2%)	4(12.9%)	0(0.0%)	31(100.0%)
	서울	18(12.9%)	5(3.6%)	6(4.3%)	3(2.1%)	52(37.1%)	15(10.7%)	28(20.0%)	13(9.3%)	140(100.0%)
	울산	7(13.7%)	1(2.0%)	3(5.9%)	0(0.0%)	13(25.5%)	11(21.6%)	14(27.5%)	2(3.9%)	51(100.0%)
	인천	6(6.4%)	3(3.2%)	4(4.3%)	3(3.2%)	32(34.0%)	16(17.0%)	22(23.4%)	8(8.5%)	94(100.0%)
	전남	4(26.7%)	3(20.0%)	1(6.7%)	0(0.0%)	4(26.7%)	1(6.7%)	2(13.3%)	0(0.0%)	15(100.0%)
	전북	2(25.0%)	1(12.5%)	0(0.0%)	0(0.0%)	3(37.5%)	0(0.0%)	1(12.5%)	1(12.5%)	8(100.0%)
	제주	6(8.0%)	12(16.0%)	5(6.7%)	0(0.0%)	37(49.3%)	9(12.0%)	6(8.0%)	0(0.0%)	75(100.0%)
	충남	6(18.8%)	2(6.3%)	0(0.0%)	0(0.0%)	9(28.1%)	3(9.4%)	9(28.1%)	3(9.4%)	32(100.0%)
	충북	3(13.0%)	1(4.3%)	0(0.0%)	1(4.3%)	3(13.0%)	6(26.1%)	8(34.8%)	1(4.3%)	23(100.0%)

3) 현재의 경제활동과 향후 진로·취업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현재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쉼터 등 시설의 도움으로가 190명(39.1%)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가 124명(25.5%).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으로가 97명(20.0%), 기타 22명(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는데, 다만 일시이동형 쉼터의 청소년들은 쉼터 등 시설의 도움으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낮았다. 기타 응답에는 쉼터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거나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거나, 쉼터내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는 응답이 포함되었다.

표 57.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생활비 해결 방법(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으로	친구, 선배의 도움으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쉼터 등 시설의 도움으로	가출할 때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성매매 (조건 만남)로	구걸이나 앵벌이로	절도, 갈취 등 비행으로	기타	전체
전체		124 (25.5%)	97 (20.0%)	20 (4.1%)	17 (3.5%)	190 (39.1%)	13 (2.7%)	1 (0.2%)	1 (0.2%)	1 (0.2%)	22 (4.5%)	486 (100.0%)
성별	남자	81 (33.6%)	38 (15.8%)	8 (3.3%)	4 (1.7%)	92 (38.2%)	3 (1.2%)	0 (0.0%)	1 (0.4%)	1 (0.4%)	13 (5.4%)	241 (100.0%)
	여자	43 (17.6%)	59 (24.1%)	12 (4.9%)	13 (5.3%)	98 (40.0%)	10 (4.1%)	1 (0.4%)	0 (0.0%)	0 (0.0%)	9 (3.7%)	245 (100.0%)
쉼터 유형	일시 이동형	23 (32.9%)	29 (41.4%)	5 (7.1%)	0 (0.0%)	3 (4.3%)	4 (5.7%)	0 (0.0%)	0 (0.0%)	0 (0.0%)	6 (8.6%)	70 (100.0%)
	고정형	11 (45.8%)	4 (16.7%)	4 (16.7%)	1 (4.2%)	3 (12.5%)	0 (0.0%)	0 (0.0%)	1 (4.2%)	0 (0.0%)	0 (0.0%)	24 (100.0%)
	단기· 중장기	90 (23.0%)	64 (16.3%)	11 (2.8%)	16 (4.1%)	184 (46.9%)	9 (2.3%)	1 (0.3%)	0 (0.0%)	1 (0.3%)	16 (4.1%)	392 (100.0%)
지역	강원	3 (18.8%)	3 (18.8%)	1 (6.3%)	0 (0.0%)	9 (56.3%)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경기	17 (17.3%)	20 (20.4%)	4 (4.1%)	4 (4.1%)	42 (42.9%)	4 (4.1%)	1 (1.0%)	0 (0.0%)	1 (1.0%)	5 (5.1%)	98 (100.0%)

구분	범주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으로	친구, 선배의 도움으로	후원자의 도움으로	쉼터 등 시설의 도움으로	가출할 때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성매매 (조건 만남)로	구걸이나 앵벌이로	절도, 갈취 등 비행으로	기타	전체
	경남	1 (11.1%)	1 (11.1%)	0 (0.0%)	1 (11.1%)	6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경북	1 (16.7%)	1 (16.7%)	0 (0.0%)	1 (16.7%)	3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광주	5 (27.8%)	2 (11.1%)	0 (0.0%)	0 (0.0%)	9 (50.0%)	0 (0.0%)	0 (0.0%)	0 (0.0%)	0 (0.0%)	2 (11.1%)	18 (100.0%)
	대구	4 (30.8%)	0 (0.0%)	0 (0.0%)	2 (15.4%)	7 (53.8%)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0%)
	대전	7 (36.8%)	2 (10.5%)	0 (0.0%)	1 (5.3%)	8 (42.1%)	0 (0.0%)	0 (0.0%)	0 (0.0%)	0 (0.0%)	1 (5.3%)	19 (100.0%)
	부산	10 (41.7%)	4 (16.7%)	5 (20.8%)	0 (0.0%)	3 (12.5%)	1 (4.2%)	0 (0.0%)	0 (0.0%)	0 (0.0%)	1 (4.2%)	24 (100.0%)
	서울	30 (31.3%)	20 (20.8%)	2 (2.1%)	2 (2.1%)	37 (38.5%)	1 (1.0%)	0 (0.0%)	1 (1.0%)	0 (0.0%)	3 (3.1%)	96 (100.0%)
	울산	2 (8.0%)	0 (0.0%)	1 (4.0%)	4 (16.0%)	17 (68.0%)	0 (0.0%)	0 (0.0%)	0 (0.0%)	0 (0.0%)	1 (4.0%)	25 (100.0%)
	인천	13 (22.4%)	17 (29.3%)	3 (5.2%)	1 (1.7%)	20 (34.5%)	3 (5.2%)	0 (0.0%)	0 (0.0%)	0 (0.0%)	1 (1.7%)	58 (100.0%)
	전남	5 (41.7%)	5 (41.7%)	0 (0.0%)	0 (0.0%)	1 (8.3%)	1 (8.3%)	0 (0.0%)	0 (0.0%)	0 (0.0%)	0 (0.0%)	12 (100.0%)
	전북	5 (83.3%)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제주	13 (25.5%)	16 (31.4%)	2 (3.9%)	0 (0.0%)	12 (23.5%)	3 (5.9%)	0 (0.0%)	0 (0.0%)	0 (0.0%)	5 (9.8%)	51 (100.0%)
	충남	3 (14.3%)	5 (23.8%)	1 (4.8%)	1 (4.8%)	8 (38.1%)	0 (0.0%)	0 (0.0%)	0 (0.0%)	0 (0.0%)	3 (14.3%)	21 (100.0%)
	충북	5 (35.7%)	1 (7.1%)	1 (7.1%)	0 (0.0%)	7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00.0%)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응답은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이 208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배포가 103건(16.5%), 편의점, PC방, 만화카페, 찜질방 등이 100건(16.0%),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행사도우미가 50건(8.0%), 음식이나 물건 배달이 33건(5.3%), 제조업체 등 공장이 30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은 모든 성별, 쉼터유형, 지역(경북, 대구 지역 제외)에서 20% 이상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5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일반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	편의점, PC방, 만화카페, 찜질방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등 행사 도우미	극장 (영화, 연극) 및 전시장	주유소	의류점, 서점, 문구팬시 점, 대형마트	호프집 등 술집 서빙	DVD 방, 노래방	단란주 점, 룸 등 접대	클럽 등 무도회 장	제조업체 등 공장	음식이나 물건 배달	전단지 배포	전체
전체		208 (33.3%)	100 (16.0%)	50 (8.0%)	12 (1.9%)	19 (3.0%)	24 (3.8%)	28 (4.5%)	6 (1.0%)	5 (0.8%)	7 (1.1%)	30 (4.8%)	33 (5.3%)	103 (16.5%)	625 (100.0%)
성별	남자	107 (29.6%)	52 (14.4%)	30 (8.3%)	5 (1.4%)	17 (4.7%)	13 (3.6%)	19 (5.3%)	4 (1.1%)	3 (0.8%)	7 (1.9%)	21 (5.8%)	27 (7.5%)	56 (15.5%)	361 (100.0%)
	여자	101 (38.3%)	48 (18.2%)	20 (7.6%)	7 (2.7%)	2 (0.8%)	11 (4.2%)	9 (3.4%)	2 (0.8%)	2 (0.8%)	0 (0.0%)	9 (3.4%)	6 (2.3%)	47 (17.8%)	264 (100.0%)
쉼터유형	일시 이동형	49 (38.6%)	20 (15.7%)	9 (7.1%)	0 (0.0%)	1 (0.8%)	3 (2.4%)	4 (3.1%)	2 (1.6%)	2 (1.6%)	1 (0.8%)	3 (2.4%)	11 (8.7%)	22 (17.3%)	127 (100.0%)
	고정형	15 (32.6%)	6 (13.0%)	4 (8.7%)	1 (2.2%)	2 (4.3%)	1 (2.2%)	5 (10.9%)	0 (0.0%)	0 (0.0%)	0 (0.0%)	1 (2.2%)	4 (8.7%)	7 (15.2%)	46 (100.0%)
	단기· 중장기	144 (31.9%)	74 (16.4%)	37 (8.2%)	11 (2.4%)	16 (3.5%)	20 (4.4%)	19 (4.2%)	4 (0.9%)	3 (0.7%)	6 (1.3%)	26 (5.8%)	18 (4.0%)	74 (16.4%)	452 (100.0%)
지역	강원	7 (46.7%)	3 (20.0%)	0 (0.0%)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0 (0.0%)	0 (0.0%)	2 (13.3%)	2 (13.3%)	15 (100.0%)
	경기	32 (31.1%)	15 (14.6%)	9 (8.7%)	3 (2.9%)	2 (1.9%)	5 (4.9%)	5 (4.9%)	1 (1.0%)	1 (1.0%)	0 (0.0%)	6 (5.8%)	5 (4.9%)	19 (18.4%)	103 (100.0%)
	경남	4 (44.4%)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2 (22.2%)	1 (11.1%)	1 (11.1%)	9 (100.0%)

구분	범주	일반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	편의점, PC방, 만화카페, 찜질방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등 행사 도우미	극장 (영화, 연극) 및 전시장	주유소	의류점, 서점, 문구팬시 점, 대형마트	호프집 등 술집 서빙	DVD 방, 노래방	단란주 점, 룸 등 접대	클럽 등 무도회 장	제조업체 등 공장	음식이나 물건 배달	전단지 배포	전체
	경북	1 (16.7%)	2 (33.3%)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2 (33.3%)	0 (0.0%)	0 (0.0%)	6 (100.0%)
	광주	7 (30.4%)	3 (13.0%)	1 (4.3%)	1 (4.3%)	1 (4.3%)	2 (8.7%)	1 (4.3%)	0 (0.0%)	1 (4.3%)	0 (0.0%)	0 (0.0%)	1 (4.3%)	5 (21.7%)	23 (100.0%)
	대구	4 (16.0%)	2 (8.0%)	3 (12.0%)	1 (4.0%)	2 (8.0%)	2 (8.0%)	2 (8.0%)	0 (0.0%)	1 (4.0%)	0 (0.0%)	3 (12.0%)	2 (8.0%)	3 (12.0%)	25 (100.0%)
	대전	7 (25.9%)	7 (25.9%)	0 (0.0%)	1 (3.7%)	1 (3.7%)	2 (7.4%)	2 (7.4%)	0 (0.0%)	0 (0.0%)	0 (0.0%)	2 (7.4%)	1 (3.7%)	4 (14.8%)	27 (100.0%)
	부산	17 (35.4%)	7 (14.6%)	4 (8.3%)	2 (4.2%)	0 (0.0%)	1 (2.1%)	1 (2.1%)	1 (2.1%)	1 (2.1%)	1 (2.1%)	2 (4.2%)	3 (6.3%)	8 (16.7%)	48 (100.0%)
	서울	47 (30.7%)	23 (15.0%)	19 (12.4%)	2 (1.3%)	7 (4.6%)	3 (2.0%)	11 (7.2%)	2 (1.3%)	0 (0.0%)	4 (2.6%)	4 (2.6%)	4 (2.6%)	27 (17.6%)	153 (100.0%)
	울산	5 (50.0%)	2 (2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20.0%)	10 (100.0%)
	인천	15 (36.6%)	5 (12.2%)	4 (9.8%)	1 (2.4%)	1 (2.4%)	1 (2.4%)	1 (2.4%)	0 (0.0%)	0 (0.0%)	1 (2.4%)	3 (7.3%)	1 (2.4%)	8 (19.5%)	41 (100.0%)
	전남	6 (24.0%)	7 (28.0%)	2 (8.0%)	0 (0.0%)	1 (4.0%)	1 (4.0%)	0 (0.0%)	0 (0.0%)	0 (0.0%)	0 (0.0%)	3 (12.0%)	3 (12.0%)	2 (8.0%)	25 (100.0%)
	전북	4 (28.6%)	2 (14.3%)	1 (7.1%)	0 (0.0%)	0 (0.0%)	2 (14.3%)	1 (7.1%)	1 (7.1%)	1 (7.1%)	0 (0.0%)	1 (7.1%)	0 (0.0%)	1 (7.1%)	14 (100.0%)
	제주	36 (46.2%)	11 (14.1%)	5 (6.4%)	0 (0.0%)	3 (3.8%)	1 (1.3%)	0 (0.0%)	0 (0.0%)	0 (0.0%)	0 (0.0%)	1 (1.3%)	8 (10.3%)	13 (16.7%)	78 (100.0%)
	충남	12 (37.5%)	6 (18.8%)	1 (3.1%)	1 (3.1%)	0 (0.0%)	1 (3.1%)	1 (3.1%)	1 (3.1%)	0 (0.0%)	0 (0.0%)	1 (3.1%)	1 (3.1%)	7 (21.9%)	32 (100.0%)
	충북	4 (25.0%)	5 (31.3%)	0 (0.0%)	0 (0.0%)	1 (6.3%)	2 (12.5%)	1 (6.3%)	0 (0.0%)	0 (0.0%)	1 (6.3%)	0 (0.0%)	1 (6.3%)	1 (6.3%)	16 (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은 일주일에 약 3.41일(표준편차 1.91)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은 하루에 약 6.41시간(표준편차 3.52) 정도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간이 7.04시간(2.96)으로 여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간인 6.05시간(3.07) 보다 약간 길었으며, 단기·중장기 컴퓨터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은 9.05시간(3.10)으로 고정형이나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보다 길었다.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평균 약 8,639원(표준편차 44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9.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일 수, 시간 및 시급(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일 수	시간	시급
전체		3.41(1.91)	6.41(3.52)	8638.67(446.64)
성별	남자	4.08(1.89)	7.04(2.98)	8669.35(1331.65)
	여자	3.90(1.86)	6.05(3.07)	8433.00(1245.69)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3.97(1.87)	6.64(3.09)	8492.56(1401.22)
	고정형	4.00(1.87)	6.60(3.06)	8561.12(1296.21)
	단기·중장기	4.36(1.68)	9.05(3.10)	9085.95(788.94)
지역	강원	3.98(1.96)	5.70(2.47)	8620.00(989.02)
	경기	4.00(1.87)	6.60(3.06)	8561.12(1296.21)
	경남	3.67(1.73)	6.56(2.60)	8511.44(830.65)
	경북	3.98(1.84)	6.68(3.23)	8729.64(871.79)
	광주	4.67(1.97)	5.33(1.63)	7920.00(1650.98)
	대구	5.50(.71)	7.33(3.06)	9196.67(725.28)
	대전	4.20(2.10)	6.36(3.01)	8446.67(1561.89)
	부산	4.00(2.39)	6.86(3.93)	7285.00(2317.32)
	서울	3.54(1.51)	8.83(4.67)	8235.00(1201.86)
	울산	4.23(1.60)	7.00(2.96)	8259.52(1144.20)
	인천	3.91(1.92)	7.05(3.33)	8533.13(1118.96)
	전남	3.50(1.51)	5.13(1.55)	8918.57(2960.92)
	전북	4.04(1.85)	6.63(2.43)	8620.43(433.99)
	제주	3.62(2.06)	6.85(2.12)	7508.18(1723.00)
	충남	5.20(2.05)	7.00(4.82)	8942.50(705.00)
	충북	4.41(1.98)	5.32(2.03)	8759.30(833.41)

청소년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응답은 없다(30.%)를 제외하면, 근로조건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135건(17.8%)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어서가 98건(12.9%), 일 경험이나 자격이 없어서가 93건(12.3%), 원하는 수준의 보수(돈)를 주는 자리가 없어서가 78건(10.3%), 보호자(부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가 57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조건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는 모든 성별, 취터유형, 지역에서 약 20%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표 60>

표 60. 성별, 취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할 때 힘들었던 점(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원하는 수준의 보수(돈)를 주는 자리가 없어서	근로 조건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호자(부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가출했다는 편견 때문에	일 경험이나 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기에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자리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없다	전체
전체		78(10.3%)	135(17.8%)	57(7.5%)	28(3.7%)	16(2.1%)	93(12.3%)	24(3.2%)	98(12.9%)	228(30.1%)	757(100.0%)
성별	남자	44(11.1%)	74(18.7%)	23(5.8%)	18(4.5%)	12(3.0%)	48(12.1%)	11(2.8%)	48(12.1%)	118(29.8%)	396(100.0%)
	여자	34(9.4%)	61(16.9%)	34(9.4%)	10(2.8%)	4(1.1%)	45(12.5%)	13(3.6%)	50(13.9%)	110(30.5%)	361(100.0%)
취터 유형	일시이동형	18(16.7%)	20(18.5%)	6(5.6%)	0(0.0%)	0(0.0%)	12(11.1%)	1(0.9%)	17(15.7%)	34(31.5%)	108(100.0%)
	고정형	7(14.3%)	9(18.4%)	3(6.1%)	4(8.2%)	3(6.1%)	6(12.2%)	3(6.1%)	9(18.4%)	5(10.2%)	49(100.0%)
	단기·중장기	53(8.8%)	106(17.7%)	48(8.0%)	24(4.0%)	13(2.2%)	75(12.5%)	20(3.3%)	72(12.0%)	189(31.5%)	600(100.0%)
지역	강원	4(12.5%)	3(9.4%)	3(9.4%)	1(3.1%)	1(3.1%)	3(9.4%)	1(3.1%)	4(12.5%)	12(37.5%)	32(100.0%)
	경기	8(5.4%)	24(16.1%)	11(7.4%)	5(3.4%)	3(2.0%)	20(13.4%)	7(4.7%)	25(16.8%)	46(30.9%)	149(100.0%)
	경남	0(0.0%)	2(18.2%)	2(18.2%)	2(18.2%)	0(0.0%)	0(0.0%)	0(0.0%)	1(9.1%)	4(36.4%)	11(100.0%)
	경북	3(33.3%)	2(22.2%)	0(0.0%)	0(0.0%)	0(0.0%)	1(11.1%)	0(0.0%)	1(11.1%)	2(22.2%)	9(100.0%)

구분	범주	원하는 수준의 보수(돈)를 주는 자리가 없어서	근로 조건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호자(부모)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어서	가출했다는 편견 때문에	일 경험이나 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기에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자리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없다	전체
	광주	4(13.8%)	7(24.1%)	3(10.3%)	0(0.0%)	0(0.0%)	3(10.3%)	0(0.0%)	6(20.7%)	6(20.7%)	29(100.0%)
	대구	2(9.5%)	5(23.8%)	2(9.5%)	1(4.8%)	0(0.0%)	1(4.8%)	1(4.8%)	4(19.0%)	5(23.8%)	21(100.0%)
	대전	2(6.1%)	7(21.2%)	0(0.0%)	4(12.1%)	2(6.1%)	8(24.2%)	1(3.0%)	5(15.2%)	4(12.1%)	33(100.0%)
	부산	12(27.3%)	12(27.3%)	3(6.8%)	1(2.3%)	0(0.0%)	9(20.5%)	0(0.0%)	3(6.8%)	4(9.1%)	44(100.0%)
	서울	9(5.7%)	34(21.4%)	14(8.8%)	8(5.0%)	5(3.1%)	22(13.8%)	7(4.4%)	19(11.9%)	41(25.8%)	159(100.0%)
	울산	4(13.3%)	2(6.7%)	2(6.7%)	0(0.0%)	0(0.0%)	3(10.0%)	1(3.3%)	2(6.7%)	16(53.3%)	30(100.0%)
	인천	8(9.6%)	8(9.6%)	5(6.0%)	4(4.8%)	3(3.6%)	8(9.6%)	1(1.2%)	9(10.8%)	37(44.6%)	83(100.0%)
	전남	8(33.3%)	6(25.0%)	1(4.2%)	0(0.0%)	1(4.2%)	2(8.3%)	1(4.2%)	2(8.3%)	3(12.5%)	24(100.0%)
	전북	1(10.0%)	2(20.0%)	1(10.0%)	0(0.0%)	0(0.0%)	1(10.0%)	0(0.0%)	3(30.0%)	2(20.0%)	10(100.0%)
	제주	10(13.3%)	14(18.7%)	5(6.7%)	0(0.0%)	0(0.0%)	7(9.3%)	2(2.7%)	12(16.0%)	25(33.3%)	75(100.0%)
	충남	3(10.0%)	6(20.0%)	5(16.7%)	2(6.7%)	0(0.0%)	3(10.0%)	2(6.7%)	1(3.3%)	8(26.7%)	30(100.0%)
	충북	0(0.0%)	1(5.6%)	0(0.0%)	0(0.0%)	1(5.6%)	2(11.1%)	0(0.0%)	1(5.6%)	13(72.2%)	18(100.0%)

청소년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고용관계에서 당한 부당한 경험에 대한 응답은 해당 없음(64.0%)을 제외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61건(10.0%)으로 가장 많았고, 정해진 시간 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킴이 48건(7.9%), 보수나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이 44건(7.2%), 사장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이 3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정해진 시간 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은 모든 성별, 취터유형, 지역에서 약 1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61>

표 61. 성별, 취터유형,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중 고용관계에서 당한 부당한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사장으로 부터 구타나 폭행	사장으로 부터 성적 피해	보수나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을 받지 못함	사장으로 부터 인격적인 모욕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해진 시간 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킴	해당 없음	전체
전체		9(1.5%)	10(1.6%)	44(7.2%)	17(2.8%)	31(5.1%)	61(10.0%)	48(7.9%)	391(64.0%)	611(100.0%)
성별	남자	7(2.2%)	2(0.6%)	27(8.4%)	12(3.7%)	18(5.6%)	33(10.3%)	25(7.8%)	197(61.4%)	321(100.0%)
	여자	2(0.7%)	8(2.8%)	17(5.9%)	5(1.7%)	13(4.5%)	28(9.7%)	23(7.9%)	194(66.9%)	290(100.0%)
취터 유형	일시이동형	1(1.0%)	0(0.0%)	10(10.2%)	2(2.0%)	8(8.2%)	8(8.2%)	12(12.2%)	57(58.2%)	98(100.0%)
	고정형	0(0.0%)	0(0.0%)	4(15.4%)	2(7.7%)	1(3.8%)	2(7.7%)	3(11.5%)	14(53.8%)	26(100.0%)
	단기·중장기	8(1.6%)	10(2.1%)	30(6.2%)	13(2.7%)	22(4.5%)	51(10.5%)	33(6.8%)	320(65.7%)	487(100.0%)
지역	강원	0(0.0%)	0(0.0%)	1(5.0%)	0(0.0%)	0(0.0%)	1(5.0%)	2(10.0%)	16(80.0%)	20(100.0%)
	경기	1(0.9%)	2(1.9%)	3(2.8%)	2(1.9%)	1(0.9%)	12(11.1%)	6(5.6%)	81(75.0%)	108(100.0%)
	경남	0(0.0%)	0(0.0%)	0(0.0%)	0(0.0%)	0(0.0%)	1(11.1%)	0(0.0%)	8(88.9%)	9(100.0%)
	경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100.0%)	6(100.0%)
	광주	1(4.5%)	0(0.0%)	1(4.5%)	2(9.1%)	0(0.0%)	2(9.1%)	1(4.5%)	15(68.2%)	22(100.0%)
	대구	1(5.6%)	0(0.0%)	2(11.1%)	1(5.6%)	2(11.1%)	2(11.1%)	2(11.1%)	8(44.4%)	18(100.0%)

구분	범주	사장으로 부터 구타나 폭행	사장으로 부터 성적 피해	보수나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을 받지 못함	사장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해진 시간 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킴	해당 없음	전체
	대전	1(4.5%)	1(4.5%)	2(9.1%)	1(4.5%)	0(0.0%)	2(9.1%)	0(0.0%)	15(68.2%)	22(100.0%)
	부산	0(0.0%)	0(0.0%)	5(14.7%)	0(0.0%)	4(11.8%)	5(14.7%)	4(11.8%)	16(47.1%)	34(100.0%)
	서울	2(1.5%)	4(2.9%)	14(10.2%)	7(5.1%)	13(9.5%)	14(10.2%)	15(10.9%)	68(49.6%)	137(100.0%)
	울산	0(0.0%)	0(0.0%)	2(8.0%)	0(0.0%)	0(0.0%)	1(4.0%)	1(4.0%)	21(84.0%)	25(100.0%)
	인천	0(0.0%)	0(0.0%)	2(3.1%)	0(0.0%)	3(4.7%)	7(10.9%)	5(7.8%)	47(73.4%)	64(100.0%)
	전남	1(5.3%)	1(5.3%)	3(15.8%)	0(0.0%)	2(10.5%)	3(15.8%)	1(5.3%)	8(42.1%)	19(100.0%)
	전북	0(0.0%)	0(0.0%)	1(10.0%)	0(0.0%)	1(10.0%)	1(10.0%)	1(10.0%)	6(60.0%)	10(100.0%)
	제주	1(1.5%)	0(0.0%)	5(7.4%)	2(2.9%)	3(4.4%)	5(7.4%)	7(10.3%)	45(66.2%)	68(100.0%)
	충남	1(3.1%)	2(6.3%)	3(9.4%)	2(6.3%)	2(6.3%)	4(12.5%)	3(9.4%)	15(46.9%)	32(100.0%)
	충북	0(0.0%)	0(0.0%)	0(0.0%)	0(0.0%)	0(0.0%)	1(5.9%)	0(0.0%)	16(94.1%)	17(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저축 여부는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195명 (37.7%), 저축이 없다는 응답이 322명(62.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저축을 하고 있다는 여자 청소년이 40.5%로 남자 청소년의 35.1% 보다 약간 많은 경향이 있었고, 컴퓨터 유형에 따라서는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 중 저축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12.0%로 단기·중장기와 일시이동형의 39.4%와 37.0% 보다 적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강원, 대전과 울산 지역의 청소년들은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62.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저축 여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322(62.3%)	195(37.7%)	517(100.0%)	
성별	남자	172(64.9%)	93(35.1%)	265(100.0%)	1.593
	여자	150(59.5%)	102(40.5%)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51(63.0%)	30(37.0%)	81(100.0%)	7.559*
	고정형	22(88.0%)	3(12.0%)	25(100.0%)	
	단기·중장기	249(60.6%)	162(39.4%)	411(100.0%)	
지역	강원	6(33.3%)	12(66.7%)	18(100.0%)	-
	경기	62(62.0%)	38(38.0%)	100(100.0%)	
	경남	6(60.0%)	4(40.0%)	10(100.0%)	
	경북	4(66.7%)	2(33.3%)	6(100.0%)	
	광주	11(61.1%)	7(38.9%)	18(100.0%)	
	대구	7(53.8%)	6(46.2%)	13(100.0%)	
	대전	9(47.4%)	10(52.6%)	19(100.0%)	
	부산	18(72.0%)	7(28.0%)	25(100.0%)	
	서울	71(69.6%)	31(30.4%)	102(100.0%)	
	울산	12(46.2%)	14(53.8%)	26(100.0%)	
	인천	40(67.8%)	19(32.2%)	59(100.0%)	
	전남	11(73.3%)	4(26.7%)	15(100.0%)	
	전북	5(62.5%)	3(37.5%)	8(100.0%)	
	제주	32(54.2%)	27(45.8%)	59(100.0%)	
	충남	17(77.3%)	5(22.7%)	22(100.0%)	
	충북	11(64.7%)	6(35.3%)	17(100.0%)	

* $p < .05$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에게 빛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가 442명(85.5%)으로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다.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은 빛이 있는 청소년이 32.0%로 단기·중장기와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14.1%와 11.1% 보다 약간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와 대전 지역의 청소년 중 빛이 있는 비율이 25% 이상으로 다소 높았다.

표 63.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빛 유무(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442(85.5%)	75(14.5%)	517(100.0%)	
성별	남자	221(83.4%)	44(16.6%)	265(100.0%)	1.928
	여자	221(87.7%)	31(12.3%)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72(88.9%)	9(11.1%)	81(100.0%)	6.973*
	고정형	17(68.0%)	8(32.0%)	25(100.0%)	
	단기·중장기	353(85.9%)	58(14.1%)	411(100.0%)	
지역	강원	16(88.9%)	2(11.1%)	18(100.0%)	-
	경기	90(90.0%)	10(10.0%)	100(100.0%)	
	경남	8(80.0%)	2(20.0%)	10(100.0%)	
	경북	5(83.3%)	1(16.7%)	6(100.0%)	
	광주	18(100.0%)	0(0.0%)	18(100.0%)	
	대구	9(69.2%)	4(30.8%)	13(100.0%)	
	대전	14(73.7%)	5(26.3%)	19(100.0%)	
	부산	21(84.0%)	4(16.0%)	25(100.0%)	
	서울	84(82.4%)	18(17.6%)	102(100.0%)	
	울산	23(88.5%)	3(11.5%)	26(100.0%)	
	인천	53(89.8%)	6(10.2%)	59(100.0%)	
	전남	12(80.0%)	3(20.0%)	15(100.0%)	
	전북	7(87.5%)	1(12.5%)	8(100.0%)	
	제주	53(89.8%)	6(10.2%)	59(100.0%)	
	충남	15(68.2%)	7(31.8%)	22(100.0%)	
	충북	14(82.4%)	3(17.6%)	17(100.0%)	

* $p < .05$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현재 신용불량 상태는 아니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63명(89.6%)으로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다.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 중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 청소년의 비율은 28.0%로 단기·중장기와 일시 이동형 컴퓨터의 10.0%와 7.4% 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북, 대구, 대전, 부산과 울산 지역의 청소년들 중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 청소년의 비율이 15% 이상으로 약간 높았다.

표 64.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신용불량 상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전체		54(10.4%)	463(89.6%)	517(100.0%)	
성별	남자	31(11.7%)	234(88.3%)	265(100.0%)	0.913
	여자	23(9.1%)	229(90.9%)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6(7.4%)	75(92.6%)	81(100.0%)	9.132*
	고정형	7(28.0%)	18(72.0%)	25(100.0%)	
	단기·중장기	41(10.0%)	370(90.0%)	411(100.0%)	
지역	강원	2(11.1%)	16(88.9%)	18(100.0%)	-
	경기	8(8.0%)	92(92.0%)	100(100.0%)	
	경남	1(10.0%)	9(90.0%)	10(100.0%)	
	경북	1(16.7%)	5(83.3%)	6(100.0%)	
	광주	2(11.1%)	16(88.9%)	18(100.0%)	
	대구	2(15.4%)	11(84.6%)	13(100.0%)	
	대전	6(31.6%)	13(68.4%)	19(100.0%)	
	부산	4(16.0%)	21(84.0%)	25(100.0%)	
	서울	11(10.8%)	91(89.2%)	102(100.0%)	
	울산	4(15.4%)	22(84.6%)	26(100.0%)	
	인천	4(6.8%)	55(93.2%)	59(100.0%)	
	전남	0(0.0%)	15(100.0%)	15(100.0%)	
	전북	1(12.5%)	7(87.5%)	8(100.0%)	
	제주	4(6.8%)	55(93.2%)	59(100.0%)	
	충남	3(13.6%)	19(86.4%)	22(100.0%)	
	충북	1(5.9%)	16(94.1%)	17(100.0%)	

* $p < .05$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과거 신용불량 상태는 아니더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74명(91.7%)으로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과 컴퓨터유형에 따라 유사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주, 대구와 부산 지역의 청소년들 중 과거 신용불량 상태였던 청소년의 비율이 15% 이상으로 약간 높았다.

표 65.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과거 신용불량 상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전체		43(8.3%)	474(91.7%)	517(100.0%)	
성별	남자	27(10.2%)	238(89.8%)	265(100.0%)	2.497
	여자	16(6.3%)	236(93.7%)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8(9.9%)	73(90.1%)	81(100.0%)	0.855
	고정형	3(12.0%)	22(88.0%)	25(100.0%)	
	단기·증장기	32(7.8%)	379(92.2%)	411(100.0%)	
지역	강원	1(5.6%)	17(94.4%)	18(100.0%)	-
	경기	5(5.0%)	95(95.0%)	100(100.0%)	
	경남	1(10.0%)	9(90.0%)	10(100.0%)	
	경북	0(0.0%)	6(100.0%)	6(100.0%)	
	광주	3(16.7%)	15(83.3%)	18(100.0%)	
	대구	3(23.1%)	10(76.9%)	13(100.0%)	
	대전	1(5.3%)	18(94.7%)	19(100.0%)	
	부산	4(16.0%)	21(84.0%)	25(100.0%)	
	서울	10(9.8%)	92(90.2%)	102(100.0%)	
	울산	0(0.0%)	26(100.0%)	26(100.0%)	
	인천	6(10.2%)	53(89.8%)	59(100.0%)	
	전남	0(0.0%)	15(100.0%)	15(100.0%)	
	전북	1(12.5%)	7(87.5%)	8(100.0%)	
	제주	5(8.5%)	54(91.5%)	59(100.0%)	
	충남	1(4.5%)	21(95.5%)	22(100.0%)	
	충북	2(11.8%)	15(88.2%)	17(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은 있다가 194명(37.5%), 없다가 323명(62.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고,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청소년 중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8.5%로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컴퓨터의 32.0%와 41.6% 보다 약간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광주, 부산, 인천과 충북 지역 청소년들 중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약간 높았다.

표 66.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323(62.5%)	194(37.5%)	517(100.0%)	
성별	남자	165(62.3%)	100(37.7%)	265(100.0%)	0.010
	여자	158(62.7%)	94(37.3%)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66(81.5%)	15(18.5%)	81(100.0%)	15.727***
	고정형	17(68.0%)	8(32.0%)	25(100.0%)	
	단기·중장기	240(58.4%)	171(41.6%)	411(100.0%)	
지역	강원	14(77.8%)	4(22.2%)	18(100.0%)	-
	경기	57(57.0%)	43(43.0%)	100(100.0%)	
	경남	7(70.0%)	3(30.0%)	10(100.0%)	
	경북	4(66.7%)	2(33.3%)	6(100.0%)	
	광주	6(33.3%)	12(66.7%)	18(100.0%)	
	대구	8(61.5%)	5(38.5%)	13(100.0%)	
	대전	14(73.7%)	5(26.3%)	19(100.0%)	
	부산	15(60.0%)	10(40.0%)	25(100.0%)	
	서울	67(65.7%)	35(34.3%)	102(100.0%)	
	울산	17(65.4%)	9(34.6%)	26(100.0%)	
	인천	32(54.2%)	27(45.8%)	59(100.0%)	
	전남	10(66.7%)	5(33.3%)	15(100.0%)	
	전북	6(75.0%)	2(25.0%)	8(100.0%)	
	제주	44(74.6%)	15(25.4%)	59(100.0%)	
	충남	14(63.6%)	8(36.4%)	22(100.0%)	
	충북	8(47.1%)	9(52.9%)	17(100.0%)	

*** $p < .001$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도움된 정도는 많이 도움됨이 80명(41.2%), 조금 도움됨이 61명(31.4%), 보통이 42명(21.6%)로 나타나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표 6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도움 된 정도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조금 도움됨	많이 도움됨	전체
전체		3(1.5%)	8(4.1%)	42(21.6%)	61(31.4%)	80(41.2%)	194(100.0%)
성별	남자	3(3.0%)	4(4.0%)	25(25.0%)	23(23.0%)	45(45.0%)	100(100.0%)
	여자	0(0.0%)	4(4.3%)	17(18.1%)	38(40.4%)	35(37.2%)	94(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0(0.0%)	0(0.0%)	5(33.3%)	8(53.3%)	2(13.3%)	15(100.0%)
	고정형	0(0.0%)	0(0.0%)	3(37.5%)	3(37.5%)	2(25.0%)	8(100.0%)
	단기·중장기	3(1.8%)	8(4.7%)	34(19.9%)	50(29.2%)	76(44.4%)	171(100.0%)
지역	강원	0(0.0%)	0(0.0%)	1(25.0%)	2(50.0%)	1(25.0%)	4(100.0%)
	경기	0(0.0%)	4(9.3%)	9(20.9%)	16(37.2%)	14(32.6%)	43(100.0%)
	경남	0(0.0%)	0(0.0%)	1(33.3%)	0(0.0%)	2(66.7%)	3(100.0%)
	경북	0(0.0%)	0(0.0%)	0(0.0%)	1(50.0%)	1(50.0%)	2(100.0%)
	광주	0(0.0%)	0(0.0%)	1(8.3%)	3(25.0%)	8(66.7%)	12(100.0%)
	대구	0(0.0%)	1(20.0%)	1(20.0%)	2(40.0%)	1(20.0%)	5(100.0%)
	대전	1(20.0%)	0(0.0%)	0(0.0%)	2(40.0%)	2(40.0%)	5(100.0%)
	부산	1(10.0%)	0(0.0%)	2(20.0%)	5(50.0%)	2(20.0%)	10(100.0%)
	서울	0(0.0%)	1(2.9%)	9(25.7%)	10(28.6%)	15(42.9%)	35(100.0%)
	울산	0(0.0%)	0(0.0%)	1(11.1%)	3(33.3%)	5(55.6%)	9(100.0%)
	인천	0(0.0%)	2(7.4%)	6(22.2%)	4(14.8%)	15(55.6%)	27(100.0%)
	전남	0(0.0%)	0(0.0%)	2(40.0%)	1(20.0%)	2(40.0%)	5(100.0%)
	전북	1(50.0%)	0(0.0%)	0(0.0%)	0(0.0%)	1(50.0%)	2(100.0%)
	제주	0(0.0%)	0(0.0%)	4(26.7%)	7(46.7%)	4(26.7%)	15(100.0%)
	충남	0(0.0%)	0(0.0%)	2(25.0%)	2(25.0%)	4(50.0%)	8(100.0%)
	충북	0(0.0%)	0(0.0%)	3(33.3%)	3(33.3%)	3(33.3%)	9(100.0%)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가 13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45명(13.9%), 이용하기가 귀찮아서가 90명(27.9%),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1명(6.5%), 도우이 안 될 것 같아서가 19명(5.9%), 신청방법이 복잡해서가 13명(4.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로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와 이용하기가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표 68.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안(못)한 이유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용하기가 귀찮아서	기타	전체
전체		135 (41.8%)	13 (4.0%)	19 (5.9%)	21 (6.5%)	90 (27.9%)	45 (13.9%)	323 (100.0%)
성별	남자	59 (35.8%)	8 (4.8%)	9 (5.5%)	12 (7.3%)	63 (38.2%)	14 (8.5%)	165 (100.0%)
	여자	76 (48.1%)	5 (3.2%)	10 (6.3%)	9 (5.7%)	27 (17.1%)	31 (19.6%)	158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20 (30.3%)	1 (1.5%)	3 (4.5%)	4 (6.1%)	30 (45.5%)	8 (12.1%)	66 (100.0%)
	고정형	10 (58.8%)	1 (5.9%)	0 (0.0%)	0 (0.0%)	5 (29.4%)	1 (5.9%)	17 (100.0%)
	단기·중장기	105 (43.8%)	11 (4.6%)	16 (6.7%)	17 (7.1%)	55 (22.9%)	36 (15.0%)	240 (100.0%)
지역	강원	5 (35.7%)	1 (7.1%)	1 (7.1%)	2 (14.3%)	3 (21.4%)	2 (14.3%)	14 (100.0%)
	경기	29 (50.9%)	1 (1.8%)	1 (1.8%)	4 (7.0%)	15 (26.3%)	7 (12.3%)	57 (100.0%)
	경남	4 (57.1%)	0 (0.0%)	1 (14.3%)	0 (0.0%)	1 (14.3%)	1 (14.3%)	7 (100.0%)
	경북	0 (0.0%)	1 (25.0%)	0 (0.0%)	1 (25.0%)	2 (50.0%)	0 (0.0%)	4 (100.0%)
	광주	2 (33.3%)	1 (16.7%)	1 (16.7%)	0 (0.0%)	1 (16.7%)	1 (16.7%)	6 (100.0%)
	대구	4 (50.0%)	0 (0.0%)	2 (25.0%)	1 (12.5%)	1 (12.5%)	0 (0.0%)	8 (100.0%)

구분	범주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용하기가 귀찮아서	기타	전체
	대전	7 (50.0%)	3 (21.4%)	2 (14.3%)	0 (0.0%)	2 (14.3%)	0 (0.0%)	14 (100.0%)
	부산	5 (33.3%)	1 (6.7%)	0 (0.0%)	1 (6.7%)	8 (53.3%)	0 (0.0%)	15 (100.0%)
	서울	21 (31.3%)	2 (3.0%)	5 (7.5%)	6 (9.0%)	16 (23.9%)	17 (25.4%)	67 (100.0%)
	울산	10 (58.8%)	0 (0.0%)	1 (5.9%)	0 (0.0%)	3 (17.6%)	3 (17.6%)	17 (100.0%)
	인천	14 (43.8%)	1 (3.1%)	2 (6.3%)	1 (3.1%)	5 (15.6%)	9 (28.1%)	32 (100.0%)
	전남	5 (50.0%)	0 (0.0%)	0 (0.0%)	1 (10.0%)	3 (30.0%)	1 (10.0%)	10 (100.0%)
	전북	2 (33.3%)	0 (0.0%)	0 (0.0%)	0 (0.0%)	4 (66.7%)	0 (0.0%)	6 (100.0%)
	제주	16 (36.4%)	0 (0.0%)	1 (2.3%)	3 (6.8%)	21 (47.7%)	3 (6.8%)	44 (100.0%)
	충남	8 (57.1%)	0 (0.0%)	2 (14.3%)	1 (7.1%)	3 (21.4%)	0 (0.0%)	14 (100.0%)
	충북	3 (37.5%)	2 (25.0%)	0 (0.0%)	0 (0.0%)	2 (25.0%)	1 (12.5%)	8 (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50.920$, $df=5$, $p=.051$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은 취업 및 진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334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알선이 55명(11.5%), 취업 및 진로 역량강화가 44명(9.2%), 취업 및 진로상담, 정보제공이 33명(6.9%), 기타 11명(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서 비용지원과 취업알선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표 6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내용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취업 및 진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지원	취업알선	취업 및 진로상담, 정보제공	취업 및 진로역량 강화	기타	전체
전체		334(70.0%)	55(11.5%)	33(6.9%)	44(9.2%)	11(2.3%)	477(100.0%)
성별	남자	164(68.9%)	30(12.6%)	14(5.9%)	24(10.1%)	6(2.5%)	238(100.0%)
	여자	170(71.1%)	25(10.5%)	19(7.9%)	20(8.4%)	5(2.1%)	239(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54(80.6%)	5(7.5%)	3(4.5%)	2(3.0%)	3(4.5%)	67(100.0%)
	고정형	16(66.7%)	5(20.8%)	1(4.2%)	2(8.3%)	0(0.0%)	24(100.0%)
	단기·중장기	264(68.4%)	45(11.7%)	29(7.5%)	40(10.4%)	8(2.1%)	386(100.0%)
지역	강원	9(56.3%)	1(6.3%)	3(18.8%)	3(18.8%)	0(0.0%)	16(100.0%)
	경기	62(65.3%)	11(11.6%)	9(9.5%)	10(10.5%)	3(3.2%)	95(100.0%)
	경남	5(55.6%)	2(22.2%)	0(0.0%)	2(22.2%)	0(0.0%)	9(100.0%)
	경북	5(83.3%)	0(0.0%)	0(0.0%)	1(16.7%)	0(0.0%)	6(100.0%)
	광주	9(56.3%)	2(12.5%)	3(18.8%)	1(6.3%)	1(6.3%)	16(100.0%)
	대구	10(76.9%)	0(0.0%)	1(7.7%)	2(15.4%)	0(0.0%)	13(100.0%)
	대전	14(73.7%)	2(10.5%)	3(15.8%)	0(0.0%)	0(0.0%)	19(100.0%)
	부산	21(84.0%)	4(16.0%)	0(0.0%)	0(0.0%)	0(0.0%)	25(100.0%)
	서울	65(71.4%)	14(15.4%)	3(3.3%)	5(5.5%)	4(4.4%)	91(100.0%)
	울산	19(82.6%)	1(4.3%)	1(4.3%)	2(8.7%)	0(0.0%)	23(100.0%)
	인천	39(69.6%)	9(16.1%)	3(5.4%)	4(7.1%)	1(1.8%)	56(100.0%)
	전남	9(64.3%)	1(7.1%)	1(7.1%)	3(21.4%)	0(0.0%)	14(100.0%)
	전북	2(33.3%)	2(33.3%)	1(16.7%)	1(16.7%)	0(0.0%)	6(100.0%)
	제주	42(80.8%)	3(5.8%)	1(1.9%)	4(7.7%)	2(3.8%)	52(100.0%)
	충남	15(68.2%)	1(4.5%)	3(13.6%)	3(13.6%)	0(0.0%)	22(100.0%)
	충북	8(57.1%)	2(14.3%)	1(7.1%)	3(21.4%)	0(0.0%)	14(100.0%)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 청소년들의 퇴소후 가정 복귀 계획은 복귀계획 없음이 289명(66.3%)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율이 72.8%로 남자 청소년들의 비율 60.4%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쉼터유형, 전남과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사하였다.

표 70.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퇴소 후 가정 복귀 계획(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가정으로 복귀	복귀계획 없음	전체	χ^2
전체		147(33.7%)	289(66.3%)	436(100.0%)	
성별	남자	91(39.6%)	139(60.4%)	230(100.0%)	7.454**
	여자	56(27.2%)	150(72.8%)	206(100.0%)	
쉼터유형	고정형	2(8.0%)	23(92.0%)	25(100.0%)	-
	단기·중장기	145(35.3%)	266(64.7%)	411(100.0%)	
지역	강원	7(38.9%)	11(61.1%)	18(100.0%)	-
	경기	30(30.9%)	67(69.1%)	97(100.0%)	
	경남	3(30.0%)	7(70.0%)	10(100.0%)	
	경북	0(0.0%)	6(100.0%)	6(100.0%)	
	광주	5(27.8%)	13(72.2%)	18(100.0%)	
	대구	1(7.7%)	12(92.3%)	13(100.0%)	
	대전	5(26.3%)	14(73.7%)	19(100.0%)	
	부산	6(46.2%)	7(53.8%)	13(100.0%)	
	서울	24(28.6%)	60(71.4%)	84(100.0%)	
	울산	7(26.9%)	19(73.1%)	26(100.0%)	
	인천	22(37.3%)	37(62.7%)	59(100.0%)	
	전남	11(78.6%)	3(21.4%)	14(100.0%)	
	전북	4(57.1%)	3(42.9%)	7(100.0%)	
	제주	3(20.0%)	12(80.0%)	15(100.0%)	
	충남	11(52.4%)	10(47.6%)	21(100.0%)	
	충북	8(50.0%)	8(50.0%)	16(100.0%)	

** $p < .01$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경우, 그 이유는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까봐가 150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42명(14.5%), 돈을 벌고 싶어서가 37명(12.8%), 돌아갈 집이 없어서가 31명(10.7%),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인가 28명(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쉼터유형,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까봐 가정 복귀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71.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정 미복귀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돌아갈 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 가 반복 될까봐	학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기타	전체
전체		31 (10.7%)	150 (51.9%)	1 (0.3%)	37 (12.8%)	28 (9.7%)	42 (14.5%)	289 (100.0%)
성별	남자	15 (10.8%)	64 (46.0%)	1 (0.7%)	23 (16.5%)	14 (10.1%)	22 (15.8%)	139 (100.0%)
	여자	16 (10.7%)	86 (57.3%)	0 (0.0%)	14 (9.3%)	14 (9.3%)	20 (13.3%)	150 (100.0%)
쉼터 유형	고정형	2 (8.7%)	13 (56.5%)	0 (0.0%)	5 (21.7%)	1 (4.3%)	2 (8.7%)	23 (100.0%)
	단기· 중장기	29 (10.9%)	137 (51.5%)	1 (0.4%)	32 (12.0%)	27 (10.2%)	40 (15.0%)	266 (100.0%)
지역	강원	2 (18.2%)	3 (27.3%)	1 (9.1%)	2 (18.2%)	1 (9.1%)	2 (18.2%)	11 (100.0%)
	경기	7 (10.4%)	37 (55.2%)	0 (0.0%)	4 (6.0%)	7 (10.4%)	12 (17.9%)	67 (100.0%)
	경남	0 (0.0%)	5 (71.4%)	0 (0.0%)	0 (0.0%)	0 (0.0%)	2 (28.6%)	7 (100.0%)
	경북	2 (33.3%)	2 (33.3%)	0 (0.0%)	1 (16.7%)	0 (0.0%)	1 (16.7%)	6 (100.0%)
	광주	1 (7.7%)	5 (38.5%)	0 (0.0%)	2 (15.4%)	1 (7.7%)	4 (30.8%)	13 (100.0%)
	대구	2 (16.7%)	5 (41.7%)	0 (0.0%)	3 (25.0%)	2 (16.7%)	0 (0.0%)	12 (100.0%)

구분	범주	돌아갈 집이 없어서	가족들이 반기지 않 고 이전에 겪었던 문 제가 반복 될까봐	학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기타	전체
	대전	1 (7.1%)	6 (42.9%)	0 (0.0%)	4 (28.6%)	2 (14.3%)	1 (7.1%)	14 (100.0%)
	부산	0 (0.0%)	6 (85.7%)	0 (0.0%)	0 (0.0%)	0 (0.0%)	1 (14.3%)	7 (100.0%)
	서울	8 (13.3%)	25 (41.7%)	0 (0.0%)	11 (18.3%)	9 (15.0%)	7 (11.7%)	60 (100.0%)
	울산	3 (15.8%)	11 (57.9%)	0 (0.0%)	1 (5.3%)	1 (5.3%)	3 (15.8%)	19 (100.0%)
	인천	0 (0.0%)	26 (70.3%)	0 (0.0%)	6 (16.2%)	3 (8.1%)	2 (5.4%)	37 (100.0%)
	전남	1 (33.3%)	0 (0.0%)	0 (0.0%)	1 (33.3%)	0 (0.0%)	1 (33.3%)	3 (100.0%)
	전북	0 (0.0%)	2 (66.7%)	0 (0.0%)	0 (0.0%)	1 (33.3%)	0 (0.0%)	3 (100.0%)
	제주	2 (16.7%)	5 (41.7%)	0 (0.0%)	0 (0.0%)	1 (8.3%)	4 (33.3%)	12 (100.0%)
	충남	2 (20.0%)	6 (60.0%)	0 (0.0%)	2 (20.0%)	0 (0.0%)	0 (0.0%)	10 (100.0%)
	충북	0 (0.0%)	6 (75.0%)	0 (0.0%)	0 (0.0%)	0 (0.0%)	2 (25.0%)	8 (100.0%)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는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가 123명(42.6%), 다른 공공시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가 65명(22.5%),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가 50명(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다. 고정형 쉼터의 청소년들은 숙식가능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응답이 21.7%로 단기·중장기 쉼터의 청소년들의 비율 3.0% 보다 높았다.

표 72.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정 미복귀시 돌아갈 곳(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임대주택, 셰어형 주택 등)	숙식가능한 일자리를 구할 것이다	다른 공공시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중장기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살 예정이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	기타	전체
전체		123 (42.6%)	13 (4.5%)	65 (22.5%)	17 (5.9%)	56 (19.4%)	15 (5.2%)	289 (100.0%)
성별	남자	58 (41.7%)	12 (8.6%)	23 (16.5%)	5 (3.6%)	33 (23.7%)	8 (5.8%)	139 (100.0%)
	여자	65 (43.3%)	1 (.7%)	42 (28.0%)	12 (8.0%)	23 (15.3%)	7 (4.7%)	150 (100.0%)
쉼터 유형	고정형	7 (30.4%)	5 (21.7%)	4 (17.4%)	1 (4.3%)	5 (21.7%)	1 (4.3%)	23 (100.0%)
	단기·중장기	116 (43.6%)	8 (3.0%)	61 (22.9%)	16 (6.0%)	51 (19.2%)	14 (5.3%)	266 (100.0%)
지역	강원	5 (45.5%)	1 (9.1%)	1 (9.1%)	2 (18.2%)	1 (9.1%)	1 (9.1%)	11 (100.0%)
	경기	23 (34.3%)	0 (0.0%)	20 (29.9%)	4 (6.0%)	15 (22.4%)	5 (7.5%)	67 (100.0%)
	경남	1 (14.3%)	1 (14.3%)	2 (28.6%)	1 (14.3%)	0 (0.0%)	2 (28.6%)	7 (100.0%)
	경북	2 (33.3%)	1 (16.7%)	0 (0.0%)	0 (0.0%)	3 (50.0%)	0 (0.0%)	6 (100.0%)
	광주	12 (92.3%)	0 (0.0%)	0 (0.0%)	0 (0.0%)	1 (7.7%)	0 (0.0%)	13 (100.0%)
	대구	5 (41.7%)	0 (0.0%)	4 (33.3%)	0 (0.0%)	2 (16.7%)	1 (8.3%)	12 (100.0%)

구분	범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임대주 택, 셰어형 주택 등)	숙식가능한 일자리를 구할 것이다	다른 공공시 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중장기 쉼터, 청소 년자립지원 관 등)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살 예정이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	기타	전체
	대전	8 (57.1%)	1 (7.1%)	3 (21.4%)	0 (0.0%)	2 (14.3%)	0 (0.0%)	14 (100.0%)
	부산	5 (71.4%)	0 (0.0%)	0 (0.0%)	0 (0.0%)	2 (28.6%)	0 (0.0%)	7 (100.0%)
	서울	23 (38.3%)	5 (8.3%)	17 (28.3%)	3 (5.0%)	10 (16.7%)	2 (3.3%)	60 (100.0%)
	울산	11 (57.9%)	0 (0.0%)	4 (21.1%)	0 (0.0%)	4 (21.1%)	0 (0.0%)	19 (100.0%)
	인천	12 (32.4%)	3 (8.1%)	11 (29.7%)	5 (13.5%)	5 (13.5%)	1 (2.7%)	37 (100.0%)
	전남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3 (100.0%)
	전북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3 (100.0%)
	제주	5 (41.7%)	0 (0.0%)	0 (0.0%)	2 (16.7%)	4 (33.3%)	1 (8.3%)	12 (100.0%)
	충남	5 (50.0%)	0 (0.0%)	2 (20.0%)	0 (0.0%)	3 (30.0%)	0 (0.0%)	10 (100.0%)
	충북	3 (37.5%)	1 (12.5%)	1 (12.5%)	0 (0.0%)	2 (25.0%)	1 (12.5%)	8 (100.0%)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은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 186건(34.8%), 취업을 준비할 계획이 138건(25.8%),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가 108건(20.2%), 생활자금을 모으고 있다 103건(19.3%)으로 모든 선택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7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미래 준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생활자금을 모으고 있다	취업을 준비	학업을 계속할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	전체
전체		103(19.3%)	138(25.8%)	186(34.8%)	108(20.2%)	535(100.0%)
성별	남자	55(19.9%)	73(26.4%)	83(30.0%)	66(23.8%)	277(100.0%)
	여자	48(18.6%)	65(25.2%)	103(39.9%)	42(16.3%)	258(100.0%)
쉼터 유형	고정형	8(27.6%)	10(34.5%)	2(6.9%)	9(31.0%)	29(100.0%)
	단기·중장기	95(18.8%)	128(25.3%)	184(36.4%)	99(19.6%)	506(100.0%)
지역	강원	3(16.7%)	6(33.3%)	5(27.8%)	4(22.2%)	18(100.0%)
	경기	25(20.5%)	29(23.8%)	44(36.1%)	24(19.7%)	122(100.0%)
	경남	1(8.3%)	3(25.0%)	6(50.0%)	2(16.7%)	12(100.0%)
	경북	2(28.6%)	2(28.6%)	0(0.0%)	3(42.9%)	7(100.0%)
	광주	7(33.3%)	4(19.0%)	8(38.1%)	2(9.5%)	21(100.0%)
	대구	6(31.6%)	3(15.8%)	7(36.8%)	3(15.8%)	19(100.0%)
	대전	5(20.8%)	6(25.0%)	7(29.2%)	6(25.0%)	24(100.0%)
	부산	3(20.0%)	4(26.7%)	5(33.3%)	3(20.0%)	15(100.0%)
	서울	24(22.6%)	30(28.3%)	29(27.4%)	23(21.7%)	106(100.0%)
	울산	3(9.4%)	7(21.9%)	13(40.6%)	9(28.1%)	32(100.0%)
	인천	9(12.9%)	20(28.6%)	28(40.0%)	13(18.6%)	70(100.0%)
	전남	3(20.0%)	3(20.0%)	7(46.7%)	2(13.3%)	15(100.0%)
	전북	2(25.0%)	4(50.0%)	0(0.0%)	2(25.0%)	8(100.0%)
	제주	5(25.0%)	5(25.0%)	7(35.0%)	3(15.0%)	20(100.0%)
	충남	2(7.7%)	3(11.5%)	14(53.8%)	7(26.9%)	26(100.0%)
	충북	3(15.0%)	9(45.0%)	6(30.0%)	2(10.0%)	20(100.0%)

4) 가출 후 신체 및 정신 건강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가출 이후 건강검진 경험은 있음이 268명(51.8%), 없음이 249명(48.2%)이었다. 가출 이후 건강검진 경험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지만, 쉼터 유형 중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쉼터의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경험 비율이 각각 32.0%와 19.8%로 다소 낮았다.

표 74.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이후 건강검진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음	있음	전체	χ^2
전체		249(48.2%)	268(51.8%)	517(100.0%)	
성별	남자	123(46.4%)	142(53.6%)	265(100.0%)	0.665
	여자	126(50.0%)	126(50.0%)	252(100.0%)	
쉼터유형	일시이동형	65(80.2%)	16(19.8%)	81(100.0%)	46.673***
	고정형	17(68.0%)	8(32.0%)	25(100.0%)	
	단기·중장기	167(40.6%)	244(59.4%)	411(100.0%)	
지역	강원	7(38.9%)	11(61.1%)	18(100.0%)	-
	경기	41(41.0%)	59(59.0%)	100(100.0%)	
	경남	1(10.0%)	9(90.0%)	10(100.0%)	
	경북	0(0.0%)	6(100.0%)	6(100.0%)	
	광주	2(11.1%)	16(88.9%)	18(100.0%)	
	대구	5(38.5%)	8(61.5%)	13(100.0%)	
	대전	11(57.9%)	8(42.1%)	19(100.0%)	
	부산	15(60.0%)	10(40.0%)	25(100.0%)	
	서울	48(47.1%)	54(52.9%)	102(100.0%)	
	울산	9(34.6%)	17(65.4%)	26(100.0%)	
	인천	35(59.3%)	24(40.7%)	59(100.0%)	
	전남	6(40.0%)	9(60.0%)	15(100.0%)	
	전북	5(62.5%)	3(37.5%)	8(100.0%)	
	제주	40(67.8%)	19(32.2%)	59(100.0%)	
	충남	17(77.3%)	5(22.7%)	22(100.0%)	
	충북	7(41.2%)	10(58.8%)	17(100.0%)	

*** $p < .001$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질병에 대한 응답은 없음이 199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162건(21.7%),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이 138건(18.2%), 충치 및 잇몸질환이 134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과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의 비율이 다른 질병들보다 약간 높았다.

표 75.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질병(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충치 및 잇몸질환	성 관련 문제(임신) 또는 질병 (성병 등)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과적 질환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	기타 질환 (호흡기질 환, 피부 질환 등)	없음	전체
전체		134 (17.9%)	18 (2.4%)	162 (21.7%)	138 (18.5%)	96 (12.9%)	199 (26.6%)	747 (100.0%)
성별	남자	50 (14.8%)	4 (1.2%)	68 (20.1%)	51 (15.1%)	33 (9.8%)	132 (39.1%)	338 (100.0%)
	여자	84 (20.5%)	14 (3.4%)	94 (23.0%)	87 (21.3%)	63 (15.4%)	67 (16.4%)	409 (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19 (18.6%)	0 (0.0%)	12 (11.8%)	19 (18.6%)	9 (8.8%)	43 (42.2%)	102 (100.0%)
	고정형	5 (17.9%)	0 (0.0%)	7 (25.0%)	2 (7.1%)	3 (10.7%)	11 (39.3%)	28 (100.0%)
	단기·중장 기	110 (17.8%)	18 (2.9%)	143 (23.2%)	117 (19.0%)	84 (13.6%)	145 (23.5%)	617 (100.0%)
지역	강원	8 (30.8%)	1 (3.8%)	2 (7.7%)	4 (15.4%)	4 (15.4%)	7 (26.9%)	26 (100.0%)
	경기	29 (20.1%)	5 (3.5%)	46 (31.9%)	19 (13.2%)	16 (11.1%)	29 (20.1%)	144 (100.0%)
	경남	2 (13.3%)	0 (0.0%)	3 (20.0%)	3 (20.0%)	3 (20.0%)	4 (26.7%)	15 (100.0%)
	경북	1 (10.0%)	1 (10.0%)	3 (30.0%)	3 (30.0%)	0 (0.0%)	2 (20.0%)	10 (100.0%)
	광주	3 (12.5%)	0 (0.0%)	7 (29.2%)	6 (25.0%)	5 (20.8%)	3 (12.5%)	24 (100.0%)
	대구	4 (15.4%)	1 (3.8%)	8 (30.8%)	7 (26.9%)	4 (15.4%)	2 (7.7%)	26 (100.0%)
	대전	5 (17.9%)	0 (0.0%)	4 (14.3%)	5 (17.9%)	4 (14.3%)	10 (35.7%)	28 (100.0%)
	부산	9 (23.7%)	0 (0.0%)	6 (15.8%)	10 (26.3%)	6 (15.8%)	7 (18.4%)	38 (100.0%)

구분	범주	총치 및 잇몸질환	성 관련 문제(임신) 또는 질병 (성병 등)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과적 질환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	기타 질환 (호흡기질 환, 피부 질환 등)	없음	전체
	서울	28 (18.8%)	3 (2.0%)	30 (20.1%)	28 (18.8%)	15 (10.1%)	45 (30.2%)	149 (100.0%)
	울산	8 (17.8%)	1 (2.2%)	9 (20.0%)	8 (17.8%)	8 (17.8%)	11 (24.4%)	45 (100.0%)
	인천	15 (17.6%)	1 (1.2%)	16 (18.8%)	17 (20.0%)	15 (17.6%)	21 (24.7%)	85 (100.0%)
	전남	1 (6.3%)	2 (12.5%)	0 (0.0%)	4 (25.0%)	2 (12.5%)	7 (43.8%)	16 (100.0%)
	전북	3 (23.1%)	2 (15.4%)	1 (7.7%)	2 (15.4%)	0 (0.0%)	5 (38.5%)	13 (100.0%)
	제주	14 (18.4%)	0 (0.0%)	14 (18.4%)	12 (15.8%)	8 (10.5%)	28 (36.8%)	76 (100.0%)
	충남	3 (9.1%)	1 (3.0%)	9 (27.3%)	9 (27.3%)	4 (12.1%)	7 (21.2%)	33 (100.0%)
	충북	1 (5.3%)	0 (0.0%)	4 (21.1%)	1 (5.3%)	2 (10.5%)	11 (57.9%)	19 (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는 전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216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해 진 것 같다와 매우 건강해 진 것 같다가 각각 131명(25.3%)과 92명(17.8%)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전과 변화가 없거나 더 건강해 진 것 같다는 응답이 나빠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표 76.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매우 건강해진 것 같다	건강해진 것 같다	전과 변화가 없다	나빠진 것 같다	매우 나빠진 것 같다	전체
전체		92(17.8%)	131(25.3%)	216(41.8%)	62(12.0%)	16(3.1%)	517(100.0%)
성별	남자	53(20.0%)	66(24.9%)	109(41.1%)	30(11.3%)	7(2.6%)	265(100.0%)
	여자	39(15.5%)	65(25.8%)	107(42.5%)	32(12.7%)	9(3.6%)	252(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15(18.5%)	11(13.6%)	47(58.0%)	7(8.6%)	1(1.2%)	81(100.0%)
	고정형	0(0.0%)	6(24.0%)	12(48.0%)	5(20.0%)	2(8.0%)	25(100.0%)
	단기·증장기	77(18.7%)	114(27.7%)	157(38.2%)	50(12.2%)	13(3.2%)	411(100.0%)
지역	강원	4(22.2%)	3(16.7%)	9(50.0%)	2(11.1%)	0(0.0%)	18(100.0%)
	경기	20(20.0%)	24(24.0%)	36(36.0%)	14(14.0%)	6(6.0%)	100(100.0%)
	경남	4(40.0%)	3(30.0%)	2(20.0%)	1(10.0%)	0(0.0%)	10(100.0%)
	경북	0(0.0%)	2(33.3%)	3(50.0%)	0(0.0%)	1(16.7%)	6(100.0%)
	광주	6(33.3%)	6(33.3%)	5(27.8%)	1(5.6%)	0(0.0%)	18(100.0%)
	대구	0(0.0%)	4(30.8%)	5(38.5%)	2(15.4%)	2(15.4%)	13(100.0%)
	대전	4(21.1%)	4(21.1%)	5(26.3%)	5(26.3%)	1(5.3%)	19(100.0%)
	부산	3(12.0%)	6(24.0%)	7(28.0%)	8(32.0%)	1(4.0%)	25(100.0%)
	서울	12(11.8%)	30(29.4%)	49(48.0%)	8(7.8%)	3(2.9%)	102(100.0%)
	울산	6(23.1%)	7(26.9%)	9(34.6%)	3(11.5%)	1(3.8%)	26(100.0%)
	인천	8(13.6%)	14(23.7%)	27(45.8%)	10(16.9%)	0(0.0%)	59(100.0%)
	전남	4(26.7%)	2(13.3%)	8(53.3%)	1(6.7%)	0(0.0%)	15(100.0%)
	전북	2(25.0%)	2(25.0%)	4(50.0%)	0(0.0%)	0(0.0%)	8(100.0%)
	제주	10(16.9%)	13(22.0%)	32(54.2%)	3(5.1%)	1(1.7%)	59(100.0%)
	충남	6(27.3%)	5(22.7%)	7(31.8%)	4(18.2%)	0(0.0%)	22(100.0%)
충북	3(17.6%)	6(35.3%)	8(47.1%)	0(0.0%)	0(0.0%)	17(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2.146$, $df=4$, $p=.709$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은 기타를 제외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110명(21.3%), 경제적인 어려움이 100명(19.3%), 가정불화가 66명(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스트레스를 주된 원인이라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모든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중이 높았다.

표 7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체조건	미래(진로 또는 삶)에 대한 불안	외로움	기타	전체
전체		41(7.9%)	66(12.8%)	18(3.5%)	100(19.3%)	13(2.5%)	110(21.3%)	48(9.3%)	121(23.4%)	517(100.0%)
성별	남자	16(6.0%)	30(11.3%)	10(3.8%)	54(20.4%)	5(1.9%)	46(17.4%)	31(11.7%)	73(27.5%)	265(100.0%)
	여자	25(9.9%)	36(14.3%)	8(3.2%)	46(18.3%)	8(3.2%)	64(25.4%)	17(6.7%)	48(19.0%)	252(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10(12.3%)	6(7.4%)	4(4.9%)	13(16.0%)	3(3.7%)	5(6.2%)	8(9.9%)	32(39.5%)	81(100.0%)
	고정형	0(0.0%)	4(16.0%)	0(0.0%)	9(36.0%)	1(4.0%)	3(12.0%)	5(20.0%)	3(12.0%)	25(100.0%)
	단기·중장기	31(7.5%)	56(13.6%)	14(3.4%)	78(19.0%)	9(2.2%)	102(24.8%)	35(8.5%)	86(20.9%)	411(100.0%)
지역	강원	1(5.6%)	4(22.2%)	1(5.6%)	3(16.7%)	0(0.0%)	4(22.2%)	1(5.6%)	4(22.2%)	18(100.0%)
	경기	10(10.0%)	16(16.0%)	2(2.0%)	21(21.0%)	3(3.0%)	22(22.0%)	11(11.0%)	15(15.0%)	100(100.0%)
	경남	2(20.0%)	1(10.0%)	1(10.0%)	2(20.0%)	0(0.0%)	3(30.0%)	0(0.0%)	1(10.0%)	10(100.0%)
	경북	0(0.0%)	1(16.7%)	0(0.0%)	1(16.7%)	1(16.7%)	1(16.7%)	0(0.0%)	2(33.3%)	6(100.0%)
	광주	0(0.0%)	2(11.1%)	1(5.6%)	6(33.3%)	0(0.0%)	3(16.7%)	3(16.7%)	3(16.7%)	18(100.0%)
	대구	0(0.0%)	1(7.7%)	1(7.7%)	4(30.8%)	0(0.0%)	5(38.5%)	1(7.7%)	1(7.7%)	13(100.0%)
	대전	1(5.3%)	4(21.1%)	1(5.3%)	4(21.1%)	0(0.0%)	3(15.8%)	3(15.8%)	3(15.8%)	19(100.0%)

구분	범주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신 체조건	미래(진로 또는 삶)에 대한 불안	외로움	기타	전체
	부산	4(16.0%)	3(12.0%)	1(4.0%)	8(32.0%)	1(4.0%)	4(16.0%)	2(8.0%)	2(8.0%)	25(100.0%)
	서울	5(4.9%)	5(4.9%)	0(0.0%)	25(24.5%)	1(1.0%)	31(30.4%)	6(5.9%)	29(28.4%)	102(100.0%)
	울산	4(15.4%)	4(15.4%)	1(3.8%)	3(11.5%)	2(7.7%)	3(11.5%)	3(11.5%)	6(23.1%)	26(100.0%)
	인천	2(3.4%)	10(16.9%)	3(5.1%)	10(16.9%)	2(3.4%)	13(22.0%)	4(6.8%)	15(25.4%)	59(100.0%)
	전남	3(20.0%)	1(6.7%)	1(6.7%)	2(13.3%)	0(0.0%)	3(20.0%)	0(0.0%)	5(33.3%)	15(100.0%)
	전북	0(0.0%)	3(37.5%)	0(0.0%)	1(12.5%)	0(0.0%)	1(12.5%)	1(12.5%)	2(25.0%)	8(100.0%)
	제주	6(10.2%)	4(6.8%)	4(6.8%)	5(8.5%)	3(5.1%)	5(8.5%)	6(10.2%)	26(44.1%)	59(100.0%)
	충남	2(9.1%)	5(22.7%)	1(4.5%)	3(13.6%)	0(0.0%)	6(27.3%)	3(13.6%)	2(9.1%)	22(100.0%)
	충북	1(5.9%)	2(11.8%)	0(0.0%)	2(11.8%)	0(0.0%)	3(17.6%)	4(23.5%)	5(29.4%)	17(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15.953$, $df = 7$, $p = .026$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59명(88.8%)으로 대부분이었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19%로 남자 청소년들의 3.8% 보다 성범죄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피해경험은 1.2%로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컴퓨터의 청소년들의 약 10% 보다 낮았다.

표 78.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성범죄 피해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459(88.8%)	58(11.2%)	517(100.0%)	
성별	남자	255(96.2%)	10(3.8%)	265(100.0%)	30.255***
	여자	204(81.0%)	48(19.0%)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80(98.8%)	1(1.2%)	81(100.0%)	9.643**
	고정형	22(88.0%)	3(12.0%)	25(100.0%)	
	단기·중장기	357(86.9%)	54(13.1%)	411(100.0%)	
지역	강원	15(83.3%)	3(16.7%)	18(100.0%)	-
	경기	88(88.0%)	12(12.0%)	100(100.0%)	
	경남	9(90.0%)	1(10.0%)	10(100.0%)	
	경북	4(66.7%)	2(33.3%)	6(100.0%)	
	광주	13(72.2%)	5(27.8%)	18(100.0%)	
	대구	11(84.6%)	2(15.4%)	13(100.0%)	
	대전	15(78.9%)	4(21.1%)	19(100.0%)	
	부산	25(100.0%)	0(0.0%)	25(100.0%)	
	서울	92(90.2%)	10(9.8%)	102(100.0%)	
	울산	21(80.8%)	5(19.2%)	26(100.0%)	
	인천	56(94.9%)	3(5.1%)	59(100.0%)	
	전남	15(100.0%)	0(0.0%)	15(100.0%)	
	전북	6(75.0%)	2(25.0%)	8(100.0%)	
	제주	55(93.2%)	4(6.8%)	59(100.0%)	
	충남	18(81.8%)	4(18.2%)	22(100.0%)	
	충북	16(94.1%)	1(5.9%)	17(100.0%)	

** $p < .01$, *** $p < .001$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경험한 성범죄 피해의 내용에 대한 응답은 성폭행이 30건(34.9%), 신체적 성희롱이 26건(30.2%), 언어적 희롱이 19건(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79.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성범죄 피해 내용(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성폭행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디지털성 피해	매매 등 성 착취	전체
전체		30(34.9%)	26(30.2%)	19(22.1%)	6(7.0%)	5(5.8%)	86(100.0%)
성별	남자	4(40.0%)	3(30.0%)	2(20.0%)	1(10.0%)	0(0.0%)	10(100.0%)
	여자	26(34.2%)	23(30.3%)	17(22.4%)	5(6.6%)	5(6.6%)	76(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1(100.0%)	0(0.0%)	0(0.0%)	0(0.0%)	0(0.0%)	1(100.0%)
	고정형	2(66.7%)	1(33.3%)	0(0.0%)	0(0.0%)	0(0.0%)	3(100.0%)
	단기·중장기	27(32.9%)	25(30.5%)	19(23.2%)	6(7.3%)	5(6.1%)	82(100.0%)
지역	강원	2(50.0%)	1(25.0%)	0(0.0%)	1(25.0%)	0(0.0%)	4(100.0%)
	경기	7(30.4%)	6(26.1%)	6(26.1%)	1(4.3%)	3(13.0%)	23(100.0%)
	경남	0(0.0%)	1(100.0%)	0(0.0%)	0(0.0%)	0(0.0%)	1(100.0%)
	경북	2(100.0%)	0(0.0%)	0(0.0%)	0(0.0%)	0(0.0%)	2(100.0%)
	광주	3(50.0%)	2(33.3%)	1(16.7%)	0(0.0%)	0(0.0%)	6(100.0%)
	대구	1(33.3%)	1(33.3%)	0(0.0%)	1(33.3%)	0(0.0%)	3(100.0%)
	대전	1(14.3%)	2(28.6%)	4(57.1%)	0(0.0%)	0(0.0%)	7(100.0%)
	서울	4(30.8%)	4(30.8%)	4(30.8%)	0(0.0%)	1(7.7%)	13(100.0%)
	울산	3(30.0%)	3(30.0%)	2(20.0%)	2(20.0%)	0(0.0%)	10(100.0%)
	인천	1(25.0%)	1(25.0%)	1(25.0%)	1(25.0%)	0(0.0%)	4(100.0%)
	전북	2(100.0%)	0(0.0%)	0(0.0%)	0(0.0%)	0(0.0%)	2(100.0%)
	제주	1(25.0%)	3(75.0%)	0(0.0%)	0(0.0%)	0(0.0%)	4(100.0%)
	충남	3(50.0%)	2(33.3%)	1(16.7%)	0(0.0%)	0(0.0%)	6(100.0%)
	충북	0(0.0%)	0(0.0%)	0(0.0%)	0(0.0%)	1(100.0%)	1(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은 없다는 응답이 25명(43.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 상담자가 13명(22.4%), 경찰과 친구가 모두 6명(10.3%), 컴퓨터 선생님 4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80.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구	선후배	부모님	컴퓨터 선생님	전문 상담자	경찰	없다	전체
전체		6(10.3%)	2(3.4%)	2(3.4%)	4(6.9%)	13(22.4%)	6(10.3%)	25(43.1%)	58(100.0%)
성별	남자	0(0.0%)	1(10.0%)	1(10.0%)	1(10.0%)	0(0.0%)	0(0.0%)	7(70.0%)	10(100.0%)
	여자	6(12.5%)	1(2.1%)	1(2.1%)	3(6.3%)	13(27.1%)	6(12.5%)	18(37.5%)	48(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고정형	0(0.0%)	1(33.3%)	0(0.0%)	0(0.0%)	1(33.3%)	0(0.0%)	1(33.3%)	3(100.0%)
	단기· 중장기	6(11.1%)	1(1.9%)	2(3.7%)	4(7.4%)	11(20.4%)	6(11.1%)	24(44.4%)	54(100.0%)
지역	강원	0(0.0%)	0(0.0%)	0(0.0%)	0(0.0%)	1(33.3%)	0(0.0%)	2(66.7%)	3(100.0%)
	경기	1(8.3%)	1(8.3%)	1(8.3%)	1(8.3%)	2(16.7%)	0(0.0%)	6(50.0%)	12(100.0%)
	경남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경북	1(50.0%)	0(0.0%)	0(0.0%)	0(0.0%)	0(0.0%)	0(0.0%)	1(50.0%)	2(100.0%)
	광주	1(20.0%)	0(0.0%)	0(0.0%)	1(20.0%)	1(20.0%)	1(20.0%)	1(20.0%)	5(100.0%)
	대구	1(50.0%)	0(0.0%)	0(0.0%)	0(0.0%)	0(0.0%)	0(0.0%)	1(50.0%)	2(100.0%)
	대전	0(0.0%)	1(25.0%)	0(0.0%)	0(0.0%)	0(0.0%)	0(0.0%)	3(75.0%)	4(100.0%)
	서울	0(0.0%)	0(0.0%)	0(0.0%)	0(0.0%)	3(30.0%)	0(0.0%)	7(70.0%)	10(100.0%)
	울산	2(40.0%)	0(0.0%)	0(0.0%)	0(0.0%)	1(20.0%)	2(40.0%)	0(0.0%)	5(100.0%)
	인천	0(0.0%)	0(0.0%)	0(0.0%)	1(33.3%)	0(0.0%)	0(0.0%)	2(66.7%)	3(100.0%)
	전북	0(0.0%)	0(0.0%)	0(0.0%)	0(0.0%)	1(50.0%)	0(0.0%)	1(50.0%)	2(100.0%)
	제주	0(0.0%)	0(0.0%)	0(0.0%)	0(0.0%)	1(25.0%)	3(75.0%)	0(0.0%)	4(100.0%)
	충남	0(0.0%)	0(0.0%)	1(25.0%)	1(25.0%)	1(25.0%)	0(0.0%)	1(25.0%)	4(100.0%)
	충북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162명(31.3%)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 생각 경험은 40.5%로 남자 청소년의 22.6% 보다 높았고, 고정형 컴퓨터의 청소년들의 52.0%가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1.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355(68.7%)	162(31.3%)	517(100.0%)	
성별	남자	205(77.4%)	60(22.6%)	265(100.0%)	19.095***
	여자	150(59.5%)	102(40.5%)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66(81.5%)	15(18.5%)	81(100.0%)	11.453**
	고정형	12(48.0%)	13(52.0%)	25(100.0%)	
	단기·중장기	277(67.4%)	134(32.6%)	411(100.0%)	
지역	강원	14(77.8%)	4(22.2%)	18(100.0%)	-
	경기	59(59.0%)	41(41.0%)	100(100.0%)	
	경남	6(60.0%)	4(40.0%)	10(100.0%)	
	경북	3(50.0%)	3(50.0%)	6(100.0%)	
	광주	13(72.2%)	5(27.8%)	18(100.0%)	
	대구	7(53.8%)	6(46.2%)	13(100.0%)	
	대전	13(68.4%)	6(31.6%)	19(100.0%)	
	부산	21(84.0%)	4(16.0%)	25(100.0%)	
	서울	69(67.6%)	33(32.4%)	102(100.0%)	
	울산	18(69.2%)	8(30.8%)	26(100.0%)	
	인천	40(67.8%)	19(32.2%)	59(100.0%)	
	전남	15(100.0%)	0(0.0%)	15(100.0%)	
	전북	6(75.0%)	2(25.0%)	8(100.0%)	
	제주	45(76.3%)	14(23.7%)	59(100.0%)	
	충남	13(59.1%)	9(40.9%)	22(100.0%)	
	충북	13(76.5%)	4(23.5%)	17(100.0%)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정도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 번이 각각 49명(30.2%)과 48명(29.6%)으로 유사하였고, 일주일에 2~5번이 38명(23.5%), 매일 여러 번이 27명(16.7%)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컴퓨터유형에서 자살 생각을 한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5번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표 82.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 빈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5번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매일 여러 번	전체
전체		48(29.6%)	38(23.5%)	49(30.2%)	27(16.7%)	162(100.0%)
성별	남자	20(33.3%)	12(20.0%)	15(25.0%)	13(21.7%)	60(100.0%)
	여자	28(27.5%)	26(25.5%)	34(33.3%)	14(13.7%)	102(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7(46.7%)	0(0.0%)	7(46.7%)	1(6.7%)	15(100.0%)
	고정형	2(15.4%)	6(46.2%)	3(23.1%)	2(15.4%)	13(100.0%)
	단기·중장기	39(29.1%)	32(23.9%)	39(29.1%)	24(17.9%)	134(100.0%)
지역	강원	2(50.0%)	2(50.0%)	0(0.0%)	0(0.0%)	4(100.0%)
	경기	9(22.0%)	9(22.0%)	15(36.6%)	8(19.5%)	41(100.0%)
	경남	2(50.0%)	1(25.0%)	1(25.0%)	0(0.0%)	4(100.0%)
	경북	1(33.3%)	0(0.0%)	1(33.3%)	1(33.3%)	3(100.0%)
	광주	3(60.0%)	0(0.0%)	1(20.0%)	1(20.0%)	5(100.0%)
	대구	1(16.7%)	2(33.3%)	1(16.7%)	2(33.3%)	6(100.0%)
	대전	3(50.0%)	2(33.3%)	1(16.7%)	0(0.0%)	6(100.0%)
	부산	1(25.0%)	1(25.0%)	1(25.0%)	1(25.0%)	4(100.0%)
	서울	7(21.2%)	11(33.3%)	9(27.3%)	6(18.2%)	33(100.0%)
	울산	3(37.5%)	2(25.0%)	2(25.0%)	1(12.5%)	8(100.0%)
	인천	5(26.3%)	5(26.3%)	6(31.6%)	3(15.8%)	19(100.0%)
	전북	1(50.0%)	0(0.0%)	1(50.0%)	0(0.0%)	2(100.0%)
	제주	7(50.0%)	0(0.0%)	7(50.0%)	0(0.0%)	14(100.0%)
	충남	3(33.3%)	1(11.1%)	3(33.3%)	2(22.2%)	9(100.0%)
	충북	0(0.0%)	2(50.0%)	0(0.0%)	2(50.0%)	4(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3.223$ df = 3, p = .358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로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62명(31.3%)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쉼터유형에서 자살 시도로 인한 전문기관의 치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25% 이상이었고, 고정형 쉼터의 청소년의 경우, 38.5%로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83.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로 인한 전문기관 치료 경험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355(68.7%)	162(31.3%)	517(100.0%)	
성별	남자	40(66.7%)	20(33.3%)	60(100.0%)	0.627
	여자	74(72.5%)	28(27.5%)	102(100.0%)	
쉼터유형	일시이동형	11(73.3%)	4(26.7%)	15(100.0%)	0.567
	고정형	8(61.5%)	5(38.5%)	13(100.0%)	
	단기·중장기	95(70.9%)	39(29.1%)	134(100.0%)	
지역	강원	4(100.0%)	0(0.0%)	4(100.0%)	-
	경기	28(68.3%)	13(31.7%)	41(100.0%)	
	경남	4(100.0%)	0(0.0%)	4(100.0%)	
	경북	1(33.3%)	2(66.7%)	3(100.0%)	
	광주	3(60.0%)	2(40.0%)	5(100.0%)	
	대구	4(66.7%)	2(33.3%)	6(100.0%)	
	대전	6(100.0%)	0(0.0%)	6(100.0%)	
	부산	4(100.0%)	0(0.0%)	4(100.0%)	
	서울	21(63.6%)	12(36.4%)	33(100.0%)	
	울산	6(75.0%)	2(25.0%)	8(100.0%)	
	인천	14(73.7%)	5(26.3%)	19(100.0%)	
	전남	1(50.0%)	1(50.0%)	2(100.0%)	
	전북	10(71.4%)	4(28.6%)	14(100.0%)	
	제주	5(55.6%)	4(44.4%)	9(100.0%)	
	충남	3(75.0%)	1(25.0%)	4(100.0%)	
	충북	114(70.4%)	48(29.6%)	162(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 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0명(21.3%)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해 시도경험이 29.4%로 남자 청소년의 13.6% 보다 높았다. 고정형 컴퓨터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은 44.0%로 단기·증장기와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약 20% 보다 높았다.

표 84.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 경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407(78.7%)	110(21.3%)	517(100.0%)	
성별	남자	229(86.4%)	36(13.6%)	265(100.0%)	19.203***
	여자	178(70.6%)	74(29.4%)	252(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66(81.5%)	15(18.5%)	81(100.0%)	8.247*
	고정형	14(56.0%)	11(44.0%)	25(100.0%)	
	단기·증장기	327(79.6%)	84(20.4%)	411(100.0%)	
지역	강원	17(94.4%)	1(5.6%)	18(100.0%)	-
	경기	75(75.0%)	25(25.0%)	100(100.0%)	
	경남	7(70.0%)	3(30.0%)	10(100.0%)	
	경북	3(50.0%)	3(50.0%)	6(100.0%)	
	광주	12(66.7%)	6(33.3%)	18(100.0%)	
	대구	9(69.2%)	4(30.8%)	13(100.0%)	
	대전	14(73.7%)	5(26.3%)	19(100.0%)	
	부산	24(96.0%)	1(4.0%)	25(100.0%)	
	서울	81(79.4%)	21(20.6%)	102(100.0%)	
	울산	20(76.9%)	6(23.1%)	26(100.0%)	
	인천	50(84.7%)	9(15.3%)	59(100.0%)	
	전남	15(100.0%)	0(0.0%)	15(100.0%)	
	전북	7(87.5%)	1(12.5%)	8(100.0%)	
	제주	41(69.5%)	18(30.5%)	59(100.0%)	
	충남	16(72.7%)	6(27.3%)	22(100.0%)	
	충북	16(94.1%)	1(5.9%)	17(100.0%)	

* p < .05, *** p < .001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로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0명(21.3%)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로 인한 전문기관의 치료 경험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고정형 컴퓨터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9.1%로 단기·중장기과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약 30% 보다 낮았다.

표 85.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로 인한 전문기관의 치료 경험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없다	있다	전체	χ^2
전체		407(78.7%)	110(21.3%)	517(100.0%)	
성별	남자	24(66.7%)	12(33.3%)	36(100.0%)	0.057
	여자	51(68.9%)	23(31.1%)	74(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9(60.0%)	6(40.0%)	15(100.0%)	-
	고정형	10(90.9%)	1(9.1%)	11(100.0%)	
	단기·중장기	56(66.7%)	28(33.3%)	84(100.0%)	
지역	강원	1(100.0%)	0(0.0%)	1(100.0%)	-
	경기	19(76.0%)	6(24.0%)	25(100.0%)	
	경남	3(100.0%)	0(0.0%)	3(100.0%)	
	경북	2(66.7%)	1(33.3%)	3(100.0%)	
	광주	3(50.0%)	3(50.0%)	6(100.0%)	
	대구	2(50.0%)	2(50.0%)	4(100.0%)	
	대전	4(80.0%)	1(20.0%)	5(100.0%)	
	부산	1(100.0%)	0(0.0%)	1(100.0%)	
	서울	12(57.1%)	9(42.9%)	21(100.0%)	
	울산	5(83.3%)	1(16.7%)	6(100.0%)	
	인천	9(100.0%)	0(0.0%)	9(100.0%)	
	전남	1(100.0%)	0(0.0%)	1(100.0%)	
	전북	9(50.0%)	9(50.0%)	18(100.0%)	
	제주	3(50.0%)	3(50.0%)	6(100.0%)	
	충남	1(100.0%)	0(0.0%)	1(100.0%)	
	충북	75(68.2%)	35(31.8%)	110(1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자살 또는 자해 시도 이유는 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등)이 19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학대 및 폭력이 7명(20.0%)으로 그 다음이었다. 남자 청소년과 일시이동형 컴퓨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25.0%와 50.0%로 나타났다.

표 86.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자살 또는 자해 시도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부모의 학대 및 폭력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문제	이성 또는 동성 친구와의 갈등	정서적 어려움 (우울, 불안 등)	기타	전체
전체		7(20.0%)	1(2.9%)	3(8.6%)	2(5.7%)	1(2.9%)	19(54.3%)	2(5.8%)	35(100.0%)
성별	남자	2(16.7%)	1(8.3%)	3(25.0%)	1(8.3%)	0(0.0%)	5(41.7%)	0(0.0%)	12(100.0%)
	여자	5(21.7%)	0(0.0%)	0(0.0%)	1(4.3%)	1(4.3%)	14(60.9%)	2(8.6%)	23(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1(16.7%)	0(0.0%)	3(50.0%)	0(0.0%)	1(16.7%)	1(16.7%)	0(0.0%)	6(100.0%)
	고정형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1(100.0%)
	단기·중장기	6(21.4%)	1(3.6%)	0(0.0%)	2(7.1%)	0(0.0%)	18(64.3%)	1(3.6%)	28(100.0%)
지역	경기	3(50.0%)	0(0.0%)	0(0.0%)	0(0.0%)	0(0.0%)	3(50.0%)	0(0.0%)	6(100.0%)
	경북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광주	0(0.0%)	0(0.0%)	0(0.0%)	1(33.3%)	0(0.0%)	2(66.7%)	0(0.0%)	3(100.0%)
	대구	0(0.0%)	0(0.0%)	0(0.0%)	1(50.0%)	0(0.0%)	1(50.0%)	0(0.0%)	2(100.0%)
	대전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서울	0(0.0%)	0(0.0%)	0(0.0%)	0(0.0%)	0(0.0%)	9(100.0%)	0(0.0%)	9(100.0%)
	울산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제주	1(11.1%)	0(0.0%)	3(33.3%)	0(0.0%)	1(11.1%)	3(33.3%)	1(11.1%)	9(100.0%)
	충남	1(33.3%)	0(0.0%)	0(0.0%)	0(0.0%)	0(0.0%)	1(33.3%)	1(33.3%)	3(100.0%)

5) 컴퓨터 이용 현황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각 유형의 컴퓨터들을 1곳 ~2곳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용 횟수는 일시컴퓨터 이동형이 3.80회(7.43)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컴퓨터 숙박형이 1.41회(1.57)로 가장 적었다.

표 8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청소년 컴퓨터 이용 현황

(이용한 곳 및 이용 횟수,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이용한 곳 수				이용 횟수			
		일시 컴퓨터 이동형	일시 컴퓨터 고정형	단기 컴퓨터 숙박형	중장기 컴퓨터 숙박형	일시 컴퓨터 이동형	일시 컴퓨터 고정형	단기 컴퓨터 숙박형	중장기 컴퓨터 숙박형
전체		1.47(.86)	1.81(1.52)	1.59(1.28)	1.17(.52)	3.80(7.43)	2.68(3.65)	2.49(6.06)	1.41(1.57)
성별	남자	1.41(.78)	2.07(1.49)	1.62(1.13)	1.23(.66)	2.40(2.52)	2.90(3.57)	2.83(7.91)	1.44(1.29)
	여자	1.53(.95)	1.58(1.52)	1.57(1.40)	1.12(.36)	5.39(10.37)	2.49(3.72)	2.16(3.40)	1.38(1.79)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1.37(.87)	1.75(1.29)	1.11(.33)	1.00(0.00)	4.39(9.03)	1.50(.76)	1.25(.50)	1.33(.58)
	고정형	1.57(.79)	2.95(2.65)	2.06(1.30)	1.00(0.00)	2.40(1.14)	5.44(5.80)	1.86(1.23)	1.00(0.00)
	단기· 중장기	1.58(.87)	1.66(1.26)	1.58(1.29)	1.18(.53)	3.36(5.91)	2.35(3.18)	2.55(6.26)	1.42(1.61)
지역	강원	1.00(0.00)	2.10(1.10)	1.67(2.31)	1.30(.67)	1.00(.00)	4.13(6.47)	1.18(.60)	1.33(.71)
	경기	1.43(.79)	2.16(1.86)	1.76(1.36)	1.00(0.00)	4.50(5.69)	3.52(4.46)	2.75(4.07)	1.06(.24)
	경남	-	1.50(.71)	1.00(0.00)	1.00(0.00)	-	1.00(.00)	1.25(.50)	1.25(.50)
	경북	2.00(.00)	1.25(.50)	1.33(.52)	1.50(.71)	2.00(.00)	1.25(.50)	1.50(.55)	1.50(.71)
	광주	1.50(1.00)	1.00(0.00)	1.09(.30)	1.00(0.00)	2.33(1.15)	1.80(.84)	10.90(27.87)	1.25(.71)
	대구	1.00(.00)	1.80(1.32)	1.50(.90)	2.00(1.41)	1.00(.00)	2.67(3.57)	1.90(2.18)	2.17(1.47)
	대전	2.00(1.41)	2.00(2.32)	2.21(2.42)	1.18(.40)	4.00(4.24)	3.09(5.65)	2.85(5.18)	2.00(2.48)
	부산	1.56(.73)	1.25(.46)	1.17(.41)	1.25(.71)	8.43(10.21)	1.29(.49)	1.50(.84)	1.00(0.00)
	서울	1.54(.99)	1.96(1.86)	1.87(1.22)	1.15(.44)	2.67(4.16)	2.36(3.18)	2.54(3.01)	1.22(.51)
	울산	1.25(.50)	1.13(.34)	1.00(0.00)	1.19(.40)	1.00(0.00)	1.36(.63)	1.36(.67)	1.27(.47)
	인천	1.50(.71)	1.83(.83)	1.24(.57)	1.00(0.00)	1.50(.71)	2.70(1.95)	1.53(1.52)	1.15(.55)
	전남	-	5.00(0.00)	1.20(.63)	1.00(0.00)	-	-	1.29(.76)	1.00(0.00)
	전북	-	1.67(1.15)	5.00(5.66)	1.17(.41)	-	-	1.00(0.00)	1.00(0.00)
	제주	1.26(.66)	1.50(.93)	1.00(0.00)	1.33(.65)	1.89(1.20)	3.50(5.21)	1.00(.00)	3.00(4.92)
	충남	3.00(.00)	1.50(.55)	1.43(.65)	1.00(0.00)	-	3.50(4.23)	2.07(1.14)	1.00(0.00)
	충북	4.00(.00)	1.60(1.34)	1.33(.65)	1.00(0.00)	50.00(.00)	3.50(1.00)	2.20(1.32)	1.00(0.00)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 후 컴퓨터 이용까지 소요된 기간은 1주일 정도가 317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이 91명(17.6%), 한 달 정도가 45명(8.7%), 2주일 정도가 35명(6.8%), 3개월 정도가 29명(5.6%)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컴퓨터 이용까지 소요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22.6%로 여자 청소년들의 12.3% 보다 많았다.

표 88.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후 컴퓨터 이용까지 소요된 기간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1주일 정도	2주일 정도	한 달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전체
전체		317(61.3%)	35(6.8%)	45(8.7%)	29(5.6%)	91(17.6%)	517(100.0%)
성별	남자	149(56.2%)	18(6.8%)	23(8.7%)	15(5.7%)	60(22.6%)	265(100.0%)
	여자	168(66.7%)	17(6.7%)	22(8.7%)	14(5.6%)	31(12.3%)	252(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63(77.8%)	5(6.2%)	2(2.5%)	6(7.4%)	5(6.2%)	81(100.0%)
	고정형	15(60.0%)	0(0.0%)	6(24.0%)	2(8.0%)	2(8.0%)	25(100.0%)
	단기·중장기	239(58.2%)	30(7.3%)	37(9.0%)	21(5.1%)	84(20.4%)	411(100.0%)
지역	강원	13(72.2%)	1(5.6%)	0(0.0%)	2(11.1%)	2(11.1%)	18(100.0%)
	경기	57(57.0%)	4(4.0%)	11(11.0%)	8(8.0%)	20(20.0%)	100(100.0%)
	경남	5(50.0%)	0(0.0%)	0(0.0%)	1(10.0%)	4(40.0%)	10(100.0%)
	경북	3(50.0%)	0(0.0%)	1(16.7%)	0(0.0%)	2(33.3%)	6(100.0%)
	광주	11(61.1%)	2(11.1%)	1(5.6%)	1(5.6%)	3(16.7%)	18(100.0%)
	대구	7(53.8%)	0(0.0%)	3(23.1%)	1(7.7%)	2(15.4%)	13(100.0%)
	대전	14(73.7%)	0(0.0%)	1(5.3%)	1(5.3%)	3(15.8%)	19(100.0%)
	부산	15(60.0%)	1(4.0%)	0(0.0%)	1(4.0%)	8(32.0%)	25(100.0%)
	서울	67(65.7%)	5(4.9%)	8(7.8%)	1(1.0%)	21(20.6%)	102(100.0%)
	울산	18(69.2%)	3(11.5%)	2(7.7%)	0(0.0%)	3(11.5%)	26(100.0%)
	인천	37(62.7%)	9(15.3%)	4(6.8%)	2(3.4%)	7(11.9%)	59(100.0%)
	전남	8(53.3%)	1(6.7%)	3(20.0%)	0(0.0%)	3(20.0%)	15(100.0%)
	전북	3(37.5%)	1(12.5%)	2(25.0%)	0(0.0%)	2(25.0%)	8(100.0%)
	제주	42(71.2%)	6(10.2%)	2(3.4%)	7(11.9%)	2(3.4%)	59(100.0%)
	충남	12(54.5%)	0(0.0%)	5(22.7%)	4(18.2%)	1(4.5%)	22(100.0%)
	충북	5(29.4%)	2(11.8%)	2(11.8%)	0(0.0%)	8(47.1%)	17(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10.145$, $df = 7$, $p = .038$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한 계기는 경찰, 주민센터,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로가 130명(25.1%)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가 99명(19.1%),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내로가 76명(14.7%), 기타 59명(14.4%),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가 각각 46명(8.9%)와 45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고,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쉼터의 경우 쉼터 거리상담을 통해의 응답이 약 10% 이상으로 단기·중장기 쉼터의 청소년의 응답 비율 2.7% 보다 높았다.

표 89.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청소년 쉼터 이용 계기(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내로	경찰, 주민센터,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로	쉼터 거리상담을 통해	홍보, 보도 등을 보고 (홍보물, 홈페이지, SNS, 방송 등)	기타	전체
전체		46(8.9%)	99(19.1%)	45(8.7%)	76(14.7%)	130(25.1%)	23(4.4%)	39(7.5%)	59(11.4%)	517(100.0%)
성별	남자	29(10.9%)	50(18.9%)	28(10.6%)	37(14.0%)	54(20.4%)	12(4.5%)	23(8.7%)	32(12.1%)	265(100.0%)
	여자	17(6.7%)	49(19.4%)	17(6.7%)	39(15.5%)	76(30.2%)	11(4.4%)	16(6.3%)	27(10.7%)	252(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8(9.9%)	35(43.2%)	4(4.9%)	2(2.5%)	2(2.5%)	9(11.1%)	8(9.9%)	13(16.0%)	81(100.0%)
	고정형	1(4.0%)	7(28.0%)	2(8.0%)	8(32.0%)	2(8.0%)	3(12.0%)	1(4.0%)	1(4.0%)	25(100.0%)
	단기·중장기	37(9.0%)	57(13.9%)	39(9.5%)	66(16.1%)	126(30.7%)	11(2.7%)	30(7.3%)	45(10.9%)	411(100.0%)
지역	강원	3(16.7%)	1(5.6%)	3(16.7%)	2(11.1%)	6(33.3%)	1(5.6%)	0(0.0%)	2(11.1%)	18(100.0%)
	경기	7(7.0%)	18(18.0%)	7(7.0%)	14(14.0%)	34(34.0%)	0(0.0%)	7(7.0%)	13(13.0%)	100(100.0%)
	경남	1(10.0%)	1(10.0%)	3(30.0%)	2(20.0%)	2(20.0%)	0(0.0%)	0(0.0%)	1(10.0%)	10(100.0%)
	경북	1(16.7%)	1(16.7%)	0(0.0%)	0(0.0%)	3(50.0%)	0(0.0%)	1(16.7%)	0(0.0%)	6(100.0%)
	광주	3(16.7%)	7(38.9%)	1(5.6%)	1(5.6%)	2(11.1%)	0(0.0%)	1(5.6%)	3(16.7%)	18(100.0%)

구분	범주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의 권유로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내로	경찰, 주민센터,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로	웹터 거리상담을 통해	홍보, 보도 등을 보고 (홍보물, 홈페이지, SNS, 방송 등)	기타	전체
	대구	0(0.0%)	1(7.7%)	2(15.4%)	4(30.8%)	4(30.8%)	1(7.7%)	0(0.0%)	1(7.7%)	13(100.0%)
	대전	0(0.0%)	0(0.0%)	0(0.0%)	8(42.1%)	6(31.6%)	1(5.3%)	3(15.8%)	1(5.3%)	19(100.0%)
	부산	0(0.0%)	2(8.0%)	0(0.0%)	4(16.0%)	6(24.0%)	6(24.0%)	3(12.0%)	4(16.0%)	25(100.0%)
	서울	4(3.9%)	23(22.5%)	8(7.8%)	14(13.7%)	21(20.6%)	7(6.9%)	11(10.8%)	14(13.7%)	102(100.0%)
	울산	2(7.7%)	2(7.7%)	0(0.0%)	6(23.1%)	12(46.2%)	1(3.8%)	0(0.0%)	3(11.5%)	26(100.0%)
	인천	9(15.3%)	6(10.2%)	8(13.6%)	7(11.9%)	15(25.4%)	2(3.4%)	6(10.2%)	6(10.2%)	59(100.0%)
	전남	5(33.3%)	2(13.3%)	3(20.0%)	3(20.0%)	2(13.3%)	0(0.0%)	0(0.0%)	0(0.0%)	15(100.0%)
	전북	0(0.0%)	2(25.0%)	1(12.5%)	1(12.5%)	1(12.5%)	1(12.5%)	0(0.0%)	2(25.0%)	8(100.0%)
	제주	6(10.2%)	26(44.1%)	4(6.8%)	4(6.8%)	6(10.2%)	2(3.4%)	4(6.8%)	7(11.9%)	59(100.0%)
	충남	2(9.1%)	5(22.7%)	1(4.5%)	6(27.3%)	4(18.2%)	0(0.0%)	3(13.6%)	1(4.5%)	22(100.0%)
	충북	3(17.6%)	2(11.8%)	4(23.5%)	0(0.0%)	6(35.3%)	1(5.9%)	0(0.0%)	1(5.9%)	17(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11.008$, $df=7$, $p=.138$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이전 쉼터에서 퇴소한 이유는 기타(42.3%)를 제외하면, 쉼터 입소기간 만료 등으로 전 쉼터에서 다른 시설로 연계해 줌이 101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감이 70명(17.0%),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감이 31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90. 성별, 지역에 따른 이전 쉼터 퇴소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가정으로 다시 돌아감	일자리를 얻어서 나감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감	쉼터 입소 기간 만료 등으로 전 쉼터에서 다른 시설로 연계해 줌	쉼터 규정을 위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감	기타	전체
전체		70(17.0%)	15(3.6%)	31(7.5%)	101(24.6%)	20(4.9%)	174(42.3%)	411(100.0%)
성별	남자	42(19.9%)	9(4.3%)	20(9.5%)	50(23.7%)	11(5.2%)	79(37.4%)	211(100.0%)
	여자	28(14.0%)	6(3.0%)	11(5.5%)	51(25.5%)	9(4.5%)	95(47.5%)	200(100.0%)
지역	강원	0(0.0%)	0(0.0%)	3(18.8%)	7(43.8%)	0(0.0%)	6(37.5%)	16(100.0%)
	경기	16(17.4%)	1(1.1%)	5(5.4%)	19(20.7%)	6(6.5%)	45(48.9%)	92(100.0%)
	경남	3(30.0%)	0(0.0%)	0(0.0%)	1(10.0%)	0(0.0%)	6(60.0%)	10(100.0%)
	경북	1(16.7%)	0(0.0%)	1(16.7%)	2(33.3%)	0(0.0%)	2(33.3%)	6(100.0%)
	광주	1(5.6%)	1(5.6%)	1(5.6%)	5(27.8%)	1(5.6%)	9(50.0%)	18(100.0%)
	대구	2(15.4%)	0(0.0%)	2(15.4%)	6(46.2%)	0(0.0%)	3(23.1%)	13(100.0%)
	대전	3(17.6%)	1(5.9%)	2(11.8%)	7(41.2%)	2(11.8%)	2(11.8%)	17(100.0%)
	부산	2(16.7%)	2(16.7%)	1(8.3%)	4(33.3%)	0(0.0%)	3(25.0%)	12(100.0%)
	서울	11(14.9%)	4(5.4%)	4(5.4%)	26(35.1%)	4(5.4%)	25(33.8%)	74(100.0%)
	울산	4(16.0%)	0(0.0%)	1(4.0%)	10(40.0%)	1(4.0%)	9(36.0%)	25(100.0%)
	인천	7(12.3%)	3(5.3%)	7(12.3%)	4(7.0%)	2(3.5%)	34(59.6%)	57(100.0%)
	전남	7(50.0%)	0(0.0%)	0(0.0%)	2(14.3%)	0(0.0%)	5(35.7%)	14(100.0%)
	전북	2(28.6%)	0(0.0%)	1(14.3%)	2(28.6%)	0(0.0%)	2(28.6%)	7(100.0%)
	제주	3(21.4%)	0(0.0%)	0(0.0%)	1(7.1%)	1(7.1%)	9(64.3%)	14(100.0%)
	충남	4(20.0%)	2(10.0%)	1(5.0%)	3(15.0%)	1(5.0%)	9(45.0%)	20(100.0%)
	충북	4(25.0%)	1(6.3%)	2(12.5%)	2(12.5%)	2(12.5%)	5(31.3%)	16(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7.404$, $df=5$, $p=.192$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서 이전 쉼터에서 퇴소한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던 이유는 기타(67.3%)를 제외하면, 쉼터 규정이 갑갑해서가 35명(17.1%), 쉼터의 공동생활이 불편해서가 17명(8.3%), 쉼터 선생님 또는 다른 입소생과의 갈등 때문애가 15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91. 성별, 지역에 따른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던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쉼터 규정이 갑갑해서	쉼터의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쉼터 선생님 또는 다른 입소생과의 갈등 때문에	기타	전체
전체		35(17.1%)	17(8.3%)	15(7.3%)	138(67.3%)	205(100.0%)
성별	남자	19(19.2%)	9(9.1%)	9(9.1%)	62(62.6%)	99(100.0%)
	여자	16(15.1%)	8(7.5%)	6(5.7%)	76(71.7%)	106(100.0%)
지역	강원	1(11.1%)	1(11.1%)	1(11.1%)	6(66.7%)	9(100.0%)
	경기	8(16.0%)	3(6.0%)	5(10.0%)	34(68.0%)	50(100.0%)
	경남	1(16.7%)	0(0.0%)	0(0.0%)	5(83.3%)	6(100.0%)
	경북	0(0.0%)	1(33.3%)	0(0.0%)	2(66.7%)	3(100.0%)
	광주	3(30.0%)	1(10.0%)	0(0.0%)	6(60.0%)	10(100.0%)
	대구	2(40.0%)	1(20.0%)	0(0.0%)	2(40.0%)	5(100.0%)
	대전	0(0.0%)	1(25.0%)	2(50.0%)	1(25.0%)	4(100.0%)
	부산	0(0.0%)	0(0.0%)	1(25.0%)	3(75.0%)	4(100.0%)
	서울	5(17.2%)	4(13.8%)	1(3.4%)	19(65.5%)	29(100.0%)
	울산	1(10.0%)	3(30.0%)	1(10.0%)	5(50.0%)	10(100.0%)
	인천	8(19.5%)	2(4.9%)	2(4.9%)	29(70.7%)	41(100.0%)
	전남	0(0.0%)	0(0.0%)	0(0.0%)	5(100.0%)	5(100.0%)
	전북	1(33.3%)	0(0.0%)	0(0.0%)	2(66.7%)	3(100.0%)
	제주	2(22.2%)	0(0.0%)	0(0.0%)	7(77.8%)	9(100.0%)
	충남	2(20.0%)	0(0.0%)	0(0.0%)	8(80.0%)	10(100.0%)
	충북	1(14.3%)	0(0.0%)	2(28.6%)	4(57.1%)	7(100.0%)

주. 성별에 대한 $\chi^2 = 2.099$, $df=3$, $p=.552$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현재 생활하는 쉼터에서 생활한 기간은 평균 10.81개월(표준편차 14.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생활기간은 12.82개월(18.25)로, 여자 청소년의 생활기간 8.73개월(9.85) 보다 길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매우 크지만, 경기 지역과 충남 지역의 생활기간이 각각 6.25개월과 7.88개월로 가장 짧았다.

표 92. 성별, 지역에 따른 현재 생활하는 쉼터 생활기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현재 생활하는 쉼터 생활기간
전체		10.81(14.86)
성별	남자	12.82(18.25)
	여자	8.73(9.85)
지역	강원	18.31(23.32)
	경기	7.88(8.38)
	경남	11.55(14.56)
	경북	10.50(7.29)
	광주	19.06(16.99)
	대구	9.23(16.07)
	대전	9.29(13.40)
	부산	16.42(17.51)
	서울	9.17(12.12)
	울산	17.88(26.05)
	인천	8.18(10.72)
	전남	19.50(25.22)
	전북	9.67(8.87)
	제주	16.86(21.95)
	충남	6.25(6.49)
	충북	7.80(13.35)

일시이동형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가 25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생필품(식사(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19명(27.1%), (버스 등 차량이) 신기해서가 13명(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지역에서 갈 곳이 없거나 생필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93. 성별, 지역에 따른 컴퓨터 이용의 가장 큰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고민이 있어서	갈 곳이 없어서	(버스 등 차량이) 신기해서	생필품(식사(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출, 진로 등)를 얻기 위해서	전체
전체		10(14.3%)	25(35.7%)	13(18.6%)	19(27.1%)	3(4.3%)	70(100.0%)
성별	남자	5(17.9%)	14(50.0%)	3(10.7%)	4(14.3%)	2(7.1%)	28(100.0%)
	여자	5(11.9%)	11(26.2%)	10(23.8%)	15(35.7%)	1(2.4%)	42(100.0%)
지역	경기	0(0.0%)	2(66.7%)	1(33.3%)	0(0.0%)	0(0.0%)	3(100.0%)
	부산	0(0.0%)	2(18.2%)	5(45.5%)	3(27.3%)	1(9.1%)	11(100.0%)
	서울	2(12.5%)	7(43.8%)	3(18.8%)	4(25.0%)	0(0.0%)	16(100.0%)
	전남	0(0.0%)	1(100.0%)	0(0.0%)	0(0.0%)	0(0.0%)	1(100.0%)
	전북	0(0.0%)	1(100.0%)	0(0.0%)	0(0.0%)	0(0.0%)	1(100.0%)
	제주	6(16.7%)	12(33.3%)	4(11.1%)	12(33.3%)	2(5.6%)	36(100.0%)
	충남	1(100.0%)	0(0.0%)	0(0.0%)	0(0.0%)	0(0.0%)	1(100.0%)
	충북	1(100.0%)	0(0.0%)	0(0.0%)	0(0.0%)	0(0.0%)	1(100.0%)

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족과 연락하는 빈도는 거의 연락하지 않음이 176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가 168명(38.5%), 월 1~2회가 66명(15.1%), 3개월에 1~2회가 19명(4.4%), 1년에 1~2회가 7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과 컴퓨터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표 94.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족과의 연락 빈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주 1~2회	월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거의 연락하지 않음	전체
전체		168(38.5%)	66(15.1%)	19(4.4%)	7(1.6%)	176(40.4%)	436(100.0%)
성별	남자	98(42.6%)	27(11.7%)	9(3.9%)	6(2.6%)	90(39.1%)	230(100.0%)
	여자	70(34.0%)	39(18.9%)	10(4.9%)	1(5%)	86(41.7%)	206(100.0%)
컴퓨터 유형	고정형	5(20.0%)	4(16.0%)	1(4.0%)	0(0.0%)	15(60.0%)	25(100.0%)
	단기·중장기	163(39.7%)	62(15.1%)	18(4.4%)	7(1.7%)	161(39.2%)	411(100.0%)
지역	강원	7(38.9%)	3(16.7%)	2(11.1%)	2(11.1%)	4(22.2%)	18(100.0%)
	경기	35(36.1%)	16(16.5%)	4(4.1%)	0(0.0%)	42(43.3%)	97(100.0%)
	경남	2(20.0%)	4(40.0%)	0(0.0%)	0(0.0%)	4(40.0%)	10(100.0%)
	경북	3(50.0%)	0(0.0%)	0(0.0%)	0(0.0%)	3(50.0%)	6(100.0%)
	광주	6(33.3%)	3(16.7%)	1(5.6%)	0(0.0%)	8(44.4%)	18(100.0%)
	대구	6(46.2%)	1(7.7%)	0(0.0%)	0(0.0%)	6(46.2%)	13(100.0%)
	대전	5(26.3%)	4(21.1%)	1(5.3%)	1(5.3%)	8(42.1%)	19(100.0%)
	부산	5(38.5%)	0(0.0%)	0(0.0%)	2(15.4%)	6(46.2%)	13(100.0%)
	서울	31(36.9%)	11(13.1%)	5(6.0%)	0(0.0%)	37(44.0%)	84(100.0%)
	울산	10(38.5%)	4(15.4%)	3(11.5%)	0(0.0%)	9(34.6%)	26(100.0%)
	인천	20(33.9%)	11(18.6%)	2(3.4%)	0(0.0%)	26(44.1%)	59(100.0%)
	전남	8(57.1%)	4(28.6%)	0(0.0%)	1(7.1%)	1(7.1%)	14(100.0%)
	전북	4(57.1%)	1(14.3%)	0(0.0%)	0(0.0%)	2(28.6%)	7(100.0%)
	제주	8(53.3%)	0(0.0%)	0(0.0%)	0(0.0%)	7(46.7%)	15(100.0%)
	충남	9(42.9%)	3(14.3%)	1(4.8%)	1(4.8%)	7(33.3%)	21(100.0%)
	충북	9(56.3%)	1(6.3%)	0(0.0%)	0(0.0%)	6(37.5%)	16(100.0%)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일시쉼터 서비스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의식주 지원이 68건(28.0%), 귀가지원이 42건(17.3%), 휴식서비스가 40건(16.5%),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이 27건(11.1%), 의료서비스가 25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쉼터유형에서 의식주 지원, 귀가지원, 휴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표 95>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취업 대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186건(17.1%), 학업 및 진로상담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179건(16.5%), 고민 등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이 170건(15.6%), 영화, 뮤지컬 관람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167건(15.4%),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 관련(저축, 자산관리 등) 프로그램이 152건(14.0%)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표 96>

표 95. 성별, 심터유형, 지역에 따른 일시심터 서비스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귀가지원 (교통비 지원 및 연계)	의식주 지원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의료서비스 (구급약, 응급처치 등)	위생서비스 (세면도구, 생리대 등)	교육 (성교육, 진로, 대인관계 등)	정보서비스 (지역사회 기관 및 접근 등)	휴식서비스 (휴식공간, 와이파이, 컴퓨터 등)	대인문화 활동 지원 (보드게임, 도서 등)	전체	
전체		42(17.3%)	68(28.0%)	27(11.1%)	25(10.3%)	17(7.0%)	8(3.3%)	5(2.1%)	40(16.5%)	11(4.5%)	243(100.0%)	
성별	남자	24(22.2%)	28(25.9%)	9(8.3%)	14(13.0%)	4(3.7%)	3(2.8%)	4(3.7%)	20(18.5%)	2(1.9%)	108(100.0%)	
	여자	18(13.3%)	40(29.6%)	18(13.3%)	11(8.1%)	13(9.6%)	5(3.7%)	1(0.7%)	20(14.8%)	9(6.7%)	135(100.0%)	
심터 유형	일시 이동형	30(16.4%)	56(30.6%)	21(11.5%)	18(9.8%)	14(7.7%)	6(3.3%)	1(0.5%)	28(15.3%)	9(4.9%)	183(100.0%)	
	고정형	12(20.0%)	12(20.0%)	6(10.0%)	7(11.7%)	3(5.0%)	2(3.3%)	4(6.7%)	12(20.0%)	2(3.3%)	60(100.0%)	
지역	강원	0(0.0%)	1(25.0%)	1(25.0%)	1(25.0%)	0(0.0%)	0(0.0%)	0(0.0%)	1(25.0%)	0(0.0%)	4(100.0%)	
	경기	3(13.6%)	5(22.7%)	2(9.1%)	2(9.1%)	2(9.1%)	3(13.6%)	2(9.1%)	3(13.6%)	0(0.0%)	22(100.0%)	
	대전	0(0.0%)	0(0.0%)	2(66.7%)	0(0.0%)	0(0.0%)	0(0.0%)	0(0.0%)	1(33.3%)	0(0.0%)	3(100.0%)	
	부산	7(21.9%)	10(31.3%)	3(9.4%)	7(21.9%)	2(6.3%)	2(6.3%)	0(0.0%)	1(3.1%)	0(0.0%)	32(100.0%)	
	서울	10(15.4%)	18(27.7%)	8(12.3%)	6(9.2%)	3(4.6%)	1(1.5%)	1(1.5%)	13(20.0%)	5(7.7%)	65(100.0%)	
	울산	1(33.3%)	1(33.3%)	0(0.0%)	0(0.0%)	0(0.0%)	0(0.0%)	0(0.0%)	1(33.3%)	0(0.0%)	3(100.0%)	
	인천	2(50.0%)	1(25.0%)	0(0.0%)	0(0.0%)	0(0.0%)	0(0.0%)	0(0.0%)	1(25.0%)	0(0.0%)	4(100.0%)	
	전남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전북	0(0.0%)	0(0.0%)	1(33.3%)	0(0.0%)	0(0.0%)	0(0.0%)	0(0.0%)	1(33.3%)	1(33.3%)	0(0.0%)	3(100.0%)
	제주	18(18.6%)	30(30.9%)	7(7.2%)	8(8.2%)	8(8.2%)	2(2.1%)	1(1.0%)	18(18.6%)	5(5.2%)	97(100.0%)	
	충남	1(16.7%)	0(0.0%)	2(33.3%)	1(16.7%)	1(16.7%)	0(0.0%)	0(0.0%)	0(0.0%)	1(16.7%)	6(100.0%)	
	충북	0(0.0%)	1(33.3%)	1(33.3%)	0(0.0%)	1(33.3%)	0(0.0%)	0(0.0%)	0(0.0%)	0(0.0%)	3(100.0%)	

표 96. 성별, 지역에 따른 심터 프로그램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고민 등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학업 및 진로상담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 대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흡연, 음주,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 프로그램	대인관계 훈련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피고용자 권리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 관련 (저축, 자산관리 등) 프로그램	영화, 뮤지컬 관람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	전체
전체		170(15.6%)	179(16.5%)	186(17.1%)	39(3.6%)	30(2.8%)	70(6.4%)	83(7.6%)	152(14.0%)	167(15.4%)	11(1.0%)	1087(100.0%)
성별	남자	71(13.2%)	91(16.9%)	87(16.2%)	27(5.0%)	17(3.2%)	34(6.3%)	39(7.3%)	62(11.5%)	100(18.6%)	9(1.7%)	537(100.0%)
	여자	99(18.0%)	88(16.0%)	99(18.0%)	12(2.2%)	13(2.4%)	36(6.5%)	44(8.0%)	90(16.4%)	67(12.2%)	2(0.4%)	550(100.0%)
지역	강원	5(12.2%)	9(22.0%)	8(19.5%)	3(7.3%)	2(4.9%)	3(7.3%)	3(7.3%)	5(12.2%)	2(4.9%)	1(2.4%)	41(100.0%)
	경기	45(18.5%)	35(14.4%)	40(16.5%)	8(3.3%)	4(1.6%)	16(6.6%)	26(10.7%)	31(12.8%)	36(14.8%)	2(0.8%)	243(100.0%)
	경남	2(7.7%)	5(19.2%)	5(19.2%)	2(7.7%)	0(0.0%)	0(0.0%)	5(19.2%)	2(7.7%)	5(19.2%)	0(0.0%)	26(100.0%)
	경북	3(20.0%)	1(6.7%)	3(20.0%)	0(0.0%)	0(0.0%)	0(0.0%)	3(20.0%)	2(13.3%)	3(20.0%)	0(0.0%)	15(100.0%)
	광주	10(20.8%)	5(10.4%)	6(12.5%)	2(4.2%)	1(2.1%)	4(8.3%)	3(6.3%)	7(14.6%)	10(20.8%)	0(0.0%)	48(100.0%)
	대구	7(17.9%)	5(12.8%)	10(25.6%)	1(2.6%)	0(0.0%)	4(10.3%)	2(5.1%)	5(12.8%)	5(12.8%)	0(0.0%)	39(100.0%)
	대전	7(15.6%)	6(13.3%)	4(8.9%)	1(2.2%)	0(0.0%)	5(11.1%)	6(13.3%)	9(20.0%)	7(15.6%)	0(0.0%)	45(100.0%)
	부산	5(15.6%)	6(18.8%)	7(21.9%)	1(3.1%)	1(3.1%)	0(0.0%)	1(3.1%)	5(15.6%)	6(18.8%)	0(0.0%)	32(100.0%)
	서울	20(10.1%)	40(20.2%)	43(21.7%)	5(2.5%)	2(1.0%)	11(5.6%)	9(4.5%)	37(18.7%)	29(14.6%)	2(1.0%)	198(100.0%)
	울산	8(11.6%)	11(15.9%)	14(20.3%)	1(1.4%)	2(2.9%)	6(8.7%)	4(5.8%)	12(17.4%)	11(15.9%)	0(0.0%)	69(100.0%)
	인천	28(18.7%)	22(14.7%)	21(14.0%)	6(4.0%)	5(3.3%)	10(6.7%)	12(8.0%)	19(12.7%)	24(16.0%)	3(2.0%)	150(100.0%)
	전남	5(15.6%)	7(21.9%)	6(18.8%)	1(3.1%)	3(9.4%)	0(0.0%)	1(3.1%)	1(3.1%)	8(25.0%)	0(0.0%)	32(100.0%)
	전북	4(23.5%)	1(5.9%)	1(5.9%)	0(0.0%)	3(17.6%)	2(11.8%)	0(0.0%)	1(5.9%)	4(23.5%)	1(5.9%)	17(100.0%)
	제주	3(8.3%)	8(22.2%)	4(11.1%)	1(2.8%)	1(2.8%)	3(8.3%)	2(5.6%)	6(16.7%)	6(16.7%)	2(5.6%)	36(100.0%)
	충남	12(21.1%)	9(15.8%)	7(12.3%)	3(5.3%)	3(5.3%)	5(8.8%)	4(7.0%)	6(10.5%)	8(14.0%)	0(0.0%)	57(100.0%)
	충북	6(15.4%)	9(23.1%)	7(17.9%)	4(10.3%)	3(7.7%)	1(2.6%)	2(5.1%)	4(10.3%)	3(7.7%)	0(0.0%)	39(100.0%)

고정형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쉼터 이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한 응답은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어 기분이 좋다가 16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쉼터에 오기 전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것 같다가 8건(15.4%), 도움받고자 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모두 6건(11.5%), 나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가 5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지역에서 이러한 좋은 점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표 97. 성별, 지역에 따른 쉼터 이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점(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도움받고자 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어 기분이 좋다	쉼터에 오기 전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것 같다	나의 장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진 것 같다	가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기타	전체	
전체		6(11.5%)	6(11.5%)	5(9.6%)	16(30.8%)	8(15.4%)	3(5.8%)	2(3.8%)	3(5.8%)	2(3.8%)	1(1.9%)	52(100.0%)	
성별	남자	5(13.2%)	4(10.5%)	5(13.2%)	12(31.6%)	4(10.5%)	2(5.3%)	2(5.3%)	1(2.6%)	2(5.3%)	1(2.6%)	38(100.0%)	
	여자	1(7.1%)	2(14.3%)	0(0.0%)	4(28.6%)	4(28.6%)	1(7.1%)	0(0.0%)	2(14.3%)	0(0.0%)	0(0.0%)	14(100.0%)	
지역	강원	1(25.0%)	2(50.0%)	1(2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00.0%)	
	경기	2(16.7%)	1(8.3%)	0(0.0%)	4(33.3%)	3(25.0%)	1(8.3%)	1(8.3%)	0(0.0%)	0(0.0%)	0(0.0%)	12(100.0%)	
	대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0(0.0%)	2(100.0%)	
	부산	1(50.0%)	0(0.0%)	0(0.0%)	1(5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서울	1(5.0%)	1(5.0%)	4(20.0%)	8(40.0%)	2(10.0%)	1(5.0%)	1(5.0%)	1(5.0%)	0(0.0%)	1(5.0%)	20(100.0%)	
	울산	0(0.0%)	0(0.0%)	0(0.0%)	1(50.0%)	1(50.0%)	0(0.0%)	0(0.0%)	0(0.0%)	0(0.0%)	0(0.0%)	2(100.0%)	
	인천	1(25.0%)	1(25.0%)	0(0.0%)	1(25.0%)	1(25.0%)	0(0.0%)	0(0.0%)	0(0.0%)	0(0.0%)	0(0.0%)	4(100.0%)	
	제주	0(0.0%)	1(33.3%)	0(0.0%)	0(0.0%)	0(0.0%)	0(0.0%)	1(33.3%)	0(0.0%)	1(33.3%)	0(0.0%)	0(0.0%)	3(100.0%)
	충남	0(0.0%)	0(0.0%)	0(0.0%)	1(33.3%)	1(33.3%)	0(0.0%)	0(0.0%)	1(33.3%)	0(0.0%)	0(0.0%)	3(100.0%)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일시컴퓨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컴퓨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3.86점(표준편차 1.33), 컴퓨터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3.84점(표준편차 1.29)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컴퓨터유형, 지역에서 두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표 98.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일시컴퓨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컴퓨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컴퓨터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전체		3.86(1.33)	3.84(1.29)
성별	남자	3.57(1.46)	3.56(1.37)
	여자	4.15(1.11)	4.13(1.14)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3.77(1.34)	3.74(1.31)
	고정형	4.16(1.25)	4.16(1.18)
지역	강원	5.00(0.00)	5.00(0.00)
	경기	4.13(1.36)	4.13(1.36)
	대전	5.00(0.00)	5.00(0.00)
	부산	3.15(1.57)	3.23(1.64)
	서울	4.07(1.33)	4.07(1.33)
	울산	4.00(-)	3.00(-)
	인천	2.00(1.41)	3.00(1.41)
	전남	4.00(-)	4.00(-)
	전북	1.00(-)	1.00(-)
	제주	3.91(1.18)	3.84(1.11)
	충남	3.50(0.71)	3.00(0.00)
	충북	5.00(-)	5.00(-)

단기·중장기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의 현재 컴퓨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3.77점(표준편차 1.14) ~ 4.13점(1.03)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표 99>

단기·중장기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추후 청소년들을 위해 강화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응답은 1인실 주거 공간 확충이 191건(17.6%)로 가장 많았고, 자립지원(주거지원 자립지원금 등)이 179건(16.5%), 놀이·휴게 공간 확대가 109건(10.0%), 기술훈련 프로그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이 103건(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지역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50% 이상이었다. <표 100>

표 99. 성별, 지역에 따른 현재 쉼터 생활에 대한 만족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식사	의복	침대, 이불 등 잠자리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	놀이/운동 공간	고민 해결 등 상담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학교, 진로 등 교육 지원 서비스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원 서비스	자립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쉼터 선생님의 도움	쉼터 선생님이 친절함과 경청
전체		4.14 (1.02)	3.94 (1.06)	4.07 (1.04)	4.02 (1.05)	3.77 (1.14)	3.88 (1.07)	4.07 (1.05)	3.97 (1.06)	3.92 (1.09)	3.99 (1.06)	3.86 (1.08)	4.13 (1.03)	4.09 (1.09)
성별	남자	4.17 (1.05)	4.00 (1.07)	4.09 (1.08)	4.11 (1.08)	3.86 (1.19)	4.06 (1.06)	4.14 (1.06)	4.03 (1.08)	4.02 (1.08)	4.08 (1.05)	3.95 (1.08)	4.26 (.97)	4.21 (1.04)
	여자	4.11 (.98)	3.89 (1.05)	4.06 (1.00)	3.92 (1.02)	3.69 (1.07)	3.70 (1.06)	3.99 (1.03)	3.90 (1.04)	3.82 (1.08)	3.90 (1.06)	3.76 (1.08)	4.00 (1.07)	3.97 (1.12)
지역	강원	4.06 (1.34)	3.75 (1.34)	4.06 (1.29)	3.88 (1.31)	3.50 (1.37)	3.63 (1.31)	4.19 (1.38)	3.69 (1.30)	4.13 (1.31)	4.06 (1.34)	3.69 (1.45)	4.13 (1.36)	3.81 (1.38)
	경기	3.99 (1.01)	3.92 (.92)	4.15 (.82)	3.96 (.99)	3.70 (1.07)	3.74 (1.05)	4.01 (.90)	3.92 (.95)	3.98 (.93)	3.95 (.91)	3.82 (.97)	4.05 (.91)	4.15 (.91)
	경남	4.20 (1.32)	3.80 (1.32)	3.70 (1.49)	4.00 (1.25)	3.70 (1.25)	4.30 (1.25)	4.30 (1.25)	3.60 (1.35)	3.60 (1.58)	3.70 (1.25)	4.00 (1.25)	4.40 (1.26)	4.40 (1.26)
	경북	3.67 (1.51)	3.17 (1.33)	3.17 (1.33)	3.17 (1.47)	2.83 (1.47)	3.50 (1.38)	3.17 (1.33)	3.17 (1.47)	3.17 (1.47)	3.33 (1.37)	3.50 (1.52)	4.00 (.89)	3.50 (1.52)
	광주	4.61 (.50)	4.39 (.92)	4.28 (1.07)	4.44 (.78)	3.89 (1.37)	4.44 (.78)	4.17 (1.15)	4.33 (1.03)	4.28 (.96)	4.22 (1.00)	4.22 (1.22)	4.50 (.79)	4.44 (.86)
	대구	3.85 (.80)	3.69 (1.11)	3.77 (1.17)	3.92 (.86)	3.69 (.95)	3.92 (.95)	3.85 (.90)	3.77 (1.01)	3.92 (.86)	3.77 (1.09)	3.77 (1.01)	4.31 (.85)	4.23 (.93)
	대전	4.35 (.70)	3.82 (.81)	3.88 (1.17)	4.06 (.90)	3.76 (1.20)	4.00 (.71)	4.12 (.86)	3.88 (.93)	3.53 (1.18)	4.06 (1.09)	4.00 (.94)	4.18 (.88)	4.12 (.93)
	부산	4.42 (1.00)	4.50 (.80)	4.50 (.80)	4.58 (.67)	4.17 (1.27)	4.42 (.90)	4.42 (1.00)	4.17 (1.27)	4.17 (1.27)	4.50 (.80)	4.42 (.90)	4.50 (.80)	4.50 (.80)

구분	범주	식사	의복	침대, 이불 등 잡자리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	놀이/운동 공간	고민 해결 등 상담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학교, 진로 등 교육 지원 서비스	개인적으 로 필요한 물품 지원 서비스	자립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쉼터 선생님의 도움	쉼터 선생님이 친절함과 경청
	서울	4.11 (1.03)	3.85 (1.09)	4.07 (1.01)	4.01 (1.07)	3.88 (1.10)	3.76 (.99)	4.00 (1.05)	3.95 (.99)	3.80 (1.09)	3.86 (1.19)	3.65 (1.09)	4.07 (1.01)	3.99 (1.03)
	울산	4.16 (.94)	4.16 (1.03)	4.20 (.91)	4.00 (1.00)	3.88 (.97)	3.84 (1.21)	4.40 (.91)	4.24 (.93)	3.96 (1.06)	4.24 (.97)	4.00 (1.08)	4.16 (1.14)	3.88 (1.24)
	인천	4.30 (1.00)	4.04 (1.09)	4.04 (1.15)	3.89 (1.13)	3.67 (1.20)	3.86 (1.16)	4.04 (1.09)	4.07 (1.10)	3.96 (1.10)	4.09 (.97)	3.95 (1.09)	4.07 (1.12)	3.98 (1.27)
	전남	4.07 (1.21)	3.64 (1.28)	3.93 (1.14)	3.93 (1.14)	3.64 (1.15)	3.86 (1.17)	3.79 (1.37)	4.00 (1.18)	3.79 (1.19)	3.71 (1.20)	3.57 (1.09)	4.07 (1.14)	4.21 (1.19)
	전북	3.86 (.90)	3.57 (1.13)	3.86 (.90)	3.86 (.90)	3.71 (.95)	3.57 (1.13)	3.71 (.95)	3.71 (.95)	3.71 (.95)	3.86 (.90)	3.86 (.90)	3.86 (.90)	4.00 (1.00)
	제주	4.36 (1.08)	4.21 (1.12)	4.43 (1.09)	4.43 (1.09)	4.29 (1.14)	4.21 (1.12)	4.29 (1.14)	4.29 (1.14)	4.29 (1.14)	4.29 (1.14)	4.21 (1.12)	4.21 (1.12)	4.29 (1.14)
	충남	3.90 (1.25)	3.75 (1.29)	3.80 (1.32)	3.85 (1.31)	3.65 (1.27)	3.85 (1.27)	4.05 (1.28)	3.60 (1.27)	3.70 (1.26)	3.95 (1.28)	3.85 (1.27)	3.90 (1.41)	3.90 (1.41)
	충북	4.31 (.79)	4.25 (.86)	4.25 (.77)	4.44 (.81)	4.13 (.96)	4.31 (.79)	4.38 (.81)	4.25 (.93)	4.25 (.93)	4.06 (.93)	3.75 (.93)	4.44 (.81)	4.38 (.96)

표 100. 성별, 지역에 따른 추후 청소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1인실 주거 공간 확충	세면· 샤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공간 개선	놀이· 휴게 공간 확대	교통 등 접근이 편리한 장소로 신타 이주	검정 고시 학습 지도 등 학업 지원	기술훈련 프로그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 금 등)	심리· 정서 지원	여가· 문화 프로 그램	몸이 아플 때 치료받 을 수 있는 의료지 원	법적 문제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법률지 원	기타	전체
전체		191 (17.6%)	90 (8.3%)	109 (10.0%)	58 (5.3%)	68 (6.3%)	103 (9.5%)	179 (16.5%)	65 (6.0%)	93 (8.6%)	62 (5.7%)	50 (4.6%)	18 (1.7%)	1086 (100.0%)
성별	남자	105 (19.4%)	53 (9.8%)	79 (14.6%)	25 (4.6%)	27 (5.0%)	41 (7.6%)	77 (14.3%)	28 (5.2%)	56 (10.4%)	23 (4.3%)	16 (3.0%)	10 (1.9%)	540 (100.0%)
	여자	86 (15.8%)	37 (6.8%)	30 (5.5%)	33 (6.0%)	41 (7.5%)	62 (11.4%)	102 (18.7%)	37 (6.8%)	37 (6.8%)	39 (7.1%)	34 (6.2%)	8 (1.5%)	546 (100.0%)
지역	강원	6 (14.6%)	1 (2.4%)	3 (7.3%)	5 (12.2%)	5 (12.2%)	6 (14.6%)	9 (22.0%)	0 (0.0%)	2 (4.9%)	2 (4.9%)	1 (2.4%)	1 (2.4%)	41 (100.0%)
	경기	40 (16.3%)	21 (8.5%)	19 (7.7%)	13 (5.3%)	18 (7.3%)	25 (10.2%)	34 (13.8%)	22 (8.9%)	22 (8.9%)	13 (5.3%)	17 (6.9%)	2 (.8%)	246 (100.0%)
	경남	3 (12.0%)	1 (4.0%)	2 (8.0%)	0 (0.0%)	2 (8.0%)	3 (12.0%)	5 (20.0%)	0 (0.0%)	6 (24.0%)	2 (8.0%)	0 (0.0%)	1 (4.0%)	25 (100.0%)
	경북	3 (18.8%)	1 (6.3%)	3 (18.8%)	0 (0.0%)	0 (0.0%)	2 (12.5%)	2 (12.5%)	1 (6.3%)	2 (12.5%)	1 (6.3%)	1 (6.3%)	0 (0.0%)	16 (100.0%)
	광주	6 (12.8%)	2 (4.3%)	6 (12.8%)	4 (8.5%)	2 (4.3%)	5 (10.6%)	6 (12.8%)	4 (8.5%)	6 (12.8%)	4 (8.5%)	1 (2.1%)	1 (2.1%)	47 (100.0%)
	대구	9 (24.3%)	2 (5.4%)	2 (5.4%)	2 (5.4%)	3 (8.1%)	4 (10.8%)	8 (21.6%)	1 (2.7%)	2 (5.4%)	3 (8.1%)	1 (2.7%)	0 (0.0%)	37 (100.0%)
	대전	10 (22.7%)	3 (6.8%)	4 (9.1%)	0 (0.0%)	2 (4.5%)	3 (6.8%)	9 (20.5%)	3 (6.8%)	3 (6.8%)	2 (4.5%)	4 (9.1%)	1 (2.3%)	44 (100.0%)

구분	범주	1인실 주거 공간 확충	세면· 샤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공간 개선	놀이· 휴게 공간 확대	교통 등 접근이 편리한 장소로 쉼터 이주	검정 고시 학습 지도 등 학업 지원	기술훈련 프로그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 금 등)	심리· 정서 지원	여가· 문화 프로 그램	몸이 아플 때 치료받 을 수 있는 의료지 원	법적 문제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법률지 원	기타	전체
	부산	3 (10.7%)	3 (10.7%)	3 (10.7%)	1 (3.6%)	1 (3.6%)	3 (10.7%)	9 (32.1%)	1 (3.6%)	1 (3.6%)	2 (7.1%)	1 (3.6%)	0 (0.0%)	28 (100.0%)
	서울	36 (17.6%)	14 (6.9%)	19 (9.3%)	14 (6.9%)	15 (7.4%)	21 (10.3%)	43 (21.1%)	8 (3.9%)	13 (6.4%)	11 (5.4%)	10 (4.9%)	0 (0.0%)	204 (100.0%)
	울산	14 (21.5%)	7 (10.8%)	4 (6.2%)	5 (7.7%)	5 (7.7%)	6 (9.2%)	9 (13.8%)	1 (1.5%)	7 (10.8%)	3 (4.6%)	2 (3.1%)	2 (3.1%)	65 (100.0%)
	인천	26 (16.6%)	16 (10.2%)	22 (14.0%)	7 (4.5%)	8 (5.1%)	8 (5.1%)	20 (12.7%)	14 (8.9%)	15 (9.6%)	9 (5.7%)	8 (5.1%)	4 (2.5%)	157 (100.0%)
	전남	7 (21.9%)	5 (15.6%)	5 (15.6%)	0 (0.0%)	1 (3.1%)	4 (12.5%)	2 (6.3%)	0 (0.0%)	2 (6.3%)	3 (9.4%)	1 (3.1%)	2 (6.3%)	32 (100.0%)
	전북	5 (38.5%)	3 (23.1%)	0 (0.0%)	0 (0.0%)	1 (7.7%)	0 (0.0%)	1 (7.7%)	3 (23.1%)	0 (0.0%)	0 (0.0%)	0 (0.0%)	0 (0.0%)	13 (100.0%)
	제주	3 (9.4%)	3 (9.4%)	4 (12.5%)	4 (12.5%)	2 (6.3%)	3 (9.4%)	7 (21.9%)	0 (0.0%)	1 (3.1%)	2 (6.3%)	1 (3.1%)	2 (6.3%)	32 (100.0%)
	충남	11 (20.0%)	4 (7.3%)	5 (9.1%)	3 (5.5%)	1 (1.8%)	5 (9.1%)	8 (14.5%)	5 (9.1%)	7 (12.7%)	4 (7.3%)	1 (1.8%)	1 (1.8%)	55 (100.0%)
	충북	9 (20.5%)	4 (9.1%)	8 (18.2%)	0 (0.0%)	2 (4.5%)	5 (11.4%)	7 (15.9%)	2 (4.5%)	4 (9.1%)	1 (2.3%)	1 (2.3%)	1 (2.3%)	44 (100.0%)

나. 쉼터 기관 현황 및 실태 결과

1) 쉼터 기초 현황

쉼터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에 응답한 쉼터는 전체 129개 쉼터가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 인구밀집 특성 등에 따라 쉼터 설치 수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서울지역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쉼터의 설치 수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1. 설문 참여 쉼터 현황(온라인 설문조사, 2020년)

연번	지역	쉼터명	설치연도	유형	정원	성별
1	강원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6.9.21	중장기	8	여
2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급자리	2006.5.15	중장기	8	남
3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8.11.29	단기	15	여
4		강원도단기청소년쉼터(남자)	2005.3.1	단기	15	남
5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6.4.1	단기	15	여
6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2013.6.17	일시고정	10	여
7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20.7.1	일시고정	12	여
8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	2019.9.16	일시이동	0	여
9	경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8.7.1	중장기	10	여
10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4.7.7	중장기	10	남
11		용인푸른꿈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8.7.1	중장기	10	여
12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2.11.20	중장기	10	남
13		고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1998.4.16	중장기	10	여
14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2011.10.1	중장기	10	남
15		안양청소년쉼터 호숙	2010.6.4	중장기	10	여
16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청소년달보듬터)	2020.1.1	단기	15	남
17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9.1.1	단기	7	여
18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2006.7.1	단기	15	남
19		오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7.10.26	단기	14	여
20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07.5.21	단기	15	남
21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3.5.12	단기	15	여
22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1.2.14	단기	10	여
23		부천시통이단기청소년쉼터	1999.3.1	단기	12	여
24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18.10.24	단기	14	남
25		성남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1999.2.27	단기	12	여

연번	지역	쉼터명	설치연도	유형	정원	성별	
26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4.12.16	단기	14	여	
27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2.1.10	단기	14	여	
28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9.1.1	단기	19	여	
29		고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 등지	2002.12.23	단기	15	남	
30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3.5.1	단기	12	여	
31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징검다리)	2014.1.1	단기	15	남	
32		안양시 단기청소년쉼터FORYOU	2001.1.1	단기	15	남	
33		용인푸른꿈남자단기청소년쉼터	-	단기	14	남	
34		안양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2006.5.10	일시고정	12	여	
35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2013.10.25	일시고정	15	여	
36		성남시 일시청소년쉼터	2009.10.30	일시고정	12	여	
37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2007.6.25	일시고정	12	여	
38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	2012.11.1	일시이동	-	여	
39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	-	일시이동	-	-	
40		경남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마야)	2006.11.1	중장기	7	남
41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클라라의 집)	2013.2.27	중장기	7	여
42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2001.6.1	단기	10	남
43			김해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2002.11.29	단기	10	여
44		경북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2.6.1	중장기	7	남
45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1999.8.31	중장기	7	여	
46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2.3.21	중장기	7	여	
47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7.1.5	단기	12	여	
48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2010.11.1	단기	12	남	
49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2014.7.1	단기·중장기	8	남	
50		광주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맥지쉼터)	2005.10.27	단기·중장기	7	여	
51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1998.7.1	단기·중장기	10	여	
52		광주광역시청소년단기남자쉼터	2006.8.16	단기	10	남	
53		광주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	2009.2.20	일시이동	0	여	
54	대구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2005.12.27	단기·중장기	7	여	
55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2014.4.24	단기·중장기	7	남	
56		달서구청소년쉼터	1999.12.28	단기·중장기	15	남	
57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1998.7.1	단기·중장기	15	여	
58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2013.4.20	일시고정	10	여	
59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	2015.12.31	일시이동	10	여	
60	대전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6.5.1	중장기	10	여	

연번	지역	쉼터명	설치연도	유형	정원	성별
61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2009.7.1	중장기	7	남
62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2001.9.1	단기	15	남
63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1996.5.12	단기	15	여
64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2004.3.1	일시고정	8	여
65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일시이동		여
66	부산	부산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2013.7.1	단기·중장기	7	남
67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7.7.15	단기·중장기	10	여
68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06.1.1	단기·중장기	15	남
69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1996.11.1	단기·중장기	15	여
70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2005.9.29	일시고정	15	여
71		부산광역시이동청소년쉼터	2013.1.1	일시이동	15	여
72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2004.8.1	단기·중장기	10	남
73		어울림청소년쉼터	2004.5.17	단기·중장기	7	여
74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7.12.12	단기·중장기	10	여
75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2014.2.1	단기·중장기	8	여
76		강남구청소년쉼터	1998.1.21	단기·중장기	15	남
77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2014.8.14	단기·중장기	20	여
78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1998.5.1	단기·중장기	20	여
79		강서청소년쉼터	2001.7.2	단기·중장기	8	남
80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1998.5.18	단기·중장기	20	남
81		서울시립드림일시청소년쉼터	2011.12.2	일시고정	10	여
82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2015.6.3	일시고정	10	남
83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2015.1.1	일시이동	15	여
8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2004.4.12	일시이동	15	여
85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	2019.6.17	일시이동	10	여
86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2014.12.26	일시이동	5	여
87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2013.12.27	일시이동	7	여
88	울산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1999.5.31	중장기	10	남
89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3.1.1	중장기	10	여
90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5.11.1	단기	10	여
91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06.7.1	단기	10	남
92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17.12.27	일시고정	10	여
93	인천	인천시청소년중장기쉼터(남자, 별마루)	2006.6.1	단기·중장기	10	남
94		인천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예꿈)	2005.11.1	단기·중장기	9	여
95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늘목장)	2009.3.11	단기·중장기	15	여

연번	지역	쉼터명	설치연도	유형	정원	성별
96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바다의별)	2001.3.7	단기·중장기	20	남
97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우리들)	1999.7.2	단기·중장기	15	남
9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모니)	2006.1.2	단기·중장기	15	여
99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꿈꾸는별)	2009.3.10	일시고정	15	여
100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2004.4.30	일시고정	15	여
101	전남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4.9.1	중장기	10	남
102		목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04.7.5	단기	10	남
103		여수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13.7.1	단기	10	남
104		여수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8.6.5	단기	10	여
105	전북	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0.12.20	중장기	7	여
106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5.11.1	중장기	8	남
107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2.11.15	단기	10	여
108		전주청소년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09.10.9	단기	10	남
109		익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18.11.1	일시고정	0	여
110	제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7.7.2	중장기	7	여
111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05.12.27	중장기	7	남
112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1998.3.21	단기	10	여
113		서귀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17.1.1	단기	8	남
114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13.7.1	일시고정	12	여
115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	2018.2.1	일시이동		여
116	충남	공주시중장기청소년쉼터	2015.10.12	중장기	8	남
117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9.10.1	중장기	8	여
118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02.8.5	단기	12	여
119		아산시단기청소년쉼터	1998.11.27	단기	14	남
120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13.5.1	단기	10	남
121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3.5.1	단기	10	여
122		아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9.7.1	단기	14	여
123	충북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2009.5.15	중장기	7	남
124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018.9.1	중장기	7	여
125		친구청소년쉼터(남자)	2015.9.24	단기	10	남
126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느티나무)	2009.11.1	단기	15	여
127		청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02.2.1	단기	15	남
128		제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봄	2019.4.1	단기	7	여
129		청주시일시청소년쉼터일시이동형	2012.12.1	일시이동	0	여

(1) 정규직 직원의 임금 급여 체계

쉽터 정규직 지원의 임금 급여체계는 호봉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8개 쉽터, 68.2%). 그 다음 순으로는 연봉제(22개 쉽터, 17.1)와 호봉제 및 연봉제를 혼용한 형태였다(17개 쉽터, 13.2%).

표 102. 쉽터 정규직 직원의 임금 급여 체계(온라인조사, 2020년 기준)

항목	쉽터 수	백분율
소장 정규직 호봉제, 직원 계약직 연봉제	1	0.8
연봉제	22	17.1
호봉제	88	68.2
호봉제 및 연봉제 혼용	17	13.2
호봉제+단일급여(최저임금+종사자수당)	1	0.8
계	129	100.0

(2) 정규직 퇴사율

2019년 기준 정규직의 퇴사율을 조사하였다. 산식은 [' 19년 (정규직 중) 퇴사 직원수 / (정규직)정규직 정원] × 100%로 조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쉽터의 평균 퇴사율은 18.6%로 나타났다. 지역별 퇴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53.9%였다. 그 다음 순으로는 전북으로 39.5%으로 정규직 정원 대비 퇴소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3. 정규직 퇴사율(온라인설문조사, 2019년 기준)

단위 : %

쉽터지역	평균	사례수	평균
전체	18.6	129.0	21.6
강원	11.8	8.0	14.8
경기	17.1	31.0	20.3
경남	22.0	5.0	22.8
경북	5.0	5.0	11.2
광주	26.0	5.0	30.3
대구	22.6	5.0	19.1
대전	14.5	6.0	15.1
부산	10.8	5.0	16.6
서울	18.1	16.0	21.0
울산	28.8	5.0	6.0

쉼터지역	평균	사례수	평균
인천	19.4	9.0	17.6
전남	0.0	5.0	0.0
전북	39.5	4.0	27.2
제주	7.5	6.0	11.7
충남	53.9	7.0	30.2
충북	10.7	7.0	19.7

2) 입소청소년 특성

(1) 청소년 1인 1식 평균 급량비

2020년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쉼터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1인 한 끼의 평균 급량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 88개의 전체 평균 급량비는 3,289.5원이었다. 지역별로 급량비에 차이가 있었는데, 제주가 4,5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것은 대전(1,591원)이었다.

표 104. 청소년 1인 1식 평균 급량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단위 : 원

쉼터지역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전체	3289.5	88.0	1027.9
강원	3714.3	7.0	755.9
경기	3531.4	21.0	709.0
경남	2900.0	4.0	795.8
경북	3000.0	5.0	628.5
광주	4306.5	4.0	2534.5
대구	2750.0	2.0	353.6
대전	1591.0	5.0	243.8
부산	2630.0	2.0	523.3
서울	3033.3	6.0	840.6
울산	2957.5	4.0	480.2
인천	2904.9	7.0	707.0
전남	3960.0	4.0	1527.4
전북	2500.0	1.0	-

쉼터지역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제주	4500.0	5.0	1581.1
충남	2916.7	6.0	614.5
충북	2640.0	5.0	461.5

※ 설문대상: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대상

(2) 청소년 1인 간식비

2020년 예산에 편성된 일시고정 및 단기·중장기 쉼터의 청소년1인 간식비의 경우 응답한 88개 쉼터의 전체 평균은 1315.3원으로 조사되었다. 간식비가 비교적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은 강원(2,385.7원)과 광주(2,375.0원)였다. 대전의 경우 간식비가 급량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표 105. 청소년 1인 간식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단위 : 원

쉼터지역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전체	1315.3	88.0	1141.0
강원	2385.7	7.0	1921.3
경기	1448.5	20.0	809.2
경남	1300.0	4.0	571.5
경북	704.0	5.0	279.4
광주	2375.0	4.0	1797.0
대구	810.0	2.0	297.0
대전	0.0	4.0	0.0
부산	1250.0	2.0	495.0
서울	827.3	9.0	920.1
울산	1172.3	4.0	655.2
인천	1600.0	5.0	961.8
전남	1400.0	5.0	1949.4
전북	500.0	1.0	-
제주	1740.0	5.0	942.3
충남	1320.0	5.0	1373.7
충북	800.0	6.0	509.9

※ 설문대상: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대상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입소자 현황

2019년 신규입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입소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을 말한다. 조사에 응답한 116개 쉼터에서 2019년 신규 입소자 수는 11,469명이었으며, 그 중 아동복지시설 경험 청소년은 545명으로 전체 입소자 대비 4.8% 수준이었다.

표 106.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입소자 현황표(온라인설문조사,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수	쉼터 평균	쉼터 표준편차
신규입소자수 2019(A)	11,469	98.87	154.02
복지시설경험(B) 청소년 수	545	4.70	7.73
B/A 비율 (%)	4.8	4.8	-

※ 쉼터 사례 수 116개

(4) 초중고 연령 입소자 중 재학생 수

2019년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연령대의 입소자 중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재학생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응답한 쉼터는 116개였으며, 초중고 연령 전체 입소자 수는 20,239명이었다. 이중 재학생은 8,057명으로 학생 연령 입소자 중 39.8%로 나타났다.

표 107. 초중고 연령 입소자 중 재학생 수 현황 표(온라인설문조사,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수	쉼터 평균	쉼터 표준편차
초중고 연령 입소자(A)	20,239	174.47	957.509
재학생(B)	8,057	69.46	171.829
B/A 비율(%)	39.8	39.8	-

※ 응답 쉼터 사례 수 116개

(5) 입소 거부 비율

2019년 기준으로 일시고정형과 단기·중장기 쉼터가 청소년 입소를 거부한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입소거부 비율에 대한 산식은 [입소거부 실인원 수 ()명 ÷ 신규 입소상담 실인원 수 ()명] *100 = ()%로 조사하였다. 산출한 결과, 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한 전체 평균 비율은 2.5%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은 입소 거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입소거부 비율(온라인설문조사, 2019년 기준)

단위 : %

쉼터지역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전체	2.5	116.0	5.6
강원	0.7	7.0	1.3
경기	1.8	29.0	3.4
경남	4.0	5.0	8.9
경북	8.0	5.0	17.9
광주	1.3	4.0	2.5
대구	2.5	4.0	5.0
대전	0.6	5.0	1.4
부산	0.0	5.0	0.0
서울	3.3	12.0	5.2
울산	1.0	5.0	2.2
인천	4.8	8.0	7.5
전남	2.6	5.0	2.6
전북	0.5	4.0	1.0
제주	0.0	5.0	0.0
충남	5.7	7.0	7.9
충북	3.2	6.0	3.7

※ 설문대상: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대상

3) 시설현황 및 청소년 관리

(1) 보호기간 연장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

2019년 기준 청소년의 보호기관 연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7.9%).

표 109. 보호기간 연장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단위: 센터 수

항목	빈도	백분율
심의사항이 아님	14	12.1
심의사항임	102	87.9
전체	116	100.0

4) 서비스 내용

(1) 중점 프로그램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상담 프로그램’ 이었으며(73개 기관, 57.0%), 그 다음 순이 ‘학업 프로그램’ 이었다(18개 기관, 14.1%). 그리고 세 번째 순이 ‘진로(취업) 역량 프로그램’ 이었다(17개 기관, 13.3%)

표 110. 중점 프로그램 순위 결과(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단위: 센터 수

서비스 내용	빈도	백분율
① 상담 프로그램 : 개인·가족 등 심리적 문제해결	73	57.0%
② 학업 프로그램 : 학업역량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학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18	14.1%
③ 진로(취업)역량 프로그램 : 진로탐색, 인턴십 및 취업 대비 기술향상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17	13.3%
④ 성교육 프로그램	2	1.6%
⑤ 약물중독 프로그램 : 금연, 금주 등 프로그램 등	1	0.8%
⑥ 인터넷 과의존 예방 : 인터넷, 게임 등 관련 프로그램	-	-
⑦ 사회성 향상 : 대인관계, 예절, 인성교육,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10	7.8%
⑧ 경제관리 : 저축, 자산관리, 부동산 계약 등 경제관리 프로그램	-	-
⑨ 문화예술 : 영화, 뮤지컬 등 프로그램	3	2.3%
⑩ 근로권 :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등 프로그램	-	-
⑪ 기타	4	3.1%
전체	128	100.0%

5)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1)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과 협조 정도

청소년안전망 11개 필수 연계기관 간 협조 필요성과 현재 협조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성은 5점 척도 중 대체로 평균 4점 대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자체가 협조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8점). 반면 현재 협조 정도는 대체로 평균 3점대로 필요성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협조 정도는 지자체(평균 4.1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균 3.9점), 청소년복지시설(평균 3.9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11. 유관기관 간 협조 필요성과 협조 정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내용	사례 수	협조 필요성		실제 협조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129	4.8	0.4	4.1	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9	4.1	0.8	3.9	0.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29	4.2	0.8	3.8	0.8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129	4.4	0.7	3.9	0.8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29	4.0	0.8	3.4	0.8
각급학교	129	4.1	0.7	3.4	0.8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129	4.4	0.7	3.7	0.7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9	3.9	0.8	3.4	0.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129	4.4	0.7	3.5	0.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29	3.9	0.9	3.4	0.7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129	4.0	0.8	3.6	0.7

(2) 홍보 수단

웹터가 주로 사용하는 홍보 수단은 홈페이지로 나타났다(전체 114개 웹터, 22.0%). 그 다음 순으로는 소식지(정기간행물)이었다(전체 110개 기관, 21.2%). 따라서 홍보수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2. 씬터 흥보 수단(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내용	빈도	백분율
홈페이지	114	22.0%
블로그	32	6.2%
인터넷 카페	41	7.9%
유튜브	-	-
보도자료	70	13.5%
페이스북	76	14.6%
인스타그램	34	6.6%
밴드	14	2.7%
트위터	3	0.6%
소식지(정기간행물)	110	21.2%
기타	25	4.8%
계	519	100.0%

(3) 청소년안전망 연계의 장애요인

11개 필수연계기관과 연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자 9개의 연계 어려움 요인에 대한 순위를 조사하였다. 대체로 많은 연계 기관에서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이 보고한 어려움은 씬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다만 연계업무를 주로 수행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연계 어려움의 양상에 다소 차이가 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는 연계 시 ‘일정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0.3%, 19.0%). 그 다음 순으로는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나타났다(각각 17.1%, 16.3%). 또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의 경우도 연계협력 장애요소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세 기관 모두 ‘각 기관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이 가장 높았다(각각 21.8%, 16.5%, 19.5%). 그 다음 순으로는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이 높게 나타났다(각각 15.2%, 16.2%, 16.7%).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연계 협력을 자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업무 조정과 각 기관과의 조직 협력에 대한 이해부족, 담당 인력의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보인다. 연계 협력을 자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는 씬터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인다.

표 113. 필수연계 기관 협력 시 장애요인(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기준)

내용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시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쉼터에 대한 이해부족	77	22.6	33	9.6	37	11.1	33	10.0	94	27.4	102	29.9	75	22.2	89	26.7	85	24.6	52	15.5	54	16.4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35	10.3	42	12.2	54	16.2	48	14.5	37	10.8	42	12.3	49	14.5	41	12.3	47	13.6	51	15.2	55	16.7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29	8.5	33	9.6	38	11.4	24	7.3	28	8.2	23	6.7	25	7.4	37	11.1	43	12.5	33	9.9	35	10.6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45	13.2	59	17.1	55	16.5	54	16.3	86	25.1	70	20.5	75	22.2	72	21.6	68	19.7	73	21.8	64	19.5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31	9.1	70	20.3	50	15.0	63	19.0	34	9.9	39	11.4	50	14.8	27	8.1	29	8.4	42	12.5	38	11.6
연계절차의 복잡성	22	6.5	29	8.4	21	6.3	23	6.9	28	8.2	30	8.8	28	8.3	31	9.3	26	7.5	19	5.7	29	8.8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부족	71	20.8	36	10.4	38	11.4	47	14.2	21	6.1	17	5.0	17	5.0	12	3.6	31	9.0	27	8.1	23	7.0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16	4.7	28	8.1	23	6.9	29	8.8	9	2.6	11	3.2	11	3.3	10	3.0	6	1.7	23	6.9	16	4.9
기타	15	4.4	15	4.3	17	5.1	10	3.0	6	1.7	7	2.1	8	2.4	14	4.2	10	2.9	15	4.5	15	4.6
계	341	100	345	100	333	100	331	100	343	100	341	100.0	338	100	333	100.0	345	100	335	100	329	100

다. 쉽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1) 종사자 현황

쉽터 종사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쉽터 내 종사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등의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총 646명으로 남자 260명(40.2%), 여자 386명(59.8%)이었다. 단기·중장기 쉽터에 종사하는 조사 대상자는 465명(72.0%)이었고,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쉽터에 종사하는 조사 대상자는 각각 115명(17.8%)과 66명(10.2%)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기와 서울에 각각 169명(26.2%)과 91명(14.1%)으로 10% 이상이 분포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 약 2% ~ 5%의 조사대상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36.97세(표준편차 10.48)였다.

표 114. 성별, 쉽터유형, 지역에 따른 조사 대상자 수(%)와 평균 연령(표준편차)(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빈도(%)	평균 연령(표준편차)
전체		646(100.0%)	36.97(10.48)
성별	남자	260(40.2%)	35.27(9.51)
	여자	386(59.8%)	38.11(10.95)
쉽터유형	일시이동형	66(10.2%)	34.97(10.01)
	고정형	115(17.8%)	34.78(9.69)
	단기·중장기	465(72.0%)	37.79(10.64)
지역	강원	25(3.9%)	34.08(10.13)
	경기	169(26.2%)	37.38(10.53)
	경남	16(2.5%)	34.69(8.70)
	경북	13(2.0%)	38.69(11.97)
	광주	28(4.3%)	30.68(7.83)
	대구	22(3.4%)	37.59(7.76)
	대전	33(5.1%)	37.64(11.12)
	부산	35(5.4%)	34.06(9.65)
	서울	91(14.1%)	36.86(11.07)
	울산	30(4.6%)	36.23(9.02)
	인천	52(8.0%)	31.96(7.92)
	전남	18(2.8%)	47.22(9.28)
	전북	14(2.2%)	38.93(9.38)
	제주	37(5.7%)	39.84(10.56)
	충남	29(4.5%)	40.62(12.13)
	충북	34(5.3%)	40.74(10.03)

조사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388명(60.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석사 147명(22.8%), 2년제 대학교 66명(10.2%), 기타 18명(2.8%), 고등학교 14명(2.2%), 대학원 박사 13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전공은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청소년교육, 청소년학, 아동청소년상담학, 교육학 등이 다수였으며, 신학, 행정학, 평생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15. 성별, 웹터 유형, 지역에 따른 최종학력(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고등학교	2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기타	전체
전체		14(2.2%)	66(10.2%)	388(60.1%)	147(22.8%)	13(2.0%)	18(2.8%)	646(100.0%)
성별	남자	5(1.9%)	19(7.3%)	160(61.5%)	63(24.2%)	5(1.9%)	8(3.1%)	260(100.0%)
	여자	9(2.3%)	47(12.2%)	228(59.1%)	84(21.8%)	8(2.1%)	10(2.6%)	386(100.0%)
웹터 유형	일시이동형	1(1.5%)	7(10.6%)	44(66.7%)	10(15.2%)	2(3.0%)	2(3.0%)	66(100.0%)
	고정형	1(1.9%)	14(12.2%)	69(60.0%)	24(20.9%)	2(1.7%)	5(4.3%)	115(100.0%)
	단기·중장기	12(2.6%)	45(9.7%)	275(59.1%)	113(24.3%)	9(1.9%)	11(2.4%)	465(100.0%)
지역	강원	0(0.0%)	8(32.0%)	14(56.0%)	2(8.0%)	0(0.0%)	1(4.0%)	25(100.0%)
	경기	5(3.0%)	23(13.6%)	98(58.0%)	36(21.3%)	4(2.4%)	3(1.8%)	169(100.0%)
	경남	0(0.0%)	2(12.5%)	12(75.0%)	2(12.5%)	0(0.0%)	0(0.0%)	16(100.0%)
	경북	0(0.0%)	3(23.1%)	5(38.5%)	4(30.8%)	0(0.0%)	1(7.7%)	13(100.0%)
	광주	1(3.6%)	1(3.6%)	23(82.1%)	3(10.7%)	0(0.0%)	0(0.0%)	28(100.0%)
	대구	0(0.0%)	1(4.5%)	13(59.1%)	5(22.7%)	1(4.5%)	2(9.1%)	22(100.0%)
	대전	1(3.0%)	1(3.0%)	21(63.6%)	8(24.2%)	2(6.1%)	0(0.0%)	33(100.0%)
	부산	1(2.9%)	1(2.9%)	20(57.1%)	12(34.3%)	1(2.9%)	0(0.0%)	35(100.0%)
	서울	2(2.2%)	4(4.4%)	52(57.1%)	26(28.6%)	1(1.1%)	6(6.6%)	91(100.0%)
	울산	0(0.0%)	1(3.3%)	17(56.7%)	10(33.3%)	1(3.3%)	1(3.3%)	30(100.0%)
	인천	0(0.0%)	6(11.5%)	37(71.2%)	9(17.3%)	0(0.0%)	0(0.0%)	52(100.0%)
	전남	2(11.1%)	1(5.6%)	11(61.1%)	4(22.2%)	0(0.0%)	0(0.0%)	18(100.0%)
	전북	0(0.0%)	0(0.0%)	7(50.0%)	7(50.0%)	0(0.0%)	0(0.0%)	14(100.0%)
	제주	0(0.0%)	6(16.2%)	21(56.8%)	6(16.2%)	2(5.4%)	2(5.4%)	37(100.0%)
	충남	2(6.9%)	5(17.2%)	16(55.2%)	5(17.2%)	1(3.4%)	0(0.0%)	29(100.0%)
	충북	0(0.0%)	3(8.8%)	21(61.8%)	8(23.5%)	0(0.0%)	2(5.9%)	34(100.0%)

조사 대상자들의 직위는 팀원(일반 종사자)이 467명(72.3%)로 가장 많았고, 팀장/부장이 89명(13.8%), 시설장이 64명(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 0%~15.4%의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기타에는 야간보호상담원, 야간생활지도사, 조리사, 행정원 등이 포함되었다.

표 116.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직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시설장	팀장/부장	팀원(일반 종사자)	기타	전체
전체		64(9.9%)	89(13.8%)	467(72.3%)	26(4.0%)	646(100.0%)
성별	남자	27(10.4%)	39(15.0%)	186(71.5%)	8(3.1%)	260(100.0%)
	여자	37(9.6%)	50(13.0%)	281(72.8%)	18(4.7%)	386(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7(10.6%)	7(10.6%)	52(78.8%)	0(0.0%)	66(100.0%)
	고정형	9(7.8%)	17(14.8%)	84(73.0%)	5(4.3%)	115(100.0%)
	단기·중장기	48(10.3%)	65(14.0%)	331(71.2%)	21(4.5%)	465(100.0%)
지역	강원	1(4.0%)	3(12.0%)	21(84.0%)	0(0.0%)	25(100.0%)
	경기	16(9.5%)	24(14.2%)	117(69.2%)	12(7.1%)	169(100.0%)
	경남	2(12.5%)	4(25.0%)	10(62.5%)	0(0.0%)	16(100.0%)
	경북	3(23.1%)	1(7.7%)	7(53.8%)	2(15.4%)	13(100.0%)
	광주	1(3.6%)	1(3.6%)	26(92.9%)	0(0.0%)	28(100.0%)
	대구	2(9.1%)	4(18.2%)	16(72.7%)	0(0.0%)	22(100.0%)
	대전	4(12.1%)	4(12.1%)	24(72.7%)	1(3.0%)	33(100.0%)
	부산	3(8.6%)	3(8.6%)	28(80.0%)	1(2.9%)	35(100.0%)
	서울	10(11.0%)	16(17.6%)	64(70.3%)	1(1.1%)	91(100.0%)
	울산	4(13.3%)	3(10.0%)	23(76.7%)	0(0.0%)	30(100.0%)
	인천	3(5.8%)	4(7.7%)	41(78.8%)	4(7.7%)	52(100.0%)
	전남	3(16.7%)	4(22.2%)	10(55.6%)	1(5.6%)	18(100.0%)
	전북	1(7.1%)	2(14.3%)	11(78.6%)	0(0.0%)	14(100.0%)
	제주	4(10.8%)	6(16.2%)	27(73.0%)	0(0.0%)	37(100.0%)
	충남	3(10.3%)	4(13.8%)	19(65.5%)	3(10.3%)	29(100.0%)
	충북	4(11.8%)	6(17.6%)	23(67.6%)	1(2.9%)	34(100.0%)

조사 대상자들의 근로형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514명(79.6%)으로 대부분이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130명(20.1%), 기타 2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표 11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근로형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전체
전체		514(79.6%)	130(20.1%)	2(.3%)	646(100.0%)
성별	남자	202(77.7%)	57(21.9%)	1(.4%)	260(100.0%)
	여자	312(80.8%)	73(18.9%)	1(.3%)	386(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50(75.8%)	15(22.7%)	1(1.5%)	66(100.0%)
	고정형	87(75.7%)	28(24.3%)	0(0.0%)	115(100.0%)
	단기·중장기	377(81.1%)	87(18.7%)	1(.2%)	465(100.0%)
지역	강원	13(52.0%)	12(48.0%)	0(0.0%)	25(100.0%)
	경기	127(75.1%)	42(24.9%)	0(0.0%)	169(100.0%)
	경남	16(100.0%)	0(0.0%)	0(0.0%)	16(100.0%)
	경북	11(84.6%)	2(15.4%)	0(0.0%)	13(100.0%)
	광주	22(78.6%)	6(21.4%)	0(0.0%)	28(100.0%)
	대구	18(81.8%)	4(18.2%)	0(0.0%)	22(100.0%)
	대전	32(97.0%)	1(3.0%)	0(0.0%)	33(100.0%)
	부산	28(80.0%)	7(20.0%)	0(0.0%)	35(100.0%)
	서울	71(78.0%)	20(22.0%)	0(0.0%)	91(100.0%)
	울산	28(93.3%)	2(6.7%)	0(0.0%)	30(100.0%)
	인천	42(80.8%)	10(19.2%)	0(0.0%)	52(100.0%)
	전남	14(77.8%)	4(22.2%)	0(0.0%)	18(100.0%)
	전북	11(78.6%)	3(21.4%)	0(0.0%)	14(100.0%)
	제주	33(89.2%)	4(10.8%)	0(0.0%)	37(100.0%)
	충남	23(79.3%)	5(17.2%)	1(3.4%)	29(100.0%)
	충북	25(73.5%)	8(23.5%)	1(2.9%)	34(100.0%)

조사 대상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직종은 보호상담원이 34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보호상담원이 91명(14.1%), 행정원이 67명(10.4%), 거리상담전문요원이 52명(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보호상담원, 야간보호상담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이었으며, 일시이동형 컴퓨터의 경우 거리상담전문요원과 보호상담원의 비율이 모두 36.4%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거리상담전문요원의 비율이 다른 컴퓨터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표 118.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근로계약서상 직종(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시설장	보호상담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야간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조리원	기타	전체
전체		64(9.9%)	344(53.3%)	52(8.0%)	91(14.1%)	0(0.0%)	67(10.4%)	9(1.4%)	19(2.9%)	646(100.0%)
성별	남자	27(10.4%)	132(50.8%)	27(10.4%)	47(18.1%)	0(0.0%)	17(6.5%)	1(.4%)	9(3.5%)	260(100.0%)
	여자	37(9.6%)	212(54.9%)	25(6.5%)	44(11.4%)	0(0.0%)	50(13.0%)	8(2.1%)	10(2.6%)	386(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7(10.6%)	24(36.4%)	24(36.4%)	4(6.1%)	0(0.0%)	5(7.6%)	0(0.0%)	2(3.0%)	66(100.0%)
	고정형	9(7.8%)	52(45.2%)	24(20.9%)	18(15.7%)	0(0.0%)	7(6.1%)	1(.9%)	4(3.5%)	115(100.0%)
	단기·중장기	48(10.3%)	268(57.6%)	4(.9%)	69(14.8%)	0(0.0%)	55(11.8%)	8(1.7%)	13(2.8%)	465(100.0%)
지역	강원	1(4.0%)	18(72.0%)	5(20.0%)	0(0.0%)	0(0.0%)	1(4.0%)	0(0.0%)	0(0.0%)	25(100.0%)
	경기	16(9.5%)	82(48.5%)	13(7.7%)	34(20.1%)	0(0.0%)	19(11.2%)	3(1.8%)	2(1.2%)	169(100.0%)
	경남	2(12.5%)	12(75.0%)	0(0.0%)	1(6.3%)	0(0.0%)	1(6.3%)	0(0.0%)	0(0.0%)	16(100.0%)
	경북	3(23.1%)	8(61.5%)	0(0.0%)	0(0.0%)	0(0.0%)	1(7.7%)	0(0.0%)	1(7.7%)	13(100.0%)
	광주	1(3.6%)	20(71.4%)	2(7.1%)	3(10.7%)	0(0.0%)	1(3.6%)	1(3.6%)	0(0.0%)	28(100.0%)
	대구	2(9.1%)	17(77.3%)	3(13.6%)	0(0.0%)	0(0.0%)	0(0.0%)	0(0.0%)	0(0.0%)	22(100.0%)
	대전	4(12.1%)	17(51.5%)	3(9.1%)	6(18.2%)	0(0.0%)	2(6.1%)	1(3.0%)	0(0.0%)	33(100.0%)
	부산	3(8.6%)	19(54.3%)	2(5.7%)	8(22.9%)	0(0.0%)	3(8.6%)	0(0.0%)	0(0.0%)	35(100.0%)

구분	범주	시설장	보호상담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야간보호 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조리원	기타	전체
	서울	10(11.0%)	39(42.9%)	5(5.5%)	12(13.2%)	0(0.0%)	11(12.1%)	1(1.1%)	13(14.3%)	91(100.0%)
	울산	4(13.3%)	12(40.0%)	3(10.0%)	5(16.7%)	0(0.0%)	4(13.3%)	0(0.0%)	2(6.7%)	30(100.0%)
	인천	3(5.8%)	29(55.8%)	4(7.7%)	6(11.5%)	0(0.0%)	9(17.3%)	0(0.0%)	1(1.9%)	52(100.0%)
	전남	3(16.7%)	9(50.0%)	0(0.0%)	0(0.0%)	0(0.0%)	4(22.2%)	2(11.1%)	0(0.0%)	18(100.0%)
	전북	1(7.1%)	9(64.3%)	1(7.1%)	3(21.4%)	0(0.0%)	0(0.0%)	0(0.0%)	0(0.0%)	14(100.0%)
	제주	4(10.8%)	18(48.6%)	7(18.9%)	4(10.8%)	0(0.0%)	4(10.8%)	0(0.0%)	0(0.0%)	37(100.0%)
	충남	3(10.3%)	16(55.2%)	0(0.0%)	6(20.7%)	0(0.0%)	3(10.3%)	1(3.4%)	0(0.0%)	29(100.0%)
	충북	4(11.8%)	19(55.9%)	4(11.8%)	3(8.8%)	0(0.0%)	4(11.8%)	0(0.0%)	0(0.0%)	34(100.0%)

조사 대상자들의 실제 수행업무에 대한 응답은 보호상담이 453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228건(19.4%), 야간보호가 166건(14.1%), 거리상담이 119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표 119.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실제 수행업무(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시설총괄	보호상담	거리상담	야간보호	행정	조리	기타	전체
전체		103(8.8%)	435(37.0%)	119(10.1%)	166(14.1%)	228(19.4%)	63(5.4%)	62(5.3%)	1176(100.0%)
성별	남자	47(9.2%)	175(34.2%)	60(11.7%)	87(17.0%)	93(18.2%)	20(3.9%)	30(5.9%)	512(100.0%)
	여자	56(8.4%)	260(39.2%)	59(8.9%)	79(11.9%)	135(20.3%)	43(6.5%)	32(4.8%)	664(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8(6.8%)	36(30.5%)	39(33.1%)	6(5.1%)	23(19.5%)	0(0.0%)	6(5.1%)	118(100.0%)
	고정형	20(9.3%)	74(34.4%)	32(14.9%)	29(13.5%)	33(15.3%)	11(5.1%)	16(7.4%)	215(100.0%)
	단기·중장기	75(8.9%)	325(38.6%)	48(5.7%)	131(15.5%)	172(20.4%)	52(6.2%)	40(4.7%)	843(100.0%)
지역	강원	2(4.9%)	21(51.2%)	8(19.5%)	1(2.4%)	8(19.5%)	0(0.0%)	1(2.4%)	41(100.0%)
	경기	29(9.7%)	102(34.2%)	31(10.4%)	44(14.8%)	53(17.8%)	17(5.7%)	22(7.4%)	298(100.0%)
	경남	2(6.7%)	14(46.7%)	1(3.3%)	3(10.0%)	9(30.0%)	1(3.3%)	0(0.0%)	30(100.0%)
	경북	4(14.8%)	9(33.3%)	1(3.7%)	2(7.4%)	4(14.8%)	2(7.4%)	5(18.5%)	27(100.0%)
	광주	3(4.5%)	23(34.3%)	4(6.0%)	11(16.4%)	17(25.4%)	9(13.4%)	0(0.0%)	67(100.0%)
	대구	5(9.8%)	17(33.3%)	9(17.6%)	5(9.8%)	11(21.6%)	4(7.8%)	0(0.0%)	51(100.0%)
	대전	6(9.5%)	24(38.1%)	4(6.3%)	8(12.7%)	14(22.2%)	5(7.9%)	2(3.2%)	63(100.0%)
	부산	4(5.8%)	28(40.6%)	10(14.5%)	12(17.4%)	11(15.9%)	2(2.9%)	2(2.9%)	69(100.0%)
	서울	16(10.0%)	52(32.5%)	18(11.3%)	26(16.3%)	29(18.1%)	7(4.4%)	12(7.5%)	160(100.0%)
	울산	6(11.8%)	16(31.4%)	4(7.8%)	9(17.6%)	12(23.5%)	2(3.9%)	2(3.9%)	51(100.0%)
	인천	8(7.3%)	44(40.0%)	6(5.5%)	22(20.0%)	19(17.3%)	4(3.6%)	7(6.4%)	110(100.0%)
	전남	3(14.3%)	11(52.4%)	0(0.0%)	0(0.0%)	5(23.8%)	2(9.5%)	0(0.0%)	21(100.0%)
	전북	1(5.0%)	9(45.0%)	1(5.0%)	4(20.0%)	3(15.0%)	0(0.0%)	2(10.0%)	20(100.0%)
	제주	6(8.7%)	23(33.3%)	12(17.4%)	8(11.6%)	14(20.3%)	3(4.3%)	3(4.3%)	69(100.0%)
	충남	3(7.1%)	16(38.1%)	2(4.8%)	6(14.3%)	11(26.2%)	3(7.1%)	1(2.4%)	42(100.0%)
	충북	5(8.8%)	26(45.6%)	8(14.0%)	5(8.8%)	8(14.0%)	2(3.5%)	3(5.3%)	57(100.0%)

조사 대상자들의 근무 경력은 평균 48.48개월(표준편차 63.21)로 나타났으며, 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지만 강원 지역의 평균 근무 경력은 17.46개월(17.82)로 가장 짧았고, 서울이 60.39개월(59.93)로 가장 길었다.

표 120.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근무 경력(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근무 경력(개월 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48.48(63.21)
성별	남자	47.32(46.48)
	여자	49.26(72.38)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39.07(44.57)
	고정형	45.80(45.21)
	단기·중장기	50.47(68.95)
지역	강원	17.46(17.82)
	경기	56.04(78.44)
	경남	36.69(38.29)
	경북	40.77(31.88)
	광주	29.29(27.33)
	대구	27.32(22.89)
	대전	52.76(50.87)
	부산	47.17(54.05)
	서울	60.39(59.93)
	울산	54.87(128.74)
	인천	38.42(39.32)
	전남	49.72(49.35)
	전북	47.07(51.22)
	제주	57.74(58.43)
	충남	35.52(42.72)
	충북	47.59(46.32)

조사 대상자들이 소지한 자격증에 대한 응답은 사회복지사가 508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지도사가 237건(21.8%), 청소년상담사 135건(12.4%), 기타 11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건강가정사, 미술심리치료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121.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자격증(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교원자격증	기타	없음	전체
전체		508(46.7%)	135(12.4%)	237(21.8%)	16(1.5%)	51(4.7%)	116(10.7%)	24(2.2%)	1087(100.0%)
성별	남자	209(52.3%)	30(7.5%)	94(23.5%)	3(8.8%)	17(4.3%)	36(9.0%)	11(2.8%)	400(100.0%)
	여자	299(43.5%)	105(15.3%)	143(20.8%)	13(1.9%)	34(4.9%)	80(11.6%)	13(1.9%)	687(100.0%)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53(47.7%)	12(10.8%)	27(24.3%)	0(0.0%)	5(4.5%)	9(8.1%)	5(4.5%)	111(100.0%)
	고정형	89(47.6%)	28(15.0%)	49(26.2%)	2(1.1%)	4(2.1%)	11(5.9%)	4(2.1%)	187(100.0%)
	단기·중장기	366(46.4%)	95(12.0%)	161(20.4%)	14(1.8%)	42(5.3%)	96(12.2%)	15(1.9%)	789(100.0%)
지역	강원	23(54.8%)	2(4.8%)	9(21.4%)	0(0.0%)	3(7.1%)	4(9.5%)	1(2.4%)	42(100.0%)
	경기	135(46.6%)	41(14.1%)	59(20.3%)	3(1.0%)	14(4.8%)	31(10.7%)	7(2.4%)	290(100.0%)
	경남	13(44.8%)	5(17.2%)	5(17.2%)	0(0.0%)	1(3.4%)	5(17.2%)	0(0.0%)	29(100.0%)
	경북	7(30.4%)	3(13.0%)	8(34.8%)	0(0.0%)	2(8.7%)	2(8.7%)	1(4.3%)	23(100.0%)
	광주	17(40.5%)	8(19.0%)	8(19.0%)	2(4.8%)	2(4.8%)	3(7.1%)	2(4.8%)	42(100.0%)
	대구	15(46.9%)	3(9.4%)	5(15.6%)	1(3.1%)	0(0.0%)	7(21.9%)	1(3.1%)	32(100.0%)
	대전	27(45.8%)	7(11.9%)	9(15.3%)	0(0.0%)	4(6.8%)	12(20.3%)	0(0.0%)	59(100.0%)
	부산	27(40.9%)	12(18.2%)	11(16.7%)	1(1.5%)	6(9.1%)	9(13.6%)	0(0.0%)	66(100.0%)
	서울	65(40.6%)	17(10.6%)	52(32.5%)	2(1.3%)	6(3.8%)	13(8.1%)	5(3.1%)	160(100.0%)
	울산	22(42.3%)	9(17.3%)	12(23.1%)	0(0.0%)	4(7.7%)	3(5.8%)	2(3.8%)	52(100.0%)
	인천	46(55.4%)	7(8.4%)	21(25.3%)	1(1.2%)	2(2.4%)	6(7.2%)	0(0.0%)	83(100.0%)
	전남	13(48.1%)	5(18.5%)	7(25.9%)	0(0.0%)	0(0.0%)	2(7.4%)	0(0.0%)	27(100.0%)
	전북	12(66.7%)	1(5.6%)	3(16.7%)	0(0.0%)	0(0.0%)	1(5.6%)	1(5.6%)	18(100.0%)
	제주	35(52.2%)	6(9.0%)	17(25.4%)	2(3.0%)	1(1.5%)	5(7.5%)	1(1.5%)	67(100.0%)
	충남	23(60.5%)	2(5.3%)	3(7.9%)	1(2.6%)	2(5.3%)	5(13.2%)	2(5.3%)	38(100.0%)
	충북	28(47.5%)	7(11.9%)	8(13.6%)	3(5.1%)	4(6.8%)	8(13.6%)	1(1.7%)	59(100.0%)

조사 대상자들의 연봉은 평균 2859.11만원(표준편차 76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 종사자의 연봉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고, 서울과 제주 지역의 연봉이 다른 지역 연봉과 비교했을 때 3000만원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122.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연봉 평균(표준편차)(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단위: 만원

구분	범주	연봉 평균(표준편차)
전체		2859.11(764.07)
성별	남자	2957.22(818.49)
	여자	2785.96(713.56)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2899.64(866.01)
	고정형	2839.72(623.49)
	단기·종장기	2857.98(783.66)
지역	강원	2330.82(433.13)
	경기	2965.53(705.12)
	경남	2808.80(528.87)
	경북	2814.50(746.73)
	광주	2366.63(299.56)
	대구	2630.67(582.74)
	대전	2757.17(690.49)
	부산	2607.31(520.87)
	서울	3431.90(1081.83)
	울산	2900.41(728.54)
	인천	2820.68(623.85)
	전남	2279.64(424.67)
	전북	2288.03(280.05)
	제주	3175.94(611.52)
	충남	2391.15(373.30)
	충북	2610.12(530.44)

조사 대상자들의 실제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0.07시간(표준편차 26.92)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균 근로시간의 개인차는 컸지만 충남 지역의 평균 근로시간이 29.24시간(28.23)으로 가장 짧았고, 제주 지역의 평균 근로시간이 52.32시간(38.75)으로 가장 길었다.

표 123. 성별, 심터유형, 지역에 따른 실제 평균 근로시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실제 주당 평균 근로시간((표준편차)
전체		40.07(26.92)
성별	남자	41.88(33.78)
	여자	38.86(21.04)
심터유형	일시이동형	38.52(12.38)
	고정형	39.40(24.61)
	단기·중장기	40.46(28.92)
지역	강원	34.34(20.51)
	경기	43.13(37.38)
	경남	39.69(13.36)
	경북	37.50(15.83)
	광주	34.25(15.13)
	대구	40.18(9.41)
	대전	34.73(22.00)
	부산	39.30(25.43)
	서울	38.09(16.36)
	울산	41.90(28.73)
	인천	42.26(14.43)
	전남	31.61(17.42)
	전북	39.21(9.28)
	제주	52.32(38.75)
	충남	29.24(19.45)
	충북	42.06(28.23)

조사 대상자들의 평가 및 인사제도, 복지에 관한 만족도(5점 만점)는 채용/임용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평균 3.9점(0.9)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었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균 2.9점(1.2)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불만족한다고 할 수 있었다. 자기계발 및 업무역량개발 기회 제공과 승진/재계약 기회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3점(1.1)과 3.2점(1.1)으로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평균 2.8점(1.2)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불만족한다고 할 수 있었다.

표 124. 성별, 심터유형, 지역에 따른 종사자 평가 및 인사제도, 복지에 대한 만족도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채용/임용기준과 절차	인센티브	자기계발 및 업무역량개발 기회제공	승진/재계약 기회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전체		3.9(0.9)	2.9(1.2)	3.3(1.1)	3.2(1.1)	2.8(1.2)
성별	남자	4.2(0.8)	3.1(1.2)	3.6(1.0)	3.4(1.1)	3.1(1.3)
	여자	3.7(0.9)	2.7(1.1)	3.2(1.1)	3.0(1.0)	2.6(1.1)
심터유형	일시이동형	3.8(0.9)	2.7(1.2)	3.2(1.1)	2.8(1.1)	2.5(1.1)
	고정형	4.0(0.8)	2.8(1.1)	3.3(1.0)	3.1(1.1)	2.8(1.2)
	단기·중장기	3.9(0.9)	2.9(1.2)	3.4(1.1)	3.3(1.1)	2.9(1.2)
지역	강원	3.8(0.9)	2.6(1.3)	3.1(1.3)	3.2(1.3)	2.6(1.3)
	경기	3.9(0.9)	3.0(1.2)	3.4(1.1)	3.2(1.1)	3.0(1.2)
	경남	4.4(0.6)	3.5(1.0)	3.9(0.9)	4.1(1.1)	3.4(1.0)
	경북	4.2(0.8)	2.9(0.9)	3.5(1.1)	3.4(1.0)	2.6(1.1)
	광주	3.7(1.0)	2.4(1.0)	2.9(0.9)	2.8(1.1)	2.4(0.9)
	대구	3.8(1.0)	3.0(1.3)	3.4(1.0)	3.1(1.2)	2.9(1.2)
	대전	3.8(0.9)	2.5(1.1)	3.2(1.2)	2.8(1.1)	1.8(1.0)
	부산	3.8(0.8)	2.5(1.1)	3.1(1.0)	3.0(1.2)	2.6(1.2)
	서울	4.0(0.8)	3.0(1.1)	3.5(1.1)	3.1(1.1)	2.9(1.2)
	울산	3.8(0.9)	2.6(0.9)	3.2(0.8)	3.4(0.6)	2.4(1.1)
	인천	4.1(0.9)	3.2(1.2)	3.5(1.1)	3.5(1.0)	3.3(1.1)
	전남	3.8(0.8)	2.4(1.1)	2.9(0.9)	3.1(1.0)	2.1(1.0)
	전북	3.6(1.2)	1.9(1.3)	2.8(1.6)	2.8(1.5)	1.9(1.3)
	제주	4.0(1.0)	3.0(1.0)	3.5(0.9)	3.4(1.0)	3.1(1.1)
	충남	3.9(0.8)	3.4(1.0)	3.7(0.9)	3.7(0.9)	3.4(0.9)
	충북	3.9(0.8)	2.8(1.1)	3.3(1.0)	3.2(0.9)	2.6(1.1)

조사 대상자들의 쉼터에 종사하면서 힘든 점에 대한 응답은 낮은 보수가 417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입소/이용 청소년의 거친 행동 및 자해 등 돌발상황이 220건(18.2%), 부족한 인력이 202건(16.7%), 과도한 업무 및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절차가 153건(12.6%), 열악한 근무환경이 123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쉼터 종사하면서 힘든 점(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낮은 보수	부족한 인력	근무환경(사무환경)이 열악함	과도한 업무 및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절차	입소/이용 청소년의 거친 행동 및 자해 등 돌발 상황	부모 등 보호자의 거친 민원	기타	전체
전체		417(34.4%)	202(16.7%)	123(10.1%)	153(12.6%)	220(18.2%)	64(5.3%)	33(2.7%)	1212(100.0%)
성별	남자	171(35.6%)	89(18.5%)	51(10.6%)	47(9.8%)	77(16.0%)	29(6.0%)	17(3.5%)	481(100.0%)
	여자	246(33.7%)	113(15.5%)	72(9.8%)	106(14.5%)	143(19.6%)	35(4.8%)	16(2.2%)	731(100.0%)
쉼터 유형	일시이동형	47(40.2%)	20(17.1%)	19(16.2%)	22(18.8%)	3(2.6%)	3(2.6%)	3(2.6%)	117(100.0%)
	고정형	83(38.1%)	34(15.6%)	21(9.6%)	19(8.7%)	47(21.6%)	9(4.1%)	5(2.3%)	218(100.0%)
	단기·중장기	287(32.7%)	148(16.9%)	83(9.5%)	112(12.8%)	170(19.4%)	52(5.9%)	25(2.9%)	877(100.0%)
지역	강원	19(41.3%)	10(21.7%)	3(6.5%)	2(4.3%)	9(19.6%)	1(2.2%)	2(4.3%)	46(100.0%)
	경기	96(30.1%)	54(16.9%)	29(9.1%)	38(11.9%)	56(17.6%)	31(9.7%)	15(4.7%)	319(100.0%)
	경남	5(17.2%)	3(10.3%)	7(24.1%)	6(20.7%)	8(27.6%)	0(0.0%)	0(0.0%)	29(100.0%)
	경북	9(36.0%)	0(0.0%)	2(8.0%)	1(4.0%)	11(44.0%)	0(0.0%)	2(8.0%)	25(100.0%)
	광주	23(44.2%)	4(7.7%)	7(13.5%)	9(17.3%)	6(11.5%)	1(1.9%)	2(3.8%)	52(100.0%)
	대구	17(40.5%)	8(19.0%)	7(16.7%)	5(11.9%)	3(7.1%)	2(4.8%)	0(0.0%)	42(100.0%)
	대전	27(42.2%)	11(17.2%)	10(15.6%)	6(9.4%)	6(9.4%)	4(6.3%)	0(0.0%)	64(100.0%)
	부산	23(33.8%)	15(22.1%)	5(7.4%)	16(23.5%)	7(10.3%)	0(0.0%)	2(2.9%)	68(100.0%)

구분	범주	낮은 보수	부족한 인력	근무환경(사무환경)이 열악함	과도한 업무 및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절차	입소/이용 청소년의 거친 행동 및 자해 등 돌발 상황	부모 등 보호자의 거친 민원	기타	전체
	서울	54(31.2%)	38(22.0%)	19(11.0%)	15(8.7%)	36(20.8%)	8(4.6%)	3(1.7%)	173(100.0%)
	울산	24(41.4%)	10(17.2%)	6(10.3%)	11(19.0%)	4(6.9%)	2(3.4%)	1(1.7%)	58(100.0%)
	인천	35(35.7%)	17(17.3%)	10(10.2%)	8(8.2%)	22(22.4%)	4(4.1%)	2(2.0%)	98(100.0%)
	전남	17(51.5%)	1(3.0%)	4(12.1%)	4(12.1%)	3(9.1%)	2(6.1%)	2(6.1%)	33(100.0%)
	전북	13(52.0%)	1(4.0%)	1(4.0%)	3(12.0%)	6(24.0%)	0(0.0%)	1(4.0%)	25(100.0%)
	제주	14(21.2%)	12(18.2%)	3(4.5%)	18(27.3%)	16(24.2%)	3(4.5%)	0(0.0%)	66(100.0%)
	충남	18(35.3%)	8(15.7%)	6(11.8%)	4(7.8%)	12(23.5%)	3(5.9%)	0(0.0%)	51(100.0%)
	충북	23(36.5%)	10(15.9%)	4(6.3%)	7(11.1%)	15(23.8%)	3(4.8%)	1(1.6%)	63(100.0%)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소속 쉼터의 지역사회 인지도는 ‘내가 근무하는 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와 ‘내가 근무하는 쉼터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의 문항 각각에 대한 평균이 3.8점(0.8)과 3.9점(0.9)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쉼터가 지역사회에서 보통수준 이상의 좋은 평판과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표 126.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소속 쉼터의 지역사회 인지도(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내가 근무하는 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쉼터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전체		3.8(0.8)	3.9(0.9)
성별	남자	4.0(0.9)	4.0(0.9)
	여자	3.7(0.8)	3.9(0.8)
쉼터유형	일시이동형	3.8(0.9)	3.8(0.8)
	고정형	3.8(0.8)	4.0(0.9)
	단기·증장기	3.8(0.8)	3.9(0.8)
지역	강원	3.8(0.9)	4.1(0.9)
	경기	3.8(0.8)	4.0(0.8)
	경남	3.9(0.8)	4.2(0.8)
	경북	3.9(0.6)	3.9(0.6)
	광주	3.7(0.9)	3.8(0.8)
	대구	3.8(1.0)	3.9(0.9)
	대전	3.6(0.9)	3.8(0.8)
	부산	3.8(0.9)	3.9(0.9)
	서울	3.7(0.9)	3.6(1.0)
	울산	3.9(0.6)	3.9(0.9)
	인천	3.8(0.9)	3.9(0.9)
	전남	3.8(0.9)	3.9(1.0)
	전북	3.9(1.2)	4.1(0.9)
	제주	4.1(0.8)	4.0(0.8)
	충남	4.0(0.6)	4.2(0.6)
	충북	4.0(0.7)	4.1(0.7)

조사 대상자들의 업무만족도는 자신의 업무와 경력, 전공 및 역량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평균 3.8점(0.8), 자신의 업무 관련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는 3.9점(0.8),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3.9점(0.9), 종사하는 컴퓨터의 업무 및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3.7점(1.0)으로 모든 범주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표 12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업무만족도 평균(표준편차)(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업무 적합성	의사결정 참여	소통	조직문화
전체		3.8(0.8)	3.9(0.8)	3.9(0.9)	3.7(1.0)
성별	남자	3.9(0.8)	4.1(0.8)	3.9(0.9)	3.8(1.0)
	여자	3.7(0.8)	3.8(0.8)	3.8(0.8)	3.6(0.9)
컴퓨터유형	일시이동형	3.8(0.7)	3.9(0.8)	3.6(1.0)	3.4(1.1)
	고정형	3.8(0.8)	3.9(0.9)	3.7(1.0)	3.6(1.0)
	단기·중장기	3.8(0.8)	3.9(0.8)	3.9(0.8)	3.8(0.9)
지역	강원	4.1(0.7)	4.1(0.9)	4.1(0.8)	3.8(1.0)
	경기	3.8(0.8)	4.0(0.8)	3.9(0.9)	3.7(1.0)
	경남	4.3(0.6)	4.2(0.8)	4.2(0.8)	4.0(1.0)
	경북	3.8(0.7)	4.2(0.7)	4.0(0.7)	3.8(0.8)
	광주	3.8(0.7)	3.9(0.8)	3.7(0.9)	3.6(1.1)
	대구	3.6(0.9)	4.1(0.7)	4.2(0.7)	3.8(1.0)
	대전	3.4(1.0)	3.6(1.0)	3.7(1.0)	3.4(1.1)
	부산	3.7(0.7)	3.8(0.7)	3.7(0.8)	3.5(0.9)
	서울	3.8(0.9)	3.9(0.9)	3.7(1.1)	3.6(1.1)
	울산	3.6(0.9)	3.9(0.7)	3.7(0.8)	3.5(0.9)
	인천	3.8(0.8)	4.0(0.7)	4.0(0.7)	4.0(0.7)
	전남	3.8(0.6)	3.9(0.8)	3.8(0.6)	3.7(0.7)
	전북	3.7(0.9)	3.9(1.1)	3.6(1.0)	3.6(1.1)
	제주	3.8(0.7)	3.9(0.6)	3.8(0.8)	3.6(0.9)
	충남	3.8(0.7)	3.9(0.8)	3.8(1.0)	3.8(0.8)
	충북	3.8(0.6)	3.8(0.9)	3.9(0.9)	3.6(1.0)

2)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쉼터이용 청소년 실태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입소전 생활지는 친구 또는 선후배집이 69.7%로 가장 많았고, PC방, 만화방, 무인빨래방, 인형뽑기방, 찜질방, 24시간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8.7%, 기타 5.3%, 여관·모텔·여인숙등이 4.7%,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사내, 놀이터·공원, 아파트등 건물내 계단, 쇼핑몰내, 옥상, 지하실 등이 4.2%, 친척집이 3.6%, SNS 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이 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128. 성별, 쉼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청소년들의 입소전 생활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집	SNS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친척집	PC방,만화방,무인 빨래방,인형뽑기 방,찜질방,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여관·모텔·여 인숙 등	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내,놀이터·공 원,아파트등건물내 계단,쇼핑몰내,옥 상,지하실등	교회,성당, 절 등 종교시설	기타	전체
전체		448 (69.7%)	21 (3.3%)	23 (3.6%)	56 (8.7%)	30 (4.7%)	27 (4.2%)	4 (.6%)	34 (5.3%)	643 (100.0%)
성별	남자	181 (69.9%)	8 (3.1%)	6 (2.3%)	27 (10.4%)	12 (4.6%)	12 (4.6%)	2 (.8%)	11 (4.2%)	259 (100.0%)
	여자	267 (69.5%)	13 (3.4%)	17 (4.4%)	29 (7.6%)	18 (4.7%)	15 (3.9%)	2 (.5%)	23 (6.0%)	384 (100.0%)
쉼터 유형	일시 이동형	58 (87.9%)	1 (1.5%)	0 (0.0%)	5 (7.6%)	1 (1.5%)	1 (1.5%)	0 (.0%)	0 (0.0%)	66 (100.0%)
	고정형	75 (65.2%)	5 (4.3%)	0 (0.0%)	14 (12.2%)	14 (12.2%)	4 (3.5%)	0 (.0%)	3 (2.6%)	115 (100.0%)
	단기· 중장기	315 (68.2%)	15 (3.2%)	23 (5.0%)	37 (8.0%)	15 (3.2%)	22 (4.8%)	4 (.9%)	31 (6.7%)	462 (100.0%)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집	SNS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친척집	PC방,만화방,무인 빨래방,인형뽑기 방,찜질방,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여관·모텔·여 인숙 등	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내,놀이터·공 원,아파트등건물내 계단,소핑몰내,옥 상,지하실등	교회,성당, 절 등 종교시설	기타	전체
지역	강원	22 (88.0%)	0 (0.0%)	1 (4.0%)	1 (4.0%)	1 (4.0%)	0 (0.0%)	0 (0.0%)	0 (0.0%)	25 (100.0%)
	경기	106 (63.5%)	6 (3.6%)	6 (3.6%)	11 (6.6%)	10 (6.0%)	14 (8.4%)	2 (1.2%)	12 (7.2%)	167 (100.0%)
	경남	12 (75.0%)	1 (6.3%)	0 (0.0%)	2 (12.5%)	0 (0.0%)	1 (6.3%)	0 (0.0%)	0 (0.0%)	16 (100.0%)
	경북	8 (61.5%)	0 (0.0%)	0 (0.0%)	4 (30.8%)	1 (7.7%)	0 (0.0%)	0 (0.0%)	0 (0.0%)	13 (100.0%)
	광주	20 (71.4%)	2 (7.1%)	1 (3.6%)	3 (10.7%)	2 (7.1%)	0 (0.0%)	0 (0.0%)	0 (0.0%)	28 (100.0%)
	대구	16 (72.7%)	1 (4.5%)	1 (4.5%)	2 (9.1%)	0 (0.0%)	2 (9.1%)	0 (0.0%)	0 (0.0%)	22 (100.0%)
	대전	21 (63.6%)	0 (0.0%)	0 (0.0%)	5 (15.2%)	4 (12.1%)	2 (6.1%)	0 (0.0%)	1 (3.0%)	33 (100.0%)
	부산	24 (68.6%)	2 (5.7%)	3 (8.6%)	2 (5.7%)	2 (5.7%)	0 (0.0%)	0 (0.0%)	2 (5.7%)	35 (100.0%)
	서울	59 (65.6%)	2 (2.2%)	1 (1.1%)	15 (16.7%)	3 (3.3%)	4 (4.4%)	0 (0.0%)	6 (6.7%)	90 (100.0%)
	울산	17 (56.7%)	1 (3.3%)	5 (16.7%)	1 (3.3%)	1 (3.3%)	2 (6.7%)	0 (0.0%)	3 (10.0%)	30 (100.0%)
	인천	35 (67.3%)	1 (1.9%)	2 (3.8%)	7 (13.5%)	2 (3.8%)	0 (0.0%)	0 (0.0%)	5 (9.6%)	52 (100.0%)
	전남	16 (88.9%)	1 (5.6%)	1 (5.6%)	0 (0.0%)	0 (0.0%)	0 (0.0%)	0 (0.0%)	0 (0.0%)	18 (100.0%)

구분	범주	친구 또는 선후배집	SNS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친척집	PC방,만화방,무인 빨래방,인형뽑기 방,찜질방,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여관·모텔·여 인숙 등	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내,놀이터·공 원,아파트등건물내 계단,소핑몰내,옥 상,지하실등	교회,성당, 절 등 종교시설	기타	전체
	전북	13 (92.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14 (100.0%)
	제주	32 (86.5%)	0 (0.0%)	0 (0.0%)	1 (2.7%)	2 (5.4%)	1 (2.7%)	0 (0.0%)	1 (2.7%)	37 (100.0%)
	충남	20 (69.0%)	3 (10.3%)	1 (3.4%)	1 (3.4%)	2 (6.9%)	1 (3.4%)	1 (3.4%)	0 (0.0%)	29 (100.0%)
	충북	27 (79.4%)	1 (2.9%)	1 (2.9%)	1 (2.9%)	0 (0.0%)	0 (0.0%)	1 (2.9%)	3 (8.8%)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이유는 부모와의 갈등이 85.0%로 대부분이었으며, 부모 간의 갈등이 12.8%로 그 다음이었다. 다른 이유들은 모두 1% 이내로 나타났다.

표 129.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부모와의 갈등	부모간의 갈등	빈곤 등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평소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아서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학교 선생님과 의 갈등, 교칙준수 의 어려움 등	따돌림, 폭력 등 학교교우 와의 갈등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기타	전체
전체		546 (85.0%)	82 (12.8%)	4 (0.6%)	3 (0.5%)	1 (0.2%)	1 (0.2%)	1 (0.2%)	3 (0.5%)	1 (0.2%)	642 (100.0%)
성별	남자	219 (84.9%)	33 (12.8%)	2 (0.8%)	2 (0.8%)	1 (0.4%)	0 (0.0%)	0 (0.0%)	1 (0.4%)	0 (0.0%)	258 (100.0%)
	여자	327 (85.2%)	49 (12.8%)	2 (0.5%)	1 (0.3%)	0 (0.0%)	1 (0.3%)	1 (0.3%)	2 (0.5%)	1 (0.3%)	384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51 (79.7%)	12 (18.8%)	0 (0.0%)	0 (0.0%)	1 (1.6%)	0 (0.0%)	0 (0.0%)	0 (0.0%)	0 (0.0%)	64 (100.0%)
	고정형	92 (81.4%)	16 (14.2%)	1 (0.9%)	0 (0.0%)	0 (0.0%)	1 (0.9%)	1 (0.9%)	1 (0.9%)	1 (0.9%)	113 (100.0%)
	단기· 중장기	403 (86.7%)	54 (11.6%)	3 (0.6%)	3 (0.6%)	0 (0.0%)	0 (0.0%)	0 (0.0%)	2 (0.4%)	0 (0.0%)	465 (100.0%)
지역	강원	20 (83.3%)	4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4 (100.0%)
	경기	148 (88.1%)	19 (1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0 (0.0%)	168 (100.0%)
	경남	14 (87.5%)	2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경북	12 (92.3%)	1 (7.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0%)

구분	범주	부모와의 갈등	부모간의 갈등	빈곤 등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평소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아서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학교 선생님과 의 갈등, 교칙준수 의 어려움 등	따돌림, 폭력 등 학교교우 와의 갈등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기타	전체
	광주	24 (85.7%)	0 (0.0%)	2 (7.1%)	1 (3.6%)	0 (0.0%)	0 (0.0%)	0 (0.0%)	1 (3.6%)	0 (0.0%)	28 (100.0%)
	대구	19 (90.5%)	1 (4.8%)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0 (0.0%)	21 (100.0%)
	대전	26 (78.8%)	7 (21.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3 (100.0%)
	부산	32 (91.4%)	3 (8.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5 (100.0%)
	서울	80 (88.9%)	9 (10.0%)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0 (100.0%)
	울산	26 (86.7%)	4 (1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 (100.0%)
	인천	45 (86.5%)	7 (13.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2 (100.0%)
	전남	12 (66.7%)	5 (27.8%)	0 (0.0%)	1 (5.6%)	0 (0.0%)	0 (0.0%)	0 (0.0%)	0 (0.0%)	0 (0.0%)	18 (100.0%)
	전북	12 (85.7%)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00.0%)
	제주	25 (67.6%)	8 (21.6%)	0 (0.0%)	0 (0.0%)	0 (0.0%)	1 (2.7%)	1 (2.7%)	1 (2.7%)	1 (2.7%)	37 (100.0%)
	충남	25 (86.2%)	4 (13.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9 (100.0%)
	충북	26 (76.5%)	6 (17.6%)	1 (2.9%)	1 (2.9%)	0 (0.0%)	0 (0.0%)	0 (0.0%)	0 (0.0%)	0 (0.0%)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원가족 형태는 한부모가 43.5%로 가장 많았고, 재혼가정이 27.6%, 친부모가 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0.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원가족 형태(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친부모	한부모	재혼가정	조부모	친척	형제 또는 자매	기타	전체
전체		168 (26.2%)	279 (43.5%)	177 (27.6%)	9 (1.4%)	2 (0.3%)	1 (0.2%)	5 (0.8%)	641 (100.0%)
성별	남자	84 (32.6%)	121 (46.9%)	44 (17.1%)	5 (1.9%)	1 (0.4%)	0 (0.0%)	3 (1.2%)	258 (100.0%)
	여자	84 (21.9%)	158 (41.3%)	133 (34.7%)	4 (1.0%)	1 (0.3%)	1 (0.3%)	2 (0.5%)	383 (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34 (54.0%)	17 (27.0%)	7 (11.1%)	2 (3.2%)	1 (1.6%)	0 (0.0%)	2 (3.2%)	63 (100.0%)
	고정형	45 (39.1%)	35 (30.4%)	31 (27.0%)	4 (3.5%)	0 (0.0%)	0 (0.0%)	0 (0.0%)	115 (100.0%)
	단기·중장기	89 (19.2%)	227 (49.0%)	139 (30.0%)	3 (0.6%)	1 (0.2%)	1 (0.2%)	3 (0.6%)	463 (100.0%)
지역	강원	6 (25.0%)	13 (54.2%)	4 (16.7%)	1 (4.2%)	0 (0.0%)	0 (0.0%)	0 (0.0%)	24 (100.0%)
	경기	45 (26.6%)	76 (45.0%)	45 (26.6%)	2 (1.2%)	0 (0.0%)	0 (0.0%)	1 (0.6%)	169 (100.0%)
	경남	3 (18.8%)	9 (56.3%)	4 (25.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경북	4 (30.8%)	5 (38.5%)	4 (30.8%)	0 (0.0%)	0 (0.0%)	0 (0.0%)	0 (0.0%)	13 (100.0%)

구분	범주	친부모	한부모	재혼가정	조부모	친척	형제 또는 자매	기타	전체
	광주	7 (25.9%)	15 (55.6%)	2 (7.4%)	0 (0.0%)	0 (0.0%)	0 (0.0%)	3 (11.1%)	27 (100.0%)
	대구	8 (36.4%)	9 (40.9%)	2 (9.1%)	1 (4.5%)	1 (4.5%)	0 (0.0%)	1 (4.5%)	22 (100.0%)
	대전	8 (24.2%)	16 (48.5%)	9 (27.3%)	0 (0.0%)	0 (0.0%)	0 (0.0%)	0 (0.0%)	33 (100.0%)
	부산	8 (22.9%)	12 (34.3%)	14 (40.0%)	1 (2.9%)	0 (0.0%)	0 (0.0%)	0 (0.0%)	35 (100.0%)
	서울	34 (37.4%)	36 (39.6%)	19 (20.9%)	2 (2.2%)	0 (0.0%)	0 (0.0%)	0 (0.0%)	91 (100.0%)
	울산	9 (30.0%)	11 (36.7%)	10 (33.3%)	0 (0.0%)	0 (0.0%)	0 (0.0%)	0 (0.0%)	30 (100.0%)
	인천	12 (23.1%)	23 (44.2%)	17 (32.7%)	0 (0.0%)	0 (0.0%)	0 (0.0%)	0 (0.0%)	52 (100.0%)
	전남	0 (0.0%)	9 (52.9%)	8 (47.1%)	0 (0.0%)	0 (0.0%)	0 (0.0%)	0 (0.0%)	17 (100.0%)
	전북	3 (21.4%)	8 (57.1%)	2 (14.3%)	1 (7.1%)	0 (0.0%)	0 (0.0%)	0 (0.0%)	14 (100.0%)
	제주	9 (25.7%)	14 (40.0%)	11 (31.4%)	1 (2.9%)	0 (0.0%)	0 (0.0%)	0 (0.0%)	35 (100.0%)
	충남	7 (24.1%)	8 (27.6%)	14 (48.3%)	0 (0.0%)	0 (0.0%)	0 (0.0%)	0 (0.0%)	29 (100.0%)
	충북	5 (14.7%)	15 (44.1%)	12 (35.3%)	0 (0.0%)	1 (2.9%)	1 (2.9%)	0 (0.0%)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 원가족의 어려움은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욕설 등 언어적 학대가 각각 28.3%와 28.1%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의 무관심 및 방임이 19.1%, 보호자 간 갈등이 15.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4.2%, 가족 혹은 친척의 성적 학대가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1.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원가족 어려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신체적 학대	욕설 등 언어적 학대	보호자 간 갈등	보호자의 무관심 및 방임	가족 혹은 친척의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학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업, 성적 등 보호자의 큰 기대	기타	전체
전체		181 (28.3%)	180 (28.1%)	99 (15.5%)	122 (19.1%)	15 (2.3%)	27 (4.2%)	8 (1.3%)	8 (1.3%)	640 (100.0%)
성별	남자	71 (27.6%)	68 (26.5%)	41 (16.0%)	57 (22.2%)	2 (0.8%)	11 (4.3%)	4 (1.6%)	3 (1.2%)	257 (100.0%)
	여자	110 (28.7%)	112 (29.2%)	58 (15.1%)	65 (17.0%)	13 (3.4%)	16 (4.2%)	4 (1.0%)	5 (1.3%)	383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11 (17.2%)	14 (21.9%)	10 (15.6%)	20 (31.3%)	0 (0.0%)	6 (9.4%)	2 (3.1%)	1 (1.6%)	64 (100.0%)
	고정형	34 (29.8%)	38 (33.3%)	12 (10.5%)	22 (19.3%)	1 (0.9%)	2 (1.8%)	4 (3.5%)	1 (0.9%)	114 (100.0%)
	단기·중장기	136 (29.4%)	128 (27.7%)	77 (16.7%)	80 (17.3%)	14 (3.0%)	19 (4.1%)	2 (0.4%)	6 (1.3%)	462 (100.0%)
지역	강원	12 (50.0%)	3 (12.5%)	3 (12.5%)	2 (8.3%)	2 (8.3%)	2 (8.3%)	0 (0.0%)	0 (0.0%)	24 (100.0%)
	경기	56 (33.3%)	53 (31.5%)	16 (9.5%)	32 (19.0%)	1 (0.6%)	7 (4.2%)	0 (0.0%)	3 (1.8%)	168 (100.0%)
	경남	3 (18.8%)	7 (43.8%)	4 (25.0%)	2 (12.5%)	0 (0.0%)	0 (0.0%)	0 (0.0%)	0 (0.0%)	16 (100.0%)

구분	범주	신체적 학대	욕설 등 언어적 학대	보호자 간 갈등	보호자의 무관심 및 방임	가족 혹은 친척의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학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업, 성적 등 보호자의 큰 기대	기타	전체
	경북	3 (23.1%)	3 (23.1%)	3 (23.1%)	3 (23.1%)	1 (7.7%)	0 (0.0%)	0 (0.0%)	0 (0.0%)	13 (100.0%)
	광주	7 (25.0%)	9 (32.1%)	2 (7.1%)	4 (14.3%)	0 (0.0%)	5 (17.9%)	1 (3.6%)	0 (0.0%)	28 (100.0%)
	대구	4 (19.0%)	5 (23.8%)	4 (19.0%)	4 (19.0%)	0 (0.0%)	2 (9.5%)	2 (9.5%)	0 (0.0%)	21 (100.0%)
	대전	9 (28.1%)	10 (31.3%)	5 (15.6%)	7 (21.9%)	0 (0.0%)	1 (3.1%)	0 (0.0%)	0 (0.0%)	32 (100.0%)
	부산	10 (29.4%)	10 (29.4%)	7 (20.6%)	6 (17.6%)	0 (0.0%)	0 (0.0%)	0 (0.0%)	1 (2.9%)	34 (100.0%)
	서울	27 (29.7%)	23 (25.3%)	14 (15.4%)	20 (22.0%)	1 (1.1%)	3 (3.3%)	2 (2.2%)	1 (1.1%)	91 (100.0%)
	울산	11 (36.7%)	8 (26.7%)	3 (10.0%)	6 (20.0%)	2 (6.7%)	0 (0.0%)	0 (0.0%)	0 (0.0%)	30 (100.0%)
	인천	16 (30.8%)	20 (38.5%)	5 (9.6%)	9 (17.3%)	1 (1.9%)	0 (0.0%)	0 (0.0%)	1 (1.9%)	52 (100.0%)
	전남	2 (11.1%)	1 (5.6%)	8 (44.4%)	4 (22.2%)	0 (0.0%)	2 (11.1%)	0 (0.0%)	1 (5.6%)	18 (100.0%)
	전북	4 (28.6%)	3 (21.4%)	3 (21.4%)	2 (14.3%)	1 (7.1%)	1 (7.1%)	0 (0.0%)	0 (0.0%)	14 (100.0%)
	제주	8 (22.2%)	9 (25.0%)	6 (16.7%)	6 (16.7%)	3 (8.3%)	2 (5.6%)	2 (5.6%)	0 (0.0%)	36 (100.0%)
	충남	6 (20.7%)	4 (13.8%)	9 (31.0%)	6 (20.7%)	3 (10.3%)	0 (0.0%)	1 (3.4%)	0 (0.0%)	29 (100.0%)
	충북	3 (8.8%)	12 (35.3%)	7 (20.6%)	9 (26.5%)	0 (0.0%)	2 (5.9%)	0 (0.0%)	1 (2.9%)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이 49.9%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PC방, 만화카페, 찜질방 등이 23.5%, 음식이나 물건 배달이 7.9%, 기타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일반 음식점, 패스트 푸드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	편의점, PC방, 만화 카페, 찜질방 등	결혼 식장, 장례식 장 등 행사 도우미	극장 (영화, 연극) 및 전시장	주유소	의류점, 서점, 문구팬 시점, 대형 마트	호프집 등 술집 서빙	단란 주점, 등 접대	제조 업체 공장 등	음식 이나 물건 배달	전단지 배포	기타	전체
전체		321 (49.9%)	151 (23.5%)	6 (0.9%)	1 (0.2%)	2 (0.3%)	2 (0.3%)	9 (1.4%)	2 (0.3%)	22 (3.4%)	51 (7.9%)	28 (4.4%)	48 (7.5%)	643 (100.0%)
성별	남자	120 (46.5%)	56 (21.7%)	3 (1.2%)	1 (0.4%)	0 (0.0%)	1 (0.4%)	5 (1.9%)	0 (0.0%)	11 (4.3%)	27 (10.5%)	9 (3.5%)	25 (9.7%)	258 (100.0%)
	여자	201 (52.2%)	95 (24.7%)	3 (0.8%)	0 (0.0%)	2 (0.5%)	1 (0.3%)	4 (1.0%)	2 (0.5%)	11 (2.9%)	24 (6.2%)	19 (4.9%)	23 (6.0%)	385 (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33 (51.6%)	10 (15.6%)	0 (0.0%)	0 (0.0%)	1 (1.6%)	2 (3.1%)	2 (3.1%)	0 (0.0%)	3 (4.7%)	12 (18.8%)	0 (0.0%)	1 (1.6%)	64 (100.0%)
	고정형	34 (29.8%)	12 (10.5%)	0 (0.0%)	1 (0.9%)	0 (0.0%)	0 (0.0%)	3 (2.6%)	0 (0.0%)	12 (10.5%)	16 (14.0%)	7 (6.1%)	29 (25.4%)	114 (100.0%)
	단기·중장기	254 (54.6%)	129 (27.7%)	6 (1.3%)	0 (0.0%)	1 (0.2%)	0 (0.0%)	4 (0.9%)	2 (0.4%)	7 (1.5%)	23 (4.9%)	21 (4.5%)	18 (3.9%)	465 (100.0%)
지역	강원	14 (60.9%)	3 (13.0%)	0 (0.0%)	0 (0.0%)	1 (4.3%)	0 (0.0%)	0 (0.0%)	0 (0.0%)	1 (4.3%)	2 (8.7%)	1 (4.3%)	1 (4.3%)	23 (100.0%)
	경기	73 (43.5%)	35 (20.8%)	3 (1.8%)	0 (0.0%)	0 (0.0%)	0 (0.0%)	3 (1.8%)	0 (0.0%)	9 (5.4%)	17 (10.1%)	10 (6.0%)	18 (10.7%)	168 (100.0%)
	경남	9 (56.3%)	4 (25.0%)	0 (0.0%)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1 (6.3%)	1 (6.3%)	16 (100.0%)
	경북	4 (30.8%)	9 (69.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0%)

구분	범주	일반 음식점, 패스트점, 커피 전문점, 빵집 등	편의점, PC방, 만화, 카페, 찜질방 등	결혼 식당, 장례식 장 행사 도우미	극장 (영화, 연극) 및 전시장	주유소	의류점, 서점, 문구팬 시점, 대형 마트	호프집 등 술집 서빙	단란 주점, 등 접대	제조 업체 공장 등	음식 이나 물건 배달	전단지 배포	기타	전체
	광주	15 (53.6%)	11 (39.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7.1%)	0 (0.0%)	0 (0.0%)	28 (100.0%)
	대구	14 (63.6%)	6 (27.3%)	0 (0.0%)	0 (0.0%)	0 (0.0%)	0 (0.0%)	0 (0.0%)	1 (4.5%)	0 (0.0%)	1 (4.5%)	0 (0.0%)	0 (0.0%)	22 (100.0%)
	대전	12 (36.4%)	9 (27.3%)	0 (0.0%)	0 (0.0%)	0 (0.0%)	1 (3.0%)	1 (3.0%)	1 (3.0%)	1 (3.0%)	3 (9.1%)	0 (0.0%)	5 (15.2%)	33 (100.0%)
	부산	20 (57.1%)	7 (20.0%)	0 (0.0%)	0 (0.0%)	0 (0.0%)	0 (0.0%)	2 (5.7%)	0 (0.0%)	1 (2.9%)	4 (11.4%)	1 (2.9%)	0 (0.0%)	35 (100.0%)
	서울	52 (57.1%)	8 (8.8%)	1 (1.1%)	1 (1.1%)	1 (1.1%)	1 (1.1%)	1 (1.1%)	0 (0.0%)	2 (2.2%)	5 (5.5%)	6 (6.6%)	13 (14.3%)	91 (100.0%)
	울산	18 (60.0%)	7 (2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3.3%)	0 (0.0%)	1 (3.3%)	30 (100.0%)
	인천	13 (25.0%)	16 (30.8%)	2 (3.8%)	0 (0.0%)	0 (0.0%)	0 (0.0%)	1 (1.9%)	0 (0.0%)	7 (13.5%)	3 (5.8%)	5 (9.6%)	5 (9.6%)	52 (100.0%)
	전남	5 (27.8%)	11 (6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1%)	0 (0.0%)	0 (0.0%)	18 (100.0%)
	전북	7 (50.0%)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28.6%)	0 (0.0%)	1 (7.1%)	14 (100.0%)
	제주	23 (62.2%)	14 (37.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7 (100.0%)
	충남	21 (72.4%)	5 (17.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9%)	1 (3.4%)	0 (0.0%)	29 (100.0%)
	충북	21 (61.8%)	4 (1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9%)	2 (5.9%)	3 (8.8%)	3 (8.8%)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가지는 질환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74.2%로 가장 많았고, 성관련 문제(임신) 또는 질병(성병 등)이 8.6%, 충치 및 잇몸질환이 8.4%,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계통 질환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3.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질환(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충치 및 잇몸질환	성관련문제(임신) 또는 질병(성병등)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계통질환	기타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등)	전체
전체		54 (8.4%)	55 (8.6%)	477 (74.2%)	38 (5.9%)	19 (3.0%)	643 (100.0%)
성별	남자	36 (14.0%)	13 (5.0%)	184 (71.3%)	12 (4.7%)	13 (5.0%)	258 (100.0%)
	여자	18 (4.7%)	42 (10.9%)	293 (76.1%)	26 (6.8%)	6 (1.6%)	385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8 (12.5%)	16 (25.0%)	36 (56.3%)	3 (4.7%)	1 (1.6%)	64 (100.0%)
	고정형	7 (6.1%)	9 (7.8%)	93 (80.9%)	4 (3.5%)	2 (1.7%)	115 (100.0%)
	단기·중장기	39 (8.4%)	30 (6.5%)	348 (75.0%)	31 (6.7%)	16 (3.4%)	464 (100.0%)
지역	강원	1 (4.2%)	1 (4.2%)	20 (83.3%)	2 (8.3%)	0 (0.0%)	24 (100.0%)
	경기	14 (8.3%)	17 (10.1%)	119 (70.4%)	11 (6.5%)	8 (4.7%)	169 (100.0%)
	경남	1 (6.7%)	0 (0.0%)	13 (86.7%)	0 (0.0%)	1 (6.7%)	15 (100.0%)
	경북	0 (0.0%)	0 (0.0%)	13 (100.0%)	0 (0.0%)	0 (0.0%)	13 (100.0%)
	광주	3 (10.7%)	2 (7.1%)	20 (71.4%)	2 (7.1%)	1 (3.6%)	28 (100.0%)

구분	범주	총치 및 잇몸질환	성관련문제(임신) 또는 질병(성병등)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계통질환	기타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등)	전체
	대구	1 (4.5%)	2 (9.1%)	18 (81.8%)	1 (4.5%)	0 (0.0%)	22 (100.0%)
	대전	1 (3.0%)	8 (24.2%)	21 (63.6%)	3 (9.1%)	0 (0.0%)	33 (100.0%)
	부산	5 (14.7%)	4 (11.8%)	21 (61.8%)	3 (8.8%)	1 (2.9%)	34 (100.0%)
	서울	6 (6.6%)	6 (6.6%)	73 (80.2%)	2 (2.2%)	4 (4.4%)	91 (100.0%)
	울산	1 (3.3%)	1 (3.3%)	24 (80.0%)	4 (13.3%)	0 (0.0%)	30 (100.0%)
	인천	4 (7.7%)	1 (1.9%)	46 (88.5%)	1 (1.9%)	0 (0.0%)	52 (100.0%)
	전남	3 (16.7%)	1 (5.6%)	9 (50.0%)	4 (22.2%)	1 (5.6%)	18 (100.0%)
	전북	3 (21.4%)	1 (7.1%)	10 (71.4%)	0 (0.0%)	0 (0.0%)	14 (100.0%)
	제주	2 (5.4%)	3 (8.1%)	27 (73.0%)	2 (5.4%)	3 (8.1%)	37 (100.0%)
	충남	3 (10.3%)	5 (17.2%)	21 (72.4%)	0 (0.0%)	0 (0.0%)	29 (100.0%)
	충북	6 (17.6%)	3 (8.8%)	22 (64.7%)	3 (8.8%)	0 (0.0%)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우울이 50.2%로 가장 많았고,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 13.9%,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10.0%, 불안이 7.2%, 감정 기복이 큼이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4.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우울	불안	충동조절의 어려움	분노조절의 어려움	감정 기복이 큼	주의집중 저하	공감능력 부족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취약한 현실인지 능력	취약한 인지적 능력	자살 또는 자해 충동	조현병 등 정신 질환	기타	전체
전체		322 (50.2%)	46 (7.2%)	64 (10.0%)	89 (13.9%)	34 (5.3%)	15 (2.3%)	4 (0.6%)	12 (1.9%)	17 (2.7%)	6 (0.9%)	23 (3.6%)	6 (0.9%)	3 (0.5%)	641 (100.0%)
성별	남자	114 (44.4%)	17 (6.6%)	39 (15.2%)	34 (13.2%)	12 (4.7%)	6 (2.3%)	4 (1.6%)	4 (1.6%)	15 (5.8%)	3 (1.2%)	7 (2.7%)	2 (0.8%)	0 (0.0%)	257 (100.0%)
	여자	208 (54.2%)	29 (7.6%)	25 (6.5%)	55 (14.3%)	22 (5.7%)	9 (2.3%)	0 (0.0%)	8 (2.1%)	2 (0.5%)	3 (0.8%)	16 (4.2%)	4 (1.0%)	3 (0.8%)	384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24 (37.5%)	5 (7.8%)	9 (14.1%)	13 (20.3%)	5 (7.8%)	3 (4.7%)	0 (0.0%)	1 (1.6%)	0 (0.0%)	0 (0.0%)	4 (6.3%)	0 (0.0%)	0 (0.0%)	64 (100.0%)
	고정형	56 (48.7%)	6 (5.2%)	12 (10.4%)	18 (15.7%)	6 (5.2%)	1 (0.9%)	0 (0.0%)	1 (0.9%)	3 (2.6%)	2 (1.7%)	7 (6.1%)	2 (1.7%)	1 (0.9%)	115 (100.0%)
	단기·중장기	242 (52.4%)	35 (7.6%)	43 (9.3%)	58 (12.6%)	23 (5.0%)	11 (2.4%)	4 (0.9%)	10 (2.2%)	14 (3.0%)	4 (0.9%)	12 (2.6%)	4 (0.9%)	2 (0.4%)	462 (100.0%)
지역	강원	11 (47.8%)	1 (4.3%)	1 (4.3%)	4 (17.4%)	0 (0.0%)	1 (4.3%)	0 (0.0%)	0 (0.0%)	2 (8.7%)	0 (0.0%)	3 (13.0%)	0 (0.0%)	0 (0.0%)	23 (100.0%)
	경기	85 (50.6%)	13 (7.7%)	11 (6.5%)	36 (21.4%)	8 (4.8%)	2 (1.2%)	2 (1.2%)	1 (0.6%)	3 (1.8%)	0 (0.0%)	5 (3.0%)	2 (1.2%)	0 (0.0%)	168 (100.0%)
	경남	5 (31.3%)	2 (12.5%)	1 (6.3%)	4 (25.0%)	1 (6.3%)	1 (6.3%)	0 (0.0%)	0 (0.0%)	2 (12.5%)	0 (0.0%)	0 (0.0%)	0 (0.0%)	0 (0.0%)	16 (100.0%)
	경북	10 (76.9%)	0 (0.0%)	0 (0.0%)	3 (23.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0%)

구분	범주	우울	불안	총동조 절의 어려움	분노조 절의 어려움	감정 기복이 큼	주의집 중 저하	공감능 력 부족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취약한 현실인 지 능력	취약한 인지적 능력	자살 또는 자해 충동	조현병 등 정신 질환	기타	전체
	광주	20 (71.4%)	1 (3.6%)	1 (3.6%)	2 (7.1%)	2 (7.1%)	0 (0.0%)	0 (0.0%)	0 (0.0%)	1 (3.6%)	1 (3.6%)	0 (0.0%)	0 (0.0%)	0 (0.0%)	28 (100.0%)
	대구	10 (45.5%)	3 (13.6%)	1 (4.5%)	1 (4.5%)	3 (13.6%)	1 (4.5%)	0 (0.0%)	0 (0.0%)	2 (9.1%)	0 (0.0%)	1 (4.5%)	0 (0.0%)	0 (0.0%)	22 (100.0%)
	대전	16 (48.5%)	1 (3.0%)	5 (15.2%)	4 (12.1%)	2 (6.1%)	0 (0.0%)	0 (0.0%)	2 (6.1%)	1 (3.0%)	1 (3.0%)	1 (3.0%)	0 (0.0%)	0 (0.0%)	33 (100.0%)
	부산	13 (39.4%)	4 (12.1%)	6 (18.2%)	5 (15.2%)	2 (6.1%)	0 (0.0%)	0 (0.0%)	0 (0.0%)	2 (6.1%)	0 (0.0%)	1 (3.0%)	0 (0.0%)	0 (0.0%)	33 (100.0%)
	서울	58 (63.7%)	5 (5.5%)	8 (8.8%)	7 (7.7%)	4 (4.4%)	2 (2.2%)	0 (0.0%)	1 (1.1%)	0 (0.0%)	0 (0.0%)	5 (5.5%)	1 (1.1%)	0 (0.0%)	91 (100.0%)
	울산	19 (63.3%)	3 (10.0%)	2 (6.7%)	3 (10.0%)	0 (0.0%)	0 (0.0%)	0 (0.0%)	1 (3.3%)	0 (0.0%)	1 (3.3%)	0 (0.0%)	0 (0.0%)	1 (3.3%)	30 (100.0%)
	인천	26 (50.0%)	6 (11.5%)	7 (13.5%)	4 (7.7%)	3 (5.8%)	2 (3.8%)	0 (0.0%)	0 (0.0%)	1 (1.9%)	0 (0.0%)	2 (3.8%)	0 (0.0%)	1 (1.9%)	52 (100.0%)
	전남	4 (22.2%)	1 (5.6%)	3 (16.7%)	4 (22.2%)	2 (11.1%)	2 (11.1%)	0 (0.0%)	1 (5.6%)	0 (0.0%)	0 (0.0%)	0 (0.0%)	1 (5.6%)	0 (0.0%)	18 (100.0%)
	전북	6 (42.9%)	0 (0.0%)	1 (7.1%)	2 (14.3%)	0 (0.0%)	0 (0.0%)	0 (0.0%)	2 (14.3%)	1 (7.1%)	0 (0.0%)	2 (14.3%)	0 (0.0%)	0 (0.0%)	14 (100.0%)
	제주	13 (35.1%)	1 (2.7%)	7 (18.9%)	6 (16.2%)	3 (8.1%)	2 (5.4%)	1 (2.7%)	1 (2.7%)	1 (2.7%)	0 (0.0%)	1 (2.7%)	1 (2.7%)	0 (0.0%)	37 (100.0%)
	충남	14 (48.3%)	2 (6.9%)	5 (17.2%)	2 (6.9%)	2 (6.9%)	2 (6.9%)	0 (0.0%)	1 (3.4%)	0 (0.0%)	0 (0.0%)	1 (3.4%)	0 (0.0%)	0 (0.0%)	29 (100.0%)
	충북	12 (35.3%)	3 (8.8%)	5 (14.7%)	2 (5.9%)	2 (5.9%)	0 (0.0%)	1 (2.9%)	2 (5.9%)	1 (2.9%)	3 (8.8%)	1 (2.9%)	1 (2.9%)	1 (2.9%)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은 방임, 학대 등 부모(보호자)의 양육 문제가 57.7%로 가장 많았고, 부모 간 갈등, 형제 간 갈등 등 가정 내 갈등 문제가 21.6%,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8.3%, 경제적 자립 문제가 4.2%,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방임, 학대 등 부모(보호자)의 양육 문제	부모 간 갈등, 형제 간 갈등 등 가정 내 갈등 문제	도래(선후배)관계 문제	학업중단 등 교육 문제	학교 내 따돌림 등 학교 적응 문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	흡연, 술 등 약물 문제	경제적 자립 문제	비행 및 범죄 문제	성적문제	기타	전체
전체		368 (57.5%)	138 (21.6%)	8 (1.3%)	4 (0.6%)	4 (0.6%)	53 (8.3%)	18 (2.8%)	8 (1.3%)	27 (4.2%)	5 (0.8%)	5 (0.8%)	2 (0.3%)	640 (100.0%)
성별	남자	148 (57.4%)	60 (23.3%)	2 (0.8%)	3 (1.2%)	1 (0.4%)	16 (6.2%)	7 (2.7%)	4 (1.6%)	12 (4.7%)	4 (1.6%)	1 (0.4%)	0 (0.0%)	258 (100.0%)
	여자	220 (57.6%)	78 (20.4%)	6 (1.6%)	1 (0.3%)	3 (0.8%)	37 (9.7%)	11 (2.9%)	4 (1.0%)	15 (3.9%)	1 (0.3%)	4 (1.0%)	2 (0.5%)	382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26 (40.6%)	20 (31.3%)	3 (4.7%)	0 (0.0%)	1 (1.6%)	4 (6.3%)	1 (1.6%)	1 (1.6%)	4 (6.3%)	2 (3.1%)	2 (3.1%)	0 (0.0%)	64 (100.0%)
	고정형	64 (56.1%)	25 (21.9%)	1 (0.9%)	0 (0.0%)	1 (0.9%)	10 (8.8%)	4 (3.5%)	2 (1.8%)	3 (2.6%)	3 (2.6%)	1 (0.9%)	0 (0.0%)	114 (100.0%)
	단기·중장기	278 (60.2%)	93 (20.1%)	4 (0.9%)	4 (0.9%)	2 (0.4%)	39 (8.4%)	13 (2.8%)	5 (1.1%)	20 (4.3%)	0 (0.0%)	2 (0.4%)	2 (0.4%)	462 (100.0%)
지역	강원	11 (50.0%)	5 (22.7%)	0 (0.0%)	0 (0.0%)	0 (0.0%)	2 (9.1%)	2 (9.1%)	0 (0.0%)	1 (4.5%)	0 (0.0%)	0 (0.0%)	1 (4.5%)	22 (100.0%)
	경기	97 (57.7%)	38 (22.6%)	2 (1.2%)	0 (0.0%)	0 (0.0%)	15 (8.9%)	3 (1.8%)	1 (0.6%)	8 (4.8%)	3 (1.8%)	1 (0.6%)	0 (0.0%)	168 (100.0%)
	경남	11 (68.8%)	2 (12.5%)	0 (0.0%)	0 (0.0%)	0 (0.0%)	2 (12.5%)	0 (0.0%)	1 (6.3%)	0 (0.0%)	0 (0.0%)	0 (0.0%)	0 (0.0%)	16 (100.0%)

구 분	범 주	방입, 학대 등 부모 (보호자) 의 양육 문제	부모 간 갈등, 형제 간 갈등 등 가정 내 갈등 문제	또래(선 후배)관 계 문제	학업중 단 등 교육 문제	학교 내 따돌림 등 학교 적응 문제	불안, 우울 등 심리/정 서적 문제	인터넷, 스마트 폰 사용 문제	흡연, 술 등 악물 문제	경제적 자립 문제	비행 및 범죄 문제	성적문 제	기타	전체
	경북	6 (46.2%)	4 (30.8%)	0 (0.0%)	0 (0.0%)	1 (7.7%)	1 (7.7%)	1 (7.7%)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0%)
	광주	20 (71.4%)	4 (14.3%)	0 (0.0%)	0 (0.0%)	0 (0.0%)	3 (10.7%)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28 (100.0%)
	대구	13 (59.1%)	6 (27.3%)	0 (0.0%)	1 (4.5%)	0 (0.0%)	1 (4.5%)	1 (4.5%)	0 (0.0%)	0 (0.0%)	0 (0.0%)	0 (0.0%)	0 (0.0%)	22 (100.0%)
	대전	15 (45.5%)	9 (27.3%)	0 (0.0%)	0 (0.0%)	0 (0.0%)	3 (9.1%)	2 (6.1%)	0 (0.0%)	3 (9.1%)	0 (0.0%)	1 (3.0%)	0 (0.0%)	33 (100.0%)
	부산	24 (70.6%)	4 (11.8%)	1 (2.9%)	0 (0.0%)	0 (0.0%)	2 (5.9%)	1 (2.9%)	0 (0.0%)	2 (5.9%)	0 (0.0%)	0 (0.0%)	0 (0.0%)	34 (100.0%)
	서울	57 (62.6%)	19 (20.9%)	0 (0.0%)	0 (0.0%)	1 (1.1%)	7 (7.7%)	2 (2.2%)	0 (0.0%)	3 (3.3%)	0 (0.0%)	2 (2.2%)	0 (0.0%)	91 (100.0%)
	울산	24 (80.0%)	4 (13.3%)	0 (0.0%)	0 (0.0%)	1 (3.3%)	0 (0.0%)	0 (0.0%)	0 (0.0%)	1 (3.3%)	0 (0.0%)	0 (0.0%)	0 (0.0%)	30 (100.0%)
	인천	37 (71.2%)	8 (15.4%)	0 (0.0%)	0 (0.0%)	0 (0.0%)	4 (7.7%)	0 (0.0%)	0 (0.0%)	3 (5.8%)	0 (0.0%)	0 (0.0%)	0 (0.0%)	52 (100.0%)
	전남	9 (50.0%)	5 (27.8%)	0 (0.0%)	0 (0.0%)	0 (0.0%)	0 (0.0%)	3 (16.7%)	0 (0.0%)	1 (5.6%)	0 (0.0%)	0 (0.0%)	0 (0.0%)	18 (100.0%)
	전북	5 (35.7%)	3 (21.4%)	0 (0.0%)	0 (0.0%)	0 (0.0%)	3 (21.4%)	1 (7.1%)	0 (0.0%)	2 (14.3%)	0 (0.0%)	0 (0.0%)	0 (0.0%)	14 (100.0%)
	제주	12 (32.4%)	10 (27.0%)	3 (8.1%)	1 (2.7%)	1 (2.7%)	2 (5.4%)	0 (0.0%)	4 (10.8%)	1 (2.7%)	2 (5.4%)	1 (2.7%)	0 (0.0%)	37 (100.0%)
	충남	13 (46.4%)	3 (10.7%)	2 (7.1%)	2 (7.1%)	0 (0.0%)	5 (17.9%)	2 (7.1%)	1 (3.6%)	0 (0.0%)	0 (0.0%)	0 (0.0%)	0 (0.0%)	28 (100.0%)
	충북	14 (41.2%)	14 (41.2%)	0 (0.0%)	0 (0.0%)	0 (0.0%)	3 (8.8%)	0 (0.0%)	1 (2.9%)	1 (2.9%)	0 (0.0%)	0 (0.0%)	1 (2.9%)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주로 당한 범죄피해는 구타, 폭력 등 신체적 피해가 47.0%로 가장 많았고, 성적문제(성희롱·성폭행, 디지털성범죄, 성매매·성착취 등)가 17.8%, 금품 절도 및 갈취피해가 17.7%, 사기피해가 15.8%, 기타 1.7%로 나타났다.

표 136. 성별, 컴퓨터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금품절도 및 갈취 피해	구타, 폭력 등 신체적 피해	사기피해	성적문제	기타	전체
전체		112 (17.7%)	298 (47.0%)	100 (15.8%)	113 (17.8%)	11 (1.7%)	634 (100.0%)
성별	남자	58 (22.5%)	120 (46.5%)	57 (22.1%)	17 (6.6%)	6 (2.3%)	258 (100.0%)
	여자	54 (14.4%)	178 (47.3%)	43 (11.4%)	96 (25.5%)	5 (1.3%)	376 (100.0%)
컴퓨터 유형	일시 이동형	11 (17.2%)	30 (46.9%)	13 (20.3%)	10 (15.6%)	0 (0.0%)	64 (100.0%)
	고정형	26 (22.8%)	40 (35.1%)	34 (29.8%)	12 (10.5%)	2 (1.8%)	114 (100.0%)
	단기·중장기	75 (16.4%)	228 (50.0%)	53 (11.6%)	91 (20.0%)	9 (2.0%)	456 (100.0%)
지역	강원	6 (26.1%)	10 (43.5%)	4 (17.4%)	3 (13.0%)	0 (0.0%)	23 (100.0%)
	경기	26 (15.7%)	83 (50.0%)	29 (17.5%)	26 (15.7%)	2 (1.2%)	166 (100.0%)
	경남	6 (37.5%)	5 (31.3%)	0 (0.0%)	5 (31.3%)	0 (0.0%)	16 (100.0%)
	경북	3 (25.0%)	6 (50.0%)	1 (8.3%)	2 (16.7%)	0 (0.0%)	12 (100.0%)
	광주	4 (14.8%)	13 (48.1%)	3 (11.1%)	7 (25.9%)	0 (0.0%)	27 (100.0%)
	대구	5 (22.7%)	8 (36.4%)	5 (22.7%)	4 (18.2%)	0 (0.0%)	22 (100.0%)
	대전	6 (18.2%)	11 (33.3%)	8 (24.2%)	8 (24.2%)	0 (0.0%)	33 (100.0%)
	부산	6 (17.1%)	21 (60.0%)	8 (22.9%)	0 (0.0%)	0 (0.0%)	35 (100.0%)
	서울	11 (12.4%)	34 (38.2%)	25 (28.1%)	18 (20.2%)	1 (1.1%)	89 (100.0%)

구분	범주	금품절도 및 갈취 피해	구타, 폭력 등 신체적 피해	사기피해	성적문제	기타	전체
	울산	2 (6.9%)	16 (55.2%)	1 (3.4%)	9 (31.0%)	1 (3.4%)	29 (100.0%)
	인천	9 (17.3%)	25 (48.1%)	9 (17.3%)	6 (11.5%)	3 (5.8%)	52 (100.0%)
	전남	7 (38.9%)	7 (38.9%)	1 (5.6%)	1 (5.6%)	2 (11.1%)	18 (100.0%)
	전북	1 (7.1%)	9 (64.3%)	1 (7.1%)	2 (14.3%)	1 (7.1%)	14 (100.0%)
	제주	6 (16.2%)	22 (59.5%)	2 (5.4%)	7 (18.9%)	0 (0.0%)	37 (100.0%)
	충남	8 (29.6%)	10 (37.0%)	0 (0.0%)	9 (33.3%)	0 (0.0%)	27 (100.0%)
	충북	6 (17.6%)	18 (52.9%)	3 (8.8%)	6 (17.6%)	1 (2.9%)	34 (100.0%)

조사 대상자들 지각하는 컴퓨터용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범죄 행위는 금품절도 및 갈취가 45.2%, 성적문제(성희롱·성폭행, 디지털성범죄, 성매매·성착취 등)가 17.1%, 물건파손이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7.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른 컴퓨터용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

(온라인설문조사, 2020년)

구분	범주	물건 파손	금품절도 및 갈취	구타 및 폭력	사기	성적문제	기타	전체
전체		62(9.8%)	286(45.2%)	95(15.0%)	68(10.7%)	108(17.1%)	14(2.2%)	633 (100.0%)
성별	남자	33(12.8%)	134(52.1%)	33(12.8%)	41(16.0%)	14(5.4%)	2(0.8%)	257 (100.0%)
	여자	29(7.7%)	152(40.4%)	62(16.5%)	27(7.2%)	94(25.0%)	12(3.2%)	376 (100.0%)
컴퓨터 유형	일시이동형	8(12.7%)	20(31.7%)	12(19.0%)	9(14.3%)	11(17.5%)	3(4.8%)	63 (100.0%)
	고정형	8(7.0%)	52(45.6%)	15(13.2%)	27(23.7%)	11(9.6%)	1(0.9%)	114 (100.0%)
	단기·중장기	46(10.1%)	214(46.9%)	68(14.9%)	32(7.0%)	86(18.9%)	10(2.2%)	456 (100.0%)

구분	범주	물건 파손	금품절도 및 갈취	구타 및 폭력	사기	성적문제	기타	전체
지역	강원	5(21.7%)	6(26.1%)	5(21.7%)	2(8.7%)	5(21.7%)	0(0.0%)	23 (100.0%)
	경기	12(7.2%)	72(43.4%)	31(18.7%)	20(12.0%)	27(16.3%)	4(2.4%)	166 (100.0%)
	경남	1(6.3%)	12(75.0%)	1(6.3%)	0(0.0%)	2(12.5%)	0(0.0%)	16 (100.0%)
	경북	2(15.4%)	6(46.2%)	2(15.4%)	0(0.0%)	3(23.1%)	0(0.0%)	13 (100.0%)
	광주	6(21.4%)	13(46.4%)	0(0.0%)	1(3.6%)	8(28.6%)	0(0.0%)	28 (100.0%)
	대구	3(13.6%)	6(27.3%)	5(22.7%)	4(18.2%)	4(18.2%)	0(0.0%)	22 (100.0%)
	대전	2(6.1%)	12(36.4%)	3(9.1%)	11(33.3%)	5(15.2%)	0(0.0%)	33 (100.0%)
	부산	1(2.9%)	24(68.6%)	6(17.1%)	3(8.6%)	1(2.9%)	0(0.0%)	35 (100.0%)
	서울	4(4.5%)	38(42.7%)	12(13.5%)	16(18.0%)	18(20.2%)	1(1.1%)	89 (100.0%)
	울산	2(7.7%)	17(65.4%)	2(7.7%)	0(0.0%)	4(15.4%)	1(3.8%)	26 (100.0%)
	인천	7(13.5%)	22(42.3%)	8(15.4%)	7(13.5%)	3(5.8%)	5(9.6%)	52 (100.0%)
	전남	4(22.2%)	8(44.4%)	3(16.7%)	1(5.6%)	1(5.6%)	1(5.6%)	18 (100.0%)
	전북	1(7.1%)	8(57.1%)	1(7.1%)	0(0.0%)	4(28.6%)	0(0.0%)	14 (100.0%)
	제주	5(13.9%)	12(33.3%)	13(36.1%)	1(2.8%)	5(13.9%)	0(0.0%)	36 (100.0%)
	충남	4(14.3%)	14(50.0%)	1(3.6%)	1(3.6%)	8(28.6%)	0(0.0%)	28 (100.0%)
	충북	3(8.8%)	16(47.1%)	2(5.9%)	1(2.9%)	10(29.4%)	2(5.9%)	34 (1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가출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정책의 핵심 수행 기관인 청소년쉼터의 현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 쉼터종사자, 쉼터 이용 및 입소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청소년쉼터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쉼터입소(이용) 청소년 심층면접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쉼터입소(이용)청소년 10명을 선정하여 가출 경험과 쉼터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면접 질문 영역은 크게 3가지로 가출 전 생활, 가출 후 생활, 쉼터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가출 이유에 대한 면접 결과 크게 3개의 범주로 나타났는데, ‘친구의 가출권유’, ‘가족과 갈등’, ‘가정의 불화’ 이다. 대체로 가족 내 불화와 부모(보호자)의 폭언과 폭력, 갈등이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가출 청소년들의 면접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족 내 갈등이 나타날 때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출을 했지만 가족이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여 다시 가출을 여러 번 시도하고 결국 가출이 장기화 되고 쉼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가 학대 신고를 당함으로써 자녀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 시설로 연계되고 그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쉼터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족 갈등 이외에 주변 친구가 가출을 독려하고 친구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출 후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지낸 곳은 7개의 범주였는데, ‘친구 집’, ‘아는 사람의 집’, ‘자취’, ‘노숙’, ‘숙박시설’, ‘쉼터’, ‘종교시설’ 이었다. 친구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과 매우 큰 갈등이 없는 경우 부모 집을 오고 가면서 자취 방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를 받는 등 원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사람의 집’ 의 경우 친구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담임 선생님, 아는 동생, 타 지역의 어떤 아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 친구 집에 있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집과 왕래를 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출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 집에서 지내는 사례의 경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을 알고 청소년 보호하고 있으면서 집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부모와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내담자를 쉼터로 연계하였으며, 타 지역의 아는 사람 집에 거주한 경우 집을 나와 타 지역에서 일 자리를 구하여 가출을 장기화 하려는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취’ 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내지 아르바이트 등의 자립능력이 있는 경우로 생각된다. ‘노숙’ 의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기는 어렵고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노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 장소는 아파트 계단, 놀이터 벤치, 무인 주차장, 무인 빨래방 등 다양한 노출된 장소였다. 노출된 노숙 장소에서 잠을 자기 보다는 핸드폰 등을 보면서 밤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학교에 등교하여 쉬다가 급식을 먹고 다시 거리를 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 응한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 다니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급식도 제공받고, 친구들과 만나며, 학교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학교 관계자가 청소년이 가출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쉼터’ 에서 지내는 경우 일시이동형 쉼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일시이동형 쉼터를 발견하고 필요한 생필품과 상담을 받으면서 자립지원관 등으로 연계 받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일시이동형 쉼터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종교시설도 있었는데, 가출 청소년이 평소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가출 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숙식을 도와주는 사례였다.

가출 후 비행 혹은 범죄 가·피해 경험에 대한 면접 결과 대다수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피해 혹은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범주로 ‘폭행’, ‘사기’, ‘성매매’ 였다. 폭행의 경우 쉼터에서 동료들로부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사기는 혼자 모텔 방

에서 지내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거래를 하다가 입건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성매매의 경우 면접자 자신의 경험은 아니었지만, 알고 있는 지인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다는 보고였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 볼 때,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여러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에서는 폭행 혹은 싸움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 사기, 성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쉼터 생활에 대한 면접 결과, 쉼터를 찾아온 경위의 경우 4개의 범주로 ‘일시쉼터가 눈에 띄며’, ‘청소년상담 기관의 소개’, ‘쉼터 간 연계’, ‘기타 연계’였다. 대체로 청소년들이 쉼터로 오게 된 것은 여러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시이동형 일시 쉼터의 경우는 가출 청소년들이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출 청소년의 조기발견에 일시이동형 일시 쉼터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쉼터를 연계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데, 학교 내 상담센터, 청소년전화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경찰, 학교 관계자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많은 기관 및 인적 자원이 쉼터를 인지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 발견 시 쉼터로 연계하는 조기발견의 역할을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쉼터에서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면접 결과, 6개의 범주로 ‘의료지원’, ‘생활지원’, ‘숙식 해결’, ‘고민 등 상담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지원’이 있었다.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들은 의료지원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쉼터 선생님이 아플 때 병원까지 동행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도움을 받게 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취를 하는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지원관에서 제공하는 생활지원 서비스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지원과 장보기 지원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 여건을 고려하면 이러한 생활지원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숙식해결을 통해 청소년들은 생활의 안정감을 갖게 되었으며 쉼터 종사자들의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고민해결에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쉼터 내에서 제공하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영화 관람, 여행 등 문화 프로그램에 만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바리스타 학원, 요리학원, 메

이크업 학원 등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지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쉽터의 개선 사항에 대한 면접 내용은 크게 6가지 범주로, ‘생활 규칙 개선’, ‘생활 공간 개선’, ‘종사자의 태도’, ‘쉽터 입소 기간’, ‘생활 및 진로 지원 확대’, ‘아웃리치 확대’ 였다. 쉽터 입소(이용) 청소년들은 쉽터 내 생활 규칙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핸드폰을 걷는 것, 엄격한 통금시간,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쉽터 생활 공간에서 싸움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좁은 공간이라는 불편함이 있고,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생활 공간 개선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공간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불만을 이야기 했는데, 입소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마도 가출 청소년에 따라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관계에서 차별 받는 것에 더욱 예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쉽터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공감적 태도 교육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공감적인 종사자의 태도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추후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를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쉽터 입소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쉽터 혹은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연계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불안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요한 용돈을 쉽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외에 쉽터 자체의 진로교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들이 쉽터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아웃리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쉽터종사자 의견수렴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쉽터종사자 의견수렴은 유형별 5명(일시이동형 5명, 일시고정형 5명, 단기형 5명, 중장기형 5명)으로 대표성 있는 종사자 총 20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쉽터 운영 및 서비스 연계, 기타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가정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이용청소년 지원 강화, 쉽터 운영 활성화, 쉽터 발전방안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웃리치 방식의 변화, 발굴유도를 위한 정책 확대가 도출되었다. 그간 몇 명을 발굴했는지에 대한 정량평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면 발굴에 있어 청소년안전망과 같은 정책적 체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발굴하는 질적인 측면 또한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쉼터에서의 발굴 강화를 위한 노력의 평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조기개입에 주목적이 있는 이동쉼터는 대부분 버스를 개조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버스의 특성 상,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숙식이 가능한 공간 확보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을 통해 잠재적 가정 밖 청소년들 또한 이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예방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상시 아웃리치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사이버아웃리치 요원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회체계망 유입을 위한 조기개입을 통해 발굴 유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청소년들의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가족관계 개선, 규칙준수,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 강화, 퇴소 이후 지원 강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쉼터 이용에 따른 용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충분치 못함에 따라 자립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증액,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해 입소청소년들의 정기적인 용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퇴소를 되더라도 자산형성에 대한 어려움이 크기에 아동복지시설의 디딤씨앗통장과 같이 퇴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족관계 개선으로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중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의 폭력·학대·방임 등으로 인해 집을 나올 수 밖에 없다(조규필 외, 2019). 이에 따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을 통해 원가족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쉼터 이용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이에 대한 지침이 완화되어 보완되기는 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전향적인 노력으로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해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규칙준수와 관련해서는 이용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공동생활에 따른 규칙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규칙의 유연화와 함께 쉼터정

원의 축소 및 이용공간을 2인 1실 또는 3인 1실 형태로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쉼터에서의 생활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리정서 지원에서는 최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치료강화와 함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종사자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와 함께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쉼터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팸 등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발굴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호체계 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퇴소 이후 지원강화에서는 퇴소 청소년의 사례관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퇴소 이후 정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퇴소 청소년들이 쉼터와 연결 끈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인력, 정책개선에 대한 요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급량비 부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운영에 따라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종사자들의 열정과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에만 기댈 수 없는 현실이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쉼터별로 예산 편차 발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의견과 함께 현재 기금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상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특성상 현재 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적절한 업무량으로의 개선과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전문인력 확충에 따라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발굴·사후관리 등에 있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어렵다면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 교육을 통해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개선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쉼터의 종사자가 교체되면 기관운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새로운 종사자와 정서적 교류를 새롭게 시작함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종사자의 지속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필요하겠다.

넷째, 쉼터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 이용기간에 대한 분류 방식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유형별 전문성과 차별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쉼터의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이용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변화, 종사자들의 요구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거점쉼터 운영을 통해 쉼터 간 연계 협력, 지역별 특성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지자체별 의무설치를 통해 청소년쉼터가 없어 긴급상황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보호체계 밖에 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식적 참여기관으로의 역할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전개가 어려우므로 사례정보의 적극 공유와 함께 필수연계기관 간 서비스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평가 시에 필수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보다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쉼터실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쉼터이용(입소) 청소년 실태조사

온라인 방식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은 517명으로 남자 265명(51.3%), 여자 252명(48.7%)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7.59세 였다. 쉼터 유형별로는 일시고정형 입소 청소년이 25명(4.8%), 일시일시이동형 이용 청소년 81명(15.7%), 단기·중장기 이용 청소년 411명(79.5%)이었다.

설문 영역은 크게 5가지로 (1) 현재 상황 및 가출 경험, (2)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 (3) 현재의 경제활동과 향후 진로·취업, (4) 가출 후 신체 및 정신건강, (5) 쉼터 이용 현황이었다. 각 영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의 현재 상황 및 가출 경험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현재 학업상황은 재학중이 348명(67.3%), 비재학중이 169명(32.7%)으로 현재 학업을 진행 중인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고정형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율(68.0%)이 다른 컴퓨터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검정고시 등 학업을 유지 하지 않는 비율이 77.5%로 많았다.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최종학업 상태는 고등학교 졸업이 98명(74.8%)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유형별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히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의 최초 가출 연령은 평균 13.51세로 초등학교 6년에서 중학교 1년 사이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 사이에 가출 예방 교육 등 사전 예방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가출 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갈등이 284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면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별로 대체로 유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심층 인터뷰 결과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였다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가출 후 가출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생활비가 없을 때가 29.0%로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 성별로 힘든 점은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가장 많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생활비가 없을 때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컴퓨터에 요구하는 서비스로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자립지원관과 연계하여 용돈 지원, 장보기 등 생활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출 경험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7.8%)과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험(7.6%)이 비교적 많았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안전한 컴퓨터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컴퓨터 내에서도 입소 청소년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해결 프로그램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컴퓨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 후 하룻밤 이상 생활한 곳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 28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컴퓨터유형, 지역에 따라 유사하였다. 하지만 노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남자들의 경우 43.8%, 여자들의 23.4%였다. 지역별로는 서울(36.3%), 대구(46.2%), 부산(40.0%), 경기(43.0%), 제주(39%)가 노숙 경험에 높은 편이었다. 노숙의 이유로는 숙박료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37.3%). 노숙은 여러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될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숙청소년들 조기발견할 수 있는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청소년들 중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9.7%였다. 가출팸 합류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서가 대부분이었다(74.0%). 가출팸의 구성원은 친구, 선배, 후배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팸에 일반 성인이 함께 지낸 경우도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40.0%였다. 성인의 연령대는 2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76.9%). 그리고 가출팸 생활 중 비행 혹은 범죄에 참여한 경우가 조사자(60명) 중 13.3%였다. 범죄 내용으로는 자동차에서 물건 훔치기, 폭행, 성매매 알선 등이었다. 가출팸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도 비교적 많은데, 신체적 언어적 폭행(10.0%), 성적 피해와 금전사기(6.7%)의 피해 양상을 보였다. 가출팸을 나오게 된 이유도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싫다는 의견이 26.5%로 가장 많았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같이 살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내용은 가출팸의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가출팸은 여러 위험한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필요한 부분이다.

(2)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

컴퓨터 입소(이용) 청소년들이 가출 전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부모의 언어적·신체적 폭행과 학대가 50.9%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가출의 주요 사유는 부모의 양육 태도의 문제로 보인다.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부모가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모 교육 혹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고민을 가질 때 어려움을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선후배가 32.9%로 가장 많았다.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 13.0%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컴퓨터 내 심리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종사자의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최근 컴퓨터 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혹은 치료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현재의 경제활동과 향후 진로·취업

컴퓨터 입소(이용) 청소년들이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시설의 도움이 39.1%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자립지원관의 생활비지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도 25.5%로 많은 편이었으며, 주로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3.3%). 아르바이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4.45시간이었다. 컴퓨터 입소(이용) 청소년과 종사자 심층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생활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았으며, 용돈 등의 지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생활비의 현금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음식점, 커피 전문점, 빵집, 편의점과 연계협력을 맺어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2.3%였다. 빚이 있는 경우도 전체 14.5%였다. 신용불량 상태인 청소년들도 10.4%로 나타났다. 따라서 쉼터 내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상담서비스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및 진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없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2.5%로 대체로 많았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관련정보를 알지 못해서라는 의견이 41.8%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취업 및 진로지원 서비스의 쉼터 내 홍보와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업 및 진로에 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취업 및 진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70.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에 대한 질문 결과는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66.3%로 많았다. 그 이유로는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가정 내 문제가 반복될 것 같은 두렵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출 사유 중 가정 내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결과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소 후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가출 후 신체 및 정신건강

가출 후 건강검진 경험은 ‘있다’ 가 51.8%였으며 ‘없다’ 가 48.2%였다. 쉼터 유형에서 고정형과 일시이동형 쉼터 청소년의 건강검진 비율이 단기·중장기 쉼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중장기 쉼터에서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관련하여 종사자의 심층인터뷰 결과 청소년들에게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로 의료지원서비스를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료적 문제를 호소하는데 이를 적재적소에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종사자들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의료 문제로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질환이 21.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종사자들도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대처 전문역량 강화 내지 치료전문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19%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 내용으로는 성폭행 34.9%, 신체적 성희

률 30.2%, 언어적 희롱 22.2% 순으로 문제의 내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 사고 관련해서는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 생각 경험은 40.5%로 남자 청소년의 22.6% 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자살 시도로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험도 31.3%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자해 시도 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1.3%로 나타났다. 자해의 경우도 여자 청소년이 29.4%로 남자 청소년의 13.6% 보다 높았다. 이러한 자살 사고, 자해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며, 특히 여자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쉼터 종사자 면접 의견에서도 쉼터 내 임상 심리사 등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점차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치료형 쉼터 운영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5) 쉼터 이용 현황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청소년들이 가출 후 쉼터 이용까지 소요된 기간은 1주일 정도가 61.3%로 가장 많았다. 쉼터를 이용한 계기는 경찰, 주민센터, 그 외 보호시설의 안내가 25.1%, 친구 또는 선후배, 지인의 소개 19.1%,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내가 14.7%로 지역 연계망을 통한 쉼터로의 유입이 1주일 이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이동형 쉼터 이용자가 쉼터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식사, 간식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27.1%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일시이동형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보호와 생필품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정·단기·중장기 쉼터는 의식주 지원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고정·단기·중장기 쉼터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에서 일시이동형 3.77, 고정형 4.16점, 단기·중장기형 4점 대로 비교적 우수한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중장기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개선해야 할 의견으로는 1인실 주거 공간 확충이 17.6%로 가장 많았고, 자립지원(주거지원 자립지원금 등)이 16.5%로 그 다음 순이었다. 1인실 공간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심층 면접 의견에서도 제안된 사항이다. 종사자의 의견으로 보통 4-5명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입소생 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여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쉼터 기관 실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쉼터 종사자 임금 급여 체계

정규직 직원의 임금 급여 체계는 호봉제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호봉제 및 연봉제 혼용이 13.2%로 그 다음 순이었다.

(2) 입소청소년 특성

2019년 기준 초중고 연령 입소자 중 재학생 수는 전체 초중고 연령 입소자 20,239명 중 8,057명으로 39.8%였다. 본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에서 재학생 비율이 67.3%로 조사된 것에 비해 적은 수치이지만, 재학생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소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 내용

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담 프로그램으로 전체 쉼터 중 57.0%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 프로그램(14.1%)과 진로(취업) 역량 프로그램(13.3%)이었다.

(4)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청소년안전망 11개 필수연계기관과의 협조 필요성과 현재 협조 정도를 5점 likert로 조사한 결과 협조 필요성의 경우 대체로 평균 4점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현재 협조 정도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평균 3점대)으로 필요성에 비해 다소 협조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협조 필요성은 지자체가 가장 높았으며(평균 4.8점), 협조 정도도 지자체가 가장 높았다(평균 4.1점).

11개 필수연계기관과 연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장애요소로는 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많은 연계 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쉼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연계를 많이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등은 기관 간 업무조정과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이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연계기관 간 각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합워크숍 등의 정례적인 만남이 필요하며, 실제 연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 간 연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협의를 통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사자 심층 면접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있었는데, 필수연

계기관 간 간담회가 충분한 이해와 업무협조의 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3) 쉽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쉽터 종사자에 대한 설문 참여자는 총 646명으로 남자가 260명(40.2%), 여자가 386명(59.8%)였다. 단기·중장기 쉽터에 종사하는 조사 대상자는 465명(72.0%)이었고, 일시이동형과 고정형 쉽터에 종사하는 조사 대상자는 각각 115명(17.8%)과 66명(10.2%)이었다.

(1) 종사자 구성 및 전문성

쉽터 종사자의 학력은 대체로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60.1%), 전공은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청소년학, 교육학, 아동복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도 사회복지사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사가 21.8%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79.6%였으며, 계약직이 20.1%였다. 직종은 보호상담원이 53.3%로 가장 많았고, 야간보호상담원이 14.1%, 행정원이 10.4%였다. 대체로 쉽터마다 직종의 구성은 유사하지만, 일시이동쉽터의 경우 거리상담전문요원이 고정·단·중기 쉽터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종사자 업무 특성

수행업무는 보호상담업무가 37.0%로 가장 많았고, 행정업무가 19.4%로 그 다음 순이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및 상담, 행정업무가 대체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 경력은 평균 48.48개월이지만, 종사자별 편차가 매우 컸다(표준편차, 63.21개월). 지역별로는 강원이 17.46개월로 가장 짧은 편이었으며, 서울이 60.39개월로 가장 긴 편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수당 유형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으로 이러한 종사자 처우가 근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쉽터 종사자 심층 면접에서도 서울 지역의 종사자 처우를 근거로 쉽터 종사자의 장기 근무를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쉼터 및 업무 만족도

종사자들의 쉼터에 대한 인사제도, 복지에 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인센티브 만족도 평균 2.9점,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평균 2.8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쉼터에 종사하면서 힘든 점에 대한 응답도 낮은 보수가 34.4%로 가장 높았다.

(4) 쉼터 입소(이해) 청소년 가출 상황 인식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가출 상황(가출 시 거주한 곳, 가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은 청소년용 설문 내용과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결과가 청소년용이 보고한 것과 종사자가 보고한 것이 대체로 일치하여 조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부분적인 쉼터 실태연구와 차별화하여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쉼터종사자, 쉼터 기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쉼터 이용자와 쉼터 운영에 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응답자 반응의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들과 종사자가 보고한 내용의 일치성을 검토하고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종사자들이 보고한 내용 간의 일치성을 검토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쉼터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출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 후 쉼터로 연계되는 기간이 1주일 이내로 조사되었지만, 1주일 사이에 많은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쉼터로 연계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거주하는 장소가 대체로 친구, 후배 등 지인의 집으로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쉼터 종사자 심층 면접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생필품 등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맺어 가출청소년 발견

시 가까운 컴퓨터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로 연계되어 오는 주요 경로가 지역사회 경찰, 학교 선생님, 종교인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통해 컴퓨터로 안내되어 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자원들을 청소년안전망 내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소년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청소년들이 컴퓨터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컴퓨터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제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출 청소년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내 부모의 학대 및 부모 간 불화를 통해서 가출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퇴소 후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로 부모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 내 지지가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 가정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컴퓨터 혹은 청소년안전망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몇몇 컴퓨터에서는 가출 청소년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청소년관련 연구기관에서 가출 청소년 가정 개입 프로그램과 전국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컴퓨터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컴퓨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료 지원 서비스 중 정신과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종사자의 의견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우울, 불안, 자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치료전문 컴퓨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가정 밖으로 나온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컴퓨터 내 임상심리사와 같은 심리치료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컴퓨터 내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이며 이마저도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상담 업무 외에 많은 행정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담 혹은 심리치료

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정신장애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치료전담 쉼터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쉼터 종사자의 의견에 의하면 치료전담 쉼터를 광역시도에 최소 1개씩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쉼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쉼터의 주거 공간을 살펴보면 평균 3개 정도의 침실 공간이 있고, 한 침실 공간에 평균 4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설문조사와 청소년 심층 면접 결과에 의하면 개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생활 시 입소생들 간의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소생들 간의 격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쉼터의 노력 및 정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쉼터종사자의 의견에 의하면 청소년쉼터가 노유자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쉼터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유자 시설준수를 위해서는 여러 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 째,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의 연계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쉼터 종사자의 의견으로는 내실화된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기관 간 기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 실태조사 결과 11개 필수연계기관 중 자주 접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지원센터 외에는 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종사자 간 조직 업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관의 여러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사례만 의뢰하는 절차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계기관 간 의사소통의 장을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연계기관 정례회의의 외에 필수연계기관 기관장, 종사자들 간의 연합 워크숍 등 기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 째, 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쉼터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종사자 심층 면접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많았는데,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이 낮

은 편이며, 열악한 보수 조건으로 장기근속이 어려워 쉼터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의 기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처우개선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 수당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쉼터 예산 규모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며, 예산 구성에서 인건비가 70% 수준을 차지하는 점을 살펴보면 지역별 인건비의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쉼터 여건 상 2교대 혹은 3교대근무로 운영되며 인력도 적은 상황으로 업무 소진을 호소하는 종사자가 많았다. 따라서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쉼터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근간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및 연구활용 방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청소년쉼터 종사자 및 이용자에 관한 체계적인 현황 조사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및 신규 사업 개발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청소년쉼터-종사자-이용청소년에 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청소년쉼터 정책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발전방안 도출, 종사자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쉼터는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운영의 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확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는 이러한 진단과 발전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20).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김지연,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백혜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 육혜련, 오현자, 서보람, 권민경(2010). 2010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남미애, 홍봉선(2007).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통계.
-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통계.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서.
- 윤현영, 강진구(2005). 가출청소년쉼터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조아미, 김범구, 박동진, 김민찬, 전성원(2018). 강릉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지원방안 연구. 강원·강릉시청.
- 최순중, 박은경(2016). 가출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정담론*, 9(1). 33-68.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9). 가정 밖 청소년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부 록

1. 설문지

2. 청소년쉼터 기관 현황(행정지원시스템 입력 자료 분석)

[부 록 1] 설문지

1. 청소년 실태 조사지
2. 청소년쉼터 기관 조사지
3. 청소년쉼터 종사자 조사지

[가정 밖 청소년용 조사지]

청소년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자료는 단순히 통계처리 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긴 문항이지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을 모두 마치시면 소정의 선물(편의점 쿠폰 1만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수행기관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 손재환 꽃동네대학교 교수

문의: 043-270-0147

※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으면 설문참여에 동의하여 주세요.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4. 귀하는 어떤 검정고시를 준비 중입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②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③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2. 가출을 처음 했을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만_____세

3. 가장 오랫동안 가출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년_____개월)

4. 가출을 하게 된 이유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영역	문항
가정적 원인	①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무관심, 학대, 과보호, 지나친 간섭 등)
	②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부모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음)
	③ 형제, 자매 등 동기 간의 갈등 때문에
	④ 친척, 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⑤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 원인	⑥ 평소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교 요인	⑦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⑧ 학교 선생님과과의 갈등, 교칙 준수의 어려움 등 때문에
	⑨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교우와의 갈등 때문에
또래 요인	⑩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친구의 권유 등)
기타	⑪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세요)

5. 가출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3순위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영역	문항
의식주 해결 문제	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때
	② 씻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③ 생활비가 없을 때
교육 문제	④ 가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때
건강문제	⑤ 건강이 나빠질 때
정서적 어려움	⑥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⑦ 가족이 보고 싶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영역	문항
비행 또는 범죄 피해의 어려움	⑧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 때
	⑨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사람으로부터 강요받거나 협박받을 때
	⑩ 기타 ()
	⑪ 해당 없음

6. 다음은 가출 전에는 없었지만 가출 후에 생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가출 후 경험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② SNS 사진 유포,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④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성인노래방, 무도학원, 전화방 등 성인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적이 있다.	
⑤ 약물복용(본드, 과도한 진통제 등)을 한 적이 있다.	
⑥ 돈, 잠자리, 음식 등의 대가를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⑦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	
⑧ 기타(직접 작성해 주세요)	
⑨ 모두 해당 없음	

7. 가출 중 비행 및 범죄 발생 등으로 법원으로 부터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현재 재판 중
- ③ 있다(보호처분유형: _____ 호)

8. 가출기간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구분	도움 받은 대상	해당 여부 체크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	친구 또는 선후배	
가족 및 친척	가족 및 친척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	
	청소년쉼터 선생님,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경찰관	
종교단체 분들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지역사회 주민	PC방, 찜질방, 약국, 택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	
	SNS 등 가출팸에서 만난 성인	
기타	직접작성()	
없음		

9. 가출 후 청소년쉼터 외에 하룻밤 이상 생활한 곳은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영역	세부 장소	해당 여부 체크
가정 및 집	친구 또는 선후배 집	
	SNS 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친척 집	
편의시설	PC방, 만화방, 무인빨래방, 인형뽑기방, 찜질방, 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숙박시설	여관·모텔·여인숙 등	
노숙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내, 놀이터·공원, 아파트 등 건물 내 계단, 쇼핑몰 내, 옥상, 지하실 등	
시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시설	
	노숙인 시설	
기타	직접작성()	

※ 10번부터 14번까지는 가출 후 노숙 경험이 있는 분들만 응답해 주세요.

10. 노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숙박료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
- ②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 ③ 노숙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 ④ 밤새 놀다가 나도 모르게 노숙하게 됨
- ⑤ 청소년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 ⑥ 기타()

11. 가장 길었던 노숙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 ① 1~2일 ② 3~6일 ③ 7일~13일
- ④ 14일 ~ 30일 ⑤ 한 달 이상

12. 노숙을 하면서 경험했던 위험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영역	문항
의식주 해결 문제	① 끼니, 목욕, 빨래 등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정서적 문제	② 노숙자가 되었다는 슬픔, 좌절감
건강상 문제	③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몸이 자주 아픔
범죄 노출	④ 금전·물품 등 갈취, 명의 도용(대포폰) 피해 등 ⑤ 폭행, 성폭행, 성추행 등
해당없음	⑥ 모두 해당 없음
기타	⑦ 기타(직접작성)

13. 노숙하는 동안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먹음
- ② 노숙인 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의 무료 급식을 이용
- ③ 주변 가게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 먹음
- ④ 가게 등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먹었음
- ⑤ 돈을 갈취해서 해결하였음(또래, 취객 등)
- ⑥ 그냥 굶음 ⑦ 기타()

20. 가출팸 생활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행
- ② 감금
- ③ 성적 피해(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피해)
- ④ 금전 사기, 갈취 피해
- ⑤ 따돌림, 괴롭힘
- ⑥ 비행 혹은 범죄에 참여

※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까?()

- ⑦ 없음
- ⑧ 기타()

21. 가출팸을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폭력, 감금 등 위협을 당해서
- ②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 ③ 경제적으로 같이 살기 힘들어서
(예: 생활비를 같이 내지 않음, 수입이 모두 없음 등)
- ④ 일자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서
- 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 ⑥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 ⑦ 기타 ()

II.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

1. 가출 전 가족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친부모
- ② 한부모(아버지, 어머니 중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
- ③ 재혼가정(친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보호자와 다시 결혼하여 이룬 가정)
- ④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
- ⑤ 친척(친척 집에서 살고 있음)
- ⑥ 형제 또는 자매(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경우)
- ⑦ 기타()

2. 다음은 가출 전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질문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	
2) 부모(보호자)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	
3) 부모(보호자) 간에 싸움 등 갈등이 큰 편이었다.	
4) 부모님(보호자)는 나와 형제들을 잘 돌보지 않은 편이었다. ※ 예: 학교 지각, 결석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음, 자녀들의 옷, 음식 등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음 등	
5) 집안 어른들에 의한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 있었다.	
6) 부모(보호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힘들었다.	
7) 부모(보호자)가 학업이나 성적에 너무 큰 기대를 했다.	
8) 기타(직접 작성해 주세요)	

3.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나요?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상의할 사람이 없다 ② 부모님 ③ 형제/자매
 ④ 친척 ⑤ 친구·선후배 ⑥ 학교선생님, Wee센터 상담사
 ⑦ 청소년쉼터 선생님
 ⑧ 청소년전화 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사, 지역아동센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⑨ 기타()

Ⅲ. 현재의 경제활동과 향후 진로·취업

※ 다음은 현재의 경제활동과 향후 진로·취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가능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순위 ~ 3순위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3순위()

- 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②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으로
 ③ 친구, 선배의 도움으로 ④ 후원자의 도움으로

8. 고용노동부, 주민센터, 청소년관련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아래 9-1 질문에 답해 주세요
- ② 없다 → 아래 9-2 질문에 답해 주세요

8-1. 이용했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 ②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8-2. 고용노동부, 주민센터, 청소년관련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
- ②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 ③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⑤ 이용하기가 귀찮아서
- ⑥ 기타()

9.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를 위해서 정부에서 가장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1순위(가장 높음)에서 4순위(가장 낮음) 까지 선택해 주세요.

구분	순위 표시(1순위 가장 높음, 4순위 가장 낮음)
취업 및 진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구직활동 지원금, 교재·교구 등 학습 지원금, 학원 등록금 등	
취업 알선 ※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및 진로 상담, 정보 제공 ※ 진로 설계, 적성 검사, 취업·진학 정보 제공 등	
취업 및 진로 역량 강화 ※ 기술훈련 교육,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직접 작성 :)	

(고정형, 단/중장기) 10. 향후 퇴소하게 된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계획입니까?

- ①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11로 가세요)
- ② 그렇지 않다. (→10-1, 10-2로 가세요)

(고정형, 단/중장기) 10-1. 퇴소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돌아갈 집이 없어서
- ②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까봐
- ③ 학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돈을 벌고 싶어서
- ⑤ 가출한 상태가 자유롭기 때문에
- ⑥ 기타()

(고정형, 단/중장기) 10-2. 퇴소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 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임대주택, 쉼어형 주택 등)
- ② 숙식가능한 일자리를 구할 것이다
- ③ 다른 공공시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④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살 예정이다
- 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
- ⑥ 기타()

(고정형, 단/중장기) 11. 미래를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활자금을 모으고 있다
- ②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 ③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 ④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민 중이다)
- ⑤ 기타()

IV. 가출 후 신체 및 정신 건강

※ 다음은 가출 후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출 이후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건강검진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자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 ①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
- ②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

2.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질병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충치 및 잇몸질환
- ② 성 관련 문제(임신) 또는 질병(성병 등)
- ③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 ④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
- ⑤ 기타 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 ⑥ 없음

3. 가출 전과 비교해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해진 것 같다 ② 건강해진 것 같다
- ③ 전과 변화가 없다 ④ 나빠진 것 같다
- ⑤ 매우 나빠진 것 같다

4. 가출이후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학업문제 ② 가정불화
- ③ 또래와의 관계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외모신체조건 ⑥ 미래(진로 또는 삶)에 대한 불안
- ⑦ 외로움 ⑧ 기타()

5. 성범죄 피해(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아래 5-1과 5-2 질문에 답해 주세요.
- ② 없다

(일시이동형) 5. 다음은 일시컴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중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가장 필요한 3개만 표시해 주세요
귀가지원(교통비 지원 및 연계)	
의식주 지원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의료서비스(구급약, 응급처치 등)	
위생서비스(세면도구, 생리대 등)	
교육(성교육, 진로, 대인관계 등)	
정보서비스(지역사회 기관 및 접근 등)	
휴식서비스(휴식공간, 와이파이, 컴퓨터 등)	
대인문화활동 지원(보드게임, 도서 등)	

(고정형) 5. 다음은 컴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중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가장 필요한 3개만 표시해 주세요
귀가지원(교통비 지원 및 연계)	
의식주 지원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의료서비스(구급약, 응급처치 등)	
위생서비스(세면도구, 생리대 등)	
교육(성교육, 진로, 대인관계 등)	
정보서비스(지역사회 기관 및 접근 등)	
휴식서비스(휴식공간, 와이파이, 컴퓨터 등)	
대인문화활동 지원(보드게임, 도서 등)	

(단/중장기) 7. 다음은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개만 표시해 주세요.

프로그램 유형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개 표시
고민 등 심리정서적 문제해결	
학업 및 진로상담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 대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흡연, 음주,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 프로그램	
대인관계 훈련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피고용자 권리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 관련 (저축, 자산관리 등) 프로그램	
영화, 뮤지컬 관람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타(직접 작성해 주세요)	

(고정형) 6.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점들입니다. 자신이 주로 경험한 것 3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내용	주로 경험한 것 3개 표시
문제 해결	도움받고자 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신체/정서 안정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어 기분이 좋다.	
	컴퓨터에 오기 전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것 같다.	
진로	나의 장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대인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진 것 같다.	
	가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기타(직접 작성해 주세요.)		

(일시이동형_6, 고정형_7) 다음은 일시쉘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
 해주세요.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쉘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쉘터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단/중장기) 8. 현재 쉘터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① 식사					
② 의복					
③ 침대, 이불 등 잠자리					
④ 세면, 샤워시설, 화장실					
⑤ 놀이/운동 공간					
2) 서비스 만족도					
① 고민해결 등 상담서비스					
② 의료지원 서비스					
③ 여가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④ 학교, 진로 등 교육 지원 서비스					
⑦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지원 서비스					
⑧ 자립 및 취업 지원 서비스					
3) 쉘터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① 쉘터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신다.					
② 쉘터 선생님이 친절하고 의견을 잘 들어 주 신다.					

(단/중장기) 9. 다음은 추후 쉼터에서 청소년을 위해 강화해야할 서비스 내용들입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주거 환경 개선					
① 1인실 주거 공간 확충					
② 세면·샤워시설, 화장실 등 위생 공간 개선					
③ 놀이·휴게 공간 확대					
④ 교통 등 접근이 편리한 장소로 쉼터 이주					
2) 프로그램 강화					
① 검정고시, 학습 지도 등 학업 지원					
② 기술훈련 프로그램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③ 자립지원(주거지원, 자립지원금 등)					
④ 심리·정서지원					
⑤ 여가·문화 프로그램					
⑥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⑦ 법적 문제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기타 ()					

긴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쉼터 현황 및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및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쉼터 발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자료는 단순히 통계처리 되어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수행기관: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 손재환 꽃동네대학교 교수, 문의: 043-270-0147

※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으면 설문참여에 동의하여 주세요.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귀하께서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표시해 주세요.

쉼터명	(정확한 쉼터 명을 기재해 주세요)
쉼터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시이동형쉼터 <input type="checkbox"/> 일시고정형쉼터 <input type="checkbox"/> 단·중장기 쉼터
지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세종

4. 초등학교 ~ 고등학교 연령대 입소자 중 재학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019년 입소자 수 명, 재학생 수 명)

* 재학생 :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재학생으로 인정

일시고정형 · 단기 · 중장기쉼터 응답

5. 2019년 쉼터가 청소년 입소를 거부한 비율은?

일시고정형 · 단기 · 중장기쉼터 응답

[입소거부 실인원 수 ()명 ÷ 신규 입소상담 실인원 수 ()명] *100 = ()%

Ⅲ. 시설현황 및 청소년 관리(일시고정, 단기, 중장기쉼터만 응답)

1. 퇴소 청소년 보호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_1. 보호기간 연장 여부 결정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입니까?

예 아니오

Ⅳ. 서비스 내용

1. 아래 입소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 귀 쉼터에서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세요.

서비스 내용	빈도 순위
①상담 프로그램 : 개인 · 가족 등 심리적 문제해결	
②학업 프로그램 : 학업역량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학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③진로(취업)역량 프로그램 : 진로탐색, 인턴십 및 취업 대비 기술향상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④성교육 프로그램	
⑤약물중독 프로그램 : 금연, 금주 등 프로그램 등	
⑥인터넷 과의존 예방 : 인터넷, 게임 등 관련 프로그램	
⑦사회성 향상 : 대인관계, 예절, 인성교육,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⑧경제관리 : 저축, 자산관리, 부동산 계약 등 경제관리 프로그램	
⑨문화예술 : 영화, 뮤지컬 등 프로그램	
⑩근로권 :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등 프로그램	
⑪기타(직접기입:)	

V.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방안

1. 청소년쉼터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정도와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필요없음 <—> 매우 필요	매우 비협조 <—> 매우 협조
지방자치단체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각급학교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① - ② - ③ - ④ - ⑤	① - ② - ③ - ④ - ⑤

2. 쉼터가 활용하는 홍보수단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홈페이지 ② 블로그 ③ 인터넷 카페
 ④ 유튜브 ⑤ 보도자료 ⑥ 페이스북
 ⑦ 인스타그램 ⑧ 밴드 ⑨ 트위터
 ⑩ 소식지(정기간행물) ⑪ 기타()

3.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과의 협력에서 대체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각 연계 기관별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을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3-1. 지방자치단체

- ① 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① 쉽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⑩ 기타(직접 기입: _____)

3-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 ① 쉽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4.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① 쉽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5. 각급학교

- ① 컴퓨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6.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① 컴퓨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7.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① 컴퓨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8.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① 쉽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9.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 ① 쉽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① 쉽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3-11.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

- ① 센터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 ③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공 미비
- ④ 각 기관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 ⑤ 연계사업 추진 시 기관 간 업무 일정 조율 등 업무 조정의 어려움
- ⑥ 연계절차의 복잡성
- ⑦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족
- ⑧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및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쉼터 발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자료는 단순히 통계처리 되어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수행기관: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손재환 꽃동네대학교 교수(연락처: 043-270-0147)

※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으면 설문참여에 동의하여 주세요.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쉼터명	(정확한 쉼터 명을 기입해 주세요.)
쉼터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시이동형쉼터 <input type="checkbox"/> 일시고정형쉼터 <input type="checkbox"/> 단·중장기 쉼터
지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세종

※ 아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구학적인 정보와 쉼터 근로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가능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을 작성해 주십시오

(만 : _____)

3. 귀하의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② 2년제 대학교 ③ 4년제 대학교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 ⑥ 기타()

3-1 대학교 이상의 최종학력일 경우 전공은 무엇입니까?()

4. 귀하의 직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설장 ② 팀장/부장 ③ 팀원(일반 종사자) ④ 기타 :

5. 귀하의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②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기타 :

6. 귀하의 직종(근로계약서에 명시 등)과 실제 수행업무(업무분장표에 명시 또는 실제 수행)를 선택해 주십시오.

(직종)_____ (주된 업무(중복표기 가능))_____

- (직종) ① 시설장 ② 보호·상담원 ③ 거리상담전문요원 ④ 야간보호상담원
⑤ 자립지원요원 ⑥ 행정원 ⑦ 조리원 ⑧ 기타(작성란에 표기)
(주된 업무) ① 시설총괄 ② 보호·상담 ③ 거리상담 ④ 야간보호 ⑤ 행정
⑥ 조리 ⑦ 기타(작성란에 표기)

7. 청소년쉼터에 근무하신 총 기간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전 청소년쉼터 경력포함)
 총경력(년 개월) = 이전 쉼터 경력(년 개월) + 현 쉼터 경력(년 개월)

8. 청소년쉼터 업무와 관련된 소지하신 자격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사회복지사 ② 청소년상담사 ③ 청소년지도사 ④ 임상심리사 ⑤ 교원자격증
 ⑥ 기타: _____ ⑦ 없음

9. 귀하의 연봉(세전)은? : _____ 만 원

* 현 소속 쉼터에서 2019년 1년 전체를 근무한 종사자에 한하여 2019년 월천징수영수증 상의 세전 금액을 작성

10. 초과근무를 포함한 실제 주 평균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시간

(최근 4주간의 실 근로시간 ÷ 4)

11. 다음은 쉼터 종사자 평가 및 인사제도, 복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채용/임용기준과 절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직무, 능력,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과 업무역량개발의 기회 제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승진/재계약의 기회 제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포상, 경조사 지원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쉼터에 종사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2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낮은 보수
 ② 부족한 인력
 ③ 근무환경(사무환경)이 열악함
 ④ 과도한 업무 및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절차
 ⑤ 입소/이용 청소년의 거친 행동 및 자해 등 돌발 상황
 ⑥ 부모 등 보호자의 거친 민원
 ⑦ 기타()

13.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는 소속 쉼터의 지역사회 인지도(지역주민들의 쉼터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내가 근무하는 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근무하는 쉼터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귀하의 업무만족도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번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나의 경력, 전공 및 역량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쉼터의 업무 및 조직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쉼터종사자들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다음 질문은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을 보호·지도하시면서 관찰하시거나 느끼신 점에 대한 것입니다. 주관적 문항이오니 생각하시기에 가능한 정확한 것에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선생님께서 그동안 살펴보신 가출청소년들이 쉼터 입소 전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활했는지 선택해 주세요(1순위~3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세요).

영역	세부 장소	해당 여부 선택
가정 및 집	친구 또는 선후배 집	
	SNS 등으로 만난 사람의 집	
	친척 집	
편의시설	PC방, 만화방, 무인빨래방, 인형뽑기방, 찜질방, 24시간 카페 혹은 상점, 패스트푸드점 등	
숙박시설	여관·모텔·여인숙 등	
노숙	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내, 놀이터·공원, 아파트 등 건물 내 계단, 쇼핑몰 내, 옥상, 지하실 등	
시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시설	
	노숙인 시설	
기타	직접작성()	

17.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 이유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영역	문항
가정적 원인	①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무관심, 학대, 과보호, 지나친 간섭 등)
	②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 (부모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음)
	③ 형제, 자매 등 동기 간의 갈등 때문에
	④ 친척, 조모 등 기타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⑤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 원인	⑥ 평소 우울,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교 요인	⑦ 성적 등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⑧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 교칙 준수의 어려움 등 때문에
	⑨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교우와의 갈등 때문에

구분	세부내용	해당하는 것에 선택
기타	제조업체 등 공장	
	음식이나 물건 배달	
	전단지 배포	
그 외 직접 작성	()	

21. 이용청소년들이 가지는 질환 중 가장 많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충치 및 잇몸질환
- ② 성 관련 문제(임신) 또는 질병(성병 등)
- ③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 ④ 소화불량,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
- ⑤ 기타 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22. 이용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1순위 ~ 3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우울 ② 불안 ③ 충동조절의 어려움 ④ 분노조절의 어려움
- ⑤ 감정 기복이 큼 ⑥ 주의집중 저하 ⑦ 공감능력 부족
- ⑧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 ⑨ 취약한 현실인지 능력 ⑩ 취약한 인지적 능력
- ⑪ 자살 또는 자해 충동
- ⑫ 조현병 등 정신질환 ⑬ 기타()

23. 이용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1순위 ~ 3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방임, 학대 등 부모(보호자)의 양육 문제
- ② 부모 간 갈등, 형제 간 갈등 등 가정 내 갈등 문제
- ③ 또래(선후배)관계 문제
- ④ 학업중단 등 교육문제
- ⑤ 학교 내 따돌림 등 학교 적응 문제
- ⑥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 ⑦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
- ⑧ 흡연, 술 등 약물문제

- ⑨ 경제적 자립 문제
- ⑩ 비행 및 범죄 문제
- ⑪ 성적문제(성희롱·성폭행 가·피해,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성착취 등)
- ⑫ 기타()

24. 이용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1순위에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금품 절도 및 갈취 피해
- ② 구타, 폭력 등 신체적 피해
- ③ 사기 피해
- ④ 성적문제(성희롱·성폭행 가·피해,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성착취 등)
- ⑤ 기타()

25. 이용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죄 행위는 무엇입니까? 1순위에서 2순위까지 선택
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물건 파손
- ② 금품 절도 및 갈취
- ③ 구타 및 폭력
- ④ 사기
- ⑤ 성적문제(성희롱·성폭행 가·피해,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성착취 등)
- ⑥ 기타()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청소년쉼터 기관 현황(행정지원시스템 입력 자료 분석)

□ 쉼터 설치 위탁유형(2020년 기준)

- 위탁유형은 지자체 민간 위탁이 전체 87개(69.6%), 지자체 직영3개(2.4%), 민간 설치 신고 운영 35개(28.0%)로 나타남

<부록 표 1> 설문참여 기관 쉼터 유형 및 위탁 유형(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단위: 쉼터 수

지역	위탁유형(설문응답 125개)		
	지자체 직영	지자체 민간위탁	민간운영 (설치신고)
계 (비율)	3 (2.4%)	87 (69.6%)	35 (28.0)
강원	-	7	-
경기	2	20	8
경남	-	3	-
경북	-	3	2
광주	-	4	-
대구	1	5	-
대전	-	3	3
부산	-	6	-
서울	-	11	5
울산	-	5	-
인천	-	3	5
전남	-	3	1
전북	-	2	3
제주	-	5	1
충남	-	3	4
충북	-	4	3

□ 쉼터 건물 설치 및 형태(2020년 기준)

- 쉼터 건물 설치 주체는 법인 설치 운영이 82개(65.6%), 지자체 설치 운영 43개(34.4%)로 나타남
 - * 법인 설치의 경우 법인 소유 건물 31개(24.8%), 임대 건물 51개(40.8%)
 - * 지자체 설치의 경우 지자체 소유 건물 29개(23.2%), 임대 건물 14개(11.2%)
- 건물형태의 경우 단독 건물이 58개(47.5%)로 가장 많음

<부록 표 2> 쉼터 건물 설치 주체 및 건물형태(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단위: 쉼터 수

지역	건물 설치주체(설문응답 125개)				건물 형태(설문응답 122개)				
	지자체		법인		단독 건물	연립 주택	상가 건물	아파트	기타
	소유	임대	소유	임대					
전체 (%)	29 (23.2%)	14 (11.2%)	31 (24.8%)	51 (40.8%)	58 (47.5%)	15 (12.3%)	39 (32.0%)	1 (0.8%)	9 (7.4%)
강원	-	-	5	2	5	1	1	-	-
경기	8	6	8	8	8	-	17	-	2
경남	-	-	2	2	4	-	-	-	-
경북	1	-	2	2	4	-	1	-	-
광주	-	-	3	-	2	-	2	-	-
대구	2	-	2	2	3	2	-	-	1
대전	3	-	-	3	2	2	1	-	-
부산	5	-	1	-	5	1	-	-	-
서울	6	3	3	4	5	2	5	1	3
울산	-	-	1	4	3	1	1	-	-
인천	-	2	-	6	2	3	2	-	1
전남	-	-	-	4	1	-	3	-	-
전북	-	-	2	3	3	1	1	-	-
제주	-	2	1	3	4	-	1	-	1
충남	2	-	-	5	3	1	3	-	-
충북	2	1	1	3	4	1	1	-	1

□ 컴퓨터 예산

-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기관(115개 컴퓨터)의 2020년도 전체 평균 예산은 376,577천 원으로 나타남

<부록 표 3> 컴퓨터 평균 예산 및 보조금 비율(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지역		평균 예산(천원)	정부보조 비율	광역 도비 비율	기초단체 비율	법인 비율	외부 비율	기타 비율
전체	평균	376,577.76	0.4	0.3	0.2	0.0	0.0	0.0
	사례수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표준편차	134,694.89	0.2	0.3	0.2	0.0	0.1	0.0
강원	평균	347,803.88	0.5	0.3	0.1	0.0	0.1	0.0
	사례수	8.00	8.0	8.0	8.0	8.0	8.0	8.0
	표준편차	172,813.58	0.2	0.2	0.2	0.0	0.2	0.0
경기	평균	438,406.07	0.3	0.1	0.4	0.0	0.0	0.0
	사례수	28.00	30.0	30.0	30.0	30.0	30.0	30.0
	표준편차	139,431.55	0.2	0.2	0.2	0.1	0.1	0.0
경남	평균	269,332.75	0.4	0.4	0.2	0.0	0.0	0.0
	사례수	4.0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5,703.52	0.0	0.2	0.2	0.0	0.0	0.0
경북	평균	286,528.60	0.4	0.3	0.3	0.0	0.0	0.0
	사례수	5.00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51,340.73	0.1	0.3	0.2	0.0	0.0	0.0
광주	평균	302,594.25	0.3	0.4	0.0	0.0	0.0	0.0
	사례수	4.00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59,783.23	0.2	0.2	0.0	0.0	0.0	0.0
대구	평균	360,607.00	0.3	0.4	0.0	0.0	0.0	0.0
	사례수	4.00	6.0	6.0	6.0	6.0	6.0	6.0
	표준편차	73,304.20	0.2	0.3	0.0	0.0	0.0	0.0
대전	평균	340,732.75	0.3	0.4	0.0	0.0	0.0	0.0
	사례수	4.00	6.0	6.0	6.0	6.0	6.0	6.0
	표준편차	69,106.13	0.2	0.3	0.0	0.0	0.0	0.0
부산	평균	416,694.20	0.3	0.5	0.0	0.0	0.0	0.0
	사례수	5.00	6.0	6.0	6.0	6.0	6.0	6.0
	표준편차	109,860.35	0.2	0.2	0.0	0.0	0.0	0.0

지역		평균 예산(천원)	정부보조 비율	광역 도비 비율	기초단체 비율	법인 비율	외부 비율	기타 비율
서울	평균	466,735.46	0.3	0.5	0.0	0.0	0.0	0.0
	사례수	13.00	16.0	16.0	16.0	16.0	16.0	16.0
	표준편차	202,286.68	0.1	0.3	0.2	0.0	0.0	0.0
울산	평균	392,038.20	0.3	0.2	0.3	0.0	0.2	0.0
	사례수	5.00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50,853.73	0.1	0.2	0.2	0.0	0.1	0.0
인천	평균	386,478.38	0.4	0.5	0.0	0.0	0.0	0.0
	사례수	8.00	8.0	8.0	8.0	8.0	8.0	8.0
	표준편차	98,997.30	0.1	0.0	0.0	0.0	0.0	0.0
전남	평균	266,049.50	0.4	0.2	0.3	0.0	0.0	0.0
	사례수	4.0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36,245.23	0.1	0.0	0.1	0.0	0.0	0.0
전북	평균	274,027.20	0.4	0.2	0.3	0.0	0.0	0.0
	사례수	5.00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63,189.15	0.0	0.2	0.2	0.0	0.0	0.0
제주	평균	437,450.00	0.3	0.5	0.1	0.0	0.0	0.0
	사례수	6.00	6.0	6.0	6.0	6.0	6.0	6.0
	표준편차	101,532.57	0.0	0.3	0.3	0.0	0.0	0.0
충남	평균	286,079.17	0.4	0.1	0.4	0.0	0.0	0.0
	사례수	6.00	7.0	7.0	7.0	7.0	7.0	7.0
	표준편차	47,458.68	0.2	0.2	0.2	0.0	0.0	0.0
충북	평균	290,728.67	0.5	0.2	0.3	0.0	0.0	0.0
	사례수	6.00	6.0	6.0	6.0	6.0	6.0	6.0
	표준편차	64,049.53	0.0	0.2	0.2	0.0	0.0	0.0

□ 컴퓨터 예산 구성

- 2020년 컴퓨터 예산 구성은 전체 평균 인건비 70%, 사업비 23%, 운영비 7% 수준으로 나타남

<부록 표 4> 컴퓨터 예산 구성(행정지원시스템, 2020 기준)

단위: 천원

지역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재산조성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비율
전체	평균	252,591.69	0.70	87,693.47	0.23	27,250.35	0.07	12,290.26	0.03
	사례수	118.00	118.00	118.00	118.00	118.00	117.00	47.00	37.00
	표준편차	85,835.96	0.09	57,553.12	0.07	29,896.44	0.05	22,661.02	0.04
강원	평균	210,590.38	0.73	61,050.50	0.21	17,764.88	0.06	10,980.00	0.03
	사례수	8.00	8.00	8.00	8.00	8.00	8.00	2.00	2.00
	표준편차	57,142.89	0.04	16,746.25	0.03	9,587.13	0.03	3,648.67	0.01
경기	평균	288,860.96	0.68	103,034.39	0.23	34,807.93	0.08	17,796.31	0.04
	사례수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13.00	11.00
	표준편차	88,485.97	0.09	55,450.51	0.08	19,107.39	0.03	40,081.15	0.07
경남	평균	204,943.00	0.77	53,390.00	0.20	6,752.00	0.03	2,000.00	0.01
	사례수	4.00	4.00	4.00	4.00	4.00	4.00	1.00	1.00
	표준편차	6,541.53	0.03	7,061.05	0.02	2,878.55	0.01	-	-
경북	평균	212,762.60	0.72	57,645.60	0.19	26,169.40	0.09	3,480.00	0.01
	사례수	5.00	5.00	5.00	5.00	5.00	5.00	1.00	1.00
	표준편차	35,662.79	0.06	13,578.38	0.02	16,448.26	0.05	-	-
광주	평균	233,182.00	0.77	52,480.75	0.17	16,735.75	0.07	13,900.00	0.05
	사례수	4.00	4.00	4.00	4.00	4.00	3.00	1.00	1.00
	표준편차	32,878.53	0.04	14,858.00	0.03	17,034.83	0.04	-	-
대구	평균	257,370.75	0.72	87,617.25	0.24	11,781.50	0.03	15,349.00	0.06
	사례수	4.00	4.00	4.00	4.00	4.00	4.00	1.00	1.00
	표준편차	54,911.67	0.02	21,639.45	0.02	5,655.75	0.02	-	-
대전	평균	193,816.17	0.70	76,422.17	0.26	11,276.67	0.04	11,000.00	0.03
	사례수	6.00	6.00	6.00	6.00	6.00	6.00	1.00	1.00
	표준편차	104,171.03	0.07	47,255.37	0.08	6,098.97	0.01	-	-
부산	평균	291,066.50	0.74	83,982.50	0.20	15,886.67	0.04	27,758.00	0.11
	사례수	6.00	6.00	6.00	6.00	6.00	6.00	2.00	1.00
	표준편차	57,712.46	0.08	55,241.34	0.08	7,654.89	0.01	37,841.53	-

지역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재산조성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비율
서울	평균	291,604.43	0.60	162,879.14	0.32	43,443.64	0.09	6,705.38	0.02
	사례수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8.00	5.00
	표준편차	125,588.38	0.10	92,855.39	0.08	36,476.58	0.05	6,476.14	0.01
울산	평균	266,419.00	0.69	77,053.20	0.20	30,045.60	0.08	14,210.40	0.04
	사례수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00
	표준편차	38,877.54	0.04	16,769.42	0.04	6,903.19	0.02	10,956.68	0.02
인천	평균	269,397.50	0.68	77,872.25	0.20	52,964.75	0.11	16,962.00	0.04
	사례수	8.00	8.00	8.00	8.00	8.00	8.00	3.00	3.00
	표준편차	76,556.57	0.13	40,392.84	0.09	86,860.26	0.14	8,757.08	0.01
전남	평균	191,383.00	0.72	48,187.50	0.19	19,807.50	0.07	6,662.00	0.02
	사례수	4.00	4.00	4.00	4.00	4.00	4.00	3.00	3.00
	표준편차	27,583.49	0.03	4,867.99	0.03	12,191.97	0.03	2,246.52	0.01
전북	평균	202,782.75	0.75	57,399.25	0.21	11,891.00	0.04	2,000.00	0.01
	사례수	4.00	4.00	4.00	4.00	4.00	4.00	1.00	1.00
	표준편차	56,070.93	0.03	25,825.65	0.04	2,721.09	0.01	-	-
제주	평균	305,901.67	0.72	90,947.00	0.20	29,896.83	0.07	7,555.00	0.03
	사례수	6.00	6.00	6.00	6.00	6.00	6.00	3.00	2.00
	표준편차	77,305.83	0.04	51,644.06	0.06	10,571.85	0.03	5,028.48	0.01
충남	평균	174,819.17	0.69	55,452.50	0.23	15,815.50	0.08	-	-
	사례수	6.00	6.00	6.00	6.00	6.00	6.00	-	-
	표준편차	65,065.21	0.10	21,685.56	0.04	5,803.32	0.07	-	-
충북	평균	207,862.17	0.75	60,093.17	0.21	13,445.17	0.05	1,426.50	-
	사례수	6.00	6.00	6.00	6.00	6.00	6.00	2.00	-
	표준편차	45,897.71	0.03	21,153.97	0.02	5,980.26	0.01	245.37	-

□ 컴퓨터 종사자 직종

- 컴퓨터 직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보호상담원으로 조사된 전체 종사자 950명 중 415명으로 43.7%를 차지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야간보호상담원(168명, 17.7%)으로 나타남

<부록 표 5> 컴퓨터 종사자 직종(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직종							전체
	시설장	보호 상담원	야간보호 상담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행정원	취사원	자립지원 요원	
전체	124	415	168	96	95	50	2	950
	13.1%	43.7%	17.7%	10.1%	10.0%	5.3%	0.2%	100.0%
강원	10	38	9	9	3	5	0	74
	1.1%	4.0%	0.9%	0.9%	0.3%	0.5%	0.0%	7.8%
경기	29	102	59	18	29	11	0	248
	3.1%	10.7%	6.2%	1.9%	3.1%	1.2%	0.0%	26.1%
경남	2	7	2	0	0	1	0	12
	0.2%	0.7%	0.2%	0.0%	0.0%	0.1%	0.0%	1.3%
경북	4	11	4	0	2	3	0	24
	0.4%	1.2%	0.4%	0.0%	0.2%	0.3%	0.0%	2.5%
광주	4	13	5	3	3	1	0	29
	0.4%	1.4%	0.5%	0.3%	0.3%	0.1%	0.0%	3.1%
대구	5	19	5	5	2	2	0	38
	0.5%	2.0%	0.5%	0.5%	0.2%	0.2%	0.0%	4.0%
대전	6	25	6	7	2	2	1	49
	0.6%	2.6%	0.6%	0.7%	0.2%	0.2%	0.1%	5.2%
부산	6	19	12	5	5	2	0	49
	0.6%	2.0%	1.3%	0.5%	0.5%	0.2%	0.0%	5.2%
서울	16	49	19	25	18	5	0	132
	1.7%	5.2%	2.0%	2.6%	1.9%	0.5%	0.0%	13.9%
울산	5	14	7	3	5	1	0	35
	0.5%	1.5%	0.7%	0.3%	0.5%	0.1%	0.0%	3.7%
인천	8	32	7	6	7	6	1	67
	0.8%	3.4%	0.7%	0.6%	0.7%	0.6%	0.1%	7.1%
전남	4	9	4	0	3	4	0	24
	0.4%	0.9%	0.4%	0.0%	0.3%	0.4%	0.0%	2.5%

구분	직종							전체
	시설장	보호 상담원	야간보호 상담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행정원	취사원	자립지원 요원	
전북	5	14	9	3	2	3	0	36
	0.5%	1.5%	0.9%	0.3%	0.2%	0.3%	0.0%	3.8%
제주	6	18	6	8	5	0	0	43
	0.6%	1.9%	0.6%	0.8%	0.5%	0.0%	0.0%	4.5%
충남	7	21	9	0	5	1	0	43
	0.7%	2.2%	0.9%	0.0%	0.5%	0.1%	0.0%	4.5%
충북	7	24	5	4	4	3	0	47
	0.7%	2.5%	0.5%	0.4%	0.4%	0.3%	0.0%	4.9%

※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 자료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종사자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컴퓨터 종사자 학력 및 전공, 자격증

- 대학 졸업이 전체응답자(759명) 중 523명(6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은 사회복지가 전체 응답자(682명) 중 351명(51.5%)로 가장 많음
- 소지한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가 697명(73.4%)으로 가장 많았음

<부록 표 6> 컴퓨터 종사자 학력 및 전공, 자격증(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구분	구분	명	백분율
학력	대졸	523	65.8
	석졸	169	21.3
	박사졸	9	1.1
	전문학사	45	5.7
	평생교육 및 학점은행	7	0.9
	고졸	40	5.0
	중졸	2	0.3
	계	795	100.0
전공	사회복지	351	51.5
	상담심리	101	14.8
	교육학	21	3.1
	청소년	82	12.0
	아동	11	1.6
	기타	116	17.0
	계	682	100.0
자격증 ※ 자격증 소지 비율은 중복 자격 소지로 전체 950명 대비 비율로 산출	사회복지사	697	73.4
	청소년상담사	176	18.5
	청소년지도사	315	33.2
	임상심리사	10	1.1
	교원자격증	49	5.2
	계	1,247	-

□ 쉼터 종사자 수당

- 2020년 기준 종사자 수당은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장 많았음(101개 쉼터에서 지급)
- 그 다음 순으로는 시간외 수당으로 73개 쉼터에서 지급

<부록 표 7> 쉼터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단위: 쉼터 수

지역	명절 휴가비	시간외수 당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기말 수당	자격 수당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연가 보상비
전체	101	73	57	13	15	32	19	54	23
강원	6	4	1	1	1	2	3	1	2
경기	26	18	18	1	-	4	1	15	4
경남	5	2	1	-	-	2	-	1	1
경북	4	4	-	1	1	3	2	-	1
광주	5	4	-	-	-	-	-	-	-
대구	5	3	-	-	-	1	-	2	2
대전	6	-	-	-	-	1	-	6	-
부산	6	6	5	-	-	-	-	6	-
서울	15	13	13	10	12	12	13	14	11
울산	5	-	5	-	-	5	-	2	-
인천	7	6	5					2	-
전남	1	-	-	-	-	2	-	-	-
전북	1	-	-	-	-	-	-	-	-
제주	2	6	6	-	1	-	-	2	-
충남	4	5	3	-	-	-	-	2	2
충북	3	2	-	-	-	-	-	1	-

□ 쉽터 청소년 입소 현황

- 2019년 기준 단기·중장기 쉽터의 청소년 입소현황은 조사된 70개 쉽터의 평균 연인원은 2,960명이었으며, 실인원은 평균 41명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퇴소인원은 전체 단기·중장기 쉽터 평균 65명
 - * 무단퇴소는 쉽터 평균 5명

<부록 표 8> 단기·중장기 쉽터 청소년 입소 현황(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지역		연인원	실인원	퇴소인원	무단퇴소
전체	평균	2,960	41	65	5
	사례수	70	72	71	38
	표준편차	1,177	49	71	5
강원	평균	2,874	35	34	2
	사례수	4	4	4	3
	표준편차	1,974	45	44	1
경기	평균	3,528	63	105	7
	사례수	17	17	17	13
	표준편차	1,161	58	69	5
경남	평균	2,474	22	24	3
	사례수	3	3	3	1
	표준편차	735	27	22	-
경북	평균	2,898	18	15	-
	사례수	2	3	3	-
	표준편차	95	19	15	-
광주	평균	2,941	28	33	1
	사례수	3	3	3	1
	표준편차	524	36	43	-
대구	평균	2,341	23	19	1
	사례수	2	2	2	1
	표준편차	729	25	19	-
대전	평균	2,306	73	68	11
	사례수	3	3	3	2

지역		연인원	실인원	퇴소인원	무단퇴소
	표준편차	446	110	107	13
부산	평균	3,028	33	73	4
	사례수	4	4	4	2
	표준편차	1,108	48	88	2
서울	평균	3,509	45	52	6
	사례수	6	6	6	3
	표준편차	1,797	42	41	3
울산	평균	2,289	17	21	1
	사례수	3	3	3	1
	표준편차	662	16	15	-
인천	평균	3,863	46	73	9
	사례수	4	4	4	2
	표준편차	1,115	65	68	1
전남	평균	2,915	58	84	2
	사례수	3	3	3	1
	표준편차	347	81	74	-
전북	평균	3,170	51	62	6
	사례수	2	3	2	1
	표준편차	110	40	7	-
제주	평균	2,223	16	19	2
	사례수	4	4	4	2
	표준편차	488	10	13	1
충남	평균	2,259	9	117	2
	사례수	6	6	6	4
	표준편차	1,512	2	136	1
충북	평균	2,273	43	38	3
	사례수	4	4	4	1
	표준편차	632	44	40	-

□ 입소 거부유형

- 2019년 기준 단기·중장기쉼터에서 쉼터 입소를 거부 비율은 입소자 대비 전체평균 28.7%로 나타남
- 입소 거부 사유로는 정원이 초과되어 입소가 어려운 경우(10.7%)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10.5%)가 다소 높게 나타남

<부록 표 9> 입소거부 유형(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평균	5.1	4.5	10.5	4.5	8.3	4.7	10.7	28.7
	사례수	84.0	84.0	125.0	84.0	87.0	80.0	83.0	67.0
	표준편차	11.1	13.8	22.6	11.3	18.5	12.9	23.5	42.6
강원	평균	6.0	4.0	13.3	6.0	2.0	4.0	2.0	25.0
	사례수	5.0	5.0	6.0	5.0	5.0	5.0	5.0	4.0
	표준편차	8.9	5.5	28.0	13.4	4.5	8.9	4.5	50.0
경기	평균	7.1	9.9	7.1	3.3	10.7	2.6	4.1	48.8
	사례수	22.0	20.0	29.0	20.0	21.0	19.0	20.0	16.0
	표준편차	13.0	24.7	15.0	7.7	24.5	8.1	13.5	49.4
경남	평균	0.0	0.0	0.0	0.0	0.0	0.0	0.0	25.3
	사례수	4.0	4.0	5.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0	0.0	0.0	0.0	0.0	0.0	0.0	49.8
경북	평균	0.0	0.0	40.0	1.8	0.0	0.0	14.0	34.3
	사례수	4.0	4.0	5.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0	0.0	54.8	3.5	0.0	0.0	28.0	44.3
광주	평균	0.0	10.0	11.4	10.0	10.7	0.0	28.0	0.0
	사례수	2.0	3.0	5.0	3.0	3.0	2.0	2.0	1.0
	표준편차	0.0	17.3	13.8	17.3	11.0	0.0	39.6	0.0
대구	평균	13.3	16.7	6.7	10.0	10.0	12.5	12.5	36.7
	사례수	3.0	3.0	6.0	3.0	3.0	4.0	4.0	3.0
	표준편차	15.3	15.3	12.1	10.0	10.0	25.0	25.0	55.1
대전	평균	6.6	1.8	0.5	9.6	1.5	0.0	0.0	6.0
	사례수	5.0	5.0	6.0	5.0	4.0	4.0	4.0	2.0
	표준편차	13.1	3.5	1.2	19.8	2.4	0.0	0.0	8.5
부산	평균	1.3	2.5	4.2	0.0	29.0	25.0	0.0	10.0
	사례수	4.0	4.0	6.0	3.0	5.0	3.0	3.0	4.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표준편차	2.5	5.0	8.0	0.0	38.1	43.3	0.0	20.0
서울	평균	5.7	0.8	6.6	10.9	9.9	1.7	11.1	17.2
	사례수	7.0	6.0	16.0	8.0	8.0	6.0	9.0	5.0
	표준편차	7.9	2.0	13.8	20.0	17.2	4.1	22.8	33.7
울산	평균	0.0	1.4	0.0	1.4	5.2	1.4	30.6	25.0
	사례수	4.0	5.0	5.0	5.0	5.0	5.0	5.0	4.0
	표준편차	0.0	3.1	0.0	3.1	11.6	3.1	45.1	50.0
인천	평균	0.3	0.0	10.3	0.3	3.5	10.0	16.7	33.8
	사례수	4.0	4.0	8.0	4.0	4.0	3.0	3.0	4.0
	표준편차	0.5	0.0	22.8	0.5	4.7	17.3	28.9	46.9
전남	평균	0.0	6.7	47.5	5.0	15.0	0.0	75.0	0.0
	사례수	2.0	3.0	4.0	2.0	2.0	2.0	2.0	2.0
	표준편차	0.0	11.5	49.9	7.1	21.2	0.0	35.4	0.0
전북	평균	13.3	0.0	8.0	0.0	10.0	10.0	6.7	25.0
	사례수	3.0	3.0	5.0	3.0	4.0	4.0	3.0	4.0
	표준편차	23.1	0.0	17.9	0.0	20.0	11.5	11.5	50.0
제주	평균	0.0	6.0	16.7	0.0	0.0	8.0	12.5	0.0
	사례수	4.0	5.0	6.0	4.0	4.0	5.0	4.0	2.0
	표준편차	0.0	13.4	25.8	0.0	0.0	11.0	25.0	0.0
충남	평균	9.3	0.0	1.4	2.1	8.3	0.0	8.6	25.0
	사례수	7.0	6.0	7.0	7.0	6.0	6.0	7.0	4.0
	표준편차	18.8	0.0	3.8	5.7	20.4	0.0	22.7	50.0
충북	평균	5.0	0.0	29.5	12.5	6.6	12.5	12.5	30.0
	사례수	4.0	4.0	6.0	4.0	5.0	4.0	4.0	4.0
	표준편차	10.0	0.0	32.8	25.0	14.8	25.0	25.0	47.6

①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 ②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③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 ④ 기타 입소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⑤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⑥ 청소년이 부모(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⑦ 정원이 초과되어서 입소가 어려운 경우, ⑧ 기타

※ 조사대상: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대상

□ 강제퇴소 유형

- 2019년 단기·중장기 쉼터의 강제 퇴소자 중 쉼터 안에서 질서문란 행위로 퇴소한 사유가 전체 평균 인원 0.3명(강제퇴소 비율 중 11.5%)로 나타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는 전체 평균 인원 0.1명(강제퇴소 비율 중 5.0%)로 나타남

<부록 표 10> 단기·중장기 쉼터 강제퇴소 유형(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구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평균	0.1	5.0	0.3	11.5	1.2	62.9
	사례수	68.0	46.0	69.0	47.0	70.0	58.0
	표준편차	0.4	18.0	0.7	24.8	2.1	45.8
강원	평균	0.0	0.0	0.0	0.0	0.7	66.7
	사례수	4.0	4.0	4.0	3.0	3.0	3.0
	표준편차	0.0	0.0	0.0	0.0	0.6	57.7
경기	평균	0.0	0.0	0.4	9.1	1.4	71.3
	사례수	17.0	14.0	17.0	13.0	18.0	18.0
	표준편차	0.0	0.0	0.9	18.0	2.1	41.9
경남	평균	0.0	0.0	0.0	0.0	2.3	50.0
	사례수	3.0	2.0	3.0	2.0	3.0	2.0
	표준편차	0.0	0.0	0.0	0.0	4.0	70.7
경북	평균	0.0	0.0	0.0	0.0	0.3	66.7
	사례수	4.0	3.0	4.0	3.0	4.0	3.0
	표준편차	0.0	0.0	0.0	0.0	0.5	57.7
광주	평균	0.0	-	0.0	-	0.7	100.0
	사례수	2.0	-	2.0	-	3.0	1.0
	표준편차	0.0	-	0.0	-	1.2	-
대구	평균	0.0	0.0	0.5	50.0	1.0	66.7
	사례수	2.0	1.0	2.0	2.0	2.0	3.0
	표준편차	0.0	-	0.7	70.7	1.4	57.7
대전	평균	0.0	0.0	0.5	0.0	3.5	0.0
	사례수	4.0	2.0	4.0	2.0	2.0	1.0
	표준편차	0.0	0.0	1.0	0.0	4.9	-

구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웹터에 입소한 경우		웹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부산	평균	0.0	0.0	0.0	0.0	1.0	25.5
	사례수	1.0	2.0	1.0	2.0	2.0	4.0
	표준편차	-	0.0	-	0.0	1.4	49.7
서울	평균	0.3	9.3	0.3	9.7	2.9	60.8
	사례수	6.0	3.0	6.0	3.0	7.0	4.0
	표준편차	0.8	16.2	0.8	16.7	3.9	42.7
울산	평균	0.0	0.0	0.0	0.0	0.5	66.7
	사례수	3.0	2.0	3.0	2.0	4.0	3.0
	표준편차	0.0	0.0	0.0	0.0	1.0	57.7
인천	평균	0.0	25.0	0.3	25.0	0.3	0.0
	사례수	3.0	2.0	4.0	2.0	3.0	2.0
	표준편차	0.0	35.4	0.5	35.4	0.6	0.0
전남	평균	0.7	50.0	0.3	33.0	0.5	89.0
	사례수	3.0	2.0	3.0	1.0	4.0	3.0
	표준편차	1.2	70.7	0.6	-	1.0	19.1
전북	평균	0.0	0.0	0.0	0.0	0.3	33.3
	사례수	4.0	2.0	4.0	2.0	4.0	3.0
	표준편차	0.0	0.0	0.0	0.0	0.5	57.7
제주	평균	0.0	0.0	0.3	50.0	0.5	100.0
	사례수	3.0	1.0	3.0	2.0	2.0	1.0
	표준편차	0.0	-	0.6	70.7	0.7	-
충남	평균	0.0	0.0	0.4	2.5	1.0	100.0
	사례수	5.0	3.0	5.0	4.0	4.0	2.0
	표준편차	0.0	0.0	0.9	5.0	1.4	0.0
충북	평균	0.3	16.7	0.8	25.0	0.8	70.0
	사례수	4.0	3.0	4.0	4.0	5.0	5.0
	표준편차	0.5	28.9	1.0	28.9	0.8	44.7

□ 귀가 거부 사유

-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귀가를 거부하는 사유 중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 가 전체 27.9%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록 표 11>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귀가 거부 사유

(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평균	27.9	19.1	15.6	1.5	4.5	12.2	12.8	17.8
	사례수	93.0	87.0	90.0	61.0	65.0	80.0	79.0	51.0
	표준편차	23.9	18.1	21.3	8.0	9.8	14.3	17.4	35.5
강원	평균	30.0	20.0	16.0	0.0	2.5	8.0	5.0	25.0
	사례수	5.0	5.0	5.0	4.0	4.0	5.0	4.0	4.0
	표준편차	18.7	12.2	8.9	0.0	5.0	4.5	5.8	50.0
경기	평균	26.8	20.9	15.0	1.0	2.1	11.9	8.6	30.8
	사례수	24.0	22.0	24.0	16.0	17.0	19.0	20.0	14.0
	표준편차	25.3	19.6	22.2	4.0	5.3	13.4	10.4	43.3
경남	평균	0.0	0.0	50.0	0.0	0.0	0.0	0.0	0.0
	사례수	2.0	2.0	2.0	2.0	2.0	2.0	2.0	1.0
	표준편차	0.0	0.0	70.7	0.0	0.0	0.0	0.0	-
경북	평균	12.5	20.0	7.5	0.0	0.0	0.0	13.3	50.0
	사례수	4.0	4.0	4.0	2.0	2.0	2.0	3.0	2.0
	표준편차	15.0	24.5	9.6	0.0	0.0	0.0	23.1	70.7
광주	평균	33.3	21.0	23.3	0.0	0.0	5.0	0.0	0.0
	사례수	4.0	3.0	4.0	1.0	1.0	2.0	1.0	1.0
	표준편차	23.6	18.2	22.6	-	-	7.1	-	-
대구	평균	22.5	20.0	15.0	3.3	13.3	17.5	16.7	50.0
	사례수	4.0	4.0	4.0	3.0	3.0	4.0	3.0	2.0
	표준편차	9.6	8.2	12.9	5.8	11.5	5.0	5.8	70.7
대전	평균	30.8	14.0	6.3	0.0	1.3	5.0	7.5	5.3
	사례수	4.0	4.0	4.0	4.0	4.0	4.0	4.0	3.0
	표준편차	33.3	11.0	9.5	0.0	2.5	5.8	11.9	5.5
부산	평균	35.0	23.3	13.5	0.0	5.0	17.6	14.0	0.0
	사례수	5.0	4.0	4.0	4.0	4.0	5.0	5.0	3.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표준편차	21.8	27.4	9.3	0.0	5.8	15.4	16.4	0.0
서울	평균	34.3	19.1	10.4	1.3	2.8	13.8	9.3	8.8
	사례수	8.0	8.0	7.0	4.0	4.0	6.0	7.0	5.0
	표준편차	24.2	15.2	6.8	2.5	4.9	15.4	7.9	15.2
울산	평균	35.3	26.3	10.5	0.0	10.0	6.7	24.0	0.0
	사례수	4.0	4.0	4.0	2.0	2.0	3.0	3.0	1.0
	표준편차	23.3	18.0	7.4	0.0	14.1	11.5	26.0	-
인천	평균	41.8	18.5	10.3	0.0	0.0	14.8	12.8	0.0
	사례수	4.0	4.0	4.0	3.0	3.0	5.0	4.0	2.0
	표준편차	30.5	10.8	11.3	0.0	0.0	10.1	9.1	0.0
전남	평균	26.7	28.7	31.7	0.0	13.5	22.5	22.3	0.0
	사례수	3.0	3.0	3.0	1.0	2.0	2.0	3.0	1.0
	표준편차	20.8	32.3	41.9	-	4.9	3.5	15.7	-
전북	평균	36.8	38.0	40.5	20.0	20.0	23.0	21.3	0.0
	사례수	5.0	4.0	4.0	3.0	4.0	5.0	4.0	2.0
	표준편차	35.8	33.1	43.2	34.6	28.3	33.5	39.2	0.0
제주	평균	27.8	12.0	14.0	0.0	6.3	18.2	33.0	5.5
	사례수	5.0	4.0	5.0	4.0	4.0	5.0	4.0	2.0
	표준편차	26.7	15.7	21.9	0.0	12.5	21.6	45.9	7.8
충남	평균	15.7	9.3	5.7	0.0	4.0	6.7	10.7	0.0
	사례수	7.0	7.0	7.0	4.0	5.0	6.0	7.0	3.0
	표준편차	19.9	10.2	6.1	0.0	6.5	7.5	11.7	0.0
충북	평균	27.4	9.0	15.8	0.0	0.0	10.0	16.8	21.0
	사례수	5.0	5.0	5.0	4.0	4.0	5.0	5.0	5.0
	표준편차	26.7	8.9	16.4	0.0	0.0	12.2	13.1	44.2

①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되어서, ②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 ③갈 집이 없으므로, ④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⑤돈을 벌수 있어서, ⑥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므로, ⑦집에 가도 가족들이 싫어해서, ⑧기타

□ 입소자 중 법원 보호처분 청소년

- 2019년 일시고정형 및 단기·중장기 쉼터 입소 청소년 중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판결을 받은 입소자 수
 - 입소 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전체 202명으로 조사됨(남자 121명, 여자 81명)
 - 입소 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68명(남자 42명, 여자 26명)

<부록 표 12> 쉼터 입소 전 보호처분 청소년 수(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성별		계	보호처분 유형										위탁 유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21	81	202	28	6	3	43	57	22	2	4	7	11	74
강원	0	3	3	0	0	0	0	0	3	0	0	0	0	2
경기	44	27	71	9	1	1	19	22	7	1	1	2	5	23
경남	5	3	8	1	0	0	2	2	0	0	0	0	0	2
경북	4	2	6	0	0	0	3	1	1	0	0	0	0	3
광주	0	11	11	2	2	0	0	0	3	1	1	0	2	11
대구	3	4	7	2	0	0	1	1	0	0	0	1	1	3
대전	4	0	4	1	0	0	1	1	0	0	0	0	0	3
부산	2	0	2	0	0	0	0	1	1	0	0	0	0	1
서울	21	3	24	2	0	1	9	8	1	0	0	1	1	3
울산	7	1	8	1	0	0	0	3	0	0	0	1	2	4
인천	6	10	16	5	0	0	5	3	1	0	0	1	0	3
전남	0	1	1	0	0	0	0	1	0	0	0	0	0	1
전북	13	4	17	4	0	0	1	9	0	0	0	0	0	6
제주	3	5	8	0	0	0	1	4	1	0	1	0	0	4
충남	4	3	7	1	1	1	0	0	0	0	0	1	0	0
충북	5	4	9	0	2	0	1	1	4	0	1	0	0	5

<부록 표 13> 쉼터 입소 중 보호처분 청소년 수(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성별		계	보호처분 유형										위탁 유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계	42	26	68	9	2	2	12	13	8	1	2	3	7	33
강원	2	1	3	0	0	0	1	1	1	0	0	0	0	2
경기	12	5	17	2	0	0	3	5	3	0	0	1	0	9
경남	2	3	5	0	0	1	0	1	2	0	0	0	0	3
경북	2	1	3	0	0	0	0	1	0	0	0	0	1	2
광주	1	10	11	2	1	0	1	1	1	0	1	1	2	7
대구	5	2	7	0	0	0	4	0	0	0	0	0	1	1
대전	4	0	4	0	0	0	1	1	0	1	0	0	1	1
부산	2	0	2	0	0	0	1	0	0	0	0	0	1	0
서울	4	1	5	2	0	1	1	0	0	0	1	0	0	3
전북	6	1	7	2	0	0	0	3	0	0	0	1	1	5
제주	2	2	4	1	1	0	0	1	1	0	0	0	0	0

※ 자료입력이 안 된 지역은 표에서 삭제함

□ 쉼터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 일시고정, 단기·중장기 쉼터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조사
- 교대근무 유형은 2교대 41개(60%), 3교대 25개(40%), 4교대 1개 쉼터로 조사

<부록 표 14> 쉼터의 교대근무 유형(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단위: 쉼터 수

구분	2교대		3교대		4교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41	0.6	25	0.4	1	0.0	67	1
강원	4	1.0	0	0.0	0	0.0	4	1
경기	14	0.7	5	0.3	0	0.0	19	1
경남	3	0.8	1	0.3	0	0.0	4	1
경북	1	0.5	1	0.5	0	0.0	2	1
광주	4	0.8	1	0.2	0	0.0	5	1
대구	1	0.2	4	0.8	0	0.0	5	1
대전	1	0.3	3	0.8	0	0.0	4	1
부산	2	0.3	4	0.7	0	0.0	6	1

구분	2교대		3교대		4교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3	0.3	5	0.6	1	0.1	9	1
전남	2	1.0	0	0.0	0	0.0	2	1
전북	1	1.0	0	0.0	0	0.0	1	1
제주	2	1.0	0	0.0	0	0.0	2	1
충남	3	0.8	1	0.3	0	0.0	4	1

※ 자료입력이 안 된 지역은 표에서 삭제함

□ 고정형, 단기·중장기형 컴퓨터 침실 현황

- 고정형, 단기·중장기형의 이용자 침실은 전체 평균 3.1개로 나타남

<부록 표 15> 고정형, 단기·중장기형 침실현황(행정지원시스템, 2020년 기준)

지역	침실 수	응답 컴퓨터 수	평균 침실 수
전체	200	65	3.1
강원	16	5	3.2
경기	57	19	3.0
경남	7	4	1.8
경북	9	2	4.5
광주	11	4	2.8
대구	21	5	4.2
대전	10	4	2.5
부산	16	5	3.2
서울	34	9	3.8
전남	8	2	4.0
전북	1	1	1.0
제주	2	1	2.0
충남	8	4	2.0

※ 자료입력이 안 된 지역은 표에서 삭제함

□ 시설의 보호 현황

- 2019년 기준 고정형, 단기·중장기 쉼터 평균 정원은 12.6명, 신규 입소자는 평균 194.1명으로 나타남
- 2019년 퇴소자 평균은 230.4명, 퇴소자의 평균 보호시간은 162.7일로 나타남

<부록 표 16> 청소년 보호현황(행정지원시스템)

단위: 명

구분		19년 정원	18년 말 현원	19년 신규 입소자 수	19년 퇴소자 수	19년 말 현원	19년 시설 입소율	19년 퇴소자의 평균 보호시간
전체	평균	12.6	22.4	194.1	230.4	108.0	63.4	162.7
	사례수	64.0	61.0	63.0	64.0	64.0	60.0	57.0
	표준편차	8.2	94.8	410.0	463.8	346.8	31.1	261.9
강원	평균	11.4	151.8	184.8	146.0	153.6	33.8	185.0
	사례수	5.0	5.0	4.0	5.0	5.0	4.0	4.0
	표준편차	3.8	325.5	276.1	254.4	323.9	17.9	222.4
경기	평균	16.0	18.4	181.4	411.4	248.9	67.5	64.0
	사례수	18.0	16.0	17.0	17.0	17.0	17.0	16.0
	표준편차	13.8	38.2	308.0	674.2	545.0	26.7	109.5
경남	평균	8.3	6.5	429.0	429.3	6.5	83.7	486.0
	사례수	4.0	4.0	4.0	4.0	4.0	3.0	3.0
	표준편차	2.1	4.1	826.2	826.7	3.9	33.5	419.6
경북	평균	9.5	10.0	16.0	16.5	9.5	90.5	193.0
	사례수	2.0	2.0	2.0	2.0	2.0	2.0	2.0
	표준편차	3.5	2.8	17.0	20.5	0.7	36.1	113.1
광주	평균	8.6	7.2	43.4	44.2	12.4	81.8	196.8
	사례수	5.0	5.0	5.0	5.0	5.0	5.0	4.0
	표준편차	1.3	1.3	48.4	50.3	3.7	42.5	134.1
대구	평균	10.8	7.8	449.8	171.8	320.4	66.3	59.7
	사례수	5.0	5.0	5.0	5.0	5.0	4.0	3.0
	표준편차	4.0	4.8	927.5	306.4	604.6	19.3	51.7
대전	평균	13.0	9.0	96.0	97.5	7.5	52.0	426.3
	사례수	4.0	4.0	4.0	4.0	4.0	4.0	3.0
	표준편차	5.7	2.3	114.6	114.1	2.6	34.2	371.7

구분		19년 정원	18년 말 현원	19년 신규 입소자 수	19년 퇴소자 수	19년 말 현원	19년 시설 입소율	19년 퇴소자의 평균 보호시간
부산	평균	13.4	6.8	296.0	297.4	7.2	52.8	245.2
	사례수	5.0	5.0	5.0	5.0	5.0	5.0	5.0
	표준편차	3.6	6.2	285.8	284.8	3.0	32.3	515.5
서울	평균	14.1	9.5	263.5	263.5	9.9	77.3	172.1
	사례수	8.0	8.0	8.0	8.0	8.0	8.0	8.0
	표준편차	5.2	5.3	491.4	492.1	7.0	25.1	352.2
전남	평균	12.0	8.5	36.0	36.0	8.5	60.0	219.0
	사례수	2.0	2.0	2.0	2.0	2.0	1.0	2.0
	표준편차	2.8	0.7	43.8	43.8	0.7		182.4
전북	평균	7.0	7.0	13.0	13.0	7.0	3.0	106.0
	사례수	1.0	1.0	1.0	1.0	1.0	1.0	1.0
	표준편차	-	-	-	-	-	-	-
제주	평균	7.5	3.0	21.5	19.5	4.5	66.5	41.0
	사례수	2.0	2.0	2.0	2.0	2.0	2.0	2.0
	표준편차	0.7	1.4	6.4	9.2	0.7	2.1	36.8
충남	평균	12.0	8.0	23.8	20.8	5.8	33.0	48.8
	사례수	3.0	2.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3.5	0.0	24.8	26.7	2.1	28.4	29.8

※ 자료입력이 안 된 지역은 표에서 삭제함

□ 퇴소 청소년 중 통상적인 보호기관을 경과한 현황

- 2019년 퇴소 대상 청소년 중 통상적인 보호기관을 경과한 인원은 평균 234.1명으로 조사
- 보호기관을 경과한 사유로는 ‘적합한 연계기관을 찾지 못함’에 해당하는 인원이 쉼터 평균 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록 표 17> 퇴소 청소년 중 통상적인 보호기관을 경과한 현황

(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보호기관을 경과하여 퇴소한 청소년 수	사유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적합한 연계기관을 찾지 못함	갈 곳이 없음	자립 준비가 안 되어 있음	기타	
전체	평균	234.1	3.5	6.4	2.9	2.9	3.1
	사례수	63.0	25.0	16.0	21.0	20.0	7.0
	표준편차	466.6	2.6	8.0	3.3	2.0	2.8
강원	평균	146.0	3.0	1.0	1.3	1.5	-
	사례수	5.0	3.0	2.0	4.0	2.0	-
	표준편차	254.4	2.0	0.0	0.5	0.7	-
경기	평균	409.1	4.0	4.0	3.6	3.7	1.0
	사례수	17.0	8.0	4.0	5.0	6.0	2.0
	표준편차	675.6	2.9	2.9	4.3	2.0	0.0
경남	평균	428.3	5.0	-	-	1.0	-
	사례수	4.0	1.0	-	-	1.0	-
	표준편차	826.7	-	-	-	-	-
경북	평균	16.5	-	-	-	-	-
	사례수	2.0	-	-	-	-	-
	표준편차	20.5	-	-	-	-	-
광주	평균	27.0	-	30.0	-	-	-
	사례수	4.0	-	1.0	-	-	-
	표준편차	37.3	-	-	-	-	-
대구	평균	171.8	3.0	10.0	2.3	2.3	5.0
	사례수	5.0	4.0	2.0	4.0	3.0	3.0
	표준편차	306.4	2.2	12.7	2.5	2.3	3.6
대전	평균	97.5	5.0	7.0	12.0	4.5	-

구분	보호기관을 경과하여 퇴소한 청소년 수	사유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적합한 연계 기관을 찾지 못함	갈 곳이 없음	자립 준비가 안 되어 있음	기타	
	사례수	4.0	1.0	1.0	1.0	2.0	-
	표준편차	114.1	-	-	-	3.5	-
부산	평균	250.3	1.0	6.0	1.0	1.0	-
	사례수	6.0	1.0	2.0	1.0	1.0	-
	표준편차	279.6	-	0.0	-	-	-
서울	평균	263.5	2.0	4.7	3.0	3.3	2.5
	사례수	8.0	4.0	3.0	4.0	3.0	2.0
	표준편차	492.1	2.0	6.4	2.2	2.1	0.7
전남	평균	36.0	-	-	-	-	-
	사례수	2.0	-	-	-	-	-
	표준편차	43.8	-	-	-	-	-
전북	평균	13.0	-	-	-	-	-
	사례수	1.0	-	-	-	-	-
	표준편차	-	-	-	-	-	-
제주	평균	19.5	1.0	1.0	1.0	1.0	-
	사례수	2.0	1.0	1.0	1.0	1.0	-
	표준편차	9.2	-	-	-	-	-
충남	평균	76.7	7.5	-	2.0	3.0	-
	사례수	3.0	2.0	-	1.0	1.0	-
	표준편차	67.0	3.5	-	-	-	-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청소년 퇴소자 수

- 2019년 기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퇴소한 청소년 수는 전체 4,866명으로 조사됨 (쉼터 평균 47.71명)

<부록 표 18>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청소년 퇴소자 수 현황

(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수	쉼터 평균	쉼터 표준편차
무심의 퇴소자수	4,866	47.71	213.91

※ 응답 쉼터 수 102개

□ 의료 치료 건수

- 2019년 의료적 조치 건수에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은 정신과(쉼터 평균 19.3건)로 나타남
- 그 다음 순으로 내과(17.0건)로 나타남

<부록 표 19> 의료 지원 현황(행정지원시스템, 2019년 기준)

구분		내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전체	평균	10.3	17.0	1.4	1.6	3.9	6.1	0.6	0.8	5.1	8.1	0.1	0.1
	사례수	106.0	106.0	45.0	47.0	76.0	78.0	54.0	56.0	97.0	98.0	42.0	44.0
	표준편차	10.6	19.8	6.6	6.7	5.9	10.6	1.1	1.2	5.1	7.4	0.3	0.3
강원	평균	6.0	6.4	0.0	0.0	2.0	2.0	0.5	0.5	6.0	5.3	0.0	0.0
	사례수	4.0	5.0	1.0	1.0	2.0	3.0	2.0	2.0	3.0	4.0	1.0	1.0
	표준편차	7.4	6.3	-	-	1.4	1.0	0.7	0.7	6.2	5.3	-	-
경기	평균	16.9	24.5	0.4	0.7	5.6	11.0	0.8	0.8	6.7	9.5	0.2	0.2
	사례수	26.0	23.0	12.0	13.0	19.0	19.0	12.0	13.0	23.0	22.0	11.0	12.0
	표준편차	13.9	24.6	0.7	1.4	6.7	17.5	1.5	1.5	5.4	7.5	0.6	0.6
경남	평균	4.2	7.8	2.5	3.0	4.3	5.3	0.7	1.3	1.8	9.3	0.0	0.0
	사례수	5.0	5.0	2.0	2.0	3.0	3.0	3.0	3.0	4.0	4.0	2.0	2.0
	표준편차	2.9	6.3	3.5	4.2	5.9	5.5	0.6	1.2	1.0	10.9	0.0	0.0
경북	평균	11.2	16.2	0.0	0.0	5.0	5.3	0.0	0.0	4.0	6.3	0.0	0.0
	사례수	5.0	5.0	1.0	1.0	3.0	3.0	1.0	1.0	4.0	4.0	1.0	1.0
	표준편차	10.2	17.5	-	-	3.5	2.9	-	-	3.5	4.4	-	-
광주	평균	3.8	15.0	0.0	0.0	1.3	1.3	0.0	0.0	1.4	1.6	0.0	0.0
	사례수	5.0	5.0	2.0	2.0	3.0	3.0	2.0	2.0	5.0	5.0	2.0	2.0
	표준편차	2.5	21.3	0.0	0.0	2.3	2.3	0.0	0.0	1.5	1.5	0.0	0.0
대구	평균	6.3	19.4	-	-	4.7	14.0	1.0	1.0	2.3	9.0	-	-
	사례수	4.0	5.0	-	-	3.0	3.0	2.0	2.0	3.0	4.0	-	-
	표준편차	5.0	19.8	-	-	4.0	14.7	0.0	0.0	0.6	6.7	-	-
대전	평균	1.5	4.3	-	-	1.0	3.5	-	-	2.0	7.0	1.0	1.0
	사례수	4.0	4.0	-	-	2.0	2.0	-	-	4.0	3.0	1.0	1.0
	표준편차	0.6	2.4	-	-	0.0	2.1	-	-	1.2	6.6	-	-
부산	평균	6.4	7.4	1.7	4.3	0.4	0.4	0.3	0.3	4.0	11.3	0.0	0.0
	사례수	5.0	5.0	3.0	3.0	5.0	5.0	4.0	4.0	4.0	4.0	3.0	3.0
	표준편차	5.2	4.7	2.9	7.5	0.5	0.5	0.5	0.5	2.8	13.4	0.0	0.0

구분		내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서울	평균	9.0	20.6	0.2	0.2	1.4	3.0	0.6	0.7	4.6	8.0	0.0	0.0
	사례수	10.0	10.0	6.0	6.0	8.0	8.0	7.0	7.0	11.0	11.0	5.0	5.0
	표준편차	6.3	30.2	0.4	0.4	1.3	4.3	0.8	1.0	3.8	6.4	0.0	0.0
울산	평균	8.5	10.2	0.0	0.0	6.0	4.5	0.5	1.3	3.8	5.8	0.0	0.0
	사례수	4.0	5.0	1.0	2.0	3.0	4.0	2.0	3.0	4.0	5.0	1.0	2.0
	표준편차	7.1	6.5	-	0.0	9.5	8.3	0.7	2.3	2.5	3.3	-	0.0
인천	평균	13.8	22.9	0.2	0.2	4.0	4.8	0.7	0.9	8.4	11.0	0.0	0.0
	사례수	8.0	8.0	6.0	6.0	8.0	8.0	7.0	7.0	8.0	8.0	6.0	6.0
	표준편차	11.9	23.3	0.4	0.4	6.8	7.2	1.1	1.2	6.6	8.1	0.0	0.0
전남	평균	12.7	13.3	0.0	0.0	0.0	2.5	2.5	2.5	7.7	7.8	0.0	0.0
	사례수	3.0	4.0	1.0	1.0	1.0	2.0	2.0	2.0	3.0	4.0	1.0	1.0
	표준편차	4.7	5.5	-	-	-	3.5	3.5	3.5	5.8	8.3	-	-
전북	평균	7.0	20.2	0.0	0.0	1.5	4.0	0.3	0.7	3.2	10.8	0.0	0.0
	사례수	5.0	5.0	2.0	2.0	4.0	4.0	3.0	3.0	5.0	5.0	2.0	2.0
	표준편차	3.7	19.3	0.0	0.0	1.9	4.9	0.6	1.2	2.2	11.0	0.0	0.0
제주	평균	15.2	19.0	0.0	0.0	6.2	6.8	0.3	0.3	9.4	10.4	0.0	0.0
	사례수	5.0	5.0	3.0	3.0	5.0	5.0	4.0	4.0	5.0	5.0	3.0	3.0
	표준편차	19.1	17.1	0.0	0.0	11.7	11.6	0.5	0.5	11.5	11.1	0.0	0.0
충남	평균	7.9	13.7	22.5	23.0	6.7	8.5	-	-	4.2	4.8	-	-
	사례수	7.0	6.0	2.0	2.0	3.0	2.0	-	-	6.0	5.0	-	-
	표준편차	8.2	12.2	30.4	29.7	8.1	10.6	-	-	5.2	5.5	-	-
충북	평균	5.5	14.0	0.0	0.0	3.8	4.5	0.0	0.0	3.8	4.6	0.0	0.0
	사례수	6.0	6.0	3.0	3.0	4.0	4.0	3.0	3.0	5.0	5.0	3.0	3.0
	표준편차	4.8	23.6	0.0	0.0	5.7	5.7	0.0	0.0	3.3	4.0	0.0	0.0

구분		치과		정신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기타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전체	평균	4.9	8.3	9.6	19.3	0.1	0.2	3.7	5.2	4.3	5.7	17.8	44.8
	사례수	82.0	84.0	93.0	96.0	43.0	45.0	89.0	90.0	84.0	86.0	96.0	98.0
	표준편차	6.8	10.0	19.8	28.0	0.3	1.3	5.1	6.4	6.1	9.1	38.0	110.5
강원	평균	4.0	7.5	4.0	8.0	0.0	0.0	3.7	4.0	1.5	1.7	10.0	9.0
	사례수	1.0	2.0	3.0	4.0	1.0	1.0	3.0	4.0	2.0	3.0	3.0	4.0
	표준편차	-	4.9	2.6	5.0	-	-	2.3	2.0	0.7	0.6	15.6	12.9
경기	평균	7.6	11.9	21.7	30.2	0.2	0.8	5.3	5.9	7.6	7.7	40.0	65.4
	사례수	21.0	20.0	21.0	20.0	11.0	12.0	23.0	22.0	23.0	23.0	20.0	20.0
	표준편차	10.2	15.9	36.3	41.9	0.6	2.6	6.1	6.3	8.7	8.8	50.8	106.8
경남	평균	5.0	12.5	3.8	29.0	0.0	0.0	1.3	2.0	3.0	5.3	2.4	2.6
	사례수	2.0	2.0	4.0	4.0	2.0	2.0	4.0	4.0	4.0	4.0	5.0	5.0
	표준편차	7.1	17.7	2.9	31.9	0.0	0.0	1.0	1.4	2.9	5.7	2.8	3.2
경북	평균	6.3	11.7	6.3	7.5	0.0	0.0	2.5	3.5	4.5	4.5	8.8	10.2
	사례수	3.0	3.0	4.0	4.0	1.0	1.0	2.0	2.0	2.0	2.0	5.0	5.0
	표준편차	5.8	8.1	7.3	6.9	-	-	0.7	0.7	4.9	4.9	13.7	13.7
광주	평균	3.0	5.0	3.6	17.6	0.0	0.0	2.0	2.8	3.0	3.0	5.4	26.6
	사례수	5.0	5.0	5.0	5.0	2.0	2.0	5.0	5.0	4.0	4.0	5.0	5.0
	표준편차	3.5	4.7	3.8	14.9	0.0	0.0	2.3	2.6	5.4	5.4	4.3	32.7
대구	평균	1.3	8.0	2.3	23.4	-	-	2.3	5.5	2.0	2.5	13.7	45.3
	사례수	3.0	4.0	3.0	5.0	-	-	3.0	4.0	3.0	4.0	3.0	4.0
	표준편차	0.6	9.0	2.3	30.6	-	-	0.6	2.5	1.0	1.7	20.2	58.5
대전	평균	1.0	2.0	2.0	11.3	-	-	2.3	2.0	1.0	2.0	20.0	87.0
	사례수	2.0	1.0	4.0	4.0	-	-	3.0	2.0	2.0	2.0	3.0	2.0
	표준편차	0.0	-	0.8	7.8	-	-	1.5	1.4	0.0	1.4	28.6	110.3
부산	평균	4.0	9.0	2.0	2.8	0.0	0.0	2.0	3.0	2.5	2.5	69.0	256.0
	사례수	3.0	3.0	4.0	4.0	3.0	3.0	4.0	4.0	4.0	4.0	4.0	5.0
	표준편차	1.7	3.6	1.4	1.0	0.0	0.0	2.2	2.9	2.6	2.6	128.0	328.3
서울	평균	4.6	5.9	12.1	31.2	0.0	0.0	2.2	5.8	5.0	10.6	7.5	45.9
	사례수	9.0	9.0	10.0	10.0	5.0	5.0	11.0	11.0	11.0	11.0	13.0	11.0
	표준편차	7.8	8.1	16.3	42.6	0.0	0.0	1.8	8.9	8.0	19.9	13.5	125.8
울산	평균	6.3	13.2	6.3	12.8	0.0	0.0	2.8	6.6	2.5	8.3	3.0	4.8
	사례수	4.0	5.0	4.0	5.0	2.0	3.0	4.0	5.0	2.0	3.0	4.0	5.0

구분		치과		정신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기타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표준편차	8.5	12.5	9.3	15.6	0.0	0.0	1.9	6.1	2.1	10.2	2.7	4.7
인천	평균	5.3	7.6	11.5	19.8	0.0	0.0	7.5	9.6	3.3	4.7	5.5	8.4
	사례수	7.0	7.0	6.0	6.0	6.0	6.0	8.0	8.0	6.0	6.0	8.0	8.0
	표준편차	7.1	8.9	10.4	15.6	0.0	0.0	9.8	10.4	3.4	5.4	4.0	9.3
전남	평균	6.5	5.0	2.7	3.0	0.0	0.0	1.0	1.0	3.0	3.3	10.0	72.0
	사례수	2.0	3.0	3.0	4.0	1.0	1.0	3.0	3.0	3.0	3.0	3.0	4.0
	표준편차	6.4	5.3	2.1	1.8	-	-	0.0	0.0	1.0	1.2	6.9	124.1
전북	평균	2.6	9.0	2.0	12.3	0.0	0.0	2.0	3.8	2.3	3.8	6.8	13.4
	사례수	5.0	5.0	4.0	4.0	2.0	2.0	4.0	4.0	4.0	4.0	5.0	5.0
	표준편차	1.7	3.4	1.8	9.1	0.0	0.0	1.8	4.5	1.7	3.8	7.2	12.3
제주	평균	3.0	4.0	9.0	15.8	0.3	0.3	7.0	7.0	2.6	2.8	6.4	7.4
	사례수	5.0	5.0	5.0	5.0	4.0	4.0	3.0	3.0	5.0	5.0	5.0	5.0
	표준편차	2.6	3.4	15.2	17.6	0.5	0.5	11.3	11.3	3.7	3.7	8.4	8.6
충남	평균	2.6	3.8	7.4	18.8	-	-	4.4	6.8	2.2	3.5	20.8	25.4
	사례수	5.0	5.0	7.0	6.0	-	-	5.0	5.0	5.0	4.0	5.0	5.0
	표준편차	2.3	2.3	5.7	24.7	-	-	5.0	6.7	1.6	2.4	31.5	41.8
충북	평균	3.8	5.4	2.7	9.8	0.0	0.0	1.8	3.0	2.0	3.5	14.0	20.4
	사례수	5.0	5.0	6.0	6.0	3.0	3.0	4.0	4.0	4.0	4.0	5.0	5.0
	표준편차	3.3	5.3	2.9	13.7	0.0	0.0	2.4	4.8	0.8	3.1	9.1	17.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runaway youth and youth shelters in Korea.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youth shelter development plan and youth policy that meets the needs of youth.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helter institution, workers in the shelter, and youth living in the shelter to investigate the overall situation. In addition,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for adolescents and workers to investigate the runaway experience and the need for shelter. The result is as follows. Ten adolescents were interviewed over the phone and surveyed on life before runaway, life after runaway, and shelter life. For the interview of workers, 20 director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written inquiries.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to derive improvements in the discovery of youth cases,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case management, and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community connection. In the results of the youth survey, 517 adolescents participated,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 were runaway experiences, family and social support systems, economic activities and future career and employment, physical and mental health after runaway, and shelter life. The main survey contents were runaway experience, family and social support system, economic activities and future career and employment, physical and mental health after runaway, and shelter life. In the result of the survey for shelter workers, a total of 646 workers participated, and the composition and expertise of workers, workers'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were surveyed. In the survey on shelter institutions, a total of 129 shelt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status of facilities, youth management, and service contents were survey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 : youth shelter, runaway youth, status survey